여성주의

2003년
여름 세미나
PART I



▼ 1차(7월 10일)

- 「과학과 기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페미니즘과 기술』(주디 와츠먼)
- 「여성과 기술」, 『여성과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오조영란)

▼ 2차(7월 17일)

- 「생산기술」, 『페미니즘과 기술』(주디 와츠먼)
- 「재생산기술」, 『페미니즘과 기술』(주디 와츠먼)



▼ 3차(7월 24일)

- 제1부 페미니즘 억압이론,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 4차(7월 30일)

- 제2부 여성들 사이의 분리:막다른 곳으로,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1
과학과 기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마르크스는 1844년에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인류발전의 전반적인 수준은 남녀관계의 수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Marx, 1975, p. 347).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는 한 사회의 진보의 지표로 고려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수준이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의학은 진보를 상징하는 아이콘들이다. 즉 우리는 '감정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규정되는 것을 숭상한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환경파괴, 실업, 전쟁과 같은 지구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문제들의 원인인지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과학과 사회의 관계가 심각하고도 급박한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과학사와 과학철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발달은 비교적 최근의 노력의 결과이다. 비록 이 영역이 아직도 매우 소규모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역은 젠더(gender)와 기술에 관련된 주제보다는 이론적인 논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관심을 과학에서 기술로 돌렸을 때도 역시 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과 비슷한 경향의 주장을 전개해 나갔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젠더와 과학의 문제에 관한 몇몇 접근방식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젠더와 기술에 관한 문제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과학의 성 정치성

젠더와 과학에 관한 관심은 현대 여성해방운동과 전문직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활동중인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은 적어도 70년대 초반부터 젠더와 과학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위대한 여성과학자들의 일대기에 관한 연구들이 출판되었고 이 자료들은 여성들이 사실상 과학적 노력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해왔음을 입증함으로써 주류 과학사를 교정하는 데 유용하게 이바지해 왔다. 세이어(Sayre, 1975)의 로절린 프랭클린(Rosalind Franklin) 일대기와 켈러(Keller, 1983)의 바바라 매클린톡(Barbara McClintock) 일대기는 아마 이와 같은 노력의 가장 잘 알려진 예일 것이다. 역사상 여성의 업적을 복원시키는 일은 이제 광범위한 학문분과들에서 페미니스트 지식의 핵심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과학에서의 여성배제의 범위와 엄격성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페미니스트 연구는 점차 예외적인 여성들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과학 내 여성참여의 일반적인 유형을 고찰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여성들이 과학제도에 단지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된 방식과 과학직종 내에서의 여성의 현 지위에 관한 자료는 현재 적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과학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시키는 원인으로, 고용상의 성차별과 여학생들로 하여금 수학과 과학 공부를 기피하게 만드는 사회화와 교육방식이 지적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과학교육과 실험실 그리고 과학적 연구결과의 출판에서 여성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그 원인으로 우리 문화가 조장하고 있는 여성다움의 정체성과 행동의 구성과 특징을 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자들은 그 해결책으로 더 많은 여성을 과학에 진입시키는 것을 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이 문제를 교육과 취업 문제의 일환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학 그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과학은 숭고하고 열심히 추구할 만한 직업임을 전제하고서 여학생들도 정당한 기회와 격려가 주어진다면 전체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해서 기꺼이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부족한 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화 과정과 고용평등 정책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르게 된다.

하딩(Harding, 1986)을 포함하여 여러 페미니스트들이 그 동안 지적해 왔듯이,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여성들 자신에게

서 찾음으로 해서(여성의 사회화, 여성의 열망과 가치관), 과연 과학과 과학제도가 여성을 수용할 수 있게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더 광범위한 질문은 제기하지 않는다. 더구나 고용평등건의안(equal opportunity recommendations)은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의 '비젠더화' 과정을 지시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여성에게만 여성젠더 정체성의 주요 측면들을 남성적인 것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문과학자의 경력구조는 한마디로 여성에게 양육과 가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중단 없이 집중적으로 공부와 연구를 할 것을 요구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그러한 책무를 피해 왔던 남성을 자신의 모델로 삼아야 했다. 고용평등의 전략은 다름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노동분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밖에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과학을 필연적으로 남성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문화적 정형(定形) 역시 과학 내에 소수의 여성만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만약 과학이 남성에게 어울리는 활동으로 간주되면,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과학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과 행동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점은 그리 놀랄 것이 못 된다.

처음에 페미니스트들이 과학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을 때, 그들은 문제는 남성들이 과학을 이용하거나 오용하는 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역할을 편들어주는 강력한 도구로 생물학이 이용되어 온 방식을 강조했다. 여성의 본성은 다르고 열등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성은 과학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없다는 견해를 진작시키는 데 생물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가령 시각-공간 기술에서의 성차이(sex differences)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이 과학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보는 것이 한 예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생물학적 결정론자들과 맞서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성차이의 연구가 과학적 조사의 가장 우선되는 주제가 되어왔는지를 질문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연구 그리고 사실상 서구과학 전반이 지속적으로 남성적인 편견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무엇을 과학적인 문제로 고려하느냐 하는 개념정의에서뿐 아니라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남성적인 편견이 제거될 때까지 진정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아래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현존하는 과학연구의 방법론적 규범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게 되며, 오직 '나쁜 과학'(bad science, 연구자의 가치관이 반영된 과학. 나쁜 과학만 제거되면 과학의 본령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좋은 과학good science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옮긴이)만을 문제로 인식할 뿐 일상과학(science-as-usual,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을 떠나서 모든 과학연구의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고 보는 것—옮긴이)은 문제삼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급진적 정치운동들 역시 과학의 이용과 오용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오용되고 군사화되고 공해를 일으키는 과학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면서, 과학이 이윤과 전쟁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초기에는 과학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한, 과학 자체

는 공평하거나 가치 중립적이고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급진적 과학운동은 과학의 계급성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발전시키면서 과학이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 다시 되살아난 과학의 정치경제학은 현대과학의 발전과 본질이 자본주의 사회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국가와 산업에 구속되면서 과학은 지배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중립적 과학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역사 발전단계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다. 과학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가장 특징적으로 공식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과학은 사회관계이다"라는 말이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구분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회 전반의 지배적인 사회관계들이 과학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과학사 · 과학철학 · 과학사회학 영역에서도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과학이 더 이상 단순히 사실(reality)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견해에 무게를 더해 주었다. 토머스 쿤(T.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1970)는 이후 과학지식사회학으로 알려지게 되는 새로운 핵심 연구영역의 등장이 시작되었음을 명시하는 것이었다.[1] 이 책의 중심 전제는 다른 모든 형태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지식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 지식이 실행되는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과학자들이 실제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상황이 고찰되었으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이 지식을 결정짓는 방식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광범위한 사회로부터 이미지와 모델을 끌어내는

많은 과학이론의 예들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이 각기 다른 과학적 이론의 진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실험과 관찰에 의해 확립된바, '사실'로 간주되는 것도 사회적인 것이다. 각기 다른 과학자집단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철저히 다른 '사실들'을 생산해 내었다. 그러므로 과학과 그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사회적 과정들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 현대적 연구들은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70년대의 과학비판을 통해 이루어진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젠더문제를 의식한 설명은 드물었다. 자연과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역사학적 차원과 사회학적 차원 모두에서 젠더와 과학의 관계에 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였다. 비슷한 방식으로, 급진적 과학운동 역시 과학과 가부장제의 관계를 무시하고 과학의 자본주의적 성격에만 거의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요컨대 과학에 관한 이상의 두 가지 설명방식에서 젠더는 분석도구로 간주되지 않았다.

80년대에 들어서야 캐럴린 머천트(Merchant, 1980), 엘리자베스 피(Fee, 1981), 에블린 F. 켈러(Keller, 1985), 브라이언 이슬리아(Easlea, 1981), 낸시 하트삭(Hartsock, 1983), 힐러리 로즈(Rose, 1983) 그리고 루드밀라 조르다노바(Jordanova, 1980) 같은 저자들에 의해 서구과학은 근본적으로 가부장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2] 샌드라 하딩이 표현하고 있듯이, 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은 과학 안에서의 '여성문제'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페미니즘 안에서 좀더 급진적인 '과학문제'를 질문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이들

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과학 안에서, 과학에 의해 좀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너무도 철저히 남성적인 과제들에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과학을 해방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질문한다(Harding, 1986, p. 29). 그러므로 이제 과학 자체에 대한 핵심적인 페미니스트 비판에 대해 고찰할 차례가 되었다.

가부장적 지식으로서의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의 성별분석에 대한 관심은 7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되었던 여성건강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출산능력—에 대한 지식과 통제력을 되찾는 것은 여성해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성들이 좀더 개선된 피임방법과 낙태의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한 운동은 제2차 여성해방운동의 초반기에 핵심적인 사안을 이루었다. 이 시기 남성들의 의료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여성들의 각성이 점차 증대하였다. 미국사례에 관한 연구 『마녀들, 산파들 그리고 간호사들: 여성 치유자들의 역사』(Ehrenreich and English, 1976)는 여성의 건강과 치유능력을 희생한 대가로써 이루어진 남성 전문성의 성장과 강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남성지배 의학의 성장과 전문화가 여성 건강종사자들을 어떻게 주변화시켜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정신병학(psychiatry)에 대한 비판과 여성들의 우울증을 병리적인 것으로 보고 치료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어째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정신질환의 사례가 더 높이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정신 건강과 질환에 대한 의학적 정의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편견을 폭로했다. 이러한 분석들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여성은 자신의 경험과 필요에 의지하여 새로운 종류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다. 급진적 과학운동의 통찰력이 바로 이 같은 견해, 즉 의학은 가부장제 가치들의 저장소라는 견해를 제공하였다.

만약 의학적 지식이 가부장적인 것이라면, 과학의 나머지 다른 분야도 그렇지 않을까? 머린 맥널이 지적하고 있듯이, 의학적 지식에 대한 비판은 곧 과학적 지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McNeil ed., 1987).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16세기와 17세기에 이루어진 과학혁명을 재조사하면서, 그 당시 출현한 과학은 근본적으로 이성과 객관주의라는 남성적 기획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과학적 사고, 나아가 서양철학 전반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개념적 이분법은 명백하게 남성적인 특징을 지녔다고 말한다. 문화 대 자연, 마음 대 몸, 이성 대 감정, 객관주의 대 주관주의, 공적 영역 대 사적 영역 등 각각의 이분법에서 전자는 후자를 지배해야 하고 그리고 각 이분법에서 후자는 체계적으로 여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념적 이분법이 그 자체로 명백하게 남성적인 것인지 혹은 서양철학 전통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인지 하는 이 같은 일반적인 주제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나의 관심은, 앞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분법적인 젠더 비유(metaphor)들이 가치중립성을 표방하는 과학적 사고 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의미들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방식에 있다.

자연은 여성으로 비유되고 여성은 자연으로 비유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확대되어 왔다. 예컨대 과학교재들에 대한 조사는 특정 역사적 시점에서 남성이 여성을 다루었던 방식과 남성이 자연을 사용했던 방식 사이에 일치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몇몇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은 프랜시스 베이컨 경과 다른 근대과학의 아버지들의 저술에 나타나는 강간과 고문의 비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머천트는 15세기부터 17세기경의 유럽에서 자연과 과학적 탐구는 둘 다 남성이 여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방식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이 모델은 그 이후의 과학적 세계관 내에 명백한 젠더 상징주의가 자리잡게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Merchant, 1980).

18세기와 19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생의학(biomedical science) 역시 자연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비슷한 방식의 젠더 상징주의를 전개시켰다. "…과학과 의학 활동은 자연을 남성과학에 의해 드러내고 벗기고 관통되어야 할 여성으로 지명하는 데서 분명히 표현된 것처럼 성적 비유와 관련되어 있었다."(Jordanova, 1980, p. 45) 해부학적으로 남성은 능동적인 행위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여성은 남성행위의 수동적 대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조르다노바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즉 생의학은 자연을 수동적이고 대상화된 여성성, 그리고 문화를 능동적이고 대상화시키는 남성성과 결합시키는 문화적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자연과 과학적 탐구에 대한 이같이 놀라울 정도로 성별화된 묘사는 단지 역사적 유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이분법과 비유를 과학에 관한 오늘날의 저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딩이 질문하고 있듯이, 여성들이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게 뭐 있겠는가?

한편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자연영역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여성과 자연의 일치를 찬양한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것이 80년대의 에코페미니즘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지구를 해방시켜야 하고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이 자연과 좀더 잘 조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생태운동과 평화운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특별한 유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수전 그리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대부분의 남성들보다 자연으로부터 대개는 덜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Griffin, 1983, p. 1) 모성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성의 생물학적 능력은 생명을 지속시켜야 할 여성의 책임에서 생겨난 타고난 이타심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되었다. 양육과 돌봄의 본능은 이 같은 책임을 충족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남성은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쟁과 생태적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새로운 페미니스트 과학은 여성적 직감과 주체성을 포용하려 하였고 자연자원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종식시키려고 하였다. 이 관점은 가부장적 과학을 거부하고 그 대신 여성적 가치를 미덕으로 찬양하며 여성의 몸, 여성의 문화와 자연질서의 밀접한 관계를 지지한다.

에코페미니즘이 여성의 가치를 생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면, 여성과 과학에 관한 또 다른 접근은 정신분석학에 의해 구

체화되었다. 대상관계이론 학파가 특히 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개념화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 이론은 성인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모형이 되고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 기제를 설명한다. 소년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전에 어머니에게 향했던 의존과 애착과 동일시를 거부하고 부정해야만 한다. 그 결과, 남성성에 대하여 남성이 내면적으로 겪는 충돌은 남성지배의 심리를 창조한다.

이 이론을 이용하여 켈러는 소녀와 소년들이 각기 다른 지각능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남성은 자신과 어머니를 구분함에 따라, 주체와 대상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날카롭게 분리시키는 것도 배운다. 켈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분리와 지배에 사로잡혀 있는 남성들의 의식구조가 현대과학의 규범과 방법인 것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켈러는 영향력 있는 자신의 저서인 바바라 매클린톡에 대한 일대기를 통해 급진적인 다른과학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Keller, 1983). 생의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전학자 매클린톡은 주체와 대상을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느낌' 안에서 통합시켰으며 자신의 작업 안에 자연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경외감이 스며들게 한 과학자로 묘사되고 있다. 켈러에 따르면, 매클린톡의 작업은 우리에게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을 합침으로써 이루어진 "젠더-중립적인(gender-free) 과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일별"을 제공해 준다. 켈러의 연구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성 중심적인 과학을 찬양하기보다 양성성의 개인들이 생산해 낸 젠더-중립적인 과학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6]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몇몇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과학이 가치 중

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없음을 단호하게 주장하면서, 과학으로부터 여성 중심적 가치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여성 중심적 가치를 개인의 심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 역사적으로 구성된 성별 노동분업에서 찾는다. 이들은 18세기 전반에 걸쳐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영역이 점차 분리되어 감에 따라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갇히게 되었던 방식을 추적한다. 논리적 사고와 객관주의 같은 능력은 공적인 삶과 결합되었고, 감정과 주관주의 같은 능력은 사적인 삶과 결합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은 각각의 독특한 여성적 세계관과 남성적 세계관의 발달과 역사적으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잘 알려진 글에서, 로즈는 자신을 급진과학의 전통 안에 자리매김하면서 부르주아 과학을 소외되고 추상적인 지식형태라고 규정짓는 마르크스주의 설명방식을 지지한다(Rose, 1983).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식의 소외되고 추상적인 지식형태가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에서 필수적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로즈는 이 같은 급진과학의 전통과 대립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급진과학은 성별 노동분업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급진과학의 비판이 생산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재생산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경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오히려 과학 자체를 빈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과학은 오직 여성들에게만 부과되어 왔었고 감정적인 요구가 큰 노동인, 여성들의 돌봄의 경험이 과학에 투입되는 것을 거절해 왔다. 로즈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과학은 이 감정적인 영역을 포함해야 하고 그것에 의하여 세상을 파악하는 주관적인 방식과 객관적인 방식을 융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페미니스트 과학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억압의 경험"에 근거했기 때문에 좀더 완벽하고 진실한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로즈는 "손, 머리 그리고 가슴"을 재통합시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과학의 출현을 촉진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애(humanity)와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여성적 가치에 근거한 과학?

과학에 대한 이 같은 논쟁은 지난 20여 년 동안 페미니스트들이 몰두했던 좀더 보편적인 주제를 반영한다. 제2차 여성해방운동의 초기에 페미니즘은 과학과 같은 기존의 권력구조 안에 여성의 더 많은 편입을 요구하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평등은 젠더 정형화를 해체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더 다양한 역할모델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고용평등 프로그램과 차별금지법안을 도입함으로써 평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의 페미니스트 저술들은 젠더 정형화와 사회관습적 기대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성차이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첫번째 접근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 불리는데, 과학을 (젠더)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경험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차별주의와 남성중심주의는 사회적 편견으로 간주되었고 과학자가 과학적 탐구를 할 때 기존의 방법론적 규범을 좀더 엄격히 지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는 이 접근

방법의 한계는 과학지식사회학에 의해서,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던바 경험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급진적 페미니즘 혹은 미국에서 문화페미니즘으로 알려져 있는 조류는 여성성 그 자체를 찬미하였다. 이 작가들은 젠더 차이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여성적인 특징들, 예컨대 여성들이 보여준 더 큰 인간주의, 평화주의, 양육과 정신의 발달을 찬양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별히 여성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사상을 폐기하였으며, 그 대신 뿌리깊은 성차이가 있다는 개념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자연적 혹은 심리적 젠더 차이에 대한 강조로의 귀환은 과학에 관한 많은 페미니스트 사상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적 가치를 인간경험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진작시키고 이 가치를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과학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이 접점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적 가치에 근거한 과학을 주장하는 것이 지니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본질주의는 혹은 고정되고 단일하고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본성에 대한 주장은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비판받아 왔다.[9] 본질주의에 대해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여성에게 귀속된 가치들이 사실상 여성의 역사적 종속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불변의 본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성은 출산, 양육, 따듯함, 창의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믿음은 여자다움(woman-

hood)에 대한 전통적이고 억압적인 개념들의 바로 한가운데 놓여 있다. "여성들은 양육과 따듯함과 안전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혹은 여성인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회의 의미체계들, 문화적 · 사회적 관계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관계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Segal, 1987, p. 34) 어떻게 여성이 양육을 존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양육이 모성애와 결합하여 남성지배의 문화 안에서 여성스러운 것으로 문화적 규정을 받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여성성의 어떤 내적 본질을 비역사적 범주로 주장하기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 그리고 사실상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방식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자연'이라는 인식 자체가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자연스럽다'는 개념은 인간역사를 통해 급진적으로 변해 왔다. 마릴린 스트래턴(M. Strathern) 등과 같은 인류학자들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실 서구사상에서 자연이나 문화가 한 가지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분법이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서로 대조를 이루는 행렬들이 있을 뿐이다."(Strathern, 1980, p. 177) 이들 페미니스트 인류학자들은 어떤 사회에서나 남성성은 문화와 결합되고 여성성은 자연과 결합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졌다. 더욱이 이들은 남성성이나 여성성과 보편적으로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결합되어 있는 행위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여성적인 것으로 혹은 젠더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이들은 비록 자연/문화의 이분법이 존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서구적 개념의 '자연'과 '문화'를 가지고 타문화가 인식하는 범주를 제대로 혹은 합리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거론된 머천트와 조르다노바의 역사연구 역시 이 젠더 비유들이 역사적 특수성을 띤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하딩이 말하고 있듯이,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효과는 서구문화 내에서 남성성이나 여성성과 결합된 특별히 이분법적인 일군의 사회적 행동과 의미들이 사실상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Harding, 1986, p. 129).

우리가 아프리카인들이나 원주민들 문화 같은 타문화를 보게 되면, 지배적인 유럽문화와는 전혀 다른 자연개념을 만나게 된다. 그들의 세계관은 인류와 살아 있는 자연세계 사이에 좀더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여성적인 세계관으로 주장된 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세계관이다. 또한 아프리카인들과 원주민들의 세계관이 유럽인들의 세계관이라고 지목하는 것을 보면,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적인 세계관이라고 지목한 것과 유사하다. 더욱이 유럽철학 전통 안에서도 스스로 이러한 가치들을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다. 칼 만하임은 사유양식으로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선호하고, 통합적이고 유기체적 조화를 지지하는 것을 반(反)원자적 사유체계라고 보고 낭만적-보수주의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Mannheim, 1953).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보듯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반드시 젠더에만 특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앞에서 제시되었던바, 페미니스트 과학의 기획들

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단 '자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계속 변화하는 문화범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자연에 뿌리를 둔 여성적 직감을 과학의 근거로 삼는 것은 더 이상 이치에 닿지 않음이 분명하다. 켈러와 로즈, 하트삭과 같은 연구자들 역시, 비록 급진적 페미니스트 본질주의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명백히 분리시키고 있지만 여성적 가치를 포함하는 과학을 요구하고 있다. 하딩은 이러한 연구자들을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인식론'이라는 명칭 아래 범주화시킨다.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사회생활에서 남성은 그 지배적인 위치 때문에 부분적이고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비해 여성은 종속적 위치로 인해 좀더 완전에 가깝고 덜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Harding, 1986, p. 26).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입장론에 근거한 과학비판들은 특유의 페미니스트 과학을 보편적인 여성경험의 특징들 안에 위치시킨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 모두는 여전히 생물학주의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처럼, 입장론자들 역시 주관주의 · 직감 · 유기체주의 · 조화에 근거한 과학형태들을 지지한다. 특히 로즈와 하트삭은 성별 노동분업에 근거하여 유물론적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연'이 확정된 범주가 아니며 노동분업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여성의 주관주의나 돌봄, 유기체주의, 조화는 여성경험의 보편적인 측면들이 될 수 없다. 입장론자들은 여성의 돌봄의 노동과 이른바 과학이 포함시켜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고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없다.

입장론의 접근방법의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해체주의 관점에서의 페미니스트 과학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하딩은 여성들의 경험은 계급과 인종,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찬양해 온 여성성의 특징은 모든 여성들의 사회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경고했다. 만약에 새로운 페미니스트 과학이 여성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창조되는 것이라면, "흑인 · 아시아 · 미국원주민 · 노동계급 · 레즈비언 여성들"의 경험 모두에 근거한 페미니스트 과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하딩은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실마리를 얻어서,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인식론이 지닌 문제점은 그들이 과학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특권적 입장이 있다고 전제하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경험론과 입장론의 접근방식이 그를 기반으로 해서 호소할 수 있는 사회경험을 가진 그런 보편적인 '여성'은 없다. 오히려 그보다는 '파손된 정체성들을 지닌 여성들'만 있을 뿐이다. 나는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의 접근방식이 개인들 간 그리고 각 개인 안의 차이들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또한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단일하게 개념화하는 것과 파편화하여 개념화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들간 그리고 남성들간에도 계급적 · 인종적 ·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성차이가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정치적으로 무관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Harding, 1986, p. 18). 현실적으로 모든 문화 안에서, 성차이는 사회조직과 개인 정체성의 기본을 이룬다. 남성성과 결합되어 있는 특성들은 거의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성과 결합되어 있는 특성들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

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위력적인 제도로부터 주변화되어 왔으며, 특히 과학제도들로부터 주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종속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종속은 특별하고도 다양한 형태들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집단의 여성은 각기 다른 필요와 관심을 지니고 있다.

맥닐은 합리성과 직감은 모두 역사적으로 특정 시기의 사회적 산물이며 우리는 합리성과 직감을 재규정하는 사회적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McNeil ed., 1987), 나는 이 견해에 동의한다. 맥닐의 글은 페미니스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학적 합리성과 여성적 직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의사(擬似) 딜레마라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6] 나아가 남성권력의 토대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산물이 아니며, 남성이 여성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사회적 실천의 산물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은 사회관계들의 매개물이다. 우리는 인식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현사회 과학기관의 근본적인 성격과 과학이 특정 사회집단에 부여하는 정치적 권력의 형태들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옳은 페미니스트 인식론을 찾아헤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정교한 것이라 하더라도(하딩의 작업이 그 한 예가 되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인지 모른다. 과학에 관한 페미니스트 작업이 더 철학적인 지향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작업은 사회적 실천과 유리된 인식을 다루는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는다. 실제로 앞의 연구자들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듯이, '진정한 과학적 방법론'(The Scientific Method)에 대한 진술들은 인식대상과 세계관에서 전형적으로 남성의 시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실천은 결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진술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진술은 과학자가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정치적 선언이나 정당화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진술은 사회 전체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할 때 혹은 과학의 경쟁자에 대항해서 좀더 과학적인 전문성이나 분야를 지지할 때 적합하다(Richards and Schuster, 1989).[7]

바로 이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특별히 페미니스트과학 방법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을 이해해야 한다. 즉 이러한 시도들은, 그것이 단순히 과학영역에 여성이 어느 정도 충원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과학지식의 내용에 대해 페미니스트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 내부의 권력관계가 철저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미니스트'과학 방법론이 과학적 실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과학이라고 전시된 것이 사실상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전과 다를 바 없는 과학적 실천에 불과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기술로

지난 10년 동안 과학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어 왔지만, 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대단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논쟁은 '기술의 치열함'(white heat of tech-

nology)이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형시키고 우리를 후기산업사회로 인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집중되었다. 한편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관심사는 새로운 기술이 여성의 삶, 특히 여성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래서 사무실 내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은 아주 초기 페미니스트 연구의 초점을 이루었다. 가사노동 역시 부불(不拂)노동이지만,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 내에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사기술이 가사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진전되었다. 컴퓨터부품 제조업에서 제3세계 여성들을 저임노동력의 원천으로 착취하는 것 또한 면밀하게 조사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재생산기술의 발달과 이것이 출산에 대한 여성 자신의 통제력에 함의하는 바를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이 모든 토론에 걸쳐 기술이 원하지 않는 출산과 가사노동으로부터, 그리고 판에 박은 임금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견해와 대부분의 신기술은 여성에게 파괴적이고 억압적이라는 이면의 견해 사이에 긴장이 있어왔다. 예컨대 70년대 초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은 출산기술의 발달이 여성에게서 생물학적 모성애의 짐을 제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성해방의 열쇠가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Firestone, 1970). 오늘날에 와서는 새로운 기술이 함의하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순적이게도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재생산 신기술들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 과연 기술의 부정적인 면이, 남성이 기술을 장악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술은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는 점이다. 만약 여성이

지배집단이라면 여성은 기술을 좀더 온화한 목적에 사용할까? 젠더와 기술에 관한 앞으로의 토론에서 나는 이 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탐구하려고 한다.

기술에 관한 페미니스트 논평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 초반에 겪는 어려움은 그 논평들이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한다. 과학에 관한 페미니스트 저술은 대개 과학을 순수하게 지식의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가설을 기술에 관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저술들도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과학이 지식뿐 아니라 실천과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 역시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니, 기술은 제품의 창조에 관한 것이므로 기술의 경우에 이것은 더 분명한 사실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술의 젠더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과학연구를 통해 발달된 이론과는 다른 이론적 접근이 필요해진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지식사회학이 과학과 기술을 당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마 기술과 과학의 이 같은 융합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못 될 것이다. 존 스터든마이어는, 그 동안 과학과 기술의 관계들은 과학기술연구(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의 중심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념 정의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토론은 정체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Staudenmaier, 1985, pp. 83~120). 유일하게 떠오른 합의점은 기술과 과학의 경계가 정해지는 방식 그리고 기술과 과학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이 역사적 시기의 이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과학과 기술의 관계설정 형태에 대해 새로

운 경향의 의식이 전개되었다.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던 과학-기술관계의 모델은 기술을 응용과학으로 취급하는 전통적인 위계적 모델이었다. 발견은 과학이 하고 기술은 이 지식을 판에 박은 비창의적인 방식으로 응용한다는 이 견해는 이제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대의 어떤 기술혁신 연구든 그 연구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기술과학자(technologist)들은 결코 자연과학 문화를 응용하지도 따라서 그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을 소유하고서 그로부터 자신들의 기술혁신 활동의 주요한 기반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Barnes and Edge eds., 1982, p. 149) 기술과학자들은 현재의 기술을 세우고 변형하고 확장시켜 나가지만, 그들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과학자들이 전수받는 문화의 그 어떤 부분도 비언어적이거니와 그 문화는 기록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별 행위자에게 실제적인 지식과 능력을 전수하는 것은 또 다른 개별 행위자이다. 한마디로, 최근의 과학-기술관계 모델은 과학과 기술을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각기 별개의 하위문화로 묘사하고 있다.

기술과 과학의 관계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는 낱말이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층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첫째, '기술'은 스터든마이어가 강조하듯이 지식의 한 형식이다.[6] 기술적 '제품들'(things)은 그것들을 사용하고 수리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실제적인 지식'을 모르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지식'은 대개 말로써 파악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말이나 수학공식이기보다는 시각적이고 심지어 촉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양한 공학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을 지식의 한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만족할 연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기술'은 또한 사람들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도 뜻한다. 자동차나 진공청소기 같은 제품이 재료가 우연히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기술인 것은 그 제품이 일련의 인간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머가 없는 컴퓨터는 한갓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금속과 플라스틱, 실리콘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강작업'은 말하자면 하나의 기술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에는 곧 강철공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용광로뿐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은 인간 활동과 실천을 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층위로서 기술에 대한 '본체로서의'(hardware) 정의가 있다. 여기서 기술은 일련의 제품들, 예를 들어 자동차, 선반, 진공청소기, 컴퓨터 같은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이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유익하지 않다. 나의 목적은 이 개념정의를 개선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에 대한 이런 상이한 층위의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젠더와 기술에 관한 이론적 문헌들을 고찰하게 될 텐데, 많은 경우 이 문헌들은 앞에서 개괄적으로 정리한 과학논쟁들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 과학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드러

났던 페미니스트 관점에 비해 이론적으로 훨씬 덜 발달되어 있다. 다름아니라 젠더와 기술 영역에서 출판된 책들이 대개 여러 글을 편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9] 대부분의 편집된 책이 그렇듯이, 수록된 글들은 하나의 일관된 접근방식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대상영역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헌들을 통해서 논쟁에서 나타난 일관된 입장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문헌들로부터 여러 논쟁점들을 끌어내고자 한다.

감춰진 역사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기술연구 영역에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성과 기술에 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했다. 심지어 기술과 문화,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가장 통찰력 있고 인문주의적인 작업들에서도 젠더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기술사에는 여성들이 한 기여가 대부분 빠져 있었다. 기술사 영역에서 대표적인 저널인 『기술과 문화』(*Technology and Culture*)에 기고한 글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안 로스차일드는 조사를 통해 지난 24년 동안 이 저널에 실린 글들 가운데 여성을 주제로 한 글은 네 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Rothschild ed., 1983, pp. xii-xiv). 이 저널에 대한 좀더 최근의 책에서, 스터든마이어 역시 저널이 남성 연구자들에 대해 극도의 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누락되어 있다고 쓰고 있다(Staudenmaier, 1985, p. 180). 기술사

는 남성을 전형적인 발명자로 재현시킨다. 그러므로 과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들의 초기 작업은 기술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로부터 감춰진 여성들을 발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산업혁명 기간에 여성들이 다음과 같이 중요한 기계들, 예를 들어 조면기(목화씨를 빼고 솜을 타는 기계—옮긴이)나 재봉틀, 소형 전자모터, 매코믹 수확기, 자카드 직기(Stanley, 출판예정)와 같은 기계를 발명했거나 그 발명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현재 있다. 이런 종류의 역사연구는 대개 공인된 자료에 크게 의존하여 여성들이 만든 잊혀진 발명품들을 복원시킨다. 그러나 기록에서는 여성들이 만든 많은 발명품들이 그들 남편이 만든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공인된 특허기록은 그들 남편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여성 발명가들은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당시의 상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Pursell, 1981: Amram, 1984: Griffiths, 1985). 재미있는 것은, 특허기록에서 여성 발명가들을 복원시킨다 하더라도 기술발달에 여성이 기여한 면은 여전히 심각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허권의 역할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크리스틴 맥로드는 1700년까지 특허권은 실제 발명을 한 발명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 후원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MacLeod, 1987).[10]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특허기록에서 여성의 이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았다. 산업혁명기에 발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자금이 필요했다. 영국의 경우

1882년에 이르러서 기혼여성의 재산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시기 이후에야 영국 여성들은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남편과 독립적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도트 그리피스는 여성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명-사업의 세계에 사실상 여성의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생겨났다고 주장한다(Griffiths, 1985). 이와 동시에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특히 수학과 역학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두 가지는 이 시기 대부분의 발명과 혁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었다. 사업활동이 확장되고 가정 밖으로 뻗어나감에 따라, 중산층 여성들은 더욱더 강요된 여가의 삶을 살아야 했다. 곧 이어 실시된 여학생을 위한 교육은 발명-사업 세계에 참여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자수와 음악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최근에는 아다 레이디 러브레이스(A. L. Lovelace)나 그레이스 호퍼(G. Hopper) 등과 같은 여성들이 컴퓨터 발달에 기여한 공적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최근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를 입증해 줄 충분한 증거가 있다.[11]

그러나 기술발달에 여성들이 기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급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너무나 쉽게 기술을 남성활동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내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술 개념은 그 자체가 역사적 변화를 겪으며 또한 각 시대와 문화마다 우리가 현재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서로 다른 명칭을 가졌다. 여성의 활동을 크게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여성, 특히 흑인여성들이 최초의 기술과학자들에 속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결국 여성은 인류의 초기부터 식물성 음식을 채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주 담당자였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 포함되는 도구와 방법, 예컨대 땅을 파는 막대기, 운반하는 멜빵, 수확용 칼과 낫, 절구와 절구공이들은 다름아니라 여성들이 발명했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스탠리는 초기 수렵채취시대와 농경시대의 쟁이와 표면을 긁는 쟁기, 삽과 초기의 관개용수가 여성들의 업적이었음을 보여준다(Stanley, 출간예정).

대부분의 기술연구에서 남성의 편견만 없었다면, 이 발명품들의 중요성은 인정받았을 것이다. 루스 슈워츠 코완(R. S. Cowan)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정통 기술사들의 지표는 … 예를 들어 우유병 같은 중요한 문화적 제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여기 단순한 기구가 하나 있다 … 그것은 수많은 아기와 엄마들에게 근본적인 인간경험을 변형시킨 기구이며, 저개발 국가에 수출하여 더 많은 물의를 일으킨 서구기술의 기구들 가운데 하나이다—그러나 우리의 기술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Cowan, 1979, p. 52)

여성 발명가들을 발굴해 내는 일뿐만 아니라, 그 동안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여성영역'의 기술들의 발전과정과 기원을 밝혀내는 일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여성의 가치에 근거한 기술?

8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은 기술 자체의 성별 분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여성은 중립적인 기술에 의해 그리고 그 안에서 좀더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던지기보다 오히려 서구기술 그 자체가 가부장제적 가치를 체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과학에 관한 페미니스트 비판이 과학 안에서의 '여성문제'를 제기하던 것에서 좀더 급진적으로 페미니즘 안에서의 '과학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나갔던 것과 유사하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은 여성과 자연을 지배하고 관리하려는 남성적 기획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가치에 근거한 과학을 주장했듯이, 또한 여성의 가치에 근거한 기술을 요구해 왔다. 로스차일드는 기술에 관한 페미니스트 시각의 글들을 편집한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분석은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어떻게 과학과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다."(Rothschild, 1983) 흥미롭게도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사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중요한 남성 저자인, 루이스 멈퍼드(L. Mumford)를 인용하고 있다. 멈퍼드는 주관적인 충동과 생명을 낳게 하는 힘들과 여성의 원리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문화와 기술발달에 있어 좀더 전체론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페미니스트 분석과 일치한다.

여성의 가치에 근거한 기술을 옹호한 남성 연구자들은 또 있다. 마이크 쿨리(M. Cooley)는 현재와 같은 기술체계들의 디자인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인간 중심적인 기술이라는 사고를 대중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건축가인가 벌인가?』(*Architect or Bee?*)에서, 그는 기술변화는 그 안에 '남성가치들'을 설립해 놓았다고 주장한다. "백인남성 전사(戰士)의 가치들은 약자를 제거하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수많은 남성들을 지배하는 그 힘과 속도 때문에 찬탄을 받아왔다. … 기술변화는 이른바 직감, 주관주의, 인내 그리고 동정심과 같은 여성가치들이 결핍되어 있다."(Cooley, 1980, p. 43) 쿨리는 이미 짜여져 있는 남성가치에 도전하고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이 과학과 기술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것을 더 높이 사고, 암묵적인 것보다 논리적인 것을 더 높이 사고,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디지털 방식을 더 높이 사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기술문화』(*The Culture of Technology*)에서 아놀드 페이시(A. Pacey)는 한 단원 전부를 '여성과 광범위한 가치들'이라는 주제에 할애하고 있다. 그는 기술실천에 관련되는 세 가지의 서로 대비되는 일련의 가치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정교함을 강조하는 가치들, 둘째 경제적 가치들 그리고 셋째 소비자 혹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심의 가치들이 그것이다. 페이시에 따르면, 여성은 이 세 번째 가치, 즉 '책임을 지려는' 경향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성이 자연을 정복하고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과 달리 여성은 자연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남성 연구자들의 접근방법은 어떤 점에서 8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에게 인기 있었던 에코페미니즘과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 생태학과 페미니즘의 이 같은 결합은 '여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여성의 원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에 더 가깝다는 것, 그리고 남성이 창조한 기술은 그들이 여성을 지배하려고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연을 지배하려는 것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이다. 에코페미

니스트들은 군사기술과 그외의 현대기술들의 생태학적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기술들은 "어떤 수준에서도 폭력을 나타내는" 가부장제 문화의 산물이다(Rothschild, 1983, 126). 페미니스트들이 전개한 반군사주의 운동의 초기 구호는 "남자아이들로부터 장난감을 빼앗아라"였는데, 이들은 미사일 모양에서 남근 상징주의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추론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여성을 본래적으로 생명을 키우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재현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는 이 입장이 지닌 문제점들을 앞에서 여성의 본질적인 가치들에 근거한 과학과 관련해서 이미 정리한 바 있다. 우리는 여성이 어떻게 이러한 가치들과 결합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답은 일반적으로 남녀의 전통적인 노동분업이 여성을 주로 가정과 가족이라는 사적 세계와 관련된 좁은 범위의 경험만 하게 제한시킨 방식들을 점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이 지니는 강점은, 여성의 가치에 근거한 기술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정과 기술숙련의 획득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점을 문제삼는 것 이상을 다루고 있다는 데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공학(engineering) 내 여학생 비율의 불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태도라든가 여학생 교육 그리고 기업의 고용정책 같은 모든 종류의 장애물들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공학이 인지되고 가르쳐지는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인 고용평등 정책들이 실패함으로 해서 신시아 콕번 같은 연구자들은 여성 스스로가 기술영역에 들어가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게 되었다(Cockburn, 1985). 어째서 무역협정이나 공학과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남성들의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고안된 여성훈련 안들이 기대만큼의 성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가? 설령 여성을 기술무역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획 자체가 협소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여성의 반응 역시 주저하거나 모호했었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렵다.

콕번은 여성들이 기술영역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이유를 기술은 남성들에게 적당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에 대한 성별-정형화된 개념에서 찾고 있는데 나는 이 견해에 동의한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언어 자체 그리고 그 상징주의가 이미 남성적인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기술습득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가 남성성의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고 그 연장선상에 기술문화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문화는 여성성과 양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먼저 자신들의 여성성을 버려야 한다.

기술과 노동분업

나는 이제 젠더와 기술에 관한 분석에서 좀더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다. 이 접근은 70년대의 노동과정 논쟁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마련해 놓은 이론적 토대에 근거하였다. 급진과학운동이 과학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자들은 계급분석을 기술에까지 확장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확장된 분석과정에서, 이들은 지금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기술결정론'에 반대하였다.

기술결정론에 따르면, 기술변화는 사회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고 외부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새로운 기술을 생산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독립되어 있고 자신들의 지엽적 이해관계를 떠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노동과정 연구자들은 특히 기술과 생산성 발달이 역사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마르크스주의의 기술 중심적인 해석을 비판하였다. 이런 해석은 기술 자체를 계급투쟁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해리 브레이버먼(H. Braverman)의 『노동과 독점자본』(*Labor and Monopoly*, 1974)이 출판되면서 기술연구, 특히 노동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에 대해 마르크스가 기여한 점에 다시 관심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브레이버먼은 마르크스의 기술과 노동분업 비판을 그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의 핵심으로 복귀시켰다. 그 동안 나온 노동과정에 관한 논문들의 기본 주장은 자본가-노동자 관계가 자본주의 내 생산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이었다. 특정 기술의 도입과 진화에 관한 역사적 사례연구들을 보면 인간노동을 탈숙련화하고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들이 의도적으로 고안되었는지, 그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10] 기계류는 스스로 발전하는 기술혁신의 산물이라기보다, 자본소유주와 경영진이 생산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중요한 무기였다. 그러므로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도 자본주의 사회관계들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기술결정론에 대한 시기적절한 도전이 되었으며, 분석의 초점을 자본주의 노동분업에 맞춤으로써 이후 젠더관계와 기술에 관한 좀더 정교한 분석이 발전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노동과정 접근법 자체는 젠더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술의 사회적 관계들을 오직 계급 용어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흐름이 잘 확립해 놓았듯이, 생산관계는 계급분할만큼이나 젠더분할에 의해 구성된다. 이 역사연구의 맥락에 있는 최근의 연구들(Cockburn, 1983; 1985; Faulkneer and Arnold, eds., 1985; McNeil, ed., 1987)은 기술에서의 여성배제를 성별 노동분업과 자본주의 아래서 발달한 숙련직종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가져다준 결과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몇몇 이론가들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성들이 기술숙련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며, 자본주의 기술은 그 이전 시대의 기술에 비해 더 남성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는 산업화의 초기 국면에는 여성들이 자본을 소유할 수 없었고 교육기회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 이제 초점을 옮겨가서 앞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산업들과 관련하여 노동계급 내에 발달한 엄격한 성별분업 형태가 남성의 기술지배의 기초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시기 동안 수공업이 공장으로 이동하고 가정은 임금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격리되었다. 그리고 엔진이 장착된 기계류의 도입을 통해 전통적인 숙련수공기술은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그 동안 사용하던 도구가 노동자의 손에서 벗어나 기계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은 기계도입이 야기하는 신기술에 대한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남성 숙련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새로운 생산영역에 여성을 투입하

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업종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일정 정도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였다. 산업노동자가 된 여성들은 최저임금의 비숙련 직종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일해야 했다. "남성 숙련노동계급과 그들의 노조가 여성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여성이 습득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그들의 기획 중 가장 파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Cockburn, 1985, p. 39) 공장 내에서 진행된 이 같은 성별 노동분업은 기계류가 자본가 출신의 발명가든 숙련된 장인이든 남성에 의해 남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은 그 시작부터 자본의 지배뿐만 아니라 남성의 권력을 반영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기술문화는 성별 노동분업이 현재까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는 방식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성들은 핵심 기술의 관리를 독점함으로써,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창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나는 앞에서 기술지식은 암묵적이고 직관적인 지식 그리고 '실제로 해봄으로써만 알게 되는', 지식의 그 같은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신기술은 섬광처럼 떠오른 영감에 의해 출현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 기술에 기반해서 점진적인 변형과정을 거쳐 현행 기술과 새롭게 결합하여 나타난다. 기술혁신은 일정 정도 상상력이 요구되는 과정이지만, 그 상상력은 대개의 경우 현행의 장치들을 개선시키고, 한 영역에서 성공적이었던 기법을 다른 새로운 영역들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데서 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여성이 의례적인

기법적 지식에만 접근할 수 있다면, 여성은 발명에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된다. 현행기술에 대한 경험은 신기술 발명의 전제조건이다.

남성들의 발명품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발명품은 시간, 공간 그리고 자원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일터로부터 분리되어 주로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갇혀 있음으로써, 여성들의 경험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여성들의 발명능력도 제한되어 왔다. 이 점에 관해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공장에 고용되었던 여성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무기를 새롭게 설계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14]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여성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발명능력을 증명하였다.

행방불명: 기술사회학 내의 젠더특성

역사적 접근은 여성의 본질적 가치에 근거해 신기술을 모색하려는 본질주의적 입장에 비해 앞선 접근이다. 역사적 접근은 여성이 기술로부터 근본적으로 소외된 것은 역사적 · 문화적으로 기술을 남성성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는 왜 여성이 기술로부터 배제되고 또 여성 스스로 기술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는, 기술을 남성들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강화시키는 하나의 문화로 분석하면 좀더 분명히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기술능력이 남성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의 핵심 요소라면, 구태여 여성이 그런 기술능력을 갖기를 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식의 기술과 젠더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15] 최근에 몇몇 사회학 연구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페미니스트들이 자세한 경험연구를 하기 위해 기술의 '블랙박스' 안으로 진짜 들어갔던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제품의 발명과 발전 · 안정 · 확산에 관해 연구하는 새로운 기술사회학이 부상했다.[16] 이 연구들에 의하면, 기술이 단순히 논리적인 기술적 필요의 산물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정치적 선택들이 기술의 설계와 선택 자체에 스며들어 있다.

기술은 구체적인 집단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시간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내린 구체적인 결정들로부터 나온다. 이처럼 기술은 그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과 그 기술이 발전되어 온 사회적 맥락이라는 흔적을 갖고 있다. 데이비드 노블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한다. "바로 그 구체성 때문에, 사람들은 기술을 인간과 사회적 노력의 굳어진 역사적 산물, 동결된 파편으로 대면하기보다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맹목적인 사실, 주어진 가장 최초의 근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Noble, 1984: xiii) 기술변화는 서로 다른 집단들의 지배를 둘러싼 투쟁에 종속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기술의 결과들은 한 사회 내의 권력과 자원의 배분에 우선적으로 달려 있다.

현재 기술사와 기술혁신의 경제학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들이 있다. 노동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사회변화와 생산과정들의 구성 간의 관계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조사해 왔으며 기술형태가 사회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사회학적 연구는 개인 발명가에 대한 연구나, 기술혁신은 어떤 내적인 기술논리의 결과라는

인식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다. 오히려 사회학적 연구는 특정 기술을 강화시키거나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기술발달의 경쟁적인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데 끼치는 영향 나아가 특정 제품의 정확한 설계의 특징들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사회관계가 기술에 끼치는 효과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술혁신은 이제 거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의 집합적이고 제도화된 과정이 되었다. 따라서 기술발전은 일련의 복합적인 기술 · 사회 · 경제 · 정치적 요소들의 작용이다. 아마 하나의 제품은 "담배연기와 선반과 컴퓨터 단말기로 꽉 차 있는 방안에서 반대자들 사이에서 일련의 협상과 타협, 갈등, 모순, 거래를 거쳐서 확정된 결과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Law, 1987, p. 406).

사회집단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발달 과정은 한 설비의 기술적 필요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간에 갈등을 낳는다. 따라서 제품의 안정성과 형태는 대표적인 사회집단들이 기술발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생산기술의 경우, 대개 하나의 기술설비의 발달과 수용 배후에는 경제계급과 사회계급의 이해관계가 가로놓여 있다. 마찬가지로 군사기술의 경우, 국가적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관료적이고 조직적인 이해관계들이 작동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군사기술에 대한 국가지원이 민간기술을 결정하는 정도에 대해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젠더 이해관계의 작용이 기술제품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젠더문제에 관한 이 같은 무관심은 새로운 기술사회학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에 일

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기술에 대한 판에 박은 개념을 가지고서 기술설계의 방향과 형태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집단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집단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볼 때, 여성들이 눈에 드러나는 갈등 상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젠더 이해관계가 이 갈등에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젠더의 사회적 이론에 따르면, 여성이 기술사회로부터 거의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젠더관계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여러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을 선호하느냐는 더 넓은 사회에서의 남성의 권력을 반영하는 일련의 사회적 배열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발달 과정은 기술혁신의 직접적인 환경 너머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문화적으로 유형화된다.

인공 재배된 식량을 먹는 것에서부터 더욱더 정교해진 형태의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기술변화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공적 · 사적 삶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과정 논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사회학은 특히 상품생산의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춰 거의 배타적으로 임금생산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재생산이나 소비 영역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불(不拂)생산을 무시하였다. 이에 비해 페미니스트 분석은 공장문 저 너머로 눈을 돌려 이러한 영역들에 기술이 역시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한다.

지금까지 이 영역의 페미니스트 연구가 스스로 내놓은 해답만큼이

나 많은 질문을 제기해 온 것은 어쩌면 필연적일 것이다. 남성성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기술이 존중받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남성성이 존중받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술은 남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것이다"라는 동어반복을 벗어날 수 있는가? 왜 여성의 일은 과소평가되는가? 여성의 지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여성의 지식은 '여성적 직감'과 다른가? 기술은 여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추상적 분석들은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사회집단들과 그들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의 성격은 기술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들이 고려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더 구체적인 역사자료를 통해 일과 사적 삶의 특정 영역에서 젠더관계가 어떻게 기술기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젠더의 영향과 계급 · 인종의 영향을 구별해 내기가 종종 어렵기는 하지만, 이 책은 젠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지는 장들은 생산기술, 재생산기술, 가사기술, 건축환경 등 기술의 실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전체를 통해 나는 젠더에 입각한 기술분석이 결코 기술을 남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성에 의해 다루어지는 일련의 중립적인 제품으로 간주하는 시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남성이 과학과 기술 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이 기술발전의 방향은 변형시키지 않은 채 이 제도들에서 훨씬 충실한 대표자 역할을 하게 될 시기가 오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다. 미국의 우주-방어 프로그램에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채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 프로그램

에 너무 몰두하는 것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관계는 이 제도와 기획들의 사회적 조직화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기술을 통해 표현되면서 또 그 기술을 구체화시키는 젠더관계를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더 넓은 사회구조들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의 젠더화된 특징을 다루는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위험 —기술은 본래 가부장적이라는 본질주의 입장을 수용할 위험과 '여성'과 '기술' 범주의 역사적 가변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젠더관계의 구조를 보지 못할 위험 —에 처해 있다. 이 책에서는 제3의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주

1) 과학지식사회학에 관한 소개로는 Barnes and Edge eds., 1982: Knor-Cetina and Mulkay eds., 1983 참조.
2) 나는 젠더와 과학영역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Harding, 1986: Schiebinger, 1987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 두 연구는 대단히 뛰어나고 포괄적인 연구이다.
3) 이 문제는 Harding, 1986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성 자체가 남성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 좀더 충분한 설명은 Lloyd, 1984 참조.
4) 켈러의 작업에 대한 뛰어난 토론으로는 Dugdale, 1988 참조.
5) 몇몇 급진적 페미니스트 이론의 글에 나타난 보편주의와 본질주의적 요소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비판으로는 Eisenstein, 1984: Segal, 1987 참조.
6) '경험주의-귀납주의' 대 '직관적-성찰적 이론구성'이라는 이분법적 짝이 17세기 이후 상호 작용해 온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는 Schuster and Yeo, 1986 참조.
7) 매클린톡과 폴랭클린의 일대기와 이들 각각의 과학적 방법론을 재치 있게 비교한 것으로는 Richards and Schuster, 1989 참조.

8) 스터든마이어는 기술적 지식의 네 가지 특징으로 과학적 개념, 문제가 되는 자료, 공학이론 그리고 기술적 숙련을 들고 있다(Staudenmair, 1985, pp. 103~20).
9) 이 분야의 자료들은 Trescott ed., 1979: Rothschild ed., 1983: Faulkner and Arnold eds., 1985: McNeil ed., 1987: Kramarae ed., 1988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맥닐 편(編)의 책은 참고문헌을 주제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10) 맥로드는, 비록 특허기록에는 조지 레이븐스크로프트(G. Ravenscroft)가 납-크리스털 유리의 '영웅적인' 발명가로 인정되어 있지만 사실 그는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구입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특허기록을 항상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MacLeod, 1987.
11) 레이디 러브레이의 일대기에 관해서는 Stein, 1985 참조. 이 책은 레이디 러브레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주요 기여자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발달에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다(Kraft, 1977: Giordano, 1988).
12) 자연을 지배하는 것으로서의 기술은 마르쿠제 같은 비판이론가들의 작업에서도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마르쿠제는 (가부장제 관계보다는) 자본주의 관계가 바로 이 기술구조 안에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기술 그 자체가 (자연과 인간을) —방법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된 그리고 계산하는 통제의 방식으로 지배한다. 지배의 특별한 목적과 관심은 외부에서 기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배는 기술장치의 구성 그 자체에 이미 들어와 있다."(Marcuse, 1968, pp. 223~24)
13)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에 관한 사례연구의 모음집 MacKenzie and Wajcman, eds., 1985, 제2장도 참조.
14) Amram(1984)에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여성들에게 수여된 특허권이 정리되어 있다.
15) Cockburn(1983: 1985)의 연구는 중요한 예외로서, 제2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된다.
16) 이 분야의 문헌에 관한 소개로는 MacKenzie and Wajcman eds., 1985: Bijker, Hughes and Pinch eds., 1987 참조.

여성과 기술

생물학적 결정론과 사회적 결정론을 넘어

박진희 · 홍성욱

1. 들어가는 말

현대 여성의 생활은 기술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가정에서건 직장 혹은 학교에서건 여성은 작은 생활용품에서부터 대형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술과 접하며 살고 있다. 여성은 도구나 기술 씨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이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기술자로서도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기술은 여전히 남성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 기술자를 예외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며, 종종 '남자 같은 여자'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이런 인식의 반영이다. 여성 공학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화여대에서 공대를 만들었지만, 한국에서 여성 공학도는 전체 남녀 비율로 따졌을 때 아직도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주택 설계 정도는 여성도 할 수 있는 분야로 인정되지만, 거대한 발전소나 선박 설계는 여전히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성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기술현장으로 가면 남녀 비율은 더욱 불균등을 보이며 여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왜 이런 불균등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성과 공학은 물과 기름처럼 잘 맞지 않는 것

朴眞熙　독일 베를린공대 과학기술사 박사과정.
洪性旭　캐나다 토론토대 과학기술사 교수.

일까, 아니면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이 여성을 기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

기술분야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종종 대중매체 등을 통해 기술이 여성해방을 가져온다는 담론에 접하게 된다. 가전제품을 현명하게 고른 여성이 하루 대부분을 자유시간으로 즐기는 이미지가 그것이다. 기술이 여성을 해방시킨다는 생각은 20세기 말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20세기 초엽, 전기를 사용한 가사노동 보조기술(household technology)의 발명과 보급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기술이 여성을 지겹고 힘든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게 했다. 먹는 피임약의 개발과 보급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임신을 컨트롤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성혁명'(Sexual Revolution)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는 1960년대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믿은 또다른 근거였다. 1970,80년대 퍼스널컴퓨터와 컴퓨터통신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남녀 분업을 불분명하게 하고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옳았던가? 기술은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오랜 차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했는가? 지금 우리가 가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기술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현대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면서, 최근 여성학과 기술사회학 및 기술사학계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기술문제,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왜 낮은 것일까? 여성은 천성적으로 기술과는 거리가 먼 것인가? 여성과 남성은 기술에 대해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는가? 가사노동 보조기술이나 생식기술(reproductive technology)의 발전으로 인해 여성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간 이루어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제시하면서 여성과 기술간의 다양한 연관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술은 남성의 영역인가

여성이 공학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미국에서조차 공과대학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통계로 20%를 넘지 않는다. 연구분야별로 보면 여성 공학도가 거의 없는 분야도 부지기수이다. 독일 대학의 경우는 더 심해서 1980년대 말의 통계에 따르면 정보·컴퓨터공학분야는 13%가 여학생이지만 전기공학이나 기계공학 분야는 여학생 비율이 2,3%를 넘지 않았다.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실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기술자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미국의 경우 여성 엔지니어는 전체 엔지니어의 10% 내외로 무척 미미하다. 영국의 한 통계는 전문기술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기술자의 5%만이 여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과대학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7%, 5%, 2%에 불과하고, 여교수의 비율은 1%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오랫동안 여성이 기술교육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최초로 교육기관이 생긴 중세와 르네쌍스 시기부터 여성은 기술발전을 담당했던 길드나 기초적인 과학과목을 강의했던 대학 같은 기관에 입학할 수 없었다. 19세기에 공대나 공학과들이 대학에 설립되기 이전에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작업장'(engineering workshop)에서 도제적 훈련과정을 통해 전수, 교육되었는데, 이 엔지니어링 작업장 역시 여성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다. 대학의 공과대학이나 공학과는 이 작업장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생겨났고, 따라서 처음부터 대학의 엔지니어링은 남성이 선택하는 분야로 간주되었다(엔지니어engineer라는 직업이 통상 엔진engine을 다루는 사람을 의미했음을 생각해보라). 게다가 19세기를 통해 여성은 대학에 입학하기조차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이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1840년 스위스정부가 여성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였을 때이다. 뒤이어 1860년경 미국과 러시아가 여성의 대학 입학을 허용하였으며, 독일에

서는 이보다 훨씬 늦은 1900년에야 여성이 정식으로 입학허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초기 엔지니어링은 남성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했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 동안 남성과 비슷한 비율로 기술자를 양성해낼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는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이는 적어도 지금 공대의 모든 학과가 성별 제한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 공학도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성학자들 중에는 기술에 각인된 '남성성'(masculinity)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설명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기술은 자연과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끊임없이 추구해온 남성들이 자신들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수단으로, 본질적으로 남성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은 타고난 출산 기능으로 인해, 자연에 적대적일 수가 없고 자연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남성성은 공격적이고 자연에 침입하고 자연을 '강간'하려 하지만, 여성성은 감성적이며 직관적이고 자연과 협력을 추구하려 하기에 남성성의 전형으로서의 기술은 여성성과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은 기술을 기피하며, 여성과 기술의 조화는 여성성에 기반한 기술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듦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1]

1)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본성적인 친화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의 특성에 근거하여, 현재의 여성문제와 환경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 주창자들은 여성, 자연, 그리고 제3세계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각인된 남성적인 서구의 근대 과학과 기술에 의해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로인해 여성문제, 환경문제, 제3세계의 빈곤이 유래하고 있다고 본다. 제3세계가 서구의 식민지라면, 여성은 (백인)남성의 '내부 식민지'인 셈이다. 이들에 따르면, 본래 자연과 친화적인 여성의 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의 실현과 생태문제의 해결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 용어는 1974년 프랑쓰와즈 도본느(Françoise d'Eaubonne)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성의 잠재력을 나타내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 Cat Cox, "Eco-Feminism," in Gill Kirkup and Laurie Smith Keller, eds., *Inventing Women: Science, Technology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1992), 282~93면 참조.

그렇지만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모든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이견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여성에게 주입된 성분업의 이데올로기와 불평등한 사회제도에 의해 여성의 능력이 억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2] 기술을 예로 든다면, '기술은 남성의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어릴 적부터 주입받은 여성은 결국 기술분야 진출을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되며, 설령 소수의 여성이 이 분야에 어렵게 진출하더라도 남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각종 제도의 벽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앞의 에코페미니스트들과는 달리, 이들은 여성에게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화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없애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기술을 남성성이나 여성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즉 성에 대해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생각이 깔려 있다.

최근의 여성과 기술에 대한 연구에는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론과 사회적 결정론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얻어진 새로운 방법론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3]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은 남성에게는 없는 여성의 출산의 경험과 이를 가능케 하는

2) Rosalind Gill and Keith Grint, "The Gender-Technology Relat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in Rosalind Gill and Keith Grint, eds., *The Gender-Technology Relat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London: Taylor and Francis 1995), 6~7면.

3) 이런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Judy Wajcman,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참조.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근거한다. 한편으로 이런 주장은 무척 급진적인 듯 보여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본성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이 할 일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육아와 가사이다"라는 식의 전통적으로 여성을 억압해온 담론을 재생산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얘기하는 여성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을 억눌러온 여성의 활동——출산·육아·가사 등——과 심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술과 관련해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를 단지 사회제도의 차이로만 돌리는 두번째 사회결정론적 입장은 기술이 근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고 모든 문제는 기술교육과 같은 제도적 차원에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기술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젠더'(gender)가[4]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과 더불어 기술의 디자인·수용·확산·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젠더와 기술에 대한 최근 연구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규정하는 젠더가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변천을 거듭해왔음에 주목하여, 이 젠더와 기술이 어떤 연관을 맺어왔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젠더와 기술의 상호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의 역사성과 더불어 기술의 사회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의 사회학자 씬시어 록번(Cynthia Cockburn)은 산업혁명기 남녀의 노동분업을 재해석했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의 빠른 진전과 더불어 여성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 대거 투입되고, 점차 남성의 독점적 영역이던 숙련노동의 영역에까지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에 위협을 느낀 남성 숙련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 여성에겐 노동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이 숙련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이런 조직적인 차단은 결과적으로 여성을 비숙련노동의 영역에 머물게 했고, 기존에 존재하던 성분업을 '여성=비숙련노동=기술적 무능'이라는 산업시대의 이데올로기로 탈바꿈시켰다. 록번은 이렇게 습득된 지식과 기술이 이후 계속된 기계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남성들이 종래 자신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기술과 남성성의 긴밀한 결합은 생산현장에서 일어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성분업의 강화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대기술은 남성의 특성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으며, 이런 상징성은 다시 지속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성분업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여성을 기술로부터 배제시켜버렸던 것이다.[5]

산업혁명기 이전에도 기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충실한 도구였다. 예를 들어, 중세 서양의 농촌에서 '긴 낫'(scythe)이 '짧은 낫'(sickle)을 대체한 과정은 여성을 농사일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긴 낫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력을 가진 남자가 농사일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인간의 근력에 덜 의존하는 자동기계 역시 젠더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했다. 방직기의 예를 들어보자. 전통적으로 방직은 여성들의 일이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여성들은 단방직기(short mule)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방직기(long mule)와 이중방직기(double mule)가 도입되면서, 이 기계에 적합한 남성들이 여성의 숙련노동을 대체했다. 이후 자동방직기가 도입되었지만, 이 기계의 사용을 여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성 숙련방직공이 적었고, 그나마 있던 소수의 여성 방직공은 이미 조직된 남성 숙련방직공의 장벽을 부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방직기

4)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규정되는 성을 의미하는 자연적 성(sex)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성이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규정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학자들이 쓰기 시작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페미니스트 내부에서 '젠더와 섹스'의 구분이 '사회와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근거한 것이라는, 즉 사회적인 젠더와 전적으로 무관한 생물학적인 섹스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광범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젠더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 책의 서문과 하정옥의 글 제2절을 보라.

5) Cynthia Cockburn, *Machinery of Dominance: Women, Men and Technical Know-How* (London: Pluto 1985).

를 다루는 고급노동은 남성의 고유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생산현장의 기계 도입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배제하기 위한 '음모'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기계의 도입에는 남성/여성의 관계와 함께, 자본/노동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종종 전자를 압도하곤 한다. 새로운 식자기술이 런던 식자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콕번의 또다른 연구는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 런던 식자공그룹은 장인 전통과 숙련을 강조하는, 전형적으로 남성들이 독점력을 행사해온 조직이었다. 이들이 사용하던 라이너타입(Linotype) 식자체계는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복잡하고 독특한 자판을 가지고 있었다. 경영자들은 이 식자공들이 가진 힘과 숙련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전자광식자(electronic photocomposition) 방법을 도입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은 보통 타자기와 똑같은 자판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즉, 새로운 광식자 기술의 도입에 따라 전통적으로 남성의 것이던 식자의 영역에서 여성 타이피스트가 남자 식자공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남성들의 독점영역에 여성이 들어가게 된 것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때문이었지만, 이 기술의 도입에는 노동자의 숙련과 이로부터 나오는 조직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경영자들의 필요가 존재했다.[6]

콕번이 생산현장의 성분업과 이를 통한 여성의 기술로부터의 배제 또는 참여를 연구한 반면, 샐리 해커(Sally Hacker)는 공과대학의 교육현장에서 여성이 어떻게 소외되고 배제되는가를 MIT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그녀는 공학교육이 과학적 추상성, 엄격한 논리와 수학적 사고, 기술적 능숙을 강조하는 반면, 예민함, 유연한 사고와 주위 사람에 대한 배려 등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녀는 공학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거의 에로틱한 열정과 흥분이라고 표현될 만한 '쾌락'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커에 따르면 열정과 흥분이 자아내는 공

6) Cynthia Cockburn, *Brothers: Male Dominance and Technological Change* (London: Pluto 1983).

학에서의 쾌락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지배와 통제 가능성으로부터 느끼는 일종의 '권력의 즐거움'이다. 이러한 특성들——추상성, 엄격한 사고, 권력의 즐거움——은 각종 커리큘럼과 학점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면화되며, 이때 여학생들 스스로에게 내재된 가치는 부정당하고, 억압된다. 많은 여학생들은 이런 공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속에서 살아남은 여학생은 자기부정을 통해 스스로를 여자가 아닌 '사내 중의 하나'로 여기게 되는 일이 흔히 나타난다. 이로써 결국 기존의 남성중심의 기술자문화는 강화되고, 여성은 여전히 여기서 소외된 채로 남게 되는 것이다.[7]

공과대학에서 강조하는 덕목——추상성, 엄격한 사고, 권력의 향유——에 여학생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셰리 터클(Sherry Turkle)은 여성이 스스로 기술로부터 자신을 배제시키는 원인을 여성과 남성이 외부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인지행위의 유형 차이에서 찾고 있다. 소년과 소녀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상이한 방식에 대한 터클의 연구에 따르면, 소년들은 추상적이고 선형적(linear)인 방식으로 컴퓨터와 관련을 맺고 형식적이고 위계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발전시킴에 비해, 소녀들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협상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녀들은 컴퓨터씨스템을 상호작용이 가능한 요소들로 보며, 이들 요소에 대한 추상적인 규칙을 찾기보다는 이들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씨스템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터클은 소년의 방법을 '강한 숙달'(hard mastery), 소녀의 방법을 '부드러운 숙달'(soft mastery)이라고 명명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을 놓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세계는 이미 강한 숙달의 방법이 지배하고 있고, 이는 여성적인 관점을 열등한 것으로 만들며, 결과적으로 소녀들

7) Sally Hacker, *Pleasure, Power, and Technology: Some Tales of Gender, Engineering, and the Cooperative Workplace* (Boston: Unwin Hyman 1989).

은 자신들의 독특한 방식을 포기해버린 채 컴퓨터의 세계에서 소외된다는 것이 터클의 주장이다.[8]

여학생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남학생과 다르다는 터클의 주장은 주디 바이츠먼(Judy Wajcman)에 의해 비판되고 보완되었다. 그녀는 학교의 컴퓨터가 자연과학과 수학——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의 것으로 인식된 과목들——의 보조물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컴퓨터가 남학생을 위한 기기라는 관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보았다. 또한 컴퓨터가 남학생의 것이라는 생각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에 의해 강화된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성은 컴퓨터를 잘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이런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여성은 스스로 남성의 영역에 속하는 컴퓨터와 같은 기술에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획득하게 된다. 기술은 남성을 상징하는 언어나 기호로 해석되고, 여성은 기술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녀는 대부분의 여성을 위한 기술 진흥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것도 이런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스스로 기술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바이츠먼에 따르면 터클의 '강한 숙달'과 '부드러운 숙달'은 인지심리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성성과 학교에서의 성차별이 빚어낸 사회적 구성의 결과인 것이다.[9]

바이츠먼의 주장은 여성의 생리적·인지심리학적 독특성에 대한 강조가 이미 존재하는 성적 불평등구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성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이 형성과정에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상호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여성과 기술이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소원한 것으로 규정되어왔던 것이지,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8) Sherry Turkle, *The Second Self: Computers and the Human Spiri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4).

9) Wajcman, 앞의 책, 6장.

3. 기술발전의 주체로서의 여성——기술사 속의 젠더

앞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ructed) 기술의 남성성이 어떻게 여성을 기술로부터 배제시켰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 기술사학자나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기술과 남성성의 결합으로 기술 자체가 편협하게 정의되고 이해되면서 여성이 기술과 맺고 있던 그 나름의 관계들이 더더욱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기술사에서 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여성이 기술적 창조성을 지니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기술은 남성의 몫이었다'라는 담론에 묶인 기술사학자들의 협소한 역사서술에 부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기술사학자는 증기기관·전기기술·군사기술 등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젖병 제조나 식품저장기술처럼 여성의 영역에 있던 기술은 그들의 관심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증기기관·전기기술·군사기술의 역사에선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기술사의 소재를 확장해 육아기술·조리기술·음식저장기술·전통의료기술·가사노동 보조기술·출산기술(산파술)·피임기술 등을 살펴보면, 우리는 기술의 디자이너로, 생산자로, 그리고 소비자로서 기술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과 만나게 된다.[10]

10)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Ruth S. Cowan, "From Virginia Dare to Virginia Slims: Women and Technology in American Life," in Martha Moore Trescott, ed., *Dynamos and Virgins Revisited: Women and Technological Change in History* (Metuchen: Scarecrow Press 1979); Judith A. McGaw, "No Passive Victims, No Seperate Spheres: A Feminist Perspective on Technology's History," in Stephen H. Cutcliffe and Robert C. Post, eds., *In Context: History and the History of Technology* (Bethlehem: Lehigh University Press 1989), 172~91면. 최근 기술과 젠더의 연구동향

이런 여성 기술사학자들의 비판은 최근 기술사학에 불어닥친 '사회구성주의 과학사회학'(Constructivist Sociology of Science, 사회적 이해관계가 개입함으로써 과학지식이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사회학의 한 학파)의 방법론과 많은 공통점을 안고 있다. 사회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에 따르면 기술발전은 경제적·기술적 효용의 증대 같은 기술 내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그룹의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장은 기술발전이 사회와는 무관하다는 기술결정론과 기술발전은 전적으로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소비자, 공장 노동자, 여성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그룹들의 이해관계가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11] 이런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이 여성 혹은 젠더라는 사회·문화적 범주가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음은 물론이다.

루스 코언(Ruth S. Cowan)은 그간 기술사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사노동 보조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을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요인과 연관시켜 분석했다. 그녀는 186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 세기 동안의 가사노동 보조기술 발전사의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먼저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던 '단순한 소비단위'로서의 가정이 새로운 산업, 즉 각종 상품의 운송업이나 대형 수퍼마켓의 발달을 초래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그 첫번째이다. 두번째는 주부가 가사노동 보조기술의 수동적인 소비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부들은 영양과 위생

을 개괄한 좋은 논문으로는 Nina E. Lerman, Arwen Palmer Mohun and Ruth Oldenziel, "The Shoulders We Stand On and the View From Here: Historiography and Directions for Research," *Technology and Culture* 38 (1997), 9~30면이 있다.

11)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대해서는 Wiebe Bijker, Thomas Hughes and Trevor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al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IT Press 1987) 참조.

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되어버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은 집안 환경을 깨끗이 꾸미고 가족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사노동 보조기술을 이용하고 각종 상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일들을 처리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코언은 각종 가사노동 보조기술의 발전이 생산업체의 기묘한 광고전략에 말려든 주부들의 눈먼 소비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이해에 맞추어 이들 기술제품들을 선택 구매한 주부들의 적극적인 소비활동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가족의 사적인 공간을 중시한 주부들이 세탁소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세탁기계 대신에 가정용 세탁기를 선택하였고, 가족의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에 가스레인지 및 각종 전자제품을 들여놓고 여러 가지 반가공식품을 구입 사용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주부들은 소비자로서 이들 특정기술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12]

지금까지 남성중심의 기술사에서는 여성의 활동영역인 육아나 가사를 '생산'에 상반되는 '소비' '숙련'에 상반되는 '비숙련'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맞추어 분석했고, '소비적인 비숙련' 노동인 가사노동은 기술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간주했다. 콕번이 지적했듯이 '숙련'은 산업화와 더불어 기계를 다루는 남성의 기술노동을 의미했고, 여기서 배제된 여성의 가사노동과 가사기술은 기술사의 연구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코언의 연구는 이런 이분법이 가정이 사회의 경제체계 속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전체 산업발전과 맺고 있는 연관을 무시하게 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코언은 기술사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여성의 노동이 단순히 비숙련으로 특징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19세

12) Ruth S. Cowan, *More Work for Mother: The Ironies of Household Technology from the Open Hearth to the Microwave* (New York: Basic Books 1983). 이 책은 『과학기술과 가사노동』(김성희 외 옮김, 학지사 1997)이란 제목으로 국내에도 번역되었다.

기 미국의 제지산업을 연구한 주디스 맥고(Judith A. McGaw)도 지적한 바 있다. 그녀는 이 연구를 통해 품질검사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투여된 여성의 노동이 제품의 높은 질을 유지해서 기업의 시장점유를 가능케 했고, 공장주에게 기계화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축적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은 당시의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던 '기술'이었지, 결코 '비숙련'이라고 단순히 치부될 수 없는 것이었다(그녀 저서의 제목인 '가장 놀라운 기계' *Most Wonderful Machine*는 바로 여성 노동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외에도 맥고는 남성성이나 여성성과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기술 및 산업 발전과 맺고 있는 구체적인 연관을 제시했다. 그녀는 19세기 중엽의 제지산업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안전장치가 오랫동안 공장에 도입되지 않았고, 노동조합도 이의 도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맥고는 이 이유를 당시 남성 노동자가 "남자는 위험한 일도 불평없이 해야 한다"라는 용감한 남성의 이미지를 의문없이 받아들였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강인한 남성성의 이데올로기가 남성에게 유리한 안전기술의 도입을 막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가 산업사·기술사 연구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듯이,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를 기술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기술발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3]

주부나 노동자로서 관계 맺는 것이 여성이 기술과 관련을 맺는 유형의 전부는 아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여성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기술사를 파헤쳐보면 여성 기술자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오텀 스탠리(Autumn Stanley)는 기술사 연구의 범위를 기존의 전통적인 주제에 한정하지 않을 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 발명가들과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식품저장, 농작물 재배, 의료

13) Judith A. McGaw, *Most Wonderful Machine: Mechanization and Social Change in Berkshire Paper Making, 1801~188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등 예의 여성들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 영역에서도 뛰어난 아이디어 제안자, 발명가 및 보조 연구자 등으로 무궁한 창조력을 드러내 왔음을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14] 그녀는 이런 활동들이 서술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정의를 '남성이 하는 활동'으로부터 '인류가 하는 활동'으로 재정의해야 하며, '중요한' 기술이라는 카테고리 역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기술만큼 식품저장기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냥기술과 채취기술이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될 때 남성의 기술사가 아닌 인류의 기술사가 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15]

기술과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시각들은 기술사의 전통적인 주제나 소재마저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도록 했다. 앤 맥도널드(Anne MacDonald)는 특허자료에 근거하여 미국의 여성 발명가들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적인 가족사 등을 종합 정리하여, 여성 발명가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16] 여성 기술자들은 종종 남성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널리 알려진 예가 미국 여성 발명가인 게이브(Frances Gabe)가 설계한 '스스로 청소하는 집'(self-cleaning house)이다. 그녀는 집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여성이 청소·빨래·설거지라는 잡일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려

14) 그녀는 이들 여성 발명가들의 기록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편찬하였다. Autumn Stanley, *Mothers and Daughters of Invention: Notes for a Revisited History of Technology* (Metuchen: Scarecrow Press 1993).

15) Autumn Stanley, "Women Hold Up Two-Thirds of the Sky," in Joan Rothchild, ed., *Machina Ex Dea: Feminist Perspectives on Technology* (New York and Oxford: Pergamon Press 1983), 5~22면.

16) Anne L. MacDonald, *Feminine Ingenuity: How Women Inventors Changed America* (New York 1992). MacDonald의 책에 대해서는 Judith A. McGaw, "Inventors and Other Great Women: Toward a Feminist History of Technological Luminaries," *Technology and Culture* 38 (1997), 215~16면을 참조했음.

27년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미세한 물안개가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청소하는 집을 고안해냈다. 이런 기술은 가사노동의 지겨움을 몸으로 느껴본 여성이 아니고서는 꾸준히 연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었다.[17]

기술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짐에 따라 실제로 기술발전을 담당하는 주체도 이전의 기술자나 발명가라는 좁은 범위에서 경영 담당자, 디자이너 및 공장 노동자, 소비자에까지 확대되었다. 기술사를 보는 이러한 확대된 개념틀은 기술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고, 실제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여성의 삶이 기술과 맺고 있는 긴밀하면서도 다양한 연관을 밝혀주었다. 다음 절에서는 논의를 조금 바꾸어서 기술이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사노동 보조기술과 임신·출산·생식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기술과 여성의 삶——가사노동 보조기술과 출산 관련 기술

우리는 여성의 삶이 기술발전으로 인해 해방되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피임기술의 발전은 여성에게 성의 자유를 누리게 했고, 가전제품은 여성을 가사노동의 육체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대거 가져왔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실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기술발전이 아니었으면 현대 여성들이 누리는 자유의 많은 부분이 불가능했을 것임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냉장고·세탁기 등이 주부들의 일을 많이 덜어주었으며, 각종 의료기술과 피임기술의 발달이 아니었으면 여성들은 아직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위험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17) 게이브의 '스스로 청소하는 집'에 대한 얘기는 Judy Wajcman, "Feminist Theories of Technology," in S. Jasanoff et al., eds.,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ondon: Sage 1995), 198면 참조.

그러나 이들 기술이 가정과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분업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회의적이다. 먼저 사회학자나 기술사학자들의 연구는 여성이 아직도 50년 전이나 별 차이 없는 동일한 시간을 가사노동으로 보내고 있고,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전의 성분업에 따른 차별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언은 전기·가스 등의 각종 설비기술과 식품가공산업의 발달이 전통적으로 집에서 행해지던 일들, 즉 빵굽기나 식품저장(소금절이 같은) 등을 공장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수월하게 했지만, 전체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을 줄이지는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설비기술이나 각종 가전제품의 발달은 육체노동의 경감을 가져온 한편, 부수적으로 이들 가전제품을 수리, 관리하는 새로운 노동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사람들의 위생관념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치의 상승은 이와 관련된 각종 가사노동의 증가를 수반했다. 세탁기는 빨래할 때 드는 노동의 '힘든' 부분을 절감했지만, 세탁 자체를 1주일에 한번씩 하던 것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대량생산되어 나오는 각종 식품을 사러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현대 주부는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시간계획을 짜서 혼자서 처리해야 하게 되었다. 주부에게 집중된 가사노동은 주부의 가족에 대한 한없는 애정의 표현으로 미화되었고, '이상적인' 엄마와 부인의 기준은 높아만 갔던 것이다.[18]

주부의 가사노동이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주부들의 개인화를 촉진했고, 이런 과정은 남성의 영역이 사회라는 공적 영역이고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공·사적 영역의 성적 구분을 더욱 공고히했다. 여성 영역의 개인화는 가사노동의 공동화

18) Ruth S. Cowa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Home: Household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in the 20th Century," *Technology and Culture* 17 (1976), 1~24면.

를 통해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주부를 해방시키고자 한 진보적 여성운동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도 하였다.[19] 여성은 발전된 가전제품을 이용하여 늘어난 각종 가사노동을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이는 여전히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에 일상적인 가사노동, 예를 들어 음식 준비나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든 반면, 현대 주부들이 그들의 주요한 일이 되어버린 쇼핑이나 아이들 돌보기에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반면에 남성이 가사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전보다 줄었다고 한다.[20] 각종 전자제품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주부의 일이다"라는 가정에서의 성적 분업의 이데올로기와 그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고, 어떤 의미로는 강화되기까지 한 것이다.

코언이 미국 중산층 주부의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수전 클라인버그(Susan J. Kleinberg)는 19세기 노동자계층 여성의 삶에서의 기술을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노동자계층 여성은 기술발전의 혜택에서 거의 전적으로 제외되어 있었고, 대신 산업화의 결과 남성들의 공장노동으로 인해 늘어난 때에 찌든 작업복 세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조우앤 버넥(Joann Vanek)의 연구는 공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중산층 여성과 달리 가사를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가사노동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수많은 가사노동 보조기술에 의존하는 중산층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별로 줄지 않았다는 통계와 비교해보면 기술

19) 독일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1900년경 공동부엌과 공동세탁실이 있는 다세대 주택 건설로 고립화된 여성들의 가사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0세기 전반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의해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노력은 가족 단위의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실패했다.

20) Judy Wajcman, "Domestic Technology: Labour-Saving or Enslaving?," in Gill Kirkup and Laurie Smith Keller, eds., *Inventing Women*, 238~54면, 특히 246면.

발전이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 계층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21]

이런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한가지 결론은 기술발전이 이미 존재하던 성분업을 소멸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해냈다는 것이다. 노동자계층 여성처럼 경제적으로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경우는 작업장 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에 시달렸고, 중산층 주부의 경우는 가족을 사랑하는 '현대의 주부'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두 계층 모두 가족이 협력해서 가사노동을 하는 정도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히려 줄었다. 서양에서 전기청소기가 나오기 이전에 카펫을 청소하는 일은 무척 힘든 노동이었으므로 일년에 한번씩,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하게 마련이었다. 전기청소기는 카펫의 청소를 쉽게 해주었지만 반면에 이 일을 주부의 일로 국한시켰다. 기술은 가사노동의 힘든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여성을 편하게 해준 측면도 있지만 성분업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지 못한 것이다.

이제 논의를 출산 보조기술 또는 생식기술로 돌려보자. 여성은 피임약의 개발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시험관아기(IVF)나 인공수정기술의 개발로 자신의 인생 설계에 맞추어 임신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런 기술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여성이 동료 남성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가부장제 사회질서가 상당부분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여성의 생물학적 한계를 이용해 고착, 강화되어왔음을 생각해보면, 많은 여성학 이론가들이 이들 새로운 기술을 환영하고 이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식기술이 이런

21) Maria Osietzki, "Männertechnik und Frauenwelt: Technikgeschichte aus der Perspektive des Geschlechterverhältnisses," *Technikgeschichte* 59 (1992), 45~72면 참조.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여 여성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

현재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시험관수정 같은 생식기술의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주는 부작용도 심하다. 아주 최근에도 이 성공률은 10~20% 내외밖에 이르지 못하며, 이를 통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지속적인 호르몬제의 섭취, 정기적인 초음파 진단으로 각종 육체적·정신적 부작용에 시달린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현대과학의 축복'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현재 각광을 받는 유전학과 긴밀한 연관이 있고, 첨단기술을 통한 불임 극복으로 산부인과의 의학적 지위를 높이려는 의사들의 이해관계와 여기에 사용되는 호르몬제 등에서 비롯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제약회사들의 로비가 이 기술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별다른 전문기술이 필요없는 인공수정 같은 방법보다는 시험관수정처럼 전문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불임을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병리적인 상태로 규정하여, 모든 여성은 임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신과 여성성을 동일시하는 새로운 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시험관수정과 같은 출산 보조기술은 불임여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줌과 동시에 여성성을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규정하는 기존의 성차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23]

의학의 역사는 임신중에 행해지는 각종 진단이나 출산 관련 기술들이

22) Helen E. Longino, "Knowledge, Bodies and Values," *Inquiry* 34 (1993), 323~40면.

23) 이와 관련해서는 Renate Klein, "Reproductive Technology, Genetic Engineering, and Woman Hating," in C. Kramarae, ed., *Knowledge Explosion: Generations of Feminist Scholarship*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2), 386~94면; Wajcman, 앞의 책, 3장; J. Hanmer, "Reproductive Technology: The Future for Women," in Joan Rothchild, ed., *Machina Ex Dea*, 183~98면, 특히 186~88면.

시험관수정의 경우와 흡사한 발전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17세기까지 출산은 전통적으로 전해져온 지식을 습득한 산파——대개 부인들이거나 과부인——가 담당하던 일이었다. 이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 산모의 자연분만을 도왔고 산후관리를 담당하였다. 당시 남성 의사들, 즉 외과의들은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출산에 관여하였고, 특히 산모가 죽은 경우 수술도구를 사용해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들어내는 일을 담당했다. 그렇지만 18세기에 들어와 분만에 사용할 수 있는 겸자(외과용 집게)가 발명되어 외과의사들이 성공적으로 아이를 받아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산파들이 도맡아 하던 자연분만까지도 점차 의사가 맡게 되었다. 한편, 외과의들은 자신들의 길드(guild)를 통해 여자 산파들이 겸자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산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외과의로부터 파생된 초기 산부인과의사들은 산파들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겸자와 같은 의료도구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측면이 있다. 점차 근대적 병원에서 발달된 도구에 의존하는 의사들에 의한 분만이 일반적으로 되면서, 산파라는 직업은 사라져버리고 출산은 이들 남자 의사들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 근대의학분야로 들어온 출산은 전문 의료지식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는 병리학적 현상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출산 및 임신과 관련된 진단방법과 의료는 각종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24]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산부인과의사들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이해와 의료산업의 경제적 이해가 맞물려 발전한 의료기술이 대다수 여성의 이익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은 현대기술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정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선호하는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듯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기술도 자연에 비유되는 여성의 몸

24) Wajcman, 앞의 책, 3장; C. Kohler Riessmann, "Women and Medicalization: A New Perspective," in Gill Kirkup and Laurie Smith Keller, eds., *Inventing Women*, 123~44면, 특히 127~28면. 의학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책의 오조영란의 글을 볼 것.

을 정복하고자 하는 남성 의사들의 지배욕의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여성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이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먼저, 불임치료기술의 경우 남성에 대한 불임치료보다 여성의 몸을 통한 해결, 즉 시험관수정이나 배이식(胚移植, embryo transfer) 기술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 여성의 몸을 통한 기술은 불임여성에게 선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현대의학기술의 실험 재료 내지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한 여성의 성생활이나 건강은 더욱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군의 해저탐사 기술에서 유래한 초음파기술은 그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절차 없이 곧바로 일상적인 임신진단기술로 투입되어 사용되었고, 무려 15년이나 지난 1980년에야 이의 잠정적 위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생식기술이 얼마나 성급하게 여성의 몸에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새로운 기술은 당시 산부인과의사나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시각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혹적이었고, 이는 의사들이 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또한 산파를 대신해 현대의료기술을 이용한 분만이 자리잡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분만 도중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미국에서 현대적 병원의 설립과 더불어 산파가 급격히 감소한 1915~30년 사이 영아 사망과 산모 사망이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보이듯,[26] 이는 남성 의사들의 배타적인 권력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실제 여성

25) Gena Corea, *The Mother Machine: Reproductive Technologies from Artificial Insemination to Artificial Wombs* (New York: Harper & Row 1985); Patricia Spallone and D. L. Steinberg, *Made to Order: The Myth of Reproductive and Genetic Progress* (Oxford: Pergamon Press 1987).

26) Ann Oakley, *Essays on Women, Medicine and Health*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3), 128, 190~94면.

환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정착되기 시작한 현대의료기술이 지닌 어두운 면이다.

그렇지만 생산기술이나 가사노동 보조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식기술을 남성 의사들의 '음모'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은 초음파기술이나 다른 출산 보조기술의 발전에 여성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이런 기술이 여성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남성들의 지배욕망의 구현으로 해석하는 데 반대한다. 이들은 19세기 말 사산을 방지하고 출산의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한 중산층 여성들의 이해도 출산에 있어 외과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한가지 이유였음을 지적한다. 또다른 예로는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이들 생식기술을 이용한 임신 조절을 선호한다든가, 자기 아이와의 첫 대면을 좀더 빨리 하고 싶어 초음파검사를 선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가사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식기술에 대응하면서 기술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27] 물론 생식기술과 관련해 모든 여성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 혈통을 중시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산층 여성은 시험관수정을 불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고, 독신으로 아이를 갖고자 원하는 여성이나 레즈비언 커플은 인공수정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들 다양한 출산 보조기술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급진론자들이 이야기하듯 여성 전체의 이름으로 출산 보조기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이론적인 호소력도 희박하다.

그러나 이 생식기술이 성분업 이데올로기를 자동적으로 없애지는 못한다는 사실 역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생식기술은 여성의 몸에 집중적으로

27) Rosalind Petchesky, "Fetal Images: The Power of Visual Culture in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Michelle Stanworth, ed., *Reproductive Technologies: Gender, Motherhood and Medic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적용되는 형태로 발달해왔으며, 남녀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법적인 아버지로서의 권한이 정자제공자에게까지 확장되어 결국은 기존의 남성권한을 강화시키는 식으로 성분업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28]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는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남녀 간의 평등을 지향하며, 사람의 건강이 중시되는 의료기술과 생식기술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나가는 데 있다.

5. 새로운 기술은 가능한가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기술에 대한 기여, 현대공학에서 여성의 소외, 가사노동 보조기술과 생식기술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면서 기술과 젠더의 관련을 분석했다. 우리가 살펴본 연구들은 여성을 기술로부터 소외시킨 메커니즘이 남성 주도의 사회·문화 속에서 형성된 각종 제도적·이데올로기적인 장치였지 여성의 본성 또는 삶이 실제 기술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기술이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규명이 남성의 이해와 긴밀하게 연관된 현대기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는다. 타성(他性)의 욕구, 곧 남성의 욕구가 '여성'의 기원이라는 여성학자 매키논(C. MacKinnon)의 주장에서 보듯이, 우리는 객관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남성의 이

28) 인공수정은 법적인 아버지를 필요 없게 만드는데, 사실상 현존 사회의 법질서 안에서는 반드시 법적인 아버지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정자를 제공하는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거나, 아이의 엄마가 반드시 법적인 아버지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곧 아이에 대한 자신들의 법적인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현재의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기술로 인해 확대된 여성의 기회가 어떻게 제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Hanmer, 앞의 글, 185면.

해가 관철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현대기술이 곧 남성을 상징할 정도로 남성의 동반자로서 발전해왔다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이 무엇인지, 기술과 젠더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편견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여성에 대해 억압적이지도, 해방적이지도 않다. 물론 이 얘기는 기술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식의 기술의 가치중립성을 옹호하는 주장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젠더는 기술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술 역시 젠더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기술의 발전에는 젠더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요인이 개입하며, 이중 어떤 것은 젠더 요인의 본래 함의를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여성의 노력에 따라 남녀평등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여성의 편리함을 위해 봉사하는 듯이 보이는 기술도 사회의 다른 역학관계에 따라 실제로는 남녀의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의 '본질'이 여성에 대해, 자연에 대해, 인간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술에 '본질'이 있고, 우리는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증명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대개 현대과학기술은 여성을 지배, 억압하고 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억압적이지 않고 해방적인 과학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생산기술, 가사노동 보조기술, 생식기술의 예들은 여성과 기술의 관계가 억압인가 해방인가라는 양분법보다 훨씬 복잡함을 보여준다. 기술의 발달과정에 각인된 사회적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런 사회적 요인이 기술의 방향을 어느정도는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초기의 방향이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기술의 '운명'은 결코 아닌 것이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탈숙련화시킴으로

써 통제를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도입한 기술이 노동자들에 의해 변형되어 더 고급 숙련노동의 필요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역전'은 기술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예이다.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이 타이피스트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직업을 없앨 것이라는 예측은 대략 들어맞았지만, 복잡한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더 고급 여성인력이 대거 탄생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모던 사회주의 여성학자인 다너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싸이보그 메타포에서 여성과 기술의 바람직한 관계를 찾고 있다.[29] 싸이보그는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으로 기존의 유기체/무기체라는 이분법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개체를 의미한다. 이같은 싸이보그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해러웨이는 '여성'에 대한 정의 역시 싸이보그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자연/문화, 정신/육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 논리에 기반하여 '여성'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실제 여성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살고 있고 또한 변해왔다는 것이다.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싸이보그화를 통해 경계를 허물고, 여성과 기술의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것이 편협한 남성중심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성이 기술과 결합하는 싸이보그화의 정도가 커질수록 여성은 전통적인 몸의 정치학(body politics)에 수동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바이츠먼은 기술과 사회의 변화 사이에는 어떤 결정론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님을 들어, 여성들이 기술에 직·간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30] 기술 연구, 정책 수립 등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현재 진행되는 군사기술이나 환경오염 기술에 대한 비판을 더욱 근본적으로 수행하며, 전문기술지식에 새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및 성적 분업의 철폐 등이

29) Haraway, 앞의 책, 148~57면.

30) Wajcman, 앞의 책, 195~97면.

실행되어야 함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한 '여성성'에 근거한 기술 개발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들 젠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형성에 맞는 가치체계를 마련해 이에 따르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러웨이와 바이츠먼 모두 지금은 과거의 도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여성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할 때임을 강조한다. 기술 속에 각인되어 기술을 규정하는 젠더의 요소와, 기술이 발현시키는 새로운 젠더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다른 경향의 역학관계를 인식할 때 우리는 기술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적극적인 태도는 기술의 변화를 주시하고, 기술발전을 모든 문제의 해결로 생각하는 기술만능주의를 경계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이유 없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기술공포증 역시 배격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생산기술: 성별 분리된 직업 만들기

자본가는 자본가로서 그리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모두 기술을 선점한다.
Cockburn, *The Material of Male Power*

어둡고 악마 같은 분위기의 제재소에서부터 로봇에 의해 거의 완전히 운전되는 청결하고 자동화된 공장에 이르기까지,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생산과 임금노동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하며 바로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기술변화에 드는 비용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을 둘러싼 가장 격렬한 투쟁들의 일부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남성 직조공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위협하는 새 기계와 제재소들을 파괴한 것이다. 실제로 '러다이트'(Luddite)라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기술변화를 반대하고 따라서 진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은 또다시 대단히 빠른 기술발달을 보이고 있고 우리

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통신 기술의 근본적인 혁신으로 노동의 성격과 노동력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은 이와 같은 변화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성별 분리된 노동을 향한 새로운 영역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이 장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신기술이 노동의 비인간적인 면들을 제거해 줄 해방의 힘이 될지 아니면 노동을 기술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퇴보하고 파편화되고 강도 높은 노동으로 전락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앨빈 토플러(Toffler, 1980), 배리 존스(Jones, 1982) 그리고 앙드레 고르(Gorz, 1982) 같은 후기산업사회 이론가들은 '반도체 혁명'의 결과 산업사회들 내부로부터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들은 이런 급진적 변화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들은 기술혁신이란 산업발달에 투입되는 노동의 감소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경제로의 이동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반도체산업의 등장으로 사라진 직업들은 이런 새로운 산업부문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대체될 것이며, 지저분하고 기계적인 일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가정이나 '전자가내공업'(electronic cottage)으로 이관될 텐데, 왜냐하면 컴퓨터 처리를 통해 더 이상 거대 규모의 생산단위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종류의 낙관적인 견해로 노동사회학을 들 수 있다. 노동사회학은 최근에 '유연한 전문화'와 '신포드주의' 문제에 크게 관심을 집중함에 따라 점차 부상하게 되었다. 노동사회학은 신기술이 제공하

는 직업향상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동화는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노동숙련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경영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변화는 규모는 작지만 더 숙련되고 유연한 노동력을 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노동력은 신기술에 필요한 기능 습득이 가능한 그런 노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1]

한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는 노동에 대한 기술의 영향에 관해 훨씬 비관적인 견해를 불러일으켰다. 이 입장의 비평가들은 '후기-산업화' 시나리오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자동화는 퇴화되고 단순화되고 평가절하된 직업들, 위험하고 스트레스 많은 노동, 피고용인을 감시하는 고용주 그리고 노동강도의 심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일은 더 많이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기능은 이미 기술 안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운이 좋은 노동자라 해도 결국 기계를 돌보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커트 본너거트Kurt Vonnegut의 공상과학소설 『피아노 주자』(*Player Piano*)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계류 자체에 감시체계를 설치하여 생산결과를 감독하고 기록하는 감시체계 경영은 점차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노동착취는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이 같은 구도에서 접근할 때, 논의는 당연히 많은 질문을 낳게 된다. 생산기술은 노동조직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세력인가? 특히 생산기술은 여성과 남성의 노동경험과 노동성격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특정 기술들의 도입과 발달 자체가 젠더관계를 포함하여 현행 사회관계들에 의해 구체화되는가?

나는 비록 신기술이 변화세력을 대표하긴 하지만 그 결과들은 특히 젠더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기존의 노동조직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기술변화는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과 남녀 사이의 직업적 차별을 충분히 침식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 점은 먼저 무엇이 특정 기술발달들을 구체화시켰는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한다. 만약 기술이 특정한 직업정형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면 작업장에 성차별이 더욱더 반영되어 간다고 해서 그리 놀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노동력의 성과 작업장 내 젠더관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기술혁신의 방향과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방식들을 조사할 것이다.

성별 노동분업에 대한 기술의 영향

사무자동화와 여성고용

지금까지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항상 일해 왔지만, 선진 산업경제 안에서 여성 노동력이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일이다. 그런데도 노동과 기술에 대한 논쟁의 주도자들은 젠더문제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단지 맹목적으로 남성 노동자가 우세한 생산부문들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페미니스트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사무자동화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의 핵심 관심영역은 사무실 내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사무직과

비서직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고, 또 사무실은 기술이 불러일으키는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장소여서, 이 집단들이 기술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경험에 관한 이후의 많은 일반화의 기초를 이룬다.

사무자동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는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공존한다.[2] 몇몇 연구자들은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이 전통적인 비서직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무자동화로 비서직이 단순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서직이 다른 형태의 준(準)전문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상적인 타이핑 업무가 최소화되면서 사무직원은 좀더 책임 있고 숙련이 요구되고 성취도가 높은 일에 전념하게 된다고 본다. 기술의 진보는 고된 일을 줄이고 훨씬 통합된 노동과정을 가져옴으로써 노동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낙관적인 견해는, 새로운 사무기술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제한적이었고 또 현재에도 제한적인 노동기회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 사무자동화가 해방의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종종 기술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표명되고 있듯이, 페미니스트 연구자들 사이에서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은 반도체 기술이 여성노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이었다. 여성해방운동의 주요 관심사는 비디오 단말기기의 광범위한 사용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함의하는 바에 대한 것으로서, 눈의 피로와 두통에서부터 임산부에게 미칠 수 있는 방사능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무자동화 사용자들에 대한 많은 조사들은 시력문제, 반복근육손상, 가슴통증, 긴장, 두통,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증, 소화불량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신체적 · 심리적 증상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컴퓨터로 노동감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 노동강도가 이상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임을 추측케 한다. 그러므로 컴퓨터 단말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신기술에 대한 협상에서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좀더 일반적으로는, 사무노동의 전산화가 수많은 사무직들을 없애고 '서류 없는 사무실'을 출현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표출되었다. 워드프로세서는 새로운 기계들에 편입되어 있는 타이피스트들의 숙련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직도 비서가 소수 남아 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비서업무는 점점 더 기계의 통제 아래 일상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로 파편화되어 나간다고 보았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논쟁의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미니스트 토론 용어는 제1장에서 논의된바, '노동과정'이나 탈숙련화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시각의 영향을 받았다.[3] 노동과정 이론가들은, 기술은 결코 노동조직을 결정하는 자율적인 세력이 아니며 그 자체가 생산의 상호 적대적인 계급관계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기술결정론을 비판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노동의 분절화와 저임금화를 통해 탈숙련화로 귀결되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사무실 내의 정보기술 도입은 일반적으로 탈숙련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그 목적은 생산성과 이윤을 증대시키는 데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이피스트들을 탈숙련화하고 노동감시를 기계장치 자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노동과정론은 사무실을 화이트칼라 판 조립라인, 즉 사무실 내 업무가 수많은 하위업무로 분절되고 각 업무는 전체적인 생산과 다양한 종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전문화된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는 곳으로 묘사한다. 사무실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화이트칼라 노동의 조건은 갈수록 공장노동처럼 된다. 이로부터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프롤레타리아화'라는 (잘 알려진) 용어가 생겨났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사는 사무노동에 요구되는 숙련수준을 낮추고 그로써 노동비용을 줄인다. 그 결과로 근로자는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된다.

그러나 기술변화에 관한 자세한 경험연구들이 거듭 보여주었듯이, 현실은 화이트칼라의 프롤레타리아화 논제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특히 연구자들은 단순히 탈숙련화 혹은 노동의 질적 상승 중 어느 한 경향의 존재만 강조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주어진 직업에 요구되는 숙련수준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복합성이 증가하고 또 한편에서는 단순화와 평준화가 더욱더 확대되는 상반되는 경향이 공존했다. 반면에 몇몇 연구자들은 기계장치 자체가 모든 영역의 사무직을 균일하게 만드는 어떤 내적 논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일한 장치가, 이 경우 워드프로세서를 예로 들어보면 대단히 다른 노동경험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무자동화에 대한 그 어떤 분석도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사무직원들은 화이트칼라 위계구조 내에 각기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 워드프로세서 도입 이전의 사무업무의 분절화 정도 그리고 특정 시기의 특정 고용주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비록 특정 기술의 효과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기술이 야기하는

변화는 노동형태 내에서 작동하면서 기존의 차이들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기술변화는 이미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일정 정도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다."

영국에서 신기술이 타이피스트와 비서들에게 끼친 영향이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줄리엣 웹스터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사무자동화는 이 직업들을 변화시켰다기보다 이 직업들 내의 불평등을 더 강화시켰다(Webster, 1989).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사무 보조적인 업무의 합리화와 분절화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컴퓨터의 도입은 반복적이고 평준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타이피스트의 이 같은 경향을 더욱더 강화시켰을 따름이라는 것이다(Crompton and Jones, 1984 참조).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워드프로세서는 비서의 일상업무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다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으로 두 집단의 사무직 여성들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분리, 즉 일부 비서의 지위는 강화되고 타이피스트의 지위는 하락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사무업무의 발전에 관한 일반이론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에서 나오는 이 모순적인 그림은 부분적으로는 상이한 기술발전 단계의 서로 다른 경험들을 부적절하게 비교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기술 자체가, 그리고 그 사용과 축적된 효과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술발전의 한 국면으로부터 추론된 결론을 그 이후 국면에까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여기서는 미국 보험업계의 기술변화를 고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화의 첫 국면 동안, 대대적인 생산의 재조직화 없이 보험계약

과 평가 같은 몇몇 부문이 컴퓨터로 처리되었으며 이로써 특히 전통적인 여성 사무직원들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바바라 배런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보험업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이것은 노동력의 여성화를 동반했다고 주장한다(Baran, 1987). 초기에 컴퓨터가 도입되었을 때는 기존 위계구조 내의 업무 분절화가 강화되었고 또 그에 근거해서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훨씬 더 새로운 정보기술이 적용되면서 한편으로는 구 직업들을 내몰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절화된 업무들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이 창출되었다. 1983년에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새로운 사무직이 대졸여성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보험업에서 자동화는 남성의 전문적 기능의 탈숙련화를 가져왔으며, 여성 전문직의 소득을 이전의 남성 전문직의 소득보다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숙련 사무직종이 확산되었다 하더라도, 진급의 기회는 거의 없었다. 더구나 대졸 자격을 강조하고 비숙련 사무직을 없앰으로써, 도시의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과 백인 노동계급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는 더 좁아지는 것 같았다.

배런의 연구는 기술변화 과정을 단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연구는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여성 집단이 각기 다른 사무자동화의 효과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무자동화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노동과정 이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영이 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탈숙련화하고 종속시키는 방식에 대해 연구를 집중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경우 그렇듯이, 숙련노동자의 탈숙련화 문제는 이 같은 기술변화 분석에서 핵심 주제이다. 그런

데 사무직 노동에 관한 연구는, 남성 숙련직의 탈숙련에 대한 이런 연구들에 기대어 워드프로세서 도입 이전의 타이피스트 직업을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숙련유형의 기능으로 묘사함으로써 낭만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 사무직은 숙련직과 거리가 멀다. 숙련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특권적 지위와 노동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던 엘리트집단이었다. 타이피스트의 직업을 이처럼 낭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무직의 특수한 경우로서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숙련노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과 관련해서 볼 때, 숙련기능의 손실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초기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술발전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관계를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가 관계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들은 기술변화가 작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노동계급 내의 성별 · 인종 · 연령 · 숙련도에 따른 분업이 지니는 지속적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였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주로 계급갈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이들은 남성노동자만 가입하게 하는 숙련직 노조의 배타성을 강조함으로써 숙련직 모델의 부적절성을 드러내었다. 지금까지 숙련직 노조는 노동력 내에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술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이해도 생산관계는 계급분업뿐 아니라 젠더분업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신기술과 젠더관계

젠더와 기술에 관한 좀더 최근의 연구는 여성노동자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연구는 노동자들 간의 분업 문제를 중요시하며, 사업장 내 남성과 여성 관계 그리고 직업구성과 성별화된 직업이 함의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력 내의 여성의 지위를 주로 가정 내 노동분업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사회학적 설명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현상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리한 지위가 대개의 경우 집안의 노약자를 돌보거나 가사업무를 하는 데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Wajcman, 1983). 그러나 젠더관계는 재생산영역뿐 아니라 생산영역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직업의 정형화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의 가부장제적 관계에 의해서도 구성되고 재생산된다.

몇몇 논평자는 기계화로 과중한 육체노동이 사라진 것처럼, 기술발달과 더불어 여성노동과 남성노동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노동과정론 문헌은 이와 다른 관점에서, 기술이 점차 노동력의 균질화를 가속화시킴에 따라 여성은 노동력에 완전히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Liff, 1986, p. 75).

그러나 노동의 성격과 그 노동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숙련도가 크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직업의 정형화는 놀랄 만큼 안정되어 있다.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의 광범위한 성격 역시 잘 확립되어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직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는 개별 사업장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시간당 소득의 3/4 정도를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성별에 따른 직업의 분리형태는 유연하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 자체는 강고하게 남아 있는, 그 현저한 차이에 대한 것이다.

보험업계의 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여성은 전통적인 남성영역에 진입하기보다는 새로운 숙련을 요구하는 새로운 직업에 진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성별화된 관습과 실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의 배분조차 근본적으로 성별화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래밍과 같은 새로운 '하이테크' 직업에서 여성은 직업서열상 맨 아래쪽 지위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Kraft and Dubnoff, 1986). 최근의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왜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고 엄격하게 성별 유형화된 직업에 대한 갈등이 거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3]

이런 젠더관계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가능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신기술은 성별 유형화된 기존의 형태를 교란시키고, 그로부터 성별 노동분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이 대신 들어섬에 따라, 숙련기술자층 사이에 소동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는다. 남성 숙련기능 가운데 상당수가 업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신기술에 의해 매우 의도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기술은 독립적인 세력이 아니다. 기술이 업무의 성격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은 기존 관계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기술변화와 기술기회를 둘러싸고 갈등

과 협상이 이루어지며, 성별 노동분업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종종 남성권력에 의해 저지된다. 강력한 집단이 자신들의 기존 기능을 방어하고 신기술을 독점하기 때문에 여성은 이러한 투쟁에서 패배한다. 숙련노동자는 기술변화에 따른 투쟁에서 노동계급 이해의 옹호자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실 그 힘은 부분적으로 과거에 배타적으로 작업해 왔던 데서 유래한다. 그들의 이득은 종종 상대적으로 덜 숙련되고 덜 조직화된 노동력 부문의 희생으로 얻어졌으며, 많은 경우 여성의 배제에 기초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영국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여성들이 2차산업에 진입하였으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성들은 똑같이 정교한 과정을 거쳐 일터에서 추방되었다(〈그림〉 참조). 그러므로 공학을 비롯하여 그 밖의 2차산업 내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점과 기술에 직면해서 종종 여성이 느끼는 자신감의 결여는,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징표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학 내 여성의 저조한 참여를 수정하려는 공식적인 계획들은 종종 마치 문제가 단순히 여성들의 자신감 결여에 있는 것처럼 진행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술의 남성지배는 여성을 기술노동 영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지되어 왔다.

특히 인쇄업과 신문출판업은 전통적으로 숙련노조가 노동과정을 지배해 온 산업이다. 인쇄노동자들은 최근의 기술발달, 특히 이와 같은 전통을 훼손시킬 잠재력을 가진 전자조판 기술에 대해 저항해 왔다.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났던 동맹파업과 공장폐쇄는 신기술 시도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지녔다. 영국의 인쇄산업은 기술에 대항한 이 같은 투쟁에 내포

〈그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군수공장 노동자



자료: 오스트레일리아 전쟁기념관, 사진번호 13178.
미간 맥머키(Megan McMurchy), 마고트 올리버(Margot Oliver), 제니 손리(Jenni Thornley) 주연의 〈사랑인가 돈인가〉(1983) 중에서.

되어 있는 성의 정치학의 현대판 실례를 제공한다.

1986년 영국의 와핑(Wapping)에서 새로운 기술의 신문인쇄공장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플릿 가(Fleet Street)의 인쇄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노동과정의 통제권을 뺏으려는 경영진의 기나긴 시도의 역사에서 마지막 국면을 장식하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무렵에 컴퓨터로 처리하는 사진식자기 체계가 인쇄

산업에 도입되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널리스트와 광고업계 종사자들은 자기 원고를 직접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신기술의 도입은 식자공의 업무 통제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을 의미했는데, 왜냐하면 식자공의 전통적인 수작업(手作業) 기능이 기술적으로 불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숙련노동의 배타성과 인쇄공 노조의 지배력에 힘입어 당연히 런던 플릿 가의 신문산업에는 이런 종류의 기술혁명이 도입되지 못했다. 전후(戰後)에 이들 숙련공들의 임금은 대단히 높았다. 그중에서도 뜨거운 금속의 활자를 활자판에 짜는 식자공의 임금이 가장 높았다. 영국 식자기술의 역사에 관한 책에서, 콕번은 남성 숙련노동자집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식자공집단이 차가운 전자조판에 밀려 급속하게 허물어져 갔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Cockburn, 1983).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었던 노동영역이다. 고용주들은 이 기술변화를 통해 남성숙련공을 더 값싼 여성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난 10년 동안 식자공들은——자판기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컴퓨터 식자도구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기술적으로는 식자공의 숙련이 불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식자공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숙련통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식자공의 저항전략에는 비숙련 여성을 노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배제전략에는 인종적 · 종교적 편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숙련 인쇄노동자 중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WASP)의 비율은 반(半)숙련 혹은 비숙련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조직화된 남성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기술을 통해 여성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지적했으므로, 이제 이 지배가 영구불변의 성취가 아니라는 점을 말할 필요가 있다. 기계류에 대한 남성지배는——이 지배를 줄이려는 여성들의 직접적인 노력과 숙련 남성노동자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노동비용을 낮추려는 고용주들의 행동에 의해——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몇 가지 조건 아래서는 숙련 남성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대신 여성이 그 자리를 얻는 경우가 있다. 여성화의 과정은 종종 기술변화의 한 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이 이전에 남성이 수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같은 조건 아래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기술변화 과정에는 본질적으로 직업 자체가 변형된다는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핵심적인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의 도입에는 업무 숙련도의 저하와 그에 따른 임금 하락이 동반된다.

성, 숙련 그리고 기술능력

흔히들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비숙련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확실히 공식적인 분류에 따르면 여성들의 노동은 비숙련 혹은 반숙련 범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숙련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디지털 손목시계와 포켓용 계산기를 조립하는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정교한 손동작('재빠른 손놀림')과 지속적으로 정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손과 눈 동작의 균형을 맞추는 뛰어난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숙련'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간호사는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훈

련과 능력이 요구되는 또 다른 직업의 예이다. 그러나 간호는 여성들의 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직업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와 같은 업무는 사회적으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경시되기도 했다. 그 결과 '여성들의 일'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게 된다. 여성들의 일은 단순히 그 일을 여성들이 한다는 점 때문에 흔히 열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왜 여성은 자신의 노동에 요구되는 숙련을 숙련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했는가?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전통적인 남성의 노동영역에서 훈련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노동과 남성노동에서의 숙련을 구분한 근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숙련에 대한 정의는, 남성은 갖고 있지만 여성은 갖지 못한 기술적 능력보다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 사회적 구성들과 더 많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외부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업무에 부과된 숙련을 유지하고 또 지키는——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력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이런 집단적 노력은 주로 남성 노동계급에 의해 그리고 남성 노동계급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 노력들은 정기적으로 비싼 숙련노동을 값싼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고용주를 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성들의 저항은 또한 여성들의 이익에 반해 움직였다. 숙련을 수호하고 숙련의 '누수'를 막는 일은 거의 언제나 여성들의 직업참여를 저지하는 것을 뜻했다. 더욱이 고용주들이 여성에게 적합한 일은 특정 유형의 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데는, 숙련노동자들이 여성을 숙련노동으로부터 배제한 것에 부분적으로 그 책임이 있음에

틀림없다(Liff, 1986). 그렇지 않았다면 경영진과 노조 양쪽 모두에서 성별 노동분업은 현재보다 훨씬 더 논란이 많은 영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숙련의 지위는 전통적으로 남성성과 결합되었고 여성이 하지 않는 일로 이해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숙련은 비기술적인 것으로 그리고 평가절하되어 정의되었다.

그러므로 작업장 내에서 남성의 권력과 기계류에 대한 지배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상대적인 권력부족과 기술숙련의 결핍 사이에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 제1장에서 나는 기술에는 제품 자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할 줄 아는 육체적 · 지적 능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실제적인 지식(know-how)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현실적 혹은 잠재적 권력을 부여하는 자원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 실제적 지식이 기술노동의 계급정치에서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았다. 실제적 지식은 기술노동의 성 정치에서도 핵심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입과 특권적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능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권력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기술은 본래적으로 남성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기술숙련과 남성성을 동일시하는 이 지속적 힘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곡번이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는 기술의 남성성을 사회적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성이 기술에 친화력을 가지는 것은 남성의 젠더 정체성 구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기술은 우리의 성 정체성 안으로 들어온다. 여성성은 기술능력과 양립할 수 없다. 자신이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다

고 느끼는 것은 곧 남자답다고 느끼는 것이다."(Cockburn, 1985, p. 12)

일단 우리가 젠더구성이란 긴 역사를 가진 하나의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실천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동한다. 현재의 기술문화가 남성들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방식은 여성의 지속적인 배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식의 분석은 젠더관계의 문화적 측면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 작업장 내에서 젠더가 어떻게 사람들의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되는지 그 방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콕번의 식자공에 관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콕번은 숙련노동자들이 기술과 친숙할 수 있는 한 중요한 이유를 그들의 남성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Cockburn, 1983). 숙련공의 산업적인 힘은 기계에 대한 지식과 능력에서 나왔다. 이런 유형의 산업기술에 대한 지배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고, 여성노동자는 이런 기술숙련들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라이노타이프(오트마 머겐테일러가 발명한 타이프라이터의 이름. 한 줄씩 내용이 완성되면 입력되는 방식임—옮긴이)에서 전자 사진식자에 이르기까지의 기술변화는 문자 그대로 식자공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다. 식자작업은 이제 타이핑과 비슷해지고 주물대신 종이로 작업하는 것, 즉 공장노동에서 사무실로의 이전을 뜻하기 때문에 식자공들은 더 이상 식자작업을 진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숙련문화는 뜨거운 주물과 먼지로 뒤덮인 육체노동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런 노동의 제거는 자신들의 일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거니와 그들의 남성성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명히 기술숙련의 전유(專有)는 남성과 여성 사이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은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해 갖는 권력과 같은 의미에서 여성에 대해 권력을 갖지는 않는다. 우리는 노동관계를 고찰할 때는 필연적으로 계급관계를 고찰하게 된다. 계급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지식으로서의 남성들의 숙련문화는 피지배집단의 문화이다. 남성 피고용자 자체가 기술혁신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능력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기술은 일부 남성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실제적 지식이 주는 권력자원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급 차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다. 모든 여성이 다 기계장치와 기술적 지식에 대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여성 공장노동자와 기술적으로 훈련된 전문직 여성 사이에는 분명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콕번은 이들 여성은 모두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에서는 여성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체계의 설계자와 개발자 그리고 기계장치를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설치 · 관리 · 수리하는 사람은 남성이다. 여성은 단추를 누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에 개입하지는 않는다."(Cockburn, 1985, p. 11~12) 여성들 역시 자신들이 작동시키는 기계에 대해 상당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얻는 열쇠는 유연하고 전환 가능한 숙련에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남성의 소유물이다.

기술능력이 남성젠더 정체성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 곧

단일하고 일관된 형태의 남성성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 기술문화는 노동계급과 중산층 남성에게 부분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신체적 용맹스러움과 관련된 남성성의 숭배는 육체노동자들 사이에서 작업장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마 노동계급 남성은 자동차나 가정의 기계들을 수리할 때 좀더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중산층 남성은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기술지식을 통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이다. 게다가 계급분화뿐 아니라, 인종간 · 세대간 차이도 남성성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과 '남성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이 용어를 다원화해서 '남성성들'로 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제6장에서 남성적인 기술문화의 성격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토론하도록 하겠다.

업무의 재배치

반도체와 원격통신 기술의 발달로 업무배치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화이트칼라의 업무는 중심가에 집결되어 있지 않아도 되어 (임대료도 싸고 임금도 낮아질 수 있는) 교외의 사무실로 옮겨가거나, 모두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사무실의 해외이전은 물론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위성통신 역량이 증대하면서 그만큼 더 쉬워진 것만은 확실하다.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노동집약적인 마이크로칩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등 컴퓨터 제조업 내 생산과정의 와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성별 노동분업이 부상했다. 더 최근에는 해외주재 사무업무는, 선진 산업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의 자료 입력 및 처리 작업을

하는 데 저임금 여성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최신 자동화체계의 발달이 해외의 조립작업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자동화 (예를 들어 음성인식과 광학적 문자인식)의 발달은 해외주재 사무업무의 이용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가정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것을 '원격근무'(teleworking) 혹은 '재택근무'(telecommuting)라고도 부른다—의 발달은 기술이 업무배치에 끼치는 영향을 훨씬 더 잘 보여준다. 컴퓨터와 원격통신 기술의 결합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수많은 노동자들이 집에 있는 단말기로 업무를 보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일명 '전자공동체'(electronic cottage)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은 노동의 미래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에서 주연급 역할을 한다. 비록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적지만, 그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범위의 정치적 신념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재택근무는 미래 노동조직의 규범적인 사례이다. 후기산업사회 이론에 따르면, 작업장으로서의 가정은 사람들을 산업생산의 규율과 소외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재택근무는 자기규제적인 근무의 자유를 주며, 일과 사생활의 재통합을 가능케 한다. 게다가 재택근무가 확장되면, 남성과 여성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짐에 따라 임금노동과 무임금 가사노동의 공유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한다.

후기산업사회 이론가들은 전자재택근무를 긍정적인 미래의 일부로 간주하는 데 비해, 다른 이론가들이 볼 때 재택근무는 '혹사당하

는' 자기착취적인 하청업무라는 추악한 망령을 상기시킨다. 후자의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가택노동자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한 일련의 가설을 가지고 원격근무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들은 원격근무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이유는 임금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윤을 지키고자 하는 고용주가 선호하는 생산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격근무는 노동력의 임시직화와 비공식부문의 성장 추세로 나아가는 좀 더 일반적인 경향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두 시각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주로 기술 결정론적인 예언을 공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영역과 현대적인 영역을 막론하고 사무직과 서비스부문의 재택근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정보 신기술이 업무배치에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부터 이미 성장해 왔다. 유럽이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전문직 재택근무자와 사무직 재택근무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8] 남성은 관리자층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같은 전문직종을 주도하는 반면, 여성의 절대다수는 사무보조직원이다.

사무보조직 여성들 대부분이 어린 자녀가 딸린 기혼여성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는데다 양질의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재택근무는 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유동적인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육과 임금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어려운 일임이 밝혀졌다. 흔히 이들이 고용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

주는 노동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가택노동자들처럼, 전산화에 따른 재택근무자도 간접경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전형적으로 성과급 임금을 받으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비슷한 수준의 숙련 피고용자보다 훨씬 적게 번다. 게다가 고용주는 재택근무자에게 상근직의 지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유급병가와 같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용안정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무보조직 여성들에게 있어 전산화된 재택근무란 그 모든 불이익이 동반된 전통적인 가택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다.

반면에 남성 전문직의 근무형태는 집에서(at home) 일한다는 의미보다는 집을 기점으로 하여(from home)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무보조직의 근무형태와 전혀 다르다. 미국의 사례연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고도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기업이 재택노동을 실시한 경우의 관리직 및 전문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내가 참여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연구는 이 분야에 숙련이 축적되지 않음으로 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자영업 프로그래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남성 전문가들은 재택근무로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기점으로 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간접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자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임금노동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유연하고 다양한 노동형태들이었다. 사실 재택근무자는 매우 장시간노동을 했으며, 이것은 재택근무가 일과 여가 혹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어떤 식으로든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우리는 사

례연구 대상자 가운데 프로그래머와 워드프로세서 운영자들에게 재택근무가 작업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질문한 결과, 재택근무는 젠더차이를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즉 재택근무를 통해 대부분의 남성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데 비해, 여성은 더욱더 가족 중심이 되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신기술 재택근무에 관한 연구조차도 단일한 경향들을 보여주지 못한다. 전산화된 재택근무는 전문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에게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여성 사무직노동자에게 신기술 재택근무는 여전히 노동시장 내에 그들의 취약성—여성 숙련기술의 이용 가능성과 가사노동 분업에서 유래하는 취약성—을 반영한다. 신기술 재택근무는 오직 공급이 달리는 그런 숙련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직 남성에게만 명백하게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의 미래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그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전자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열광을 거의 보장해 주지 못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에 기초한 재택근무는 기술노동분업뿐 아니라 임금노동과 무임금 가사노동에서 성별 노동분업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는 또다시 여성이 진정한 기술직—이 경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직업—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전자시대에 여성의 전통적 위치가 재생산되는 명백한 예이다.

작업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

이 장에서 필자는 기술변화가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과 여성과 남성 간의 직업분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비록 신기술이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라 하더라도, 성별화된 노동의 특징은 성별 노동분업 내의 중요한 변화들을 억제해 왔다. 모든 영역에서 노동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했던 광범위한 기술변화의 시대에, 기술분업과 노동위계에서 성별화된 특징이 지속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였다.

이제 나는 초점을 바꾸어서 기술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특정 기술의 발명과 확산 자체가 사회세력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나는 노동력의 성과 작업장 내 젠더관계 자체가 기술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기술이 성별화되는 과정을 분석할 때만이 비로소 성별분업이 타파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신기술은 전형적으로 현존 기술을 변형시키거나 그 기술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출현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기술을 결정짓는 유일한 세력은 아니다. 산업혁신은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집단의 이익에 대항해서 수행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행동의 산물이다.

기술체계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며 보통 그 목적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높이는 것에 있다. 기술과학자가 한 체계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비효율성'이

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적들에 비추어보건대 비경제적인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합리성과 경제적인 합리성은 대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기술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은 노동비용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혁신이 노동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원을 받고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관계는 노동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계급의 특징을 분석의 중심에 놓고 있는 노동과정론은 기술변화 연구에서 중요하면서도 잘 정립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젠더와 관련해서는 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젠더의 시각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산업갈등과 기술혁신

일반적으로 장인노동(craft work)의 기계화는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주요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간주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생산은 장인의 기술과 지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그러나 20세기의 사반세기 동안 장인의 일은 세분화되어 나갔고, 그에 따라 고용주는 숙련노동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탈숙련화를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인들의 저항이 탈숙련화 과정을 어느 정도 조정했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7] 장인들은 자신의 숙련기능에 근거해 기계류의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 왔으며 또 그에 따라 노동자를 조직화했다. 이 전략의 핵심부분은 장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비(非)장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같은 사회적 배제는 종종 여성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전개되었다.

기술혁신은 서로 생산을 통제하려는 이 같은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8] 자본주의 발달의 초기단계에, 기계류는 생산의 통제를 둘러싼 투쟁에서 자본가와 경영주들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었다. 이 관점에서,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의 자동방적 '혼합기'(mule)(이 기계가 방적기와 수력방적기의 잡종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의 발달에 대한 마르크스의 고전적인 설명이 재검토되었다. 초기의 방적 생산과정에서는 성인남성 숙련 방적공이 중심 역할을 했다. 이들이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숙련기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하도급 체계를 통해 감독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방적공들은 고도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었고 잦은 파업을 통해 경영주의 권력과 이윤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였다. '자동방적 혼합기'는 이런 위협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응의 산물이었다.

1824년에 총파업을 겪으면서 수많은 공장주(manufacturer)들은 자신들이 방적공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 유명한 기계공학자이자 기계설계사였던 리처드 로버츠(Richard Roberts)에게 접근했다. 다음은 로버츠가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자동방적 혼합기는 방적공들이 하이드 파크에서 석 달씩이나 파업을 하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 그 무렵 경영주들이 파견한 대표단이 나를 찾아와서 자동으로 방적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Bruland, 1982, p. 103)

이 기계가 발명되고 도입된 분명한 목적은 방적공들의 권력을 부수는 데 있었다. 방적기술을 바꿈으로써, 공장주들은 기계를 다루는 남성들을 값싼 노동력의 여성과 어린아이들로 대체시키려고 하였다.

자동방적기는 방적공들의 투쟁성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실현시켜 주었다. 이 기계가 도입되고부터 방적공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했고 파업횟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사례는 특정 영역에서의 산업적 갈등이 어떻게 특정 종류의 기술혁신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사실 자동방적기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졌고 성인남성 방적공의 장인으로서의 지위를 파괴할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방적기의 수동적 요소들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적공은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였다. 방적공-보조공 체계는 단순히 그와 유사한 후견인-보조공 체계로 대체되었는데, 이 체계에서도 보조공을 충원하고 작업현장에서 보조공을 통제하는 책임은 여전히 후견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력 내에서의 이와 같은 위계적인 구분이 당시 면방적업 경영구조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라조닉은, 고용주에게는 남성 후견인의 기술이나 조직화된 힘보다는 오히려 매우 효과적인 노동관리 형태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Lazonick, 1979). 그러므로 기술변화의 조건을 이룬 것은 노동계급 내부의 위계적 분화였다.

자본가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자동화된 방적기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로 직공의 주의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감독 바로 앞에서도 덮어질 수 있는 상황보다는, 수백 개의 실이 뽑아져 나오다가 한꺼번에 끊어지는 식의, '바보 같은 직공'의 명백한 실수가 드러나서, 결국 그 후견

인의 하청수입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MacKenzie, 1984, p. 497)

자동방적 혼합기의 역사는, 기술변화를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 때는 노동계급 내의 분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숙련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신들의 노조에 비숙련 노동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경영주가 노동계급의 분화를 어떻게 자신들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련노동자는 자신의 기술을 기계와 통합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낮추려고 하는 자본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똑같이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숙련 노동자대중'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런 경계의 전형적인 예는 나이 많은 남성 백인노동자들이 적어도 젊거나 여성이거나 흑인이라는 특성 가운데 하나를 지닌 노동자 혹은 소수인종 출신의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달은 단순히 자본 전체가 노동 전체를 통제할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없다. 최근의 노동과정론 연구는, 기술은 탈숙련화를 통한 노동통제를 목적으로 구성된다는, 단순하면서도 일반론적인 경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닌 허약성을 거듭 지적해 왔다.[9] 나아가 이 연구는 자본가들 사이에도 이해관계와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적인 경영전략들과 과제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대응

방식으로 옮겨갔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 기술에 의해 탈숙련화와 세부적인 통제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지만 직업경쟁이 결국 숙련노동자의 통제권을 확장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들도 있다(Wilkinson, 1983). 자본과 노동유연화 간의 단기적인 경쟁적 압력도 분명히 기술에 의한 탈숙련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계급관계가 기술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전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전통적인 남성 노동조합 부분을 그 대상으로 했다. 가령 신기술이 작업장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은 놀라우리 만큼 공구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아마 이 점은 브레이버먼(Braverman)을 포함해서 많은 남성연구자들이, 숙련된 장인들이 비극적으로 폐기처분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숙련 기계공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위치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분명히 여성노동자는 이런 노동자들의 정형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술결정론에 도전하는 기술발달에 관한 경험적 분석의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래의 20세기 기술의 사례는 그로부터 젠더분석을 위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공구 자동화: 선택에 대한 사례연구

자동조정이 가능한 공구의 발달은, "발명가의 마음속에 있는 개념의 순간에서 시작하여 작업현장 안의 생산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특정 기술의 설계 · 발전 · 확산에 관한 상세한 연구의 주제를 이룬다(Noble, 1984, p. xiv). 이것은 '영웅적인 발명가'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주요 기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현 시점에서 현대기술이 받아들이기에는 특히 기운이 꺾이는 일이다.

데이비드 노블의 고전적인 연구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 1984)이 주장하는 핵심은 권력과 문화가치의 양식이 현실적인 기술발전 과정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종종 기술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가능성'과 '기술적 가능성' 같은 개념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이다.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의 방식 대신 선택될 수도 있었던 대안적 방식을 상세하게 재구성하고 또 이미 소멸된 다양한 수치제어의 형식들을 점검하면서 자동화가 반드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노블은 보여주고 있다. 즉 자동화의 형식은 계획적인 선택의 결과였던 것이다.

공구 자동화의 주된 목표는 통제권을 작업현장에서 중앙의 사무실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영주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공구를 자동화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었다. 사실 공구의 자동화는 수치제어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록재생장치'(record-playback)라고 불리는 자동화 기술도 있었는데, 이 기술은 수치제어만큼이나 유망한 것이었지만 곧 소멸되었다. 왜 수치제어가 채택되고 기록재생장치는 폐기되었을까, 하고 노블은 묻는다. 공구 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낳은 사회적 상황을 제공한 것은 다름아니라 전후(戰後) 시기의 노동의 투쟁성이었다.

기록재생장치는 기계공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였다. 이 체계 아래서는 기계는 더욱더 자동화되었지만, 기계공은 금속의 공급이나 속도, 절단횟수와 산출량에 대해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기계공은 기계를 통제했고 그 때문에 작업현장 내에서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수치제어는 잘 조직화된 숙련기계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기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운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설계와 개념적 기능은 모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계공이 하는 일은 단추를 누르는 일뿐이었다. 따라서 수치제어는 금속절단 기술일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였다. 수치제어기는 공장 조직체계의 변화를 가져와 결국 생산에 대한 경영주의 통제권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선택된 기술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기록재생장치보다 수치제어를 선호한 경영주들의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작업현장에 수치제어가 도입되는 것만으로 통제권이 경영진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수치제어의 도입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이와 동시에 경영진은 새로운 공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숙련기계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은 생산에 대해 완벽한 통제를 결코 얻어낼 수 없었다. 사실 기계는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탈숙련화 추세는 늘 모순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실제로 노블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에 뒤이어서 공구기술이 발전하면서 작업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프로그래밍을 제도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제성이 있게 되었다. 기술진보를 통해 적용 영역—소규모 일괄처리나 전문화된 생산을 하는 소규모기업 같은—이 새롭게 확대됨에 따라, 숙련 노동자들은 다시금 프로그래밍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실 이런 소규모기업의 운영조건으로는, 탈숙련화를 지향하는 경영

전략보다는 오히려 작업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른다.

노블의 연구는 여러 가지 상이한 수준의 기술의 사회적 결정들을 포괄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그의 연구는 기술을 단순히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경영진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공학자(engineer)의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를 비롯하여 전후 시기의 군대의 역할과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노블이 제시하는 사례를 보면, 비록 기술의 선택에서 균형을 깨뜨린 것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였지만 그는 통제권에 대한 경영진의 요구가 군대의 명령 및 통제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자동화된 것이 가장 발전된 기술이며 인간적인 요소는 '인간적 실수'의 잠재적인 원인이므로 생산과정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학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가 경영진의 통제권에 대한 사고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블은 다양한 계급적 요소들이 공구의 설계와 적용방식을 결정짓는 데 개입하고 있는 점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들 가운데 젠더구도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젠더구도는 국가나 자본, 노동조합의 역할을 통해 관찰될 수 있었겠지만, 공학자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에 대한 그의 매우 탁월한 설명에서 특히 분명해진다. 컴퓨터와 가장 자동화된 기술에 매혹되어 있는 공학문화는 전형적으로 남성문화이다. 그리고 공학문화는 기술변화에 대한 계급적 시각과 젠더적 시각을 통합시킬 수 있는 뛰어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영역이었다.

성별화된 기술관계

지금까지 제시한 분석에서 핵심을 이룬 것은 계급분화였지만, 기술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관계이다. 성별분업이 기술변화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노동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여성 임금노동의 노동가격은 남성 임금노동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다. 이런 노동가격의 격차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주는 고임금의 숙련 남성노동자를 저임금의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덜된 여성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변화의 형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기계는 노동비용이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값싼 여성노동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산업부문에서는 기술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라는 점이다.

기술발달의 속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노동력의 가격과 숙련유연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의류산업의 경우 봉제과정의 기술수준은 19세기 이후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다. 물론 재질이 약하다거나 스타일과 패션이 자주 변하는 점과 같은 의류생산의 기계화를 어렵게 하는 순전히 기술적인 장애물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이 있다면 자동화에 투자하려는 동기유발은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숙련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불균등한 기술발전 속도 사이에는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전통

적으로 바느질은 여성이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제3세계 국가들이나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이민여성들 중에서 저임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봉제공이 비숙련 노동자로 간주되는 사실은 대체로 그들에게 산업적인 결집력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또 대규모 여성 산업예비군이 형성되어 있어 봉제산업 내에서 이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전에 옷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재봉틀에 앉아 옷을 만들어내기란 누구에게나 불가능하다. 유능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계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봉제산업이 여성의 경우 그 기계에 익숙한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 산업부문에서는 기계에 대한 이런 친숙함을 여성에게 당연한 바느질 소질로 치부하고 그에 따라 이런 기술적 숙련을 평가절하하고 불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10]

그러나 좀더 직접적인 의미에서 젠더관계는 기술에 흔적을 남긴다. 내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최근의 페미니스트 연구는 여성노동과 남성노동의 숙련 구분은 실질적인 기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직업통제와 임금수준에 의해서도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런 설명방식은 숙련의 실제적인 근거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남성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숙련에 걸맞은 기계와 도구를 선택적으로 설계한다. 기계류는 남성에 의해, 남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 즉 산업기술은 자본지배뿐만 아니라 남성권력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활자조판의 변형: 성편견에 의한 구성

기술의 젠더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활자조판의 역사를 연구

한 콕번(Cockburn, 1983)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콕번은 컴퓨터화된 사진식자 체계의 기술발달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노블과 마찬가지로, 콕번 역시 자동화는 반드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는 없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지금의 자동화 형태는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콕번은 왜 기술적으로 특정한 방식이 선택되는가 하는 것은, 젠더관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포함하여 생산의 갈등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때만이 비로소 이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컴퓨터 사진식자 기술은 '쿼티'(QWERTY)로 알려진 자판기를 사용하는데, Q-W-E-R-T-Y는 재래식 타자기의 왼편 위에서 둘째줄에 있는 활자들이다. 이것은 현재 컴퓨터 자판기의 표준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컴퓨터 사진식자 기술에서 꼭 이 쿼티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 사실 전자회로는 새로운 형태의 자판기인 라이노타이프 배열을 완벽하게 생산해 낼 수 있다. 라이노타이프 폴(Linotype Paul)은 이미 새로운 자판기를 만들었다. 라이노타이프 자판기의 배열은 쿼티의 배열과 크게 다르다. 쿼티는 44개의 자판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라이노타이프는 90개의 자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라이노타이프는 알파벳의 배치도 타자기와 다르고 자판이 더 크고 자판과 자판의 간격이 더 넓다.

그렇다면 쿼티 자판기가 설계되고 선택된 그 이면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까? 라이노타이프 배열을 폐기하기로 한 데는, 전체 장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라이노타이프 식자공의 숙련과 권력기반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체계를 선택하려는 경영진의 뜻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력작업은 능숙한 타이핑 능력

정도만 요구할 터이므로, 식자공은 새로운 자판기를 다룰 수 있는 신참들로 축소될 것이다. 또 쿼티 자판기의 도입은 타자수(주로 여성)와 라이노타이프 식자공(남성)을 동등한 경쟁자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여성 타이피스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터였다. 쿼티 기술은 상대적으로 값싸고 풍부한 여성 타자수 노동력을 사용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고안된 것이 분명했다.

기계화된 활자조판의 역사를 보면, 설치장비의 설계에 나타나는 명백한 성편견의 또 다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에 라이노타이프의 경쟁자는 해터슬레이(Hattersley) 식자기였다. 식자공들은 활자를 짜는 작업과 배열하는 작업이 분리되어 있는 해터슬레이 식자기 같은 기술체계를 싫어했다. 그런데 해터슬레이는 어린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배열작업이 분리되어 있는 체계였다. 식자(숙련노동)와 배열(활자를 다시 활자통에 집어넣는 비숙련 노동)의 분리는 총노동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식자공들은 고용주가 훨씬 값싼 비숙련 노동력을 일단 조판실에 발을 들여놓게 한 다음에 점차 확장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반면에 라이노타이프 기계는 전반적으로 식자공의 식자기술을 기계화할 뿐, 그 기술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이 성공적인 기계의 핵심적인 측면은 식자배열 작업을 공정에서 제거해 버렸다는 점이다—여기서는 구리 주형에 용해된 금속을 넣을 때마다 활자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활자는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식자공들은 아동노동을 고용하지 않고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라이노타이프 기계를 환영하였다. 심지어 남성들의 노동조합인 '런던식자공회'는 1893년에 라이노타이프 회

사에 다음과 같은 축하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소년 · 소녀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핵심적 조건의 하나인데, 라이노타이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노타이프 기계는 배열작업을 없앰으로써, 소년과 여성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 그러므로 노조의 조직화된 힘을 고려하여, 라이노타이프 제조회사는 식자공 노동조합 남성들에게 유리한 기술을 채택한 셈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생산기술은 남성의 권력을 반영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신체적 힘이라는 물질적 현실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신체적인 이유로 수많은 직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지금도 여전히 남성은 원래 여성보다 힘이 더 세며 그렇기 때문에 몇몇 특정한 직업형태에는 남성이 훨씬 적합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곡번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남성은 강하고 능력 있고 몸으로 하는 일을 잘하고 기술적으로 재능이 있는 존재로, 그리고 여성은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존재로 구성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Cockburn, 1983, p. 203).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접촉해 본 경험이 다르고 서로 다른 역할모델이 보편화되어 있고 학교활동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성별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분리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분리의 효과는 남성의 강함에 맞춰 기계류와 작업내용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편견으로 나타난다.

조판작업의 경우, 활자를 짠 조판을 들고 옮기는 것이 그 적절한 예이다. 조판은 무거워서 사실 여성들뿐 아니라 많은 남성, 특히 나이

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견습생들도 힘에 부쳐한다. 그러나 이 작업을 근육이 요구되는 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의 임금을 삭감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게 된다. 조판의 크기와 무게는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인쇄기와 인쇄용지 역시 더 작아질 수도 있었다. 오직 전통만이 조판을 옮기는 데 사용할 승강기와 운반수레의 무게를 결정하였다. 작업단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없다. 건초 한 꾸러미이건 50킬로그램짜리 시멘트나 회반죽 포대이건 그 기획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노동과정의 설계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고 생산비용을 낮추는 한 그쪽을 선호한다. 남성노동자는 자신들을 유능한 노동자로 그리고 여성노동자를 부적절한 노동자로 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체적 · 기술적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게 기계류와 작업을 설계한다.

기술과정과 산업기계류의 설계는 압도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형태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은 다름아니라 공학자와 그 기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지식과 경험이다. 흔히 기계장비는 '평균적인'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겁게 제조 · 조립된다. 그러나 이것이 의도적인 과정이거나 음모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오히려 기존의 권력형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남성은 항상 기계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자본의 이해관계는 하나의 젠더로서 남성의 이해관계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기술들은 남성의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여성이 사

용할 수 있게 설계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젠더분화는 자본과 노동의 권력투쟁 속에서 수탈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을 결정하는 사회적 관계에는 계급관계뿐 아니라 젠더관계도 포함된다.

이 장에서 나는, 기술은 하나의 추진력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를 예고했다기보다 오히려 노동력과 고용기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성별 · 계급 · 인종 관계 속에 편입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몇 가지 새로운 정보서비스업 부문에서 여성의 취업기회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직업'은 여전히 강력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회관계가 기술 속에 표현되고 기술을 결정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기술발전의 속도와 방향은 성별 노동분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 기존의 젠더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주

1) 이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한 것으로는 Pollert, 1988 참조. 폴러트는 이른바 '좌파-개혁주의적' 연구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옹호하고 있는 '유연한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는 경영학에서의 '유연한 기업'(flexible firm)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2) Liff(1988)와 Webster(1989)는 사무자동화에 관한 뛰어난 문헌고찰에서 역시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연구협의회(American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의뢰로 작성된 두 권의 주요 보고서 Hartmann et al., eds., 1986; 1987 참조. 여기서는 기술변화가 여성고용, 특히 사무직에 양적 · 질적으로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3) 이 문헌에 포함된 다양한 논쟁은 이미 몇몇 연구들에 의해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가 거듭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노동과정 논쟁에 관한 뛰어난 소개로는 Thompson, 1983 참조.
4) 기술은 성별화되어 설계된다는 나의 주장을 예측하면서, 줄리엣 웹스터(Juliet Webster)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주었다. 즉 초기의 워드프로세서는 본체나 모든 종류의 PC에 다 사용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개발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워드프로세싱 전문 소형 컴퓨터의 개발로 제한되었다. 이 특정 디자인은 이전에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일했던 여성 사무직노동자를 주요 사용자로 겨냥해서 고안되었다. 이 워드프로세싱 기계는 이전의 기계적 과정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드웨어에 자료편집 기능을 장착하고 키보드는 자료편집용으로 배열했으며 화면은 마치 종이를 연상케 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컴퓨터(파란 기술)보다는 사무자동기계(분홍 기술)를 잘 다루고 그것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5) Game and Pringle(1983)과 Cockburn(1985)은 모두 기술발전이 근본적으로 직업의 기능 및 업무범위를 변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라는 구분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이런 기술직업을 여전히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고용에 관한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직업의 성별화에 관한 최근의 영국 연구를 살펴보려면 Purcell, 1988 참조.
6) 재택근무에 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로는 Wajcman and Probert, 1988 참조. 여기에는 재택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문헌요약이 실려 있다.
7) 탈숙련화 논쟁에 관해서는 Thompson, 1983(특히 4장) 참조.
8) 이 주장에 관한 자세한 서술은 MacKenzie and Wajman eds., 1985(특히 Bruland and Lazonick의 글) 참조.
9) 최근의 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Elger, 1987 참조.
10) 숙련도를 평가절하하는 의류산업에 관한 토론은 O'Donnell, 1984(제5장) 참조.

3
재생산기술: 남성들의 손으로 넘어가다

젠더와 기술의 관계를 둘러싸고,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 영역만큼이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여성이며 또 대부분의 사회에서 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여성이다. 그러므로 재생산기술은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산아제한 문제는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모든 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들이, 의료 지식과 행위를 남성이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항했던 여성들의 투쟁을 역사 곳곳에서 찾아내어 알리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 분석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임신과 출산 과정이 갈수록 더 복잡하고 공격적인 기술에 의해 지도·감독되고 있다는 인식인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인식은 더욱더 타당성을 지닌다. 이 시각에는, 재생산은 원래 여성에게 고유한 자연적인 과정을 뜻하는 개념인 데 비해, 기술은 가부장적이고 여성과 자연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라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대체로 이 문제에 관한 초기의 논쟁은 한편으로는 페미니스트 운동 내부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극우파 안에서 각기 진행되었다. 흥미롭게도 사회주의자들은 재생산기술 부문에서의 최신 발전에 대해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켰는데, 아마 이것은 이와 같은 발전이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혹은 전통적으로 좌파의 관심영역인 작업장 생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재생산기술은 생명체 세계에 인간의 개입역할이라는 복잡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 생명기술이다. 이 장에서 나는 재생산기술을 점점 더 발전하는 최상의 의료기술이라는 훨씬 광범위한 맥락 속에 놓고, 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재생산기술에 관한 페미니스트 관점

재생산기술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기술적 변화를 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기술결정론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1] 아마 다른 어느 영역보다 재생산 영역의 주요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여성의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기술을 통해 출산의 고통과 위험이 사라졌다고 본다. 건강한 임신과 건강한 아기는, 고도로 의료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이 되어버린 현대의 임신기간에 대한 치료의 경이로운 결과로 간주된다. 임신 초기 태아의 발육상태를 검진하는 새롭고 정교한 기술들은 '결함 있는' 태아를 유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전에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불임여성들은 이제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기회를 약속하는 불임 프로그램에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일반적인 인식은, 임신조절 기술의 진보를 남녀평등을 향한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열쇠로 보는 것이다. 믿을 만한 피임법과 임신중절 시술의 광범위한 확산—여성들은 종종 이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했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림 3-1〉



자료: Recycled Images

기술은 여성해방의 열쇠이다

제2차 여성해방운동의 초기에 재생산기술은 궁극적으로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특히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턴(Shulamith Firestone)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정교한 재생산기술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다.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 1970)에서 파이어스턴은 여성억압의 본질을 지휘하고 있는 '재생산의 횡포'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피임 및 출산 기술의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녀는 가부장제를 근본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히 섹슈얼리티와 출산능력에 대한 남성의 지배로 이해하였다. 파이어스턴의 시각에 따르면, 여성억압의 원인은 바로 여성의 신체에 있으며 체외 재생산 같은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중립적인 기술을 적용하면, 생물학적 모성은 종식될 것이고 따라서 성적 평등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파이어스턴의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인공자궁이 여성해방의 열쇠라는 그녀의 열광을 공유하는 페미니스트 분석은 없었다.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기술발전을 위해 여성의 신체가 실험대상으로 이용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런 기술들이 여성의 모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유전학 연구나 생명공학, 불임치료는 이제 파이어스턴의 생각이 더 이상 환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만큼 극적인 진보를 이룩하고 있다. 태아와 어머니의 유기체적 통일은 더 이상 당

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의 재생산기술은 인간의 난자와 배아(embryo, 수정 후 12주까지의 태아를 지칭—옮긴이)를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기거나, 한 여성의 몸에서 난자와 배아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생산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주요 집단으로는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은 여성들을 비롯하여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와 의료행위자들이 있다. 저명한 불임치료 의사들은, 배아연구는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몇몇 유전병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영국의 한 하원의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 발생학과 인간의 수정작용에 관한 의료연구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이 인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불임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임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 이 연구자들은 괴물이 아니다. 그들은 과학자이다. 그들은 의료과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답하여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갖게 된 불임부부들은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Pfeffer, 1987, p. 81)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과학적 연구에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것은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각 정부는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허용범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신성한 창조의 영역에 과학과 기술이 가차없이 침범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윤리적 · 종교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매우 강하다. '생명권리를 옹호하는 모임'에서는 인간배아학 연구와 체외수정 실시에 대한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임신중절을 창조에 대한 인위적인 방해행위라고 보고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태아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려고 한다. 따라서 만약 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실험 프로그램을 허가해 주고 또 자원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격렬한 공개토론이 이루어진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유럽, 북아메리카에서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새로운 재생산기술과 유전공학이 여성의 삶에 가져올 영향이 점점 더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다. 낙태와 피임이 여성성을 모성과 동일시했던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했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이 새로운 의료기술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기보다는 실현시켜 준다.

페미니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체외수정과 같은 테크닉이 강력한 모성 이데올로기와 공존한다는 점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체외수정 프로그램들은 모성애를 사회관계이기보다는 신체적 명령인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크리스틴 크라우가 관측하고 있듯이, "체외수정은 불임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기술개입을 통한 신체적 모성으로의 길을 마련해 줄 뿐이다"(Crowe, 1987, p. 84)." 의사와 언론매체들은 이러한 기술이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강화시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불임의 여성을 필사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토론이 선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아이를 가질 것을 선택

할 권리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체외수정과 같은 재생산기술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정말 여성이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이 여성에게 선택의 기회를 높여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재생산기술은 가부장적 지배이다

유전공학과 재생산기술의 발전 및 적용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은 1984년에 FINRRAGE(Feminist International Network of Resistance to Reproductive and Genetic Engineering, 재생산기술과 유전공학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국제네트워크)를 결성한 급진적 페미니스트 그룹이다. FINRRAGE는 지나 코리아(Corea, 1985), 갤나 핸머(Hanmer, 1985), 르네이트 클레인(Klein, 1985), 마리아 미즈(Mies, 1987) 그리고 로빈 롤랜드(Rowland, 1985) 같은 저자들에 의해 대변되는데, 이들은 재생산기술의 발전을 여성의 신체를 가부장적으로 착취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본다.

파이어스턴이 여성의 재생산 역할을 여성억압의 근원으로 보았다면, FINRRAGE의 페미니스트들은 모성경험을 여성 정체성의 토대로 바로잡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롤랜드가 표현하고 있듯이, "모성애 혹은 모성적 사고의 특성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기과시적인 남성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owland, 1985, p. 78). 이전에는 섹슈얼리티로부터 재생산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기대를 모았던 기술이 이제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 이론은 이 기술을, 과거에 여성의 유

일한 권력근원이었던 재생산 능력을 탈취하는 시도로 간주한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여성 중심적 과정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려는 것이다. 핸머에게 "[가부장적] 지배의 주도적인 양식은 결혼을 매개로 개개의 남성이 권력을 행사하는 형식에서 과학과 기술을 매개로 사회적 범주로서의 남성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 지배와 투쟁의 장소가 섹슈얼리티에서 재생산과 육아, 즉 모성애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Hanmer, 1985, p. 103).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무시하고 묵인해 왔음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이들 페미니스트 집단에게, 재생산 신기술과 유전공학은 "또 다른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유전공학과 재생산 신기술은 여성 스스로 자기 신체를 결정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시도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체외수정이나 난자기증, 태아성감별, 배아검사 같은 테크닉들은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들 페미니스트들은, 여느 산부인과 절차들이 처음에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소개되었다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임산부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용되듯이 재생산 신기술도 결국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이용되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FINRRAGE는 유전공학 및 우생학(eugenics)과 재생산기술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체외수정과 같은 테크닉은 연구자에게 배아를 이용한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남성들이 품종개량을 목적으로 한 동물실험을 통해 동물의 재생산을 더욱더 통제할 수 있게 된 것과,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실험을 하는 것 사이에서 유사점이 도출된다. 여성의 몸은 원료로

간주되어 박탈당하고 파편화되고 해부되며, 클레인이 표현하고 있듯이 기술을 통한 인간생산을 위해 '살아 있는 실험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표현은 코리아(Corea)가 묘사한 '재생산 매춘굴'이라는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코리아는 현재 동물들이 마치 사육기계처럼 취급되고 있는 방식으로부터, 여성들이 전문적인 사육자, 즉 남성의 명령을 따르는 '엄마기계'(mother machine)가 되는 미래를 추론해 내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실제로 이런 재생산기술들은 유전적으로 완벽한 아기의 제조를 보장함으로써 결국 자연분만을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마침내 남성은 인간의 창조를 완벽하게 통제할 것이고 여성은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재생산을 통제하려는 가부장제적 욕망을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였다. 즉 남성의 재생산에 대한 지배욕망은 여성의 출산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멸에 대한 추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태아와 여성의 몸을 분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 기술은 "여성의 출산능력이라는 창조력과 잠재적으로 오염된 권력을 제한하고 가두어두고 속박하고 싶어하는"(Oakley, 1976, p. 57) 고대의 남성적 충동의 특수한 형태로서, 한마디로 자궁에 대한 남성의 질투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과학과 기술을 근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점은 특히 미즈의 연구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FINRRAGE는 '자연과 여성의 비착취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페미니스트 과학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지닌 남성적 특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철학의 이론화 작업은, 현재 재생산

기술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토론들에 크게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즈는 이 기술을 적용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기술은 본질적으로 지배의 도구, 즉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전쟁의 새로운 단계"라는 점이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자연의 착취와 지배, 여성의 착취와 종속, 다른 사람의 착취와 억압"을 기초로 하고 있다(Mies, 1987, p. 37). 이것이 자연과학의 근본 논리이며 그 모델이 바로 기계라고 미즈는 주장한다. 미즈가 볼 때, 기술적 진보의 방법이란 살아 있는 유기체들간의 자연적인 연결고리들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남성공학자의 계획에 따라 이들 유기체를 기계처럼 재조립하기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요소들로 나누어서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도의 목표는, 그래도 생명은 자연과 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풍조'(moods)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즉 재생산기술과 유전공학은 남성의 자연지배에서 '마지막 미개척분야'를 정복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산기술은 중립적인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페미니스트 그룹은 재생산기술을 여성에 대한 일사불란한 공격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여성의 삶에 이중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셸 스탠워스는 신기술 혁명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많은 신기술들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싶은 필수적인 자원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tanworth, 1987, p. 3). 이들은 이와 같은 신기술이 여성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만 여성에게 힘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토론은 '손해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된다.

이 연구자들은 여성운동이 대부분 불임문제를 무시했으며, 이런 하이테크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을 '과학에 맹목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의 수동적인 희생자로 취급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FINRRAGE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사실상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진정한 욕망 때문에 그와 같은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런 기술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은 "남성들의 미사여구 및 환상과 현실적인 권력관계를 혼동하고, 그로 인해 재생산 상황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반응을 지배적인 (그리고 여성을 희생시키는) 남성적 텍스트에 파묻혀 버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Petchesky, 1987, p. 71). 그러나 현재 재생산기술은 불임여성들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이들이 '재생산을 선택할 권리'는 마땅히 지지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자그룹은 기술 자체가 가부장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급진적 페미니즘 시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 대신, 이 의료/기술 과정이 어떤 제도적 장치 안에서 진행되는지를 문제삼는다. FINRRAGE 연구자들은 신기술이 필연적으로 여성을 무력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술혁신을 거부하는 데 비해, 로절린드 폴락 페체스키(R. P. Petchesky)에 따르면 "기술 자체에서 응용된 재생산기술과 그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관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Petchesky, 1987, p. 79). 이와 비슷하게 스탠워스 역시 문제는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속해 있는 문화적 ·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이 기술의 의미를 끌어내는 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Stanworth, 1986, p. 26).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재생산 신기술들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쟁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그래서 이 논쟁은 초기의 페미니스트 문헌보다는 '차이의 정치학'을 주장하는 최근의 페미니스트 문헌에 더 민감한 특징을 보인다. 바야흐로 젠더, 즉 여자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는 곳곳에서 성적 지향성과 나이, 인종, 계급, 역사 그리고 식민주의 같은 매개물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기술은 제1세계와 제3세계 여성에게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나 나라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이 문헌들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강점이다.

재생산 영역에서의 의료 및 과학의 진보가 동반하는 실질적인 위험은 오히려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체외수정 같은 값비싼 테크닉의 혜택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이런 테크닉을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의료권력과 테크닉의 남용에 가장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양수검사 테크닉이 태아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시키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영구불임과 '데포-프로베라'(Depo-Provera) 같은 피임약의 시판을 비롯하여 위험한 실험은 특히 유색인종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는 유전자감식 형식이 사용될 수 있음으로 해서, 이것에 의해 '유전적인 결함'의 내용이 규정되고 또 사회가 불

구를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랜디 패런트의 연구는 영국에서 태아감식에 관한 의료치료는 양수검사가 허용되는 조건으로서 임산부로부터 낙태 동의서를 받는 형태를 취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Farant, 19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기술들은 여성이 재생산에 관한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인구통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FINRRAGE의 분석과 입장을 달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위험이 기술 자체의 기능에서 파생된 것이라기보다, 그 기술을 오용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텐워스는 이 같은 입장을 "재생산기술은 양날의 칼이었다"라는 말로 요약한다(Stanworth, 1987, p. 15).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아이를 가질지를 결정하는 데 기술적으로 더 많은 선택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진과 국가가 재생산기술의 대부분을 지배함으로써 타인이 여성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한층 커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은 여성 스스로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여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재생산의 경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설명에서 간과되고 있는 재생산기술의 정치적 측면은, 기술이 질병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불임'은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할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기술적인 개입이 가능한 의료상황이 되고 있다. 설사 불임여성이 그러한 의료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술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자체가 상황을 바꾸어놓는다. 즉 이런 여성의 '불임'은 이제 치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테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할 때는 강력하게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생산기술은 모든 여성의 모성기능을 강화시키고, 개개의 여성에게 모성역할을 더욱더 내재화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그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런 기술을 사용할 권리에 강조점을 둔 주장은 역사적 · 사회적 관계가 이 기술 속에 내재되는 방식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에게 동기유발을 시키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여성이 선택하는 기술 자체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토론자는 많지 않다.[9]

체외수정, 난자기증, 인공수정 그리고 대리모와 같은 테크닉은 유전적으로 부모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직 '자기 자식'을 갖는다는 가치관, 즉 자신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자식을 갖는다는 가치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만 개발되고 있다. 패트리샤 스팰론이 주장하듯이, 워노크 위원회는 이러한 가치관에 근거해서 여성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범위를 평가했다(Spallone, 1987, pp. 173~74). 갖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워노크 위원회는 난자기증을 통한 체외수정을 남편과 유전적으로 연결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자궁세척을 통한 난자기증 테크닉(배아세척 혹은 배아이동)은 신체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 절차는 의료 차원에서의 위험부담이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으나, 난자를 기증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두 명의 여성이 임신을 공유하게 되는 셈이며, 난자를 기증한 어머니의 존재는 일반적인 범주로서의 모성애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기술은 여성건강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이 아니라, 가족 내 혈연관계를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되었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매우 제한된 범위의 기술적 선택권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FINRRAGE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들은 새로운 재생산기술이 함의하고 있는 성의 정치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기술의 사용/오용 모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기술 자체가 지닌 정치적 특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FINRRAGE 분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 나의 견해로는, 근본적으로 젠더관계가 지금과 같은 재생산기술의 형태를 구조화했다고 보는 FINRRAGE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기술을 단선적인 남성음모라는 맥락에서 개념화할 필요는 없다. 랭던 위너가 말했듯이, "기술결정에 정치적 차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의도적인 음모나 악의를 찾아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Winner, 1980 p. 125). 뿐만 아니라 남성은 하나의 동질 집단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것도 아니다. 의료기술의 착안과 개발에서부터 일상 시술부분으로 자리잡는 것에 이르기까지 의료기술 전개의 모든 단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남성들의 활동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개입되는 남성들의 이해관계는 전형적으로 백인 중산층 전문직의 이해관계이다. 재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전개시키는 노동분업은 성별 노동분업인 동시에 직업별 노동분업이다. 환자는 여성인 데 비해 산부인과 의사와 분자생물학자, 발생학자는 남성이다.

만약 우리가 기술은 근본적으로 중립적이지만 오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 및 개발되고 있는 기계들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재생산기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혹은 더 진보적인 개발을 가로막는 사회적 · 경제적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 전체를 통해 나는 어떤 종류의 기술은 특정 형태의 권력 및 권위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생산기술의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영역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재생산기술 영역에서 남성의 기술전용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결정적인 시도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정 기술이 출현하는 과정과 또 역사적으로 서구의학에서 남성의 주도권이 확립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정 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출산의 의료화와 기계화

남성들의 손으로 넘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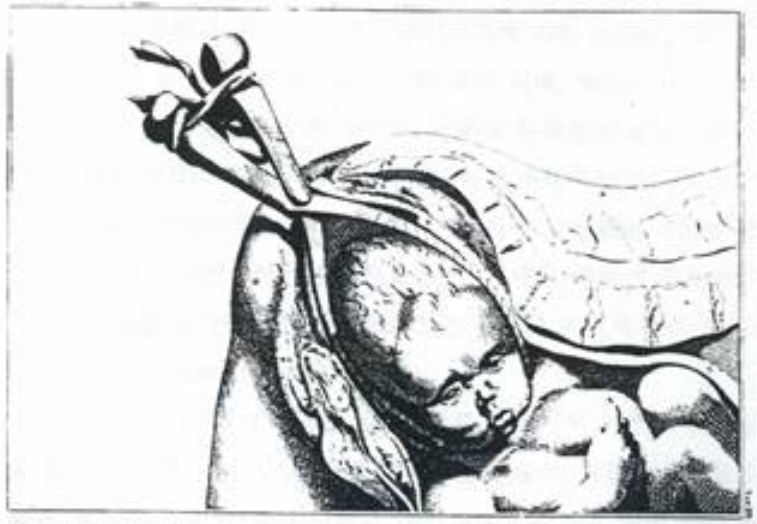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의료역사학자들이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은 현대의학이 탄생하기 전에 여성 치료자(women healer)와 산파들이 중심적으로 한 역할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17세기 말까지만 해도 출산과정은 여성의 몫이었고 전통적으로 기혼여성과 과부들은 이

역할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산파들은 진통중인 산모에게 와서 출산하는 과정을 도와주었다. 출산과 출산과정을 도와주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 전수되었다. 18세기 동안, 여성산파와 새롭게 출현한 남성 중심의 의료직 사이에 누가 출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으며 그에 관한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다(Ehrenreich and English, 1979: Donnison, 1977).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특정 기술이 논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영국에서는 1720년대 이후부터 점점 더 많은 수의 남성이 여성과 직접 경쟁하는 조산술 분야에 진입했다. 그전까지는 단지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일 때만 외과의사(전적으로 남성의 직업)를 요청했었다. 외과의사들은 13세기에 외과의사 조합을 결성하여 외과 수술용 도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이 영역을 개척해 놓았다. 그러나 산부인과용 핀셋(forceps)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외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갈고리나 집는 가위를 이용하여 태아를 조금씩 옮기거나 산모가 죽은 후에 제왕절개를 하여 태아를 꺼내는 일밖에 없었다(Donnison, 1977). 산부인과용 핀셋은 스코틀랜드의 약제사인 윌리엄 스멜리에 의해 1730년대에 도입되었다(〈그림 3-2〉 참조).

핀셋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에는 태아 아니면 산모가 죽었을 경우에 태아를 살려서 받을 수 있고 또 지루한 진통시간을 줄일 수도 있게 되었다. 관습에 따라, 산파는 자신에게 허용되어 있는 시술범위 내에서 핀셋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핀셋은 철저히 내과의사나 외과의사의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며, 이 핀

〈그림 3-2〉 '인공적인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산부인과용 핀셋



자료: William Smellie, A Sette of Anatomical Tables, 1754, plate 16.

셋의 사용은 의료직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핀셋이 도입됨에 따라 남성의사는, 손으로 아이를 받는 일에 능숙하고 출산과 출산과정에 대한 모든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산파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이 도입되자 곧바로 의사들은 이 기술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당시 그 기계를 발명한 발명가의 견해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였다. 뒤이어 전개된 의사와 산파 간의 투쟁은, 산파는 출산과정의 개입에 대한 독점권을 잃어버리고 출산과정은 의료직의 영역으로 되어버리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항상 '여성의 일'로 간주되었던 출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에 의해 장악되었다.

남성 산과학(産科學)이 우세하게 된 것은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요소들의 산물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 하나로, 더 이

상 집에서 출산하지 않고 새롭게 설립된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기술적인 출산보조 도구의 발명은 남성 의료시술가에게 결정적인 자원이 되었다. 남성이 조산술 분야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공개토론은 산과용 핀셋과 같은 도구의 사용에 대한 토론으로 선회하였다. "의사의 조산시술은 바로 그 기술적인 측면에 의해서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었다."(Faulkner, 1985, p. 93) 젊은 남성산파는 종종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도구를 자주 사용하여 분만을 앞당기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했는데, 이로 인해 산모가 해를 입거나 태아가 죽기도 했다. 가이병원(Guy's Hospital)의 유명한 의료시술자 제임스 블룬델(J. Blundell)이 다음과 같이 비판할 정도로, 도구의 오용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 1834년에 쓴 글에서 블룬델은 일부 남성 의료시술가들은 "질에 수평기와 핀셋을 넣고 싶은 일종의 본능적 충동"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Donnison, 1977, p. 50). 이렇게 해서 기술적 개입은 빠르게 남성 의료시술의 특징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임산부들이 점점 증가하는 기술적 개입에 대해 반드시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반에 페미니스트들은 출산진통 때 마취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선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던 반면, 당시 남성의사들은 마취제 사용을 반대했다. 여성들은 약을 이용한 '무통분만'을 지지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출산중의 격렬한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교한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무통분만을 반대하는 방식은 다양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환자의 치료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라는, 자신들의 직업적 특권을 옹호하고 있었다. 주디스 왈저 리비트(J. W. Leavitt)가 설명하고 있듯이, 이 사건은 통제권에 대한 논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의사는 출산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과정을 거부한 셈이 되며, 여성은 무의식상태에서 분만하는 것을 요구한 셈이었다! 비록 무통분만 운동이 출산과정에서의 여성의 통제권을 증가시키기 위한 바람에서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모순적이게도 "출산개념을, 19세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집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보는 것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게 하는 데 기여했다"(Leavitt, 1986, p. 140).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출산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기술적 개입이 동반되고 있다.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직의 비호 아래, 마취제 사용이 갈수록 일상화되고 으레 핀셋에 의존하며 회음부 절개는 기본적인 시술이 되고 있으며 유도분만과 제왕절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 아마 여성의 분만에 대한 가장 생생한 이미지는 "고문대 같은 분만용 침대에 산모가 반듯이 누운 자세로 두 다리는 등자(鐙子)에 올려놓인 채 묶여 있는 모습일 터인데, 이것은 여성 스스로 아이를 낳기 위해 힘쓰는 것을 가능한 한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고안되었을 수 있는 자세이다(Donnison, 1977, p. 198). 앤 오클리(A. Oakley)를 비롯하여 수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막강한 남성 전문직 엘리트들이 임신과 출산을 이렇게 의료 차원에서 '경영'함으로써 여성을 재생산하는 객체 상태로 축소시켰으며 아이를 낳는 여성이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시대 페미니스트들은 출산이 자연적인 과정에서 병리적인 과정

으로 변형되어 버린 데 대해 비판적이었다.

아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률이 감소된 것은 직접적으로 병원에서의 출산 비율과 임신 · 진통 · 분만에 대한 기술적용의 비율이 증가한 결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산모는, 일각에서 출산을 수동적이고 소외된 경험으로 변질시켜 버렸다고 주장한 그 체계를 참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분만시 과도한 기술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위험부담이 큰 분만과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술적 개입은 신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기술개입은 산과(産科) 상황 내부의 의사결정과 권력구조를 반영한다.

최근의 사회학연구와 의학연구들은 의료기술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한 정도를, 영양상태와 위생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기여한 정도와 비교하여 재평가하고 있다. 질 레이크슨과 닉 데이빗슨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률이나 신체장애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들라면 다름아니라 그것은 포괄적인 빈곤퇴치 프로그램일 것이다"(Rakusen and Davidson, 1982, p. 152).[7] 실제로 이런 의료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빈곤층 여성이 그 이용을 가장 못 받고 있다.

전문적인 의료치료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이 지니는 강점은 의료-기술적 치료에 대해서뿐 아니라 과학적 · 의료적 지식 그 자체가 성별화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의학이 출산을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사상과 의학의 발전에서 몸은 하나의 기계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17세기 들어와서 몸은 기계로, 의사는 기술자나 기계공으로 바라보는 데카르트식 모델이 부상하여 생명의료 과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런 기계론적인 비유는 여전히 현대 의료시술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술을 적용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깔려 있는 사고이다.

내가 제1장에서 지적했듯이, 젠더 상징주의와 성차이의 재현은 18세기와 19세기의 과학 및 의학 교재의 중심을 이루었다. 남성적 규범과 대조적으로, 여성의 몸은 연약하고 신체적 · 정신적 질병에 잘 걸리기 때문에 의료적 개입을 해야 할 대표적인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루디 조르다노바(L. Jordanova)의 최근 저서 『성적 시선』(*Sexual Visions*, 1989)에는 18~20세기의 생명의료 과학이 묘사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놀랄 만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의료 과학은 자연의 신비를 밝힌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타자'가 의인화된 것으로 간주된 여성은 남성들의 해부 실습용으로 합당한 시체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여성의 몸이라는 이미지가 주도적이긴 했지만, '타자성'을 드러내는 데는 인종적인 기준을 택했다). 조다노바는 여전히 젠더가 의료적 비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시대 의료잡지에 실린 광고를 분석하여 어떤 방식으로 질병에 '남성질병' 혹은 '여성질병'이라는 꼬리표가 가시적으로 붙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 편두통은 주로 여성에게 관계되는 질병으로, 그리고 격렬한 운동이나 온몸을 움직이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신체장애는 비유적으로 남성성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Jordanova, 1989, p. 144)

오늘날에도 생명의료 과학의 언어는 성차이의 이미지와 암묵적 가

설들로 가득하다. 에밀리 마틴은 여성의 재생산기관과 남성의 재생산기관에 관한 의학적 글들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글들에서 문화적 문법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Martin, 1987). 즉 여성기관을 지칭할 때는 주로 부정적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비유를 사용한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기관을 지칭하는 비유는 권력과 긍정적인 특징을 함의하고 있었다. 여성의 월경과 폐경에 대한 의학적인 묘사에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는 실패한 생산, 파산 그리고 부패와 같은 용어의 특성을 보이며, 정자는 "놀라운 … 그 절대적 위대함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Martin, 1987, p. 49).[8] 산과학에서 자궁은 아기를 생산하는 기계로, 그리고 여성은 의사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할 노동자로 간주된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묘사하는 경우에조차 의료언어는 여성에게 수동적인 역할을, 남성에게는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강력한 꼬리의 추진력을 가지고 정자, '부계 유전자의 핵탄두'는 기다리고 있는 난자를 수정시키기 위하여 활발하게 헤엄치며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과학의 시각에서 남성과 여성의 몸을 보는 방식,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 방식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젠더-편견은 기술개입의 정도와 종류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여성과 남성의 재생산기관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치료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불임치료는 우선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성불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거나 심지어 인정도 되지 않는다. "부인과의학(gynecology)이 여성의 재생산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남성 재생산기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분과는 없다."(Pfeffer, 1985, p. 35) 이것은 남성 재생산기관을 경시하는 표시

라기보다 오히려 의료진이 남성 재생산기관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징후이다.

특히 통증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많은 의료기술로부터 신체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병원을 기반으로 한 현대의 산과시술에 매우 비판적인 페미니스트 이론들은 이 점을 과소평가해 왔다. 이 시각에서는 기술개입의 증가와 그에 따른 여성권력의 상실 및 비인간적인 출산과정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이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산기술의 역사는 과학과 의학에 의한 여성억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그리고 현대적 시술은 그 이전 시대나 원시사회의 출산과정이 공공연히 혹은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개념과 불합리한 방식으로 비교된다. 즉 남성이 의료영역을 장악하기 전에는 출산은 안전하고 소외된 경험이 아니며 순수하게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이었고, 여성 산파와 친척들이 출산과정에 참석하여 호의와 도움을 주었다고 추측하거나 가정한다.

그러나 샐리 매킨타이어가 지적하듯이, "물론 출산은 모든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통제되었다"(Macintyre, 1977, p. 18). 출산은 여성 개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는커녕 변함 없이 규칙과 관습과 처방과 규제에 포위되어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나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출산과정은 결코 산모 자신의 뜻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 그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남성적으로 기술화된 출산방식과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출산방식을 대비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현대적 기술에 의한 통제 없이 출산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현재 이용하는 기술이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생산 신기술이 발전해 온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과 전문화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식은 그 직업의 전문성을 합법화해 준다는 점에서 선호되어 왔다. 의료시술자와 여성환자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여러 요소,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인 자격과 젠더 같은 요소들의 결합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클리의 주장에 따르면, 재생산 의학 내에서의 기술적인 요구는 의사의 전문성을 옹호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실제로 기술절차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장악하는 것은 현대의 의료권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Oakley, 1987, p. 46) '기술적 요구'(technical imperative)라는 어휘는 펙스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Fuchs, 1968), 어떤 신기술이 첨가되면 그 신기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더 사용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더 많은 기술을 초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의료기술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정되기 전에, 심지어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할 근거가 성립되기도 전에, 그 기술의 발전과 사용을 촉진시키는 상호 연결된 수많은 사회적 · 경제적 요소들이 있다(McKinley, 1981). 의료기계의 엄청난 확장을 설명할 때, 이러한 확장과정의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주의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기술이며, 이 전문가주의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먼저 의사와 환자 관계부터 살펴보자.

전문성 위계구조란, '의사는 일반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적 지식과 숙련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종종 중산층의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와 노동계급 환자의 만남이라는, 이른바 계급적인 성격을 지닌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남성의사와 여성환자로 성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백인의사와 유색인종 환자라는 인종적 불평등의 특징을 보인다. 기술은 의사와 필연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이와 같은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건강관리의 비인간화로 나아가게 하는 데 중심역할을 한다. 현대의 의료시술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기술 우선주의는 결코 산과의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여성환자와 남성환자 모두가 치료과정에서 소외를 경험한다.

현대 서구의학에서 기술적 진보는 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변형시켜 버렸으며, 이런 새로운 진단방법은 다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9] 곳곳에 만연해 있는 청진기는 남녀 사이에 요구되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환자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의사의 바람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한 이야기에 따르면, 청진기는 1816년에 레넥(Laennec)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발명되었다고 한다. 환자가 젊고 여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가슴에 귀를 댈 수가 없었을 때, 마침 레넥은 소리는 단단한 물체를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종이 몇 장을 둘둘 말아 실린더처럼 만들어 사용하다가 나무로 된 최초의 청진기를 만들게 되었다(Reiser, 1978, p. 25). 이처럼 인간의 귀가 청진기로 대체된 것은 어떤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지배적인 사회관습 때문이

었다."

대략 19세기 이후로 질병진단에 사용된 방법의 역사적인 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의사는 "구두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의 경험에 관해 직접 대화를 나눔으로써 질병을 진단하는 방식에서, 신체검사 기법을 통해 환자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거쳐, 기계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환자의 몸과 경험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Reiser, 1978, p. 227).

20세기 들어와서 의사는 신체검사나 환자의 병력을 회생시키고 기술적으로 유도된 증거자료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다. 기계는 가차없이 의사와 환자 모두의 관심이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 질병의 측정 가능한 측면들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라이저(Reiser)는 전통적인 수동적 방식과 간단한 도구를 밀어내고 대신 들어앉은 수많은 현대적 진단장비는 실질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장비가 그토록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장비가 산출해 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믿을 만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의사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장비에 의존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의사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독립적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리기를 꺼려하고 그만큼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결과, 의료와 관련된 의사의 숙련도는 현실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산과학은 환자가 여성 일색이고 또 이들이 일반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며 명백히 남성의사가 자신이 다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이다. 따라서 남자의사가 산과학에서의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은 특히 산과의사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청진기나 태아관찰 장치 같은 테크닉은 남자의사가 여성의 신체에 대해 여성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오클리(Oakley)는 말한다.

일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환자로서의 여성은 당연히 첨단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원하고 기대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 모두가 재생산기술과 그 기술을 다루는 남성의사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미 사회구조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여성들은 "전통적인 방법이나 자연에 내맡겨졌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종의 통제력과 자기권한을" 경험할 수도 있다(Petchesky, 1987, p. 72).

그러나 임신부에게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음파검사는 의료차원에서의 그 효과를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사실 초음파의 기본적인 테크닉은 산과용으로 설계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초음파의 기원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음파를 통해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던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초음파가 의료기술로서 발전하게 된 것은, MIT의 연구진이 미해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보청기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Yoxen, 1987). 그리고 임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 다른 임상영역에서 진단용으로 한동안 사용된 다음이었으며, 현재 초음파에서 주로 관찰하는 태아의 이상상태나 성장속도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이보다 더 나중의 일이다. 이렇게 임신상태를 초음파를 통해서 관찰하는 절차는 태아의 성장상태에 대한

여성 자신의 경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에 나타난 과학적 자료에 더 의존하게 만든다. 몇몇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기술로 인해 여성이 의료 차원에서 관리되는 임신에서 한낱 방관자로 되어버리는 점을 우려한다. 이처럼 초음파기술은 여성의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남성의 궁극적인 전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구의학에서 최첨단 기술행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의료직 내부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의사세계에서 지위와 수입 그리고 직업적인 명망성은, 그 의사가 전공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최첨단 기술절차를 발전 ·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 전문가들 사이에서, 병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서 —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성공을 약속해 준다. "의료전문화와 기술혁신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즉 이것들은 유사성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의료전문화는 기술혁신을 가져오며, 또 새로운 기술이 이용됨에 따라 의사와 산업설계사는 협력하여 그 기술을 개선시켜 나간다.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이 규정되므로, 그 과정은 더욱 더 전문화되고 작업과 절차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Fagerhaugh et al. eds., 1987, pp. 7~8)

체외수정과 배아이식 같은 새로운 기술의 전개는 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 확실히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최근의 열광은 일종의 호기심 같은 것이다. 결국 체외수정과 배아이식은 불임의 원인을 규명해 내거나 다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작업을 더 진척시키는 과정 없이 전개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이 동반하는 낮은 성공률이라든가 신체적 위험, 심리적인 고통을 생각해 볼 때, 현재 불임전문가들 사이에서 체

외수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이 '성공적이지 못한' 기술에 재정적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일까?

새로운 기술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실패율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에 있어서의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와 기술의 시작단계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아직 없다. 에드워드 욕센(E. Yoxen)이 그랬듯이, 우리는 에드워즈(Edwards)와 스텝토(Steptoe)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일련의 선택기준은 무엇이었으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실험연구 결과가 왜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부주의했는지 혹은 체외수정에서 사용되는 약물과 침습과정의 효과에 관한 자료가 왜 그렇게 적고 불임의 원인에 관한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다(Yoxen, 1985, p. 143). 발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문제는 오직 그에 개입된 사람들의 목표와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이해관계는 이 같은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준다. 체외수정과 배아이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불임에 대한 연구와 치료는 한동안 의료의 위계질서에서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 절차상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차가 일반의사들에 의해 처리되었다. 나오미 페퍼는 체외수정과 배아이식과 같은 신기술은 부인과의사들에게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의 시술영역뿐 아니라 흥미로운 최고의 연구영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feffer, 1987). 이리하여 부인과의사는 직업적인 성취감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미 1982년에 영국의 왕실 산과학 및 부인학 대학(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은 연구영역이 너무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네 개의 하위 전문영역으로 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산과학과 부인학이 더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는 압력은 다시 불임치료에 관계된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새로운 전문영역으로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Pfeffer, 1987, p. 88) 하위 전문화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의료진의 훈련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전문가의 이해관계가 이 분야의 기술혁신의 형태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제적 세력들도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방대한 생명공학 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특히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새로운 의료-산업복합체'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흔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익성 영역으로 자원이 체계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재생산 신기술의 발전과 의료생명공학 기업의 금전적 이해관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자세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적어도 일반대중의 눈에는, 완제품의 상업적 응용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11] 확실한 것은 불임여성들의 요구는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연구주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따름이라는 점이다. 배아는 인간의 유전자와 배아의 성장, 태아의 발달에 대한 유일한 정보자원이다. 런던 서부에 있는 해머스미스 병원(Hammersmith Hospital)의 로버트 윈스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체외수정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배아를 몇 시간 동안

적출했다가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발상은 전혀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The Guardian*, 1989. 1. 1에서 재인용)

1989년 3월에, 수정된 지 며칠 안 되는 수정란에서 남성배아와 여성배아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현재 유전자 검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이로써 '유전자 치료'로 알려진 유전자 이식실험이 가능해진다.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연구기금을 유치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유전자 코드에 포함된 모든 명령을 밝혀내는 것이다.

몇몇 비평가들은 생명공학 혁명의 범위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간주하면서 반도체 혁명의 범위와 비유하기도 한다.[12] 신장과 안구, 냉동태아, 생식체 같은 인간의 신체기관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듯이, 이미 우리는 인간의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상업적 거래에 휘말려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배아연구가 불러일으키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개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것은 늘 인종, 계급 그리고 젠더에 근거한 착취관계들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균전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연구에 한국인 태아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적절한 예이다.

비록 여성이 의학실험의 첫번째 표적이긴 하지만, 재생산기술은 가부장제적 음모라는 용어만으로 분석될 수 없다. 오히려 여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망들이 얽혀 있다. 즉 전문가의 이해관계와 자본가의 이해관계가 젠더관계와 중첩되어 있다. 성별분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기술들보다는 오래되었고 그런 만큼 관련자료도 더 많은 기술의 역학을 살펴볼 것이다. 피임에 관한

영역보다 더 성관계가 일련의 기술을 근원적으로 형성하는 영역도 없다.

피임기술에 나타나는 성관계

대부분의 출산조절 역사기록들을 보면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역사학자와 인구학자들이 공유하는 상투적인 생각은,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 여성은 자신의 출산능력의 희생자였다는 것이다.[13] 여기에는 오늘날의 '피임약 복용 시대'의 시점에서 문제를 보면서, 산아제한을 무지와 편견에 대한 진보적인 기술력의 승리를 대표하는 19세기의 발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기술적 발명품인 피임약으로 인해 여성은 비로소 자신의 출산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피임약이 도입됨으로 해서 여성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14]

이전 세대들은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산아제한을 할 수 없었다고 가정한다. 산아제한 역사에 관한 기록들 대부분이 콘돔의 발명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기록들의 주장에 따르면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피임의 효과가 있는 고무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McLaren, 1984, p. 5).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들어가면, 산아제한이 실행되는 범위와 개방성 그리고 그것이 취하고 있는 형태는 효과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성행위, 자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에 좌우된다는 것이 확연해진다. "왜냐하면 산아제한을 할 수 있으려면 출산을 목표로 하지 않는 성행위를 허용하는 윤리가 사회에 존재해야 하고, 또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 역

할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Greenwood and King, 1981, p. 169)[15] 산아제한은 항상 의학과 기술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 정치적 수용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항상 정교한 통제와 의식에 종속되었다.

미국의 산아제한에 관한 저서에서 린다 고든은 의료나 기술적 고려보다 사회제도와 문화적 가치가 현대의 피임기술을 결정지어 왔다고 주장한다(Gordon, 1977).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고든 역시 산아제한이 19세기의 여성해방에 가장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고든은 왜 19세기에 피임기술이 발전되었고, 왜 우리 시대에 와서는 피임약의 발명이 여성해방의 열쇠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었다. 고든에게 산아제한은 한 사회의 경제조직과 젠더관계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화의 원인인 동시에 증상이었다.

신체적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지금까지 알려진바 가장 최초의 사회에서도 이미 존재하였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기술사회에서는 산아제한 기술이 현대의학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신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의학은 문자 그대로 1천 년 넘게 전해 내려오던 산아제한 장치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Gordon, 1977, p. 25) 사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 대부분은, 지금 시대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정교하지 못한 사회들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오래 된 의학서와 인류학 연구자료들을 보면 여성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출산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고대사회에서, 효과적인 산아제한 형태들은 과학자나 의사들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에 의해 고안되고 관리되었다.

재생산에 관한 지식과 시술은 언제나 여성의 민속과 문화의 일부를 이루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남성이 의료영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여성의 통제 아래 놓여 있던 초기의 방법들이 무색해졌다. 여느 질환에 대한 치료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산아제한 기법에 관한 지식은 여성 점술사나 산파에 의해 발전되고 시술되었으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었다. 고대세계와 최근의 산업사회 이전 사회에서 마술이나 약초, 영아살해, 임신중절, 질외사정, 질스폰지, 질세척, 질마개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산아제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 기법들은 그 효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교에서도 매우 다른 의미를 지녔다. 개중에 몇 가지 기법은 다른 기법들보다 훨씬 더 여성이 독립적으로 심지어는 몰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 몇몇 기법은 남성이 완전히 통제권을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남녀가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출산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상호 모순되는 관심과 목적을 품고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용 가능한 기법이 다양하다는 데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고든은 오직 이와 같은 산아제한 관습의 유산을 살펴봄으로써만이 우리는 산아제한 운동의 출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산아제한 운동의 힘은 여성이 전통적인 출산조절 방법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임신중절은 도덕적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지만, 그것이 실제로 범죄로 규정

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이 임신중절금지법안은 의사의 경쟁자인 산파를 제거하고 전통적인 재생산조절 방식을 와해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결정적인 산아제한 형태(임신중절)에 대해 의료적 · 법적으로 개입한 결과,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은 약화되었다. 19세기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난 것은 출산을 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피임방법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적 운동의 부상이었다.

그러나 여성 스스로 출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아제한 운동을 가속시킨 가장 중요한 촉매제는 아니었다. 빈곤퇴치의 방안을 인구조절에서 찾고 있는 맬서스주의 이론으로부터 고무를 받은 인구주의자운동 역시 똑같이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20세기 들어와서, 피임과 그보다 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낙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대개의 경우 의료직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조절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여전히 현대의 산아제한 프로그램의 중심에 놓여 있다. 50년대부터 산아제한은 주요한 국제적 산업이 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인구계획 정치학과 연결되어 있다. 산아제한 방법의 연구에 대해 주요한 재정투자를 하는 촉매제가 된 것은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인구주의자의 이데올로기였으며 또 엘키 뉴먼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정 기술들에 영향을 준 것은 다름아니라 인구주의자의 이데올로기였다(Newman, 1985). 먹는 피임약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선결조건은 이미 1938년에 존재했지만, 대중의 도덕성과 대가족주의 정책에 의해 그 개발은 50년대 후반까지 미루어졌다. 뉴먼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폭발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중적인 공포가 먹는 피임약의 연구를 합법화시켰으며 가족계획

지원을 제3세계 원조물자의 주요 분야가 되게 만들었다.[16]

그렇다면 호르몬 조절방식의 경구피임약의 개발이 강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체외 피임방법은 구식으로 분류되면서 거의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동안 피임연구에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적어도 열 가지 정도의 다양한 체외 피임방법이나 어쩌면 성교 후에 먹는 경구피임약제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체외 피임방법 두 가지와 여러 가지 호르몬 조절방법, 자궁 내 피임장치(intrauterine device) 몇 가지와 임신중절 기술 그리고 수적으로는 적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영구불임 기술들이 있을 뿐이다." (Newman, 1985, p. 135)

경구피임약이 가장 효과적인 피임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건강에 해로운 위험부담이 있으며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경구피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경구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 문제와 같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비켜갈 수 있게 해주며 또 최소한의 시간과 기술로 피임문제를 확고하게 의사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경구피임약은 복용 동안에도 환자에게 병원에 자주 오도록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환자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더 있다. 뿐더러 경구피임약의 수익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구피임약은 경제적으로 생산과 시판을 할 수 있는데다 매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에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

관련기업의 이해관계와 별도로, 대부분의 의료피임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이 사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남성들이다. 흥미롭게도 콘돔을 개발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은 가족계획이 아니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남성들의 필요성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성행위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차이가 피임기술의 설계에 반영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폴락은 이와 같은 기술들이 "남성의 성적 즐거움을 강조하고 여성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폄하하는 가부장적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활용 가능한 피임방법과 피임용구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남성의 성적쾌락"이라고 주장한다(Pollack, 1985, p. 76).

확실히 남성들은 설령 그로 인해 여성의 건강과 즐거움이 훼손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성적 경험에 최소한의 '방해'만 주는 것이라면 그 피임방법을 선호한다. 이성애자 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거나(에이즈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정관수술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여성이 부딪히고 있는 의료적 위험부담보다 자신들의 성적 쾌락을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남성용 의료기술 몇 가지가 개발되었지만, 그 기술이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영향에 대한 설명은 여성용 피임방법의 경우에서보다 결코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17] "사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정관수술을 받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남성용 피임기술이든 자발적으로 그 실험대상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몹시 꺼려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남성용 피임방법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성들에게 피임도구를 사용하라고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Newman, 1985, pp. 141~42)

경구피임약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여전히 임신에 대한 책임을 주로 여성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구피임약은 피임효과가 높고 여성이 그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그리고 이런 접촉이 종종 성행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나 경구피임약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지 않아도 되게 하며 여느 피임기구를 사용할 때처럼 남성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심지어 사용법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할 필요조차 없어서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이것은 시간 면이나 해부학적인 면 모두에서 피임과 성행위를 분리시켜 주는 심리적 이점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경구피임약의 복용은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의 낭만적인 섹스로 간주되는바, 다시 말해 남자는 단호하게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여자는 단지 굴복하는 그런 그림에 잘 들어맞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임용 페서리나 다이어프램은 사용하는 데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며, 또 상대 남성과 자신이 서로 성행위를 할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성행위를 이성애자간의 삽입성교로 정의 내리고 그 맥락에 맞추어서 피임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판매 · 사용된다. 피임방법들은 남성이 정의한 성행위에 부합되게 설계된다. 콘돔을 사용하거나 질외사정을 하지 않고 또 책임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남성은 자신의 성적 쾌락을 드높이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에게도 경구피임약은 효과적인 산아제한 방법을 의미했으며, 이로써 여성도 성적 쾌락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경구피임약을 통해 여성이 성적인 독립성을 누리는 데는 그만

큼 건강상의 높은 대가가 요구된다. 만약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여성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면, 그것은 여성운동의 성과이지 결코 기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경구피임약은 여성에게 해방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여성은 사회적 · 정치적 동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인구정책 및 시장세력과 결합된 성적 관계가 피임기술을 결정했음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다시금 기술의 설계와 형태는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왜 특정 기술이 특정한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재생산기술이 개발 및 확산되어 나가는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료화와 의료의 기계화 전반에서, 그리고 특히 인간 재생산의 영역에서 그 동안 기술이 한 역할을 살펴보았다. 기술의 총체적인 효과는 결국 이전에는 여성의 영역이었던 곳이 남성화된 것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이미 사회에서 기득권층에 속하는 여성들은 최근의 재생산기술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재생산영역에서도, 기술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내에서 작동하며 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주

1) '재생산기술들'이라는 전문용어 아래 다양한 기술들을 분류해 놓은 범주화에 관해서는 Stanworth, 1987(pp. 10~11) 참조.

2) 미셸 스탠워스(Michelle Stanworth)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역사학자 에드워드 쇼터(Shorter, 1983) 역시 기술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쇼터는, 여

상은 자신의 신체의 희생자이며 20세기 의료기술은 이런 여성을 해방시켜 남자와 동등해지게 했다는 파이어스턴의 믿음에 동조하고 있다.

3)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 체외수정의 성공률은 단 10%에 불과하다(Rowland, 1988).

4) 물론 독신여성이나 레즈비언의 모성본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국의 와노크 위원회(Warnock Committee, 영국 정부에 재생산기술에 관한 자문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체외수정, 난자기증, 배아기증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테크닉은 오직 함께 살고 안정된 이성애 커플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5) 재생산기술을 기술사회학의 맥락에서 위치짓는 McNeil, et al.(1990)에 독자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나는 나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나서야 맥네일 등의 이 책을 알게 되었다.

6)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흑인과 제3세계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영구불임의 한 형태로서 혹은 "요통에서부터 피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으로서 자궁절제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밝히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Homans, 1985, p. 5).

7) Amey, 1982: Richards, 1978 참조.

8) 비록 의료에서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극단적인 자기분열을 포함하여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에 스며들어 있긴 하지만, 여성들은 또 이 이미지에 저항하기도 했다. 마틴은 여성들이 계급과 인종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점을 분석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월경이나 폐경, 출산을 어떻게 좀더 자존적인 방식으로 의미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마틴은 백인 중산층여성이 흑인이나 백인 노동계급 여성보다 훨씬 더 무비판적으로 여성신체에 관한 지배적인 의료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9) 이 설명은 Reiser, 1978에서 인용한 것임. 그리고 Foucault, 1973: Jewson, 1976도 참조.

10) 그렇다고 해서 그후 청진기가 기술적으로 '뛰어나게' 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1)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잠정적으로 사원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법 개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12) 실제로 Haraway(1985)와 Yoxen(1986)은, 생명의 의미 자체가 변형된다는 점에서 이 생명공학 혁명은 문화혁명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는 다시 프로그램화될 수 있는 정보처리 체계로서의 유기체가 된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설계과정을 통한 인간의 개입을 점점 더 강조해 나가게 된다."(Yoxen, 1986, p. 30)

13) 그 고전전인 예가 Himes, 1936이다.

14) 심지어 기술결정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가로 알려진 로젠버그조차 이 함정에 빠진다. "…따라서 여성해방운동은 본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출산력의 감소(이것은 또 부분적으로 효능이 더 높은 피임기술)에 힘입어,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의 전자화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반드시 기술결정론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새롭게 누리게 된 자유라는 사회적 이익은 대부분 기술혁신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Rosenberg, 1979, p. 50)

15) 예를 들어 인공수정은 재생산기술들이 발명되고도 그것이 널리 사용되기까지는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인공수정이 성행위를 하지 않고도 임신을 할 수 있는 혁명적인 새로운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공수정은 이미 1776년에 처음 시행되었다(McLaren, 1984, p. 13).

16) Doyal, 1979, 특히 제7장 "의학과 제국주의" 참조.

17) 이 점은 Spare Rib(Vol. 93, April, 1980, p. 9)에 실린 새로운 남성용 피임기술을 풍자한 아래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 음낭감염: 불과 2명 사망
>
> 최근 앤 아버 메디컬 센터에서 개최된 미국여성외과의 심포지엄에서 남성용 피임에 관한 최신 개발연구가 소개되었다. 머킨 병원의 소피 머킨 의사는 중서부에 있는 한 주립대학의 남학생 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초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머킨은 새로운 피임도구 IPD(자궁 내 피임장치 IUD를 패러디한 용어로 남근 내 피임장치라는 뜻—옮긴이)가 남성용 피임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IPD는 '우산젤리'(Umbrellly)라는 상표로 판매될 예정이다.
>
> IPD(남근 내 피임장치)는 아주 작은 접는 우산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남근의 귀두로 삽입하여 피스톤의 일종인 도구를 이용해서 음낭까지 밀어넣는다. 이따금 음낭궤양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부위에는 말초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음낭궤양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산의 안쪽에 정자를 죽이는 젤리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우산젤리'가 되었다.
>
> 대륙붕에서 1천 마리의 흰 돌고래에게 실험을 해본 결과(흰 돌고래의 생식기관은 남성의 생식기관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산젤리'는 정자생성을 막는 데 100%의 효과가 있으며 또 암컷의 성적 쾌감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암컷의 만족감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었다.

머킨 박사는 통계상으로 우산젤리는 인간남성에게 안전한 장치라고 주장하였다. IPD 실험에 참여한 남자 대학생 763명 가운데 음낭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불과 2명, 그리고 20명이 주위가 붓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3명에게서 고환암이 발생하였고, 13명이 우울증으로 발기부전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문제점은 복통과 하혈에서부터 복부의 강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의 증상이라고 머킨 박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박사는 이러한 증상은 남성의 신체가 아직 이 장치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역설하면서, 이 증상들은 일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킨 박사가 간략하게 소개한, IPD가 원인이 된 심각한 증상 하나는 음낭 감염이 악화되어 고환 절제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드문 사례"라면서 "통계상 의미가 없을 만큼 드물다"고 머킨 박사는 말했다. 머킨 박사와 외과여자대학(Women's College of Surgeons)의 저명한 교수들은 남성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위험부담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는 데 동의했다. (East Bay Men's Centre Newsletter: The Periodical Lunch, Ann Arbor, Michigan에서 재인용.)

제1부 서론

1960년대 이래로 수많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의 폭발적인 증대는 이전의 페미니즘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억압에 대한 여성의 공통된 자매애를 주장하면서 출발했다. 자매애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과 대립되는 이해를 가졌으며,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삶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여성으로서 공유된 억압 대신,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다양한 경험들, 몇몇 여성이 다른 여성에 대해 갖는 권력, 몇몇 여성과 남성이 공유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 등에 주목해보면,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난다. 여성들 간에도 이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유된 억압에 근거한 페미니즘 이론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페미니즘의 정치적 실천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여성들이 공통된 이해를 갖지 않는다면, 모든 여성들의 삶을 좀더 좋게 변화시킨다는 페미니즘의 정치학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야기되는 페미니즘 정치학의 문제가 바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제1부에서는 여성의 차이에 대한 최근의 분석을 보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그것의 연대를 추정하는 방

법은 다양하다. 끝없는 수정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페미니즘 사상을 뉴웨이브 페미니즘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제2의 물결과 제3의 물결로 분리하여 그것을 제2의 물결로 언급하기도 하고, 페미니즘과 후기 페미니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제1부에서,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남녀관계의 핵심인 남성지배와 여성억압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여성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맺는 관계 또한 반드시 설명되어야만 한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여성의 공통된 경험을 넘어서는,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분리(division)를 폭로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지배되며, 그 지배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성들은 또한 서로를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우리들의 이러한 분리를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1장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를 개괄해보고, 전세계 일반대중 여성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이러한 경험을 이해하는 페미니즘 방법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지적할 것이다. 2장에서는, 여성억압에 대한 페미니즘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제를 다루어보겠다. 이러한 문제는 일치된 공통의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억압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3장에서는, 왜 페미니즘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이것이 바로 인류역사를 재해석하고, 기존지식의 근거에 도전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직면한 어려움이다. 4장에서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이 만들어낸 지식을 간략하게 개괄한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남성들이 행하는 여성억압에 대한 지식들이 어떻게 여성들이 행하는 여성억압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며,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분리를 정교화하게 되는지를 개괄해본다.

제2부에서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이 일반화된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한다. 최근의 페미니즘 사상은 여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을 경험하며, 여성들끼리보다는 오히려 남성들과 여러 형태의 억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페미니즘 사회이론은 여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페미니스트들을 서로 분리하는 여성억압 이론으로 발전해왔다.

제3부에서는, 페미니즘 이론과 정치적 실천의 결합가능성을 다시 평가해본다. 여성들 사이의 분리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출발에서 보였던 페미니즘 정치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해방이란 반드시 변화하지 않는, 그리고 모순이 없는 과정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방의 의미가 여성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이 심각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1

페미니즘의 모순

역사 속에서 페미니즘 사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왔으며, 이것은 몇 년 후에 다시 고립과 무시를 공유하고 재발견되어오고 있다. 이 책은 베트남 전쟁 시기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먼저 일어났던 뉴웨이브 페미니즘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들을 평가해 본다. 이러한 페미니즘 접근은 필연적으로 자민족중심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난 20여 년에 걸친, 전역사에서 도외시되었던 다양한 여성의 사고와 투쟁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오미 쇼어(Naomi Schor)의 평가에 의하면, 지리적으로 영국에 더 가깝지만 프랑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출발했다면, 자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한다(1987 : 99). 페미니즘은 이 세계에 대한 일치된 의미나 내용을 가지지 않으며, 여러 방법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특징지을 수 없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주목하는 것은 전세계적 현상인 페미니즘의 다양성과 잠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뉴웨이브 페미니즘 이념은 흔히 똑같은 문제에 대한 그 이전의 투쟁을 알지 못한 채, 여러 해에 걸쳐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에 의해 아주 빠르게, 널리 확산되었다(Dahleryp 1986을 보라). 이러한 이념은 인종문제, 시민권리운동, 반전운동, 학생운동, 성해방을 향한 압력, 게이의 권리운동, 약물과 히피 문화의 부상 등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던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커다란 대중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페미니즘 이념은 다른 국내문제로 싸우고 있는 사회나 제3세계 등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전세계 모든 남성에 의한 여성의 일반적 종속을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제3세계라는 용어는 전세계 여러 다른 나라들 상호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지만, 여기에서는 여성들의 상황과 역사에서 나타나는 차별성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서구에서 발전된 이념과 실천은 전세계 모든 여성경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인식을 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는 현재 페미니즘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며, 이 책의 주제 중의 하나이다.

공유된 여성억압을 정치화하면서 형성된 이 초기의 흥분은, 거세주의적이고 전투적이며 여자답지 않은 여성해방 운동가들에 대한 대중매체의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심각하게,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곧 페미니즘 이념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자극했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곧바로 다른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여러 학파로 분열되었고, 그들은 각각 여성억압을 다르게 설명하고 해방을 위한 전략도 다르게 제시했다. 각각의 학파는 그들 자신의 비판을 제기했

고, 실천의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무엇이 페미니즘인가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시도되었고, 교과서나 사전에서 혹은 일반적 의미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성의 해방이나 평등은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의미로 발전되어왔다. 이것은 여성을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의 운동은 노동계급 여성을 옹호하는 사회주의 운동과 중산계급 여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운동으로 분리된다. 어떤 투쟁은 백인 여성으로만 제한되기도 했고, 또 다른 투쟁은 여성뿐만 아니라 흑인이나 노동계급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도 했다. 조직화된 여성운동은 20세기 초반까지 전세계에서 발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잊혀졌거나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발적인 투쟁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에 비추어볼 때,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향을 갖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적대적인 대중적인 정의를 제외하면,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을 정의하면서 몇 가지 문제들은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페미니즘을 1970년대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으로만, 또는 19세기 부르주아 운동으로만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초기에는 이러한 협의의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과 페미니즘을 조직화된 정치운동으로 규정하는 남성 해석자들 또한 이와 유사한 협의의 접근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광의의 정의는 페미니즘에 대한 모든 해석을 포용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학파로 분리되었던 뉴웨이브 페미니즘 후기에 보다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접근은 모두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협의의 정의는 넓게 보면 페미니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리고 여성을 위해 투쟁해온 다양한 정치적 실천과 여러 학파의 사상을 배제해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적합한'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기에 이른다. 협의의 자유주의 정의는 남성과의 동등성 추구로 페미니즘을 정의하는데,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배제된다. 조직화된 정치운동으로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협의의 정의 또한 조직화된 운동 외부에 있거나, 조직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페미니즘 지식과 실천을 배제하게 된다.

한편 광의의 정의 역시 페미니즘 사상이 갖는 다양성과 모순을 수용하지 못한다. 페미니즘을 통합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갈등적인 투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다양성에 통합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단순히 남녀관계와 그것의 기원, 더 좋은 남녀관계를 위한 변혁 등에 대한 다양한 개념으로 느슨하게 파악하기도 한다(Mitchell and Oakley 1986).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설명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는 문제가 된다.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방법은 정의하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남녀관계를 이해하는 방법과 일치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정의의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만든 뉴웨이브 페미니즘을 긍정적이지만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역사와 현재 사회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의 관계는 비판적 힘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약점이 되기도 한다. 페미니즘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적하는 비판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를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유일한 사회이론이다. 1960년대 서구문화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낙관주의는 1980년대 와서 흔들리고 있지만 (Segal 1987), 결코 소멸된 것은 아니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제1세대는 시작할 때보다 지쳐 있기는 하지만, 약해진 것도 끝나버린 것도 아니다.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과거와 미래를 다시 생각하며, 여성을 변혁의 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최소한 여성억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서는 매우 다르다.

어느 정도 한계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하기만 한다면, 페미니즘을 일반화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일반화 또한 가능하지만, 그것도 역시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아무런 정의도 하지 않고 '여성'이나 '여성들'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육체적으로 여성이고, 여성이었고, 여성일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억압과 해방을 논의할 때는 용어를 정의해야 하며, 논의되고 있는 여성의 범주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페미니즘을 사회 속에 존재하는 성별관계와 남녀경험의 차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사회이론으로 볼 수 있다. 엄밀한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들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1) 페미니즘에 대한 모든 해석은 기존의 양성관계, 즉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많은 것에 도전한다.

3) 페미니즘은 근본적인 설명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념으로 구성된다. 전 역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4) 페미니즘은 단순히 이념만이 아니다. 그것의 핵심은 세계를 변혁하려는 것이고 남녀관계를 변화시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잠재성을 실현할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페미니즘은 논리적으로는 일련의 이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실천인 것이다.

5) 페미니즘은 매우 다양한 정치적 실천으로 이루어지며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여성에게 줌으로써 양성관계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실천은 의식고양 집단이나 전복(washing up)을 위한 투쟁에서부터, 남성과 분리를 요구하는 투쟁이나 시민 자유권과 정치경제적 힘을 위한 조직화된 요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즉 페미니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매우 도발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6) 변혁에 대한 페미니즘의 제안은 비록 그 저항의 본질과 힘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항상 반대편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7) 페미니즘은 남녀관계의 지식에 대해서 분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지는 않는다. 가장 온건하게 여성권리를 옹호하는 주장조차도, 여성에게는 불평등하게 부정되고 있는 권리를 남성은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설명은 페미니즘 지식이 적절치 못한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지식은 왜 다른 지식보다 더 타당한가 등에 대한 질문을 수반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이성과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포함하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이론을 포함한다.

페미니즘은 사회이론이며 동시에 세계변혁을 향한 투쟁에 참여하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변혁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갖는 정치적 전략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공통된 목표를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적 영역의 높은 지위에 많은 여성들을 앉히려는 운동,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행진하는 '밤의 요구(reclaim the night)', 보다 자유로운 낙태법을 위한 운동, 피임과 유아살해에 반대하는 운동 등과 저임금 여성을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사이에는 상당히 다른 사회적 이론과 정치적 전략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내리려는 문제는 단순히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확한 형태의 단어를 찾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두 개의 중요한 모순의 영역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다. 즉 양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페미니즘 사회이론이라는 영역, 그리고 여성의 삶과 경험의 본질이라는 영역이 그것이다.

여성의 삶에 대한 페미니즘 개념의 모순

뉴웨이브 페미니즘이 갖는 중요한 모순은 여러 학파들의 페미니즘 사상의 차이와 정치적 실천전략의 차이로부터 나온다.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특별한 사상을 가진 학파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개인들에게 모두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고, 혹은 서로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차이를 연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학파를 경계짓는 것도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심각한 문제(우리도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를 제기한다. 페미니즘의 본질적인 모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학파들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

인간의 본성, 생물학의 상대적 중요성, 중요한 사회적 실천의 이데올로기와 물적 토대 등에 대한 가정, 변혁을 위한 전략 등에 근거해서, 여러 이론가들을 느슨하게 묶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분류는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르다. 구조화되지 않은 조직을 강조하고, 위계질서와 리더쉽을 거부했던 1970년대의 급진적 페미니즘은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이탈리아(Hellman 1987)보다는 스칸디나비아(Dahlerup 1986)에 영향을 덜 미쳤고, 여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자발적인 정치적 갈등(Ridd and Callaway 1986)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강했지만, 거기에서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시크 에 포(정신분석과 정치)'와 같은 아주 특이한 학파도 있다(Duchen 1986).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범주를 간략하게 개괄하겠다. 이러한 범주는 예를 들어 급진적 페미니즘과 혁명적 페미니즘의 다른 기준들, 또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차이를 구분하여 보다 적절하게 다시 세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그룹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서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순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주장하는 운동의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과 정치적 실천은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이해되는 페미니즘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제기될 때는 매우 위협적일 수 있지만(UNESCO 1984), 서구에서는 뉴웨이브 페미니즘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특히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양성관계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과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해석은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정의나 평등 개념과 관계되는 사회관계를 분석하는 비페미니스트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예를 들어 Midgley and Hughes 1983을 보라).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성별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받는다고 가정하며(Richards 1982 : 14), 평등과 재분배, 즉 동등한 임금, 동등한 시민권, 교육, 건강과 복지에 대한 동등한 기회,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등을 위해 운동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건강, 노동, 교육, 법적 권리, 깨끗한 주택, 일반 여성의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여성들이 투쟁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비페미니스트들이 이해하는 남녀불평등의 원인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사회적 성차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양성의 관계를 특수한 권력관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의 정치학의 권력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는 이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을 만족스럽게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주의자를 페미니스트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된다. 만약 그들이 배제된다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가 삶을 포기한 많은 여성들은 보편적 자매애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의해 그 즉시 비페미니스트로 버려지게 된다. 만약 그들이 포함된다면,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해방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아주 다른 종류의 이론과 정치적 실천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확대는 페미니즘의 정의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만든다.

급진적 페미니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사회관계에 대한 이해를 고려함으로써 뉴웨이브 페미니즘을 형성한 진정한 혁신자들이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항상 다양했고 오랫동안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관점 중에 정의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나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에 접근할 때, 다른 페미니즘과는 다르게 공통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Jaggar 1983). 자유주의자들이 여성을 위한 특정권리를 위해 운동한 반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지배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한 공

격을 시작했다. 여성들의 공통된 정치적 이해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일반적인 종속상태와 동일시된다.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고, 남성의 서비스 제공자라는 서구문화의 관례는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고 한정된 것이라고 폭로됨으로써 해체되었다.

많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명백하게 반지식인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지적인 평가에 반대해왔다(Hellman 1987 : 200). 그러나 많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인식했던 것처럼, 만약 세계를 변혁하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이론을 만들 필요는 있다. 남성의 사고범주와 사회생활에 대한 남성의 지식은 명백히 지식으로 다루어지고 평가되어야 한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지식과 실천에 대한 페미니즘의 평가는 페미니즘의 다양성에 의해 버려진 여러 모순 중의 하나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특히 소수의 가장 극단적인 그룹은 가장 왜곡되고 난폭하며 적의에 찬 매체의 보도를 공격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여성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적 운동이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사회적 성차와 여성의 삶에 대한 사고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급진적인가를 깨닫기 어렵게 했다. 수전 그리핀(Susan Griffin 1982 : 39)은 강간에 관한 초기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1970년에 '강간의 정치학'을 썼다. 그 당시 강간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대담하고 극단적인 행동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때는 정치적 논의에서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사람의 정서를 기술하는 것으로 그러한 에세이를 시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성과 재생산을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여성의 정치적 의식을 변형시켰다.

소수의 비위계적인 의식고양 집단이라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전략은 여성들이 사적인 억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슬로건은 남성지배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을 공통된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강간이나 여러 유형의 남성폭력을 공적인 정치적 이슈로 변화시켰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장 사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공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억압에 주목했다. 1950년대에 자란 우리들에게 여성들의 투쟁이나 페미니즘은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었지만(Spender 1983), 급진적 페미니즘은 우리를 크게 놀라게 했다.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18세기부터 1960년대까지 지속된 사회와 인간행동에 대한 전통적 설명에 도전한다. 그렇지만 모건(Morgan 1971), 밀렛(Millett 1977), 파이어스턴(Firestone 1979) 등의 논의는 페미니즘 이론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활동을 자극했다. 몇몇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본질적 차이를 찬양하거나,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치절하되고 왜곡되어온 여성성의 창조성과 양육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Daly 1978 ; Griffin 1978 ; Rich 1980). 이러한 과정은 특히 급진적 페미니즘을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든

다. 또한 이 이론의 분리주의는 페미니즘 이론과 정치적 실천을 연결하는 데 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가정에 도전함으로써 여성억압에 대한 지식을 산출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장 내적인 인간관계를 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라고 재규정함으로써, 성을 정치화시켰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남성의 행동을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에서 당연하게 인정된 것을 문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이해가 여성의 열등성을 그럴듯하게 합법화하는 남성중심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들을 위한 보다 나은 정의를 획득해내려는 자유주의의 전략을 거부한다. 그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을 만들고 유지했던 모든 사회질서의 합법성을 문제시한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주로 미국과 유럽의 젊은 중산계급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시작되었지만, 하나의 이론으로 인식되었고,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여성의 투쟁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정치적 실천으로 인식되었다. 남녀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이론은 전세계 대부분의 인류역사에 적용가능하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을 보편적인 피억압자로, 세계적으로 남성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고, 육체적으로 지배되는 세상에서 억압을 공유하는 자매로 규정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보다 본질적인 모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특정한 역사발전 단계에서 특정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우리의 계급이나 권력, 경제적 이해와 상관없이 여성으로서 여성의 이해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동시에 피착취 노동계급의 이해를 위한 투쟁(이것은 어떤 남성과는 연대하고 어떤 여성과는 대립하는 투쟁을 수반한다)도 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뉴웨이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장했고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여성의 공통된 억압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분석과 양립할 수 없다. 여성으로서의 공통된 억압을 드러내고 억압에서의 자매애를 찬양하는 새로운 급진적 페미니즘의 통찰력은 마르크스주의자인 여성들의 사상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급진적 페미니즘의 부상은 좌익의 정치조직과 대항운동에서 기대되었던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의식하게 만들었다. 좌익이나 흑인 남성의 성차별에 대한 반작용은 남녀간의 이해의 갈등과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인종적 분리를 인식하게 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을 설명할 수 없는 반면,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미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 여성의 억압원인을 설명했지만, 여성을 위한 투쟁이 자본주의의 보다 일반적인 계급투쟁에 종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페미니즘은 부르주아 여성의 이해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단히 처리되어버렸고, 노동계급 여성의 현실적 이해로 작용하지 못했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폭발적인 증가는 여

성 사회주의자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로 계급을 초월해서 여성의 목적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발단부터 본질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으로 만든다.

다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다르게 해석한다. 이러한 차이는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은 세계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실천을 모두 개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수는 없다. 나는 단지 여성해방에 수반되는 것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마르크스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적합한 해석을 단순화시켜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단순화된 해석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의 작업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정확한 지위를 설명해주지 못하며,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정치학의 적합성을 의문시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여성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남성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분석하는 보편성을 부당한 것으로 본다. 그들은 여성들 간의 계급적 구분, 그리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성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형태의 억압을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은 통합된 적이 없지만(Rowbotham et al. 1979; Sargent 1981),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특히 영국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갈등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긴장상태가 유지되어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에 찬성하고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남녀간의 권력차이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거의 아무런 분석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가부장제에 대한 명제(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반화된 권력으로서 가부장제)와 성의 정치학에 대한 명제(여성에 대한 남성권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일반화된 투쟁으로서 성의 정치학)에 의존한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비록 무비판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엥겔스의 분석에 따른다.[1] 가부장제 개념은 가장 중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또한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장 혼란된 용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것은 다음의 2장에서 논의된다.

나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선호한다. 이런 나의 관점은 남웨일스와 우간다, 터키에서의 연구작업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사회이론은 이민노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차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내 관점에 근거한 주장일 뿐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모든 여성을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내 관점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보다 기울어져 있다

1) Engels(1970). 엥겔스의 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다(Sacks 1975; Sayera et al. 1987).

면, 이 책의 방향이 달라졌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정치적으로 보다 양면적인 사회주의 페미니즘보다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사회분석 방법이야말로 전역사에 걸친 광범위한 여성억압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지식을 산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수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주의에 대한 남성중심적 전망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리고 남성중심적이고 총체론적 국가에서의 여성 삶의 질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별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모든 해석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급진적 페미니즘이 없었다면 현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부분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러나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도 또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모순을 만들어냈지만 또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의 이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학파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페미니즘의 효과적인 정치적 전략을 발견해야만 한다.

앞에서 개괄한 세 가지의 접근방법은 각기 서로 다른 정치적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자유주의는 현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운동할 것이고,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자본주의를 수반하는)의 전복을 위해 운동할 것이며,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가부장제를 수반하는)를 전복하기 위해 운동할 것이다. 직접적인 운동대상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각각의 입장들이 갖는 철학의 문제들이 실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명확하게 남녀의 권력관계를 문제시하기는 하지만, 그 방법에서는 서로 다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들과 다르게 현재 존재하는 아주 많은 것들을 인정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비판받는 점은 여성에 대한 남성권력의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거의 비효율적인 정치적 전략을 갖는다는 것이다. 평등을 촉구하는 법의 개혁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경제적 원인을 간과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교육, 시민권, 건강, 개인의 자유 등을 자유주의 여성들이 투쟁한 결과로 볼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구속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상당한 지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부상했다. 개혁주의와 급진적 혹은 혁명적 변혁을 대조시키는 남성중심적 관례는 자유주의를 비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개혁과 혁명의 이분법을 문제시해야 하는(Harding 1986) 남성적인 이분법으로 본다면, 자유주의는 넓은 의미로 페미니즘 정치학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재거(Jaggar)의 지적은 보다 널리 알려진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다(1983 : 48).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부르주아 중산계급 여성을 위한 운동이지, 세계 여성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억의 노동계급 여성이나, 농촌여성, 빈곤계급 여성을 위한 운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의 삶의 모순

페미니즘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페미니즘 이론이 갖는 모순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의 삶은 페미니즘

이론과 정치적 실천이 갖는 문제들을 보여준다. 모든 페미니즘 학파들은 남성이 아주 일반적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문제에서는 보다 논쟁적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노동계급 여성과 부르주아 계급 여성이 서로 다른 계급적 이해를 갖는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을 비판한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 여성들과 다른 방법으로 착취당한다. 흑인 여성, 소수민족 여성, 제3세계 여성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적, 민족적 차이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하다고 비판한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의 권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공유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를 남성에게 불필요하게 적대적이고, 여성해방 운동을 남성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도 역시 너무 좌익적이라고 보았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여러 학파들의 이러한 불일치는 가능한 한 남성과 똑같은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주의로부터 행동, 사고, 문화에서 남성과 전적으로 분리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페미니즘이 갖는 이러한 모순은 여성의 삶의 모순과 관계된다. 여성들은 전세계에서 저항하고 투쟁해왔다. 옴베트(Omvedt, 1980 : 163)의 논평처럼, 이것은 한편으로 여성억압 의식을 확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통된 정치적 전망을 갖지 못한 여성들 사이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세계, 전역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경험을 설명하는 논의조차도 여성의 공유된 경험의 한계를 보여준다. 아이슬란드 여성의 파업(1987년 아이슬란드의 수상까지도 참가한 하루 동안의 파업 ; Styrkarsdottir 1986)은 인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아이슬란드 여성은 많은 인도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종류의 억압을 경험하지는 않는다(Kishwar and Vanita 1984). 남성폭력에 대항한 인도 여성의 투쟁은 아이슬란드와 어느 정도 공유될 수 있지만, 지참금 살인, 여아살해, 빚에 의한 노예, 어린이 노동, 가내하인의 조건, 토지개혁의 결과, 재벌의 사유재산 등과 같은 것이 아이슬란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 여성은 계급과 카스트, 종교, 지역에 의해 나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을 가진 어머니와 아이를 갖지 못한 어머니, 고용주와 하인, 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즉 이들 모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들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아이슬란드 여성은 아이슬란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고, 인도 여성과 여성(합리적인 개념인 여성 즉, 그들 모두는 강간당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로 종속되어질 수 있다)으로써 자매애를 형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이슬란드와 인도 여성들의 삶에 존재하는 다른 중요한 차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억압의 근원은 아이슬란드보다 더 다양하고 모순적이다.

삶의 과정에서 상당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특권층의 여성과 권리는 고사하고 생존만을 위해 남성과 함께 투쟁해야 하는 여성들 사이에는 거대한 틈이 존재한다. 가정 밖에서 일하는 부모의 아이들을 적절하게 돌보기 위한 요구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고위 감독직에 있는 여성들을 고용한, 그리고 아버지의 임무로 고통받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아버지가 된 감독직 남성을 고용한 많은 미국 회사들은 그 아이들을 날마다 적절하게 보살피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아이가 아프다고 고임금으로 고용된 그 아이의 엄마에게 휴가를 주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돌볼 고용된 간호사를 보내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게 들 수 있다(Chapman 1987). 이들의 자녀양육은 커피농장이나 면화농장에서 생존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과테말라 인디언 가족의 경우와는 비교될 수 없다(Menchu 1984). 간부직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만, 과테말라 어머니들은 고된 노동, 부적절한 음식, 농약살포, 농장 소유자와 국가의 폭력 등에서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뇌한다. 따라서 과테말라 인디언 여성과 미국의 고임의 간부직 여성이 현재의 투쟁에서 어떤 공통된 이해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공통된 억압을 주장하는 보편성 이론이 갖게 되는 문제를 제기해준다.

간부직의 여성과 과테말라 인디언 여성 모두 남성지배와 폭력, 강간 등에 억압당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위험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간부직 여성들은 스스로 남성폭력을 방어할 만한 많은 수단을 살 수 있다. 그 여성들은 대부분의 남성이 동등한 가사노동을 해야만 하는 문화 속에서, 고된 간부직의 노동을 결혼생활이나 모성수행과 조화시켜야 하는 실제적이고도 정서적인 많은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반면 과테말라 여성들은 남성지배에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주, 군대의 테러리즘에 대항해 육체적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생존을 위한 그들의 투쟁은 미국 여성들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의 남성들과 연대해야 하는 것이다.

> 여성들은 커피와 면화를 따는 노동을 하며, 나아가 많은 여성들은 무기를 들게 되었고, 나이 든 여자들조차도 밤낮으로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직을 구성해서 여성의 문제에 저항하고, 행동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Menchu 1984 : 221).

여성으로서 당하는 억압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억압받는 소수집단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삶은 모순적이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남성과 구분된다. 그러나 양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현실은 균등하지도 일정하지도 않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는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규정에 부여되는 가치, 개인적인 행동을 실행할 기회들,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력 등은 모두 변하기 쉬운 것이다. 남성은 아주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그 권력은 변화할 수 있고, 저항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예사회나 인종적으로 분리된 사회 또는 고용관계에서는, 남성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권력을 거의 갖지 못하기도 하고, 반면에 남성에 대한 권력을 여성이 가지기도 한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남성의 자유와 통제를 위해서,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증거들을 대단히 많이 찾아냈다.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인 지식체계와는 다른 방법으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하는 자신들의 사회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견한 대답을 해석하는 방법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여성억압의 증거를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에 더하여, 여성을 문제없는 범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접근이라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일 '여성'

이라는 단어를 경험적 의미의 단어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그 단어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주의 사회의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풍요로운 사회의 빈곤계층 여성, 기아로 죽어가는 여성, 여성 정치지도자, 서구사회의 부유한 가정주부, 매춘을 강요받는 10대들 등 이 모든 '여성'은 생물학적 의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는 남성에 대해 똑같은 관계에 있는가? 그들은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남성에 의해 억압받는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셀 수 없이 다양한 여성의 삶이나, 남성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여성 서로가 맺는 다양한 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적인 용어로 억압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시된다. 그러므로 억압에 근거한 자매애는 애초에 의도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범주는 제2부에서 논의된다.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생산체계의 조직방식과 맺는 관계에 의해서 여성들이 구분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본주의 유지에 있어서 부르주아 여성들과 똑같은 이해를 가지지 않는다. 여성들이 계급에 의해 분리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어떤 여성은 다른 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착취받는 여성들은 억압에 저항할 때, 착취에 대한 지식과 착취를 받아온 경험이 없는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유사하게 착취받는 남성들과 더욱 확실하게 연대한다.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근원은 여성들이 남성과 이해를 공유하는 여러 다른 상황에서도 볼 수 있다. 여성들은 계급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이나 민족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다. 심지어 여성들은 친족이 조직되는 방법에 의해서도 서로 대립적으로 분리된다(Whitehead 1984 : 8). 어떤 경우에 여성들은 연령에 따라 부여된 권력에 의해 분리되는데, 그 집단에서 나이 든 지배층의 여성은 나이 어린 종속된 여성에 대해 상당한 권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그들은 며느리의 이해를 희생시켜서 아들의 이해를 옹호한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하면,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을 연합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 성(sexuality)이라고 주장되지만, 여성들 사이의 성적 차이가 더욱 극심한 분리의 원인임이 판명되었다. 여성들은 또한 (권력에 대한 다른 접근을 통해 유지되는) 국가간의 갈등에 의해서도 분리된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갖는 정서적인 애착 또한 다양하게 분리된다. 여성의 야망이 결혼이나 모성으로 제한된다면, 그리고 이런 것만이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면, 페미니즘은 대단히 두려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남성권력에 대항한 여성의 공통된 투쟁에서, 자매애의 토대는 성차별(gender)의 정치학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본질을 보여주는 보편적 이론으로, 그리고 여성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정치적 실천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낙관적인 출발에서부터,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여성경험을 받아들여야 했고, 다양한 이해를 가진 여성들 또한 페미니즘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충화된 사회의 가장 특권층의 여성에게서, 그리고 충화된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뉴웨이브 페미니즘이 부상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편적 페미니즘과 서구문화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억압, 자유, 진리, 과학,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을 규정할 자신들의 가치와 투쟁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구 문화 속에서 산출된 특권과 권력의 산물이었다. 페미니즘 그 자체는 특정 역사시기의 문화적 산물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이론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초월해서 여성해방을 일반화시킬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여성해방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것은 아마도 페미니즘 과학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탐구되었을 것이다)은 서구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약점이다. 페미니즘의 억압이론은 단지 범문화적인 해방 개념과의 관계에서 평가되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를 시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만일 여성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는 논의로부터, 여성해방이 무엇을 해야만 하고, 실천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보려는 논의로까지 나아간다면,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이해의 차이가 상당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에서 발전해온 이러한 분리에 근거해볼 때, '억압(oppression)'이라는 용어조차도 논쟁적인 것이며, 남녀관계를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용어도 자유주의의 불평등 개념에서부터 여성의 보편적 착취라는 급진적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가 사용하는 '억압' 개념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사회구조가 여성보다 남성을 더 지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한다. 억압 개념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근의 페미니즘 사상의 정치적 영향을 설명하는 단일한 개념으로서는 유용하다. 예를 들어 러너(Lerner 1986 : 233-5)는 단일한 용어로는 여성의 역사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한 용어의 사용에 반대한다. 그는 억압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순종하는 희생자로 상정하는 강력한 종속(subordination)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종속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는 이유는 남성에 의한 사악한 의도를 수반하지도, 여성에 의한 공모를 허락하지도, 원인에 대해 중립적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는 다른 용어를 요구한다. 단일한 용어는 일정하게 제한되지만, 억압 개념은 여러 다른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념이다. 그 개념은 일부 남성들의 사악한 의도를 수반할 필요도 없고, 일부 여성들의 수동성을 수반할 필요도 없다. 그 개념은 페미니즘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반적 지배를 분석해온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지시하며, 종속, 차별, 착취와 같은 한정된 개념의 사용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다. 최근의 페미니즘 사고를 전통적 지식에 대한 도전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나는 여성이 남성에 의해 아주 일반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논의하려는 것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여성의 공유된 억압을 중요하게 강조해왔지만 오히려 여성들의 분리를 강조하는 모순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억압을 공유한다는 가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차라리 페미니즘이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라는 일반적 이론이 바로 보편적 이론이다. 페미니스트들이 그러한 억압이 얼마나 일정한가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편성의 요소

가 없다면 페미니즘은 있을 수 없다.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바로 남성 대 여성으로서라고 페미니스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페미니즘은 또한 일정한 사회상황(여성들이 모순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에서 행해지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특수화된 일련의 실천이다. 여성은 억압에 대항한 투쟁을 시작해야만 비로소 정말로 대항해야 할 모순적 장애물(그러나 서로를 포함할 수 있는)을 발견할 수 있다.

해방과 모순

여성억압이 모순적이라면 여성해방의 전망 또한 모순적임에 틀림없다. 여성들이 해방의 전망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완전한 사회에 대한 어떤 여성의 관점은 분명히 다른 여성을 섬뜩하게 만들 수 있다. 억압에 대한 여러 다른 경험들은 다른 종류의 해방 개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은 해방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지배하는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복잡해진다. 남성지배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변혁을 인식할 수 있는 이념과 언어를 제한당해왔다.

그러한 모든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페미니즘은 필요하다. 첫째로 우리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지식을 산출하기 위해서, 둘째로 이미 혼란스럽고, 겁나고, 위축되고, 외롭고, 위험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성이 남성과 대항해서 투쟁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많지만, 남성과 연대해서 외부의 위협이나 억압에 대항해야 할 상황도 많이 있다. 페미니즘 지식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상황은 해방을 향한 효과적인 안내자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페미니즘이 총체적 사회변혁을 위한 적절한 사회이론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남는다. 이것은 8장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억압과 해방의 관계를 연구하는 내 목적은 페미니즘 이론을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고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들을 평가절하하려는 것도 아니다. 바람직한 해방의 함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를 정직하게 직면해야만 하며, 어떤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 의해서도 억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모순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맞싸우기 이전에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적인 비판을 부추겨왔다. 억압과 해방의 관계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의 핵심이 된다.

2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탁월했던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대단한 정치적 동요를 야기하기는 했지만, 사회이론가로서 엄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흔히 보다 극단적인 두세 명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예를 들면 Daly 1978; Firestone 1979; Spender 1980)에게 집중되어 있고(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에게 사회과학의 철학은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이 전체로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책들은 여성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여성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했고, 이전에는 따로 떨어져 있던 일련의 경험들을 연결시켜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에 의해서는 상처받기 쉬운 것임이 드러났다. 1970년대 미국에서 폭발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일반적으로 명료한 사회이론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미드글레이와 휴스(Midgley & Hughes 1983: 222)가 이름붙인 일명 악취탄처럼 보였다. 즉 청중을 확보하기는 하지만 인내심 있게 심사숙고한 논쟁은 거의 강조하지 않는 폭발에 불과한 것이다. 악취탄은 인내심 있는 논쟁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곳에서는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의 논리가 실천과 관계되면, 반드시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급진적 텍스트는 논리와 철학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조심스럽게 제한된 텍스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동요와 분노, 열광을 야기했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열정은 단지 최근의 흑인 여성과 제3세계 여성들(6장을 보라)의 텍스트에서만 발견될 뿐이다.

남성이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성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페미니즘은 방해받고, 불신되며, 왜곡되고, 조롱당하게 된다. 페미니즘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원하고, 그 페미니즘 지식을 시장성 높은 상품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전통을 전복시키려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지식이 그런 전통적인 형태에서도 팔린다는 사실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이 갖는 또다른 모순적인 측면이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들의 공격목표가 다소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을 무시할 수는 없다. 페미니즘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항상 생각만큼 분명하지는 않다. 어떤 비판들은 전통의 학문적인 논쟁들로 표현된다. 또 어떤 비판들은 모든 페미니즘을 폐기해버리는데, 이는 무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때로는 특별한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이나 삶의 방법이 비판되기도 하고, 또는 낙태권리 운동과 같은 특별한 운동이 모든 페미니즘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비판은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문제(이것은 1장에서 논의했다)와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비판은 최근의 페미니즘 사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들은 유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비판들은 여성억압의 설명방법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페미니즘과 남성지배 사상의 차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페미니즘 사상과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은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페미니즘이 남성의 사고를 비판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나는 가능한 한 많은 페미니즘 비판가들(그들은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것에 익숙한 비판가들이며, 그들 때문에 여성해방은 필연적이고도 가능한 것이 되었다)을 끌어들였다. 그러므로 2장과 이어지는 3장에서 다루어지는 페미니즘 비판은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페미니즘 사회이론에 의해 산출된 지식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지식형태와 권력관계에 대한 페미니즘 도전은 남아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 지식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문제는 3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개인적인 열정과 별개로 독립되어서 페미니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페미니즘에 대한 '사실들'을 공명정대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페미니즘 정치학이 취해온 몇 가지 주장을 근거로 페미니즘을 비판할 수는 있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에 공헌해온 수많은 여성들 때문에, 페미니즘 지식을 정당화의 한 과정으로 점검하기 위해 그것의 주제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서만, 그 논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개괄해볼 것들은 수없이 많지만, 네 가지의 문제만을 선택해서 설명하겠다. 이 네 가지 주제를 명확히 하면, 페미니즘 사회이론과 정치적 실천을 일관되게 연결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즉 양성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가부장제 개념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보편적 일반화의 모순 등을 설명할 것이다. 이 문제들은 논의를 위해서 분리된 주제로 다루어지긴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문제

급진적 페미니즘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이론적, 정치적인 원동력이었다. 계급, 인종, 그 외의 다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억압을 공유한다는 이념은 급진적 페미니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로부터는 사회주의를, 급진적 페미니즘으로부터는 페미니즘을 취했지만, 그것은 둘 다 문제시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분석하면서 마르크스의 분석을 적용한다면, 결국 여성해방은 계급투쟁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마르크스주의가 유럽의 자본주의 발생과정에서, 남녀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유럽 외의 다른 곳에서도, 자본주의 확장시기에 변화된 양성관계가 유럽과 유사한지 아닌지를 설명할 수도 없다. 1970년대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상황을 다시 보고, 급진적 페미니즘의 이념을 사용함

으로써, 성(gender)이 결여된 마르크스의 분석에 도전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를 페미니즘과 통합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통합은 페미니즘에 매우 심각한 실천적, 이론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은 억압을 공유하는 자매가 아니라, 서로 확연히 분리되는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남성지배 세계에서, 지배계급의 이해는 여성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통합하려고 시도할 때, 모든 여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몇몇 남성들과 공유하게 되는 이러한 억압 개념은 모순을 드러낸다. 이 억압 개념은 페미니즘의 변혁을 위한 전략에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게 된다(Segal 1987).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6장에서 논의될 흑인과 제3세계 비평과 더불어)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억압을 보편적 억압으로 보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여성관은 다층적이고 모순적인 방법으로 억압되어 있다고 보는 여성관과 대립하게 된다.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초기 논의는 '결혼'이라고 이름붙여졌는데, 이것은 당연히 불행한 결혼으로 보였다(Hartmann 1981 ; Sargent 1981).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조화되는 두 이론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의 인식을 끌어오려는 초기의 시도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철학적으로 많이 변형시켰다. 보다 최근에 코크번(Cockburn 1986 : 85)은 결혼보다는 동거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반면 해밀턴(Hamilton 1978 : 104)은 이미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별도의 침실을 사용하며 동거하는 기간"을 제안했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명백히 가부장적 제도 안에 위치해 있고,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의해 제한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개념적 부적절성, 남성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갖는 성차별주의, 서구 사회주의가 갖는 정치적 빈곤,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페미니즘에 대해 갖는 긍정적이고 잠재적인 공헌 등을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단순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여성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여성의 역사와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은 부적절한 이론이며, 결국 여성의 종속을 변화시킬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여성의 경험을 남성의 경험과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여성억압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한 반면, 생산양식과 성별관계의 통합을 무시하는 페미니즘의 해석 또한 부적절하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규정된 페미니즘의 딜레마이다.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를 연결시키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방법이 반드시 더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어떻게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와 상호연관시키는가의 문제는 처음부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로 다루어졌고,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대답을 갖는다. 마르크스의 방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자신들 안에서조차도 상당히 불필요한 분열을 가져왔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억압의 본질적인 원인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양성간의 생물학적 차이로, 또 다른 사람들은 생산양식의 작용이라고 주

장한다. 최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연구는 일반화의 근거를 보다 제한하면서, 훨씬 더 역사적으로 특수화된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러한 논쟁들이 생물학, 가부장제, 보편적 일반화와 관계하여 어떻게 되보해왔는가를 논의한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긴장은 이 문제영역을 통해 올바르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환원주의와 지나친 일반화를 근거로 급진적 페미니즘을 비판해왔고, 가부장제 개념이 페미니즘 개념으로 유용한지의 문제를 재기해왔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또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설명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도 급진적 페미니즘도 독자적으로는 페미니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의 정치학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신념을 제공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 일컬어지는 배럿(Barrett 1984 : 128)은 '넓은 의미에서 비사회주의적 형태의 페미니즘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고 유력한 것임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논평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정치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이러한 페미니즘 학파는 여성과 대립하는 계급적 이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페미니즘 안으로 단순히 흡수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고, 페미니즘은 정확한 정치적 핵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생물학의 문제

여성들은 왜 그렇게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지배되고 억압되고 착취되는가? (역사에서 전쟁 중에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전보다 훨씬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성들은 여성을 구타하고 강간하는가? 왜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는가? 대규모 산업화 이전에 왜 여성들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보다 가치가 없었는가? 이러한 질문 이면에, 여성을 지배하려는 남성의 능력과 의도에는 인간 생물학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다. 양성의 관계가 생물학과 전적으로 독립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양육이 남성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이 아니듯이, 성관계에서 남성의 물리적 지배나 힘으로 강간할 수 있는 능력은 여성에게도 주어진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생물학적 과정(성관계, 사춘기, 출산 등)은 사회적 신념과 실천을 통해서만 형식과 의미를 부여받는다.

페미니즘은 양성간의 성차(gender)나 혹은 그 사회가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가정에 근거하는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양성간의 물리적 차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페미니즘 외부로부터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격렬하게 비판되어왔다. 그것은 때로는 생물학적 귀납론으로, 때로는 생물학적 결정론, 또 때로는 생물학적 본질론

으로 비판받는다. 이 장에서 이러한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2]

생물학적 설명은 여성의 본성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몇몇 페미니스트들이 취하는 하나의 사고방법이 되었다. 그것은 양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비판되어왔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온 남녀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환원론(사회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생물학적 요소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은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시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다.

페미니스트들이 생물학적 환원론으로 비난받게 되면, 그들의 이론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난받게 된다. 바스카(Bhaskar 1978 : 115)의 지적에 따르면, "발견의 수단으로서 환원론은 실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억압을 생물학적 설명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한다 해도, 우리의 생물학적 지식은 인간사를 해석하거나 통제하는 데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수준으로 설명을 환원하는 것은 인간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미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때만 유용할 뿐이다. 이 외에도 바스카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1979 : 126).

> 귀납론자들이 잊어버린 것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환원의 예(화학을 물리학으로 환원한 것과 같은)는 모두 환원된 과학의 영역에서 이전에 존재했던 잘 발달된 지식의 형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인간과학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한 일련의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즉 설명을 하기 위한 환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혹은 최소한 아직은 없다) (Bhaskar 1979 : 126).

생물학적 설명은 특히 197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이 가졌던 특징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접근이 있다.

1) 남성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 남성은 여성억압자로 운명지어져 있다(Brownmiller 1975 ; Dworkin 1981). 그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의 희생자로 운명지어져 있다.

2) 여성들이 남성지식의 지배에 의해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던 여성 자신의 생물학적 본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조적이고 양육적인 여성본성과 모성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축복할 수 있다(Daly 1973 ; Griffin 1978 ; Rich 1980).

이 부정적인 접근과 긍정적인 접근 모두, 여성들은 선천적이고 본질적인 여성본성을 공유하며, (인종이나 계급차이와 같은 외견상의 차이가 그러한 공통된 이해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성을 남성과 구분짓고, 여성 서로에게 공통된 이해를 가지게 한다고 가정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행동을 생물학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비판에 직면해서 페미니즘 사회이론의 본질적 요소로 생물학적 환원론을 주장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널리 알려진 페미니스트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파이어스턴은 생물학적 결정

2) 생물학적 환원론은 사회적 행동에 대한 설명을 생물학적 요소를 강조하는 설명으로 환원한다. 생물학적 환원론은 사회적 행동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야기되거나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물학적 본질론은 남녀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생식기에 근거한 성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것으로 남녀의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설명한다. 실제로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더 헌신적이고, 양육을 더욱 잘 할 수 있으며, 창조적이고, 협동적이며, 덜 공격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논쟁들의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다.

론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서 초기의 자신의 주장(Firestone 1979)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의 저서는 대단히 유동적이었다. 1970년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었을 때, 그것은 여성억압의 본질에 대한 논쟁과 탐구를 폭발시켰고, 페미니즘에 생물학과 억압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3] 스펜더(1985 : 4)가 "고전적 텍스트는 빨리 잊혀지지만, 그것에 대한 비판은 지속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파이어스턴의 긍정적인 측면은 잊혀지고 있다.

초기의 생물학적 결정론과 보다 극단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해석이 빠르게 비판되었기 때문에, 후기의 논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을 완화하여, 생물학과 사회적 힘 둘 다를 원인으로 보는 복합성을 고려하게 되었다(rhodes and McNeill 1985 : 7). 리치(Adrienne Rich 1980 : 282)는 모성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 이론에 근거한 정치적 전략의 단순함과 자기도취를 경고했다. 그는 "'양육'을 여성의 특수한 힘으로 고정하는 것은 위험한 단순화이며, 그것은 새로운 인간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더 큰 사회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283). 그는 여성들은 잠재적으로 창조성과 파괴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특히 급진적 페미니즘의 생물학적 환원론을 비판해왔으며, 급진적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환원론을 탈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폭스 제노비스(Fox-Genovese 1982 : 15)는 여성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실제로 배제되어야만 했던 것이지, 생물학에 의해 본성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거의 관점은 명백한 결정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급진

3) 재거(1983), 아이젠스타인(1984), 스펜더(1985)는 파이어스턴의 의도와 업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적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생물학을 역사과정 속에서 보지 않고 고정불변한 것으로 다루기 때문이다(Jaggar 1983 : 113). 그러나 급진적 페미니즘이 생물학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도 생산조직, 성별분업, 생물학적 차이의 사회적 구조(이것이 여성억압에 대한 설명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등의 다양한 관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브레너와 라마스(Brenner & Ramas 1984)는 배럿(1980)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가 부상하는 동안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설명하면서 문제를 보았다. 노동자 계급에서도 노동시장과 가정 모두에서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가치 있다는 구조화된 성별 위계질서가 존재했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여성들은 집 밖에서 노동을 하지만, 여전히 가사노동과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다.[4] 브레너와 라마스는 최초의 산업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사실상 경쟁할 수 없었던 여성의 무력함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여성의 생물학적 능력이라고 밝혀냈다. 그들은 설명적 요소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힘을 거부했다. 자본주의의 계급체계와 생물학적 재생산이 특별한 지점에서 재때에 결합하여 가족-가구체계(family-household system)를 만들어내며, 이것은 남성에 대한 여성종속과 노동자로서의 착취 모두를 보증해준다고 결론지었다(1984 : 71). 이에 대해 배럿은 재생산이라는

4) 이러한 예는 영국 역사에서 보여지지만, 그 주장이 얼마나 일반적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영국의 산업화 과정은 다른 자본주의 사회와는 공통적이지 않은 특이성이 많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생물학적 요소는 계급이라는 요소에 의해 완화된다고 대답했다(1984). 초기 자본주의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얻게 되는 우월성은 단순히 자본주의 물적 기반의 결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즉 이데올로기의 개입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설명되어야 할 것은 이데올로기와 임금노동자로서 여성의 위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이다(Barrett 1984 : 127).

이러한 논쟁을 평가하면서, 루이스(Lewis)는 자본주의의 부상으로부터 가부장제의 원인(그리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을 분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지적했다(1985).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아주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영국 역사를 조사하면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브레너와 라마스의 일반화는 옳지 않다. 그들은 생물학적 재생산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여성을 포함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제기했던 여성의 재생산 역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브레너와 라마스의 시도는 생물학적 설명을 거부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설명의 문제를 밝혀낸다. 루이스(Lewis 1985 : 108)는 "만약 배럿이 말한 것처럼 페미니스트들이 생물학에 직면해서 '신경질적'이었다면(Barrett 1984 : 123), 그것은 거의 그들이 생물학적 결정론의 지뢰밭에 둘러싸였던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루이스는 론(Lown 1983)에 이어, 계급과 사회적 성(gender)은 동시에 만들어졌으며, 역사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실제로 이러한 결론은 변화를 연구하지 않고 원인을 일반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다. 결과로 나온 일반화의 수준은 훨씬 더 제한된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수유하는 여성의 능력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그들의 경제적 역할을 제한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른 본성, 즉 여성은 보다 헌신적이고 양육적인 반면 남성은 더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본성을 가졌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물학적 능력이 사회적으로 가치평가되는 방법, 의미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방법, 사회적 생산조직에 의해 중재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변화는 일반화를 시기상조인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일반적 주장들을 생산체계, 이데올로기, 생물학의 복잡한 역사적 상호관계로 제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생물학적 요소, 혹은 이데올로기적 요소, 혹은 물적 요소들이 왜 특정한 지점, 특정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소퍼(Soper 1979 : 63)는 마르크스주의가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자연적 요소에 대한 사회적 요소의 지배를 주장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주의 설명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생물학이 항상 사회적으로 중재된다 하더라도, 생물학은 여전히 설명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사회를 제약하거나 영향을 주는 자연적 요소는 자연적인 것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 하더라도(78), 그것은 모성처럼 문화적 산물로 표현되며, 반드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철학적 덫에 빠지는 것(페미니스트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과 확고한 철학적 입장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 불변의 생물학적 요소로 변화무쌍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설명을 적절하게 방어하지는 못하지만, 페미니즘의 정치적 실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중요한 문제를 확인해왔다. 만약 여성들이 '여

성'이라는 생물학적 범주를 통해 공통된 정치적 이해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에서 공통된 정치적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가(Delmar 1986)? 그것은 공통된 정치적 이해를 가진 생물학적 범주로서의 여성을 '발견'한 것이며, 이 발견은 1960-7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었다. 생물학적 설명이 남성지배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하고, 어떤 여성에 의한 또다른 여성의 지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여러 가지 이론적 진용으로 나뉘어졌다. 이것은 페미니즘의 정치적 실천의 통일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모두 가부장제(그 자체로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라는 개념으로 생물학적 요소의 사회적 의미를 다루려고 시도했다.

가부장제의 문제

가부장제는 최근 몇 년 동안 페미니스트들에게 중요하게 사용된 개념이다. 가부장제 개념은 인류 역사에서 남성에게 여성을 지배하고 그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메커니즘,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광범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용어는 문제를 드러내기 쉽다. 가부장제는 페미니즘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페미니즘 안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개념이기도 하며, 여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아주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가부장제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은 남성지배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으로 나타난다.

가부장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기 이전부터 종족에 대한 가장의 권력이라는 의미로 사회이론에서 발전되어왔고, 인류학자에 의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뉴웨이브 페미니스트들이 그 개념의 정치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변형시켜 사용해왔다. 가부장제 개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규정하고 도전하는 의미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가부장제 이론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남성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성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의 창출과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었다.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기존의 사회이론에는 남성지배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18-19세기에 발전해온 서구 사회이론은 남성의 우월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남성지배를 이해할 개념이 없다는 것은 남성지배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성이 지배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정상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당연시되었다.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는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물론 현대에는 그러한 자기만족이 모든 사회영역에서 여성들에 의해 계속해서 도전받는다 —— 비록 그것이 여러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 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페미니스트들이 왜 남녀관계가 예전과 같은지,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내야만 한다.

가부장제가 정의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일반적인 남성이 일반적인 여성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성관계와 같은 가장 내밀한 것에서부터 가장 일반적인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이르는 관념과 실천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일반 남성의 일반 여성에 대한 권력

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남성권력의 특징과 이 권력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개념은 페미니스트들이 모든 여성이 갖는 공통된 억압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초기에는 가부장제를 인간사회의 보편적 특징으로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지배를 이해하면서 생산양식과 가부장제 모두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로 인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가부장제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지배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남성권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단일한 근원을 찾으려 했다(e.g. Millett 1977; Daly 1978). 이러한 초역사적인 가부장제 개념은 1960년대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만, 미국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변형되어져 제한된 해석을 해왔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가부장제 해석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생물학적 환원주의와 남녀의 선천적 본성의 개념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접근은 비평가들에게 공격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가부장제 해석은 일반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를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면, 여성들이 남성지배를 주시하는 데 정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것은 공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구, 성관계

등 사적인 영역에서도 남녀간의 권력관계가 존재함을 주목하게 하였다. 가부장제 개념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일반적인 성의 정치학(다른 여성과 이해를 공유하게 하는)의 일부분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것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과 억압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고, 그것이 비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나아가 정치적 행동을 자극했다.

가부장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또한 여전히 보편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덫에 빠지기 쉽다. 예를 들어 만약 페미니스트들이 남성폭력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그들은 다양한 남성폭력의 유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부장제가 그 폭력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남성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부장제가 남녀관계의 보편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모든 것은 생물학적 성이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본질적으로 남성성의 본성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가정을 피하기 어렵다.

보편적인 가부장제 개념은 논리적으로 보편적 범주로서의 여성이라는 개념에 근거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남성의 계급이해(예를 들어 파이어스턴(1979)과 밀렛(1977)에 의해 취해진)와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든 안하든 간에, 남성은 여성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비판은 가부장제를 남성권력의 제도화로 규정(남성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질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하는 사람들과 대립해왔다(e.g. Spender 1985: 36). 스펜더는 모든 남성들은 가부장제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때문에 모든 남

성들은 정치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보편화된 주장을 수정하여, 정치학은 단지 하나의 존재영역이기 때문에 개별 남성들이 사적인 적으로 취급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Spender 1985; 1986 : 217).

델피(Delphy 1984 : 17-18) 역시 초기의 급진적 페미니즘의 입장을 완화시킨다. 그는 보편적인 가부장제 개념을 거부하고, 가부장제를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 체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체계는 델피가 규정했던 가내생산양식(domestic mode of production)에 뿌리를 둔 경제적 기반을 갖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혹은 과거에 있었던 여성종속은 따로 분리되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델피의 가내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이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e.g. Barrett & McIntosh 1979), 델피는 급진적 페미니즘에 반대하여, 여성억압에 대한 단일한 원인을 찾는 것은 쓸모없다고 주장한다(1984 : 22).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도 반대하여, 여성들을 남성과 상반되는 이해를 가진 하나의 계급이라고 주장한다(180).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개념을 성공적으로 잘 사용하여, 전통적 사회지식은 가부장적인 것, 즉 남성의 이익에 따라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구사상의 특징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초기의 시도(인류역사의 모든 남녀관계를 설명해주는 추상적인 가부장제 개념)보다 더욱 견고해졌다.

가부장제 개념은 느슨한 일반적 설명의 범주로, 특히 '가부장적 사회'라는 범주로 페미니즘의 담론에 포함되었다. 남성지배를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를 사용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 사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페미니스트들과 대립해왔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인류 역사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에 근거하여, 가부장제를 역사적 산물, 즉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가부장제를 당연하게 남녀관계의 특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규정되고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것으로서의 가부장제

1970년대에 와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일반화된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페미니즘의 시도에 변화가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데도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가부장제를 생산양식과 여성억압의 관계를 중재하여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나, 혹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혹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계로 통합하는 관점이나 모두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Patriarchy Conference 1978 ; Kuhn & Wolpe 1978 ; Eisenstein 1979 ; Sargent 1981). 그러나 여러 논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온 여러 가지 방법들은 항상 문제시된다(Brittan & Maynard 1984 : 58-9). 이 모든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것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관계를 구체화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가부장적 가족-가구체계, 가부장적 국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교육 등을 야기하면서 가부장제와 함께 탄생된 것으로 인식된다.

하트만(1981 : 18-19)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각각 다른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다른 형태의 억압이라고 주장한

다. 즉 "가부장제의 물적 기반은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다." 남성은 결혼, 양육, 가사노동,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 사회제도 등을 통해 이러한 통제를 획득하고 실현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로 구성된다. 한편 맥도너와 해리슨(McDonough & Harrison 1978 : 11)은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부장제는 역사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며,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관계는 지배적 생산양식에 근거해 그 형태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관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변형이 어떻게 상호관계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부장제가 자본주의나 다른 생산양식과 독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생산양식에 의해 산출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생산조직에 의존하는 반자율성을 가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 다른 상황에서도 그 양자의 관계가 같은 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페미니즘을 비판하게 하는 것이다. 비판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아주 일반화된 개념(이것은 양자의 관계도 일반화하는 결과에 이른다)에 집중되었다. 월비(Walby 1983)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모순이라는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102), 그것의 중요한 약점으로 지적한 것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혹은 성별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분석들은 이 양자 사이에 조화될 수 있는 분절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애들람(Adlam 1979)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융합은 남성지배를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 융합은 설명을 일반화된 추상적 개념으로 만들어버리고, 계급이나 생물학, 본능과 같은 요소로 환원될 필요가 없는 성적 구분의 특성을 무시하게 한다. 애들람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같은 이해를 가진 단일범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1979 : 101). 나아가 로보텀(Rowbotham 1981 : 365)은 가부장제가 초역사적인 용어라는 이유로 그 개념을 거부해버린다. 그는 그 용어가 여성운동, 남녀관계의 복합성, 남성권력에 대한 여성의 저항과 변화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Dorothy Smith 1983 : 99)는 가부장제라는 일반화된 개념이나 혹은 가부장제와 생산양식을 일반화된 관계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과정을 설명할 수 없게 한다고 논평한다. 가족관계와 가구구조는 유사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왔다. 스미스는 최근의 가부장제에 대한 보편성은 사회적 위계질서를 분석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개념에 의해, 그리고 역사의 다양성을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주장한다(101).

코크번(Cockburn 1983)은 일반화된 남성우월성을 지칭하는 초역사적인 가부장제 개념을 섹스-젠더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자고 제안한다. 섹스-젠더 시스템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지만, 더 나아가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역사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한 모든 설명은 생산이 어떻게 조직화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수반한다. 코크번은 영국의 섬유염색 산업에서 나타나는 남성지배를 연구하면서, 염색과정에서 생기는 남성우월성과 싸워나가는 과정에서는 계급, 성, 기술변화 등의 역사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지적한다. 다른 종류의 산업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투쟁과 성과를 가지게 된다.

다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 개념을 완전히 거

부하는 데 보다 더 조심스럽다. 물이 차 있는 욕조에 아이를 던지는 것은 항상 위험스러운 일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이 조야한 보편적 가부장제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였다. 만일 성, 생산, 이데올로기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온 것이라면, 여성들이 계급을 초월해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해 역시 변화되어온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그것이 발견된 각각의 상황에서 확인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반적인 가부장제 개념이 필요하다.

그렇게 다른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게 다른 생산양식에서도 남성이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 등 정확히 설명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월비(Silvia Walby 1986 : 50)는 사회적 존재는 복합적인 것이므로, 대단히 많은 사실들이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모든 사회이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설명을 위해 필요한 관련요소들은 이론적 분석이나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여성의 비판의식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주장과 대립될 수 있다.

월비(1986 : 69)는 가부장제를 가사노동, 임금노동, 국가, 남성폭력, 성 등을 포함하는 생산양식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성 불평등은 여성노동이 사용되는 구체적 영역에서, 가부장제, 자본주의, 인종차별주의 등의 상호교차점을 근거로 설명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여성 삶의 영역들을 역사적으로 연결하는 설명의 문제에서는 유용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 개념은 역사적 설명과 일반적 설명을 연결하는 데

성공한 생산양식으로서의 가부장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일반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시도는 역사 혹은 투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부장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이익을 준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월비에 따르면, 예를 들어 남성이 자신의 노동에 여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익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자본주의가 지배적 남성의 요구에 항상 봉사한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 코크번(1983)은 남성은 따뜻함, 창조성, 완벽한 성, 헌신성 등을 빼앗겨왔고, 가정에서는 긴장상태로 살아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반적 지배를 주장하는 보편적 이론은 생물학적 환원론과 역사적 다양성이라는 단단한 바위에 부딪혔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혹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추상적 설명은 추상화된 일반성은 물론이고 역사발전의 모순을 다루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들은 왜, 어떻게 남성이 그렇게 많은 다른 상황에서 여성을 억압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두 가부장제를 금지하고 '성별관계에 대한 역사적 접근'(Rowbotham 1981 : 368)을 적용한다면,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남녀간의 투쟁이 왜 그렇게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된다. 쿤과 울프(Kuhn & Wolpe 1978 : 9)가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상황을 연구해온 유물론자들은 여성억압에 초역사적 특징이 있다는 문제

에 항상 부딪히게 되며, 그것은 즉시 그 억압과 생산양식 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만든다." 가부장제를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남성의 지배에서 생물학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가부장제라는 용어는 여성의 지배나 권력의 균형이 아니라, 어떻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문들을 남겨둔다.

가부장제 개념이 남녀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관계는 설명되어야 할 문제로 남겨진다. 가부장제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남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성적 관계, 노동, 사적, 공적 생활 등의 메커니즘을 인식하게 했지만, 그러나 설명의 문제들은 남겨놓았다. 만일 남성이 아이를 낳고 수유를 하게 되더라도, 여성에 대한 광범한 지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가부장제를 생물학으로 환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합당한 근거 없이 생물학을 무시할 필요도 없다. 아직도 우리가 가부장제를 금지한다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개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양성관계와 생산양식의 수많은 복합적인 관계를 묻어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하나의 단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보편성의 문제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다소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까지도 보편적 일반화의 경향을 갖고 있다.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론에서 도출된 보편적 일반화는 서구 사회이론의 특징이다. 나는 다른 곳(Ramazanoglu 1985)에서, 보편적 일반화가 여성의 경험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 비판했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까지 페미니즘 일반화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적절한 페미니즘의 주장도 약화되었다.

남성지배에 대한 보편적 일반화는 여성의 삶에 들어 있는 모순을 인식할 수 없게 한다. 모순이라는 개념은 페미니스트들이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받아들인 개념이다. 마르크스의 위대함은 1860년대나 1970년대에 그가 도출한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하는 인류 역사에 대한 그의 접근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에 제기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일관된 질문은 "여성은 억압되었는가"가 아니라 "여성(혹은 노동자나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존재로 살아갈 기회를 결정하고 제한하는 모순의 근원은 무엇인가"이다. 만약 그 질문이 여기에 적용된다면, 모든 여성에게 혹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난한 대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흔히 자본주의 사회를 다루어왔고, 자본주의는 여러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도 같은 형태를 갖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취급되었다.[3] 마르크스가 가졌던 역사적 다

양성에 대한 인식, 19세기 노동자의 끔찍한 삶과 죽음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노, 노동자 개인의 경험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일반적 분석으로 엮어낸 마르크스의 능력 등은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일반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추상적 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구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각 역사는 독특한 것이었음을 아주 분명히 했다(Marx 1976 : 876). 보다 최근에, 헤이저(Heyzer 1986)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억압되기는 하지만, 그 억압의 형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의 지역적 생산과 친족체계의 통합방법에 따라 다르며, 또한 여성이 만들어낸 풀뿌리 저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각기 특수한 상황들이 서로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상황은 그것에 맞는 연구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 아주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시간은 물론이고 문화, 경제, 계급을 초월해서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을 반복해서 만들고 재창조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페미니즘 이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한 우리는 여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와 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필요하다. 남성지배는 여성들에게 모순적이다. 즉 가부장제 사회는 어떤 여성들에게 또다른 여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페미니즘에 유용하다는 것은, 여성억압의 단일한 원인이나 혹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일반화된 관계찾기를 종결시켜주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교훈은 여성이 억압당하는 상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페미니스트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우리는 널리 퍼져 있는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모든 억압의 사례들을 공통적인 요소와 특수한 요소들이 합성되어 있는 문제로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여성들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오게 되었는지, 남녀 사이의 권력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지금까지 해온 그리고 미래에도 해야 하는 저항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등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와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페미니즘 이론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험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 그리고 노동

5) 페미니즘에서 자본주의는 널리 논의되지만, 거의 정의되지 않고 사용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그 용어를 사용한다. 자본주의로 인식되는 모든 사회는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 착취에 기반한 생산력의 사적 소유.
2. 시장을 위한 상품의 일반적 생산(사고파는 물건들).
3.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자신이 생산한 물건과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나 수공업 노동자와는 대조적으로).
4.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사람이 생산하고 통제하는 물건에 대한 노동과는 반대로, 인간의 노동을 임금을 주고 사고팔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5. 잉여가치의 산출.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임금으로 소비한 것 이상의 가치를 산출할 때 만들어지며, 이 잉여가치는 자본가 계급에 위해 착취되어 자본축적의 기반이 된다.
6. 자본의 확장된 재생산. 어느 사회에서나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생산과 축적과정의 지속적인 확장에 달려 있다.
7. 경제작용과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는 모두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각각의 역사적 단계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독특한 모양을 가진다. 그러므로 정확히 똑같을 수 있는 두 개의 자본주의 사회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추상적 개념이지만, 추상적으로 관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계급 여성들 사이에서조차도 노동경험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역사연구에서 보여진 것이다(Lewenhak 1980; Sarsby 1985). 많은 페미니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은 추상적 일반화의 경향이다. 비록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그래서 반드시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추상적 일반화가 조사되지 않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면, 왜 어떤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더 억압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페미니즘을 억압이론으로 취급하는 문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종속되고, 혹은 억압당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며, 그리고 무엇이 그러한 억압을 구성하는지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성억압을 설명하는 방법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억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른 페미니스트들의 논쟁은 페미니즘을 분리시켜왔다. 그렇지만 여성해방을 위해 효과적인 정치학이 되려면 앞서 지적한 긴장과 모순을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나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단순한 방법으로 조합되거나 병합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들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자 사이의 차이는 보다 더 구조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매우 유사한 설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들의 불일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러한 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접근방법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에 관한 논쟁은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자매와 같은 친분을 가진) 여성해방의 정치학을 향한 긍정적인 첫걸음일 수 있다. 이 설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페미니즘은 여성의 모순적인 이해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나는 페미니즘 지식을 상세하게 논의하기 전에 먼저 페미니즘을 사회이론으로 취급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겠다.

3

페미니즘은 믿을 만한가[6]

페미니즘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나아가 왜 페미니즘 사상이 믿어져야만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을 고려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사회이론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이론은 보통 여성의 일상생활이나 여성해방의 실천적 정치학과는 관계가 먼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많은 뉴웨이브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이론을 페미니즘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부한다. 왜냐하면 사회이론은 남성적 사고양식과 같기 때문이다. 지식에 대한 남성지배는 여성억압 틀의 일부분으로 알려져왔다. 현재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지만, 자신을 사회과학자로 규정하는 페미니스트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의 이념은 일련의 사회이론을 구성하며, 페미니즘과 여성해방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려면 설득력 있는 사회이론이 필요하다.

다음의 주장들은 인식론 혹은 지식의 기초이론의 본질적 문제로 요약되거나 단순화된다.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지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그 지식은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무엇이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보통 여성의 투쟁에서는 직접적인 이슈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페미니즘의 사회이론을 명확히 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실천적이고 범세계적인 정치운동으로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이다. (페미니즘을 하나의 운동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일종의 형식적인 관계나 구조를 지니는 조직화된 또는 위계질서적인 운동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조직화를 제외하면, 공유된 이해에 근거한 운동을 규정하는 기존의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은 그람시가 정의한대로 비판적 인식의 발전이라고 이해한다(Gramsci 1971 : 325).

> 사람들이 현실세계에 대해 일관되게 똑같은 형태로 생각하게 된 것은 소수의 지식인 집단의 소유로 남는 철학적 '천재'에 의한 진리의 발견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철학적' 사건이다.

여성들은 그람시 시대의 이탈리아 노동계급에 상응하는 대중일뿐만 아니라, 공통의 언어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매우 다양한 상황과 문화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다. 여성의 물질적 상황은 과도한 풍요로움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여성들은 다른 여성의 삶에 대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여성들은 자기자신의 삶에 대한 권력조차도 가

6) 본 장에서의 몇몇 생각들은 라아자노글루의 이전 저서에서 나타난다(1987b).

지지 못한다.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은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진 사회경제 구조에서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여성들은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현재의 현실세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이다. 즉 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전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이론으로서 페미니즘은 이와같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과제를 다루는 것이며,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투쟁이 상당한 문제에 부딪히왔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진보된 사회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이념이 사회가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 다른 이론보다 더 잘 설명한다는 가정은 모든 페미니즘 인식에 공통적인 것이다(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페미니즘은 최소한 어떤 측면에서는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변혁과 관련이 있으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기존 사회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변혁의 중요성을 적절히 이해해야만 한다. 2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다양한 페미니즘은 억압이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사회이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이론의 영역에 들어간다. 페미니즘의 실천적 활동이 수많은 정치적, 문화적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모든 페미니즘은 (단조로운 것이든 창조적인 것이든 간에)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질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전략을 함축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중요성은 단지 지식인만이 알 수 있는 추상적인 사회이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처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변혁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남성이 현재 살고 있고, 과거에 살아왔던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또한 페미니스트는 실천적인 사회변혁을 보증하여, 미래에 여성들이 억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살아 있는 경험이며 해방을 향한 정치적 투쟁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적 활동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무엇에 대항해 투쟁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지적 활동은 사회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나아가 여성억압의 근원과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이해도 발전시킨다. 관념의 발전은 여성의 일상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지만, 또한 관념은 일상적 경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페미니즘 사상은 여성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주며,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은 과학적 지식이다. 상식적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진리를 추구한다. 사회를 분석하는 기존의 지식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론들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다른 사회이론가들처럼, 페미니스트들도 정해진 한도에서 일반적으로 '진실'로 인정되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진리라는 개념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시되는 개념

들을 지적해왔다. 진리라는 개념에는 (절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근거 있는 비판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어떤 언명이 다른 것보다 사회생활을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의 사회구성원인 페미니스트들이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회변혁을 원하는 사람이나 현상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나 모두, 경쟁적인 설명들 중에서 어떤 사회가 '진정으로' 좋은가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모두 도덕적, 정치적 기반에서 '더 좋은' 이론과 '더 나쁜' 이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예를 들면 더 나은 인류평등,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인본주의, 자연과의 보다 나은 조화,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보다 더 억압적인, 보다 더 위계적인, 보다 더 가부장적인, 보다 더 자연을 착취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도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이 과학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출발전제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결론을 믿게 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 사회이론은 단순히 여성의 정치학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으며, 이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게 된다. 페미니즘 비판가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페미니즘이 보다 나은 사회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학적 사회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사람들은 17세기 계몽주의에서 나와 서구사상을 지배하게 된 과학 개념에 주목한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처럼, 계몽주의라는 용어도 장기간에 걸친 유럽 역사의 복잡한 변혁의 시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시기는 신의 절대적 권위가 마침내 과학적으로 탐구되어지는 이성의, 그 다음에는 자연의, 그 다음에는 사회의 절대적 권위에 길을 내주는 시기였다.

여기에서 계몽주의 사상의 발전과 변화를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계몽주의의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제시할 수 있다. 그 특징들은 페미니즘이 중요하게 도전했던 것이다. 과학에서 이성의 지배는 과학자들과 사회이론가들에게 객관성의 근거가 된다.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해도,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방법이 과학적이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목적은 옳았던 것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형이상학적인 성찰을 피하고, 인간의 욕망과 편견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통제하여, 사실들을 정확히 수집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그 사실을 사용하여 가설을 시험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설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자연과 사회생활 모두를 통제한다.

이러한 논리는 감성으로부터 이성의 분리를 정당화한다. 감성을 가진 개인들에게 자연과 사회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정신은 육체와 분리되고, 문화는 자연과, 객관성은 주관성과, 공적 생활은 사적 생활과 분리된다. 이러한 분리는

평등한 것의 분리가 아니라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의 분리이다. 이성은 감성보다 우월하고, 정신은 육체보다, 문화는 자연보다, 객관성은 주관성보다 우월하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남성은 우월한 자질과, 여성은 열등한 자질과 결합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Bleier 1984; Harding 1986; Seidler 1986). 이성은 남성다움의 태도가 되고, 과학적 지식은 남성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된다. 반면 여성성은 자연적이고, 수동적이며, 직관적이고 주관적이다. 여성은 머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장과 몸에 의해 지배된다. 이러한 이원론과 성차별화된 의미는 서구사상에 유행으로 번지고, 여성과 남성의 본질을 규정하는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이성적으로, 과학적 분리는 여성이 본성적으로 열등하고 비이성적이라는 부당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는 인간의 다른 자질로부터 이성을 분리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설에 근거한다.

이 접근에 대한 격렬한 비판(내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과학 개념이 지닌 문제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판가들은 과학적 지식을 산출하는 것이 중립적이거나 분절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창조적인 사회과정임을 지적한다.[7] 과학자들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특수한 이해를 추구하고, 남성지배적이고 위계화된 제도 속에서 연구한다.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되면, 이제 과학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발견의 문제로부터, 실재하는 이념들과 실재해야 하는 이념들에 의해 인도되는 일련의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과학으로 변화된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 안에서만 연구되어질 수 있다.[8] 과학자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식이 산출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는 사회이론은 과학자가 격리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이론보다 '더 좋은' 이론이다. 후자의 이론은 '정말로' 과학자의 길이 아니다. 과학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페미니즘 사회이론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도 정치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비이성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의 여러 주장——이 주장에서 여성들(흔히 상대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여성들)은 인간의 본성, 역사,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껴왔다——에서 논리성, 일관성, 통일성 등의 결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여성억압을 정당화하고 실제로 고무시켜온 기존의 주장이 갖는 논리성, 일관성, 통일성에 끼친 이 페미니스트 주장의 엄청난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떠

7) 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과학의 사회적 특징에 관해서는 Kuhn(1970), Lakatos & Musgrave(1970), Ravetz(1971)를 보라.

8) 사회구조나 사회관계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이론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들은 대체로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왔다. 즉 그들은 남녀간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감성적,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종속당하는 여성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렇다면 여성의 본성적인 열등성 그 이면에 있는 이러한 구조와 과정을 드러내고, 그것을 변혁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Cain 1986). 현실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단순화될 필요는 없다. 플랙스(Jane Flax 1987:643)가 말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작업을 잘 수행한다면, "현실"은 현재보다 더 불안정하고, 복잡하며, 무질서하게 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주로 비판되었다. 후기 구조주의 관점에서 성(性)이나 생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현실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현실은 다층적인 것이라고 보며, 그래서 페미니즘에 어떠한 정치적 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

한 결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페미니즘 사회이론은 이전의 신념들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시될 수 없다. 이 이론은 양성의 관계나 여성의 적합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서구지식이 타당하지도 진실되지도 않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지식은, 남성이 여성을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특정한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식구조의 산물이다. 페미니즘은 성의 정치학을 사회관계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남성지배적인 지식에 도전한다. 남녀관계에 대한 이성적인 주장은 더 이상 우리 삶의 나머지 부분들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

페미니즘의 이성비판

페미니즘의 과학에 대한 비판은 과학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지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비판보다 더 근본적인 비판이다. 페미니스트인 과학자들은 이성이라는 매우 한정된 개념으로 남성에 의해,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과학적 지식의 타당성을 문제시한다. 그러한 지식은 실제로 여성의 이해에 대립되고, 심지어는 여성의 이해를 무시하기도 한다(Keller 1983; Bleier 1984; Rose 1984; Birke 1986; Harding 1986).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에 의해 과학적 사상이 전유되어왔고, 사회적 지식구조에서 차지하는 권력의 중요성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렇게 전유되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같은 방법으로 과학을 전유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들은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

페미니즘은 과학적 지식의 기반인 이성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지식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도전한다. 과학적 방법의 객관성은 과학자의 주관성과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자의 감성은 과학적 방법의 엄격함이나 합리성과 분리될 수 없다. 서구의 과학은 이성이 감성과 독립적일 수 있다는 기반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식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통제해야만 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실제로 이성은 감성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대단히 극적인 발전으로, 사회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유지해온 자연과학자나 사회과학자는 그들이 만들어온 사회지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페미니즘이 '나쁜' 사회이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주장이 현실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불안전하다. 이제 몇몇 논자들은 이성을 감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이성 개념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Daniels 1976; Hochschild 1976; Smith 1979).

페미니즘 지식의 산출은 솔직히 파괴적인 활동이다. 페미니즘 지식은 기존지식을 비판하면서 남성지배 지식의 근본을 손상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파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은 또한 숨김없이 감성을 설명하고,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Scott 1984; Ramazanoglu 1987a). 페미니즘 지식은 감성에 대한 이성의 지

배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감성적인 여성에 대한 이성적인 남성의 우월성을 믿는 사람들을 회나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한다. 때문에 페미니즘 지식에 대한 모든 평가는 감성을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성적 가치평가를 주장하는 전통적 양식은 감성을 논외로 남겨둔다. 페미니즘 지식은 다른 방법론——사회생활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하는 남성중심적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는——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과 비교되어야만 한다. 자신의 의도나 사회적 맥락, 감성 등을 설명하지 않는 페미니즘 이론이나 방법론을 비판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성과 감성, 객관성과 주관성, 이론과 실천을 통합된 것으로 보아야만, 사회적 존재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 절차를 적절하게 발아나갈 수 있다.

페미니즘의 결론이나 일반화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흔히 불신에 직면하게 된다. 페미니스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난받는다. 주류의 사회이론(페미니스트들이 남성주류 혹은 남성중심적(androcentric)이라고 범주화한[9])은 과학적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흔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시되지만) 제시해왔다. 그러나 페미니즘 사회이론은 설득력 있는 과학적 지식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왔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누구도 무엇이 진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과학자들은 왜 그들의 결론을 믿어야만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9) 하딩(Harding 1986)과 다른 논자들은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남성중심주의란, 남성이 사회생활의 중심에 서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다.

페미니즘 지식의 타당성 문제

내가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지식이 설득력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지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진리라고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규칙, 그리고 그 지식이 믿어지는 범위에 대한 규칙들은 명확히 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엄격한 이성에 의존해서 그러한 규칙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이성만을 가지고도 타당성의 규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도전한다. 만약 우리가 이성(과학자들의 감성과 분리될 수 있는)에 근거한 엄밀한 과학적 규칙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과학적 방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엄밀한 타당성의 절차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엄밀함은 과학자의 주관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존의 논리적 규칙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이나 사회에 대한 남성주류 지식이 갖는 타당성에 도전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주관성과 감성으로부터 객관성과 이성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10]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감성과 분리된 이성에 의존하는 과학자들

10) 사회과학자들, 특히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은 객관적인 과학자를 가정하지 않는 사회지식 산출방법을 발전시켜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에서도 여전히 사회과학자의 주관성은 이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열정의 통제는 대단히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것이다.

을 통렬하게 비판한다(이러한 비판은 기존의 학문으로 하여금 페미니즘 사상을 무시하게 하고, 페미니스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페미니즘 지식은 과학적 지식을 평가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열어놓는다. 이는 그것이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자나 감성적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엄격한' 질서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그리고 사회관계에 대한 설명들은 왜 믿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은 페미니즘 연구에 의해 산출된 지식의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페미니즘은 공공연하게 타당성이 없는 지식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타당한 지식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의미는 학문적 논쟁 외부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페미니즘 지식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어려움 때문이다. 헌(Hearn 1987)의 경고에 따르면, 남성이 페미니즘을 신중하게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이 직면한 타당성의 문제는 다른 사회이론이 직면한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단지 자연과학이 직면한 문제와 다소 다를 뿐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문제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단순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페미니즘 지식을 만들기 위한 규칙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엄밀한 과학적 방법을 버릴 수 있지만, 엄밀한 타당성까지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다. 페미니즘의 정치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미니즘 지식을 믿게 하려면, 페미니즘 지식을 엄밀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이 측면에서 몇 가지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일반적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성폭력은 단지 강간이나 가정폭력의 경험적 증거만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날 수 없다. 남성폭력의 경험들이 통계학적으로 구성되어야만 페미니즘 지식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상적 개념은 남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남성억압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타당성은 경험적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며, 토론이나 논쟁, 그리고 정치적 투쟁을 시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지식을 만들기 위한 규칙들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이 더 좋은 사회지식이라는 주장은, 페미니즘이 이전의 사회이론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일관성 있고, 더 많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페미니즘 지식의 타당성은 페미니스트들이 출발하면서 가졌던 전제나 언어, 개념들에 의해 제한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지식은 다른 사회이론에 의해 산출된 지식보다 더 정확하고 더 유용할 수 있다. 바로 여기로부터 다음의 주장이 나온다. 즉 페미니즘 방법론은 다른 연구방법론보다 더 우월하며, 과학적인 활동과 사회생활 둘 다에 대한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현실적'인 개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 역시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연구한 지식을 어떻게 타당한 지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동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이론이나 여성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지식을 산출하는 페미니즘 방법에도 모순을 가져온다(Harding & Hintikka 1983). 예를 들어 지식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마르크스주의자와 비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회지식을 만들어내고, 다르게 지식을 이론화한다.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노동계급 여성과 중산계급 여성, 서구 여성과 제3세계 여성 등 이들 모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본다.

페미니즘 사회이론은 남성지배적 사회에 대한 변형을 다루며, 페미니즘 방법론은 여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다룬다. 억압을 다루는 페미니즘 이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미니즘 방법론 역시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 페미니즘 방법론의 인식론적 위치와 그것을 산출하는 지식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여 이론화하고, 해석하여 사용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사회이론가들은 남아 있는 문제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성중심적인 설명보다 사회생활을 더 잘 설명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와 씨름하여 성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페미니즘이 중요한 사회변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의 지식보다 페미니즘 지식이 더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가늠하는 구체적인 기준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명

확한 절차를 발전시켜오지 않았지만, 실천과 논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험 표현하기

진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의 부분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객관적인 '지식인'으로서 연구자는 사라지고(Smith 1979), 대신 연구자는 사회 속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는, 특정한 자신의 위치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여성(또는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전에는 묵살되던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것은 만들어진 지식들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외부세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설명을 다 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회생활에 대한 페미니즘의 이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강간당하고 폭행당한 여성들과의 인터뷰가 반드시 가부장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아무리 동정한다 하더라도, 연구자는 사람들의 설명을 선택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이 동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익의 여성이나 권위를 가진 남성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Cain 1986).

선택과 해석의 필요성

선택과 해석의 필요성은 모든 과학과 사회과학의 아킬레스 건으로 남아 있다.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선택하고 해석하려고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이러한 해결이 여전히 남성의 지식만을 산출할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페미니즘에서도 (모든 사회이론에서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하고도 심각한 약점은 바로 선택과 해석의 문제이다. 이것은 페미니즘 지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 지식이 어떻게, 왜,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지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다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험에 대한 여성들의 설명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은 먼저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에 대한 여성들의 표현을 해석할 때는 비판이나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사회를 성차별적으로 보는 모든 새로운 시각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그것은 연구자와의 관계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을 일반적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는 요소들도 설명해야만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논리적으로 주관주의자일 수 없다. 왜냐하면 페미니즘 정치학은 대부분의 여성의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가부장제나 억압과 같은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사회학을 쓴 스미스(Dorothy Smith 1986 : 6)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발견의 방법을 주장했다.

> 여성을 위한 사회학은, 여성들의 사회적 상황이나 일상세계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보통의 수단으로는 알 수 없는 사회과정에 의해 어떻게 조직되고 결정되는지 여성들을 위해 드러내보일 수 있어야만 한다(강조는 저자에 의한 것임).

페미니즘은 성의 정치학에서 개인의 경험을 해석 ——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 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한다. 여성에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와 동일시하지 않고서도 인종차별적인 신념과 실천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시 말하면 인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은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연구자는 같은 여성의 경험을 가지고도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과는 아주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지식의 타당성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페미니즘 이론의 자질(quality)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육체적 생존이 인종차별주의에 의해 위협받는다면,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연구과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대부분의 인간문제들은 적절한 자기비판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이론은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권력에 대한 설명

페미니즘 방법론은 연구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성차별이나 감성 같은 요소들을 더 많이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권력을 연구과정의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론과는 다르다.

보다 일반적이고 일관성 있는 '더 좋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대상과의 관계에서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권력(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을 구조화하는, 인종, 민족, 성, 연령, 계급과 같은 문제를 설명해야만 한다. 다른 비판들도 이것을 실행하기는 하지만, 페미니즘은 타당한 증거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까지 더 나아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연구하려면, 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권력의 근원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 지식이 권력이라면, 연구자는 필연적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지식을 통해 권력을 얻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에 대한, 중산계급 여성이 노동계급 여성에 대한, 부유한 서구의 여성이 제3세계의 농부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면, 그때 얻어진 그 지식의 타당성과 사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권력이다. 페미니즘 연구가 여성에 대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들 사이의 공통된 이해를 가정하지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는 간과한다.

주관적 지식의 타당성

페미니스트들이 연구대상과 연대관계를 갖게 되면,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문제는 더욱 첨예해진다. 바로 이 점에서 자연과학자들은 강점을 지닌다. 왜냐하면 과학자와 연구대상 간의 연대 정도는 의학적 연구를 통한 천체 물리학으로부터 질적인 사회조사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연구대상과 밀접한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설명과 해석에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연구대상과 연구자와의 관계를 논의해 그 연대과정을 명백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주관적 지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불명확한 것으로 남는다(Acker et al. 1983; Rose 1986).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을 적절히 구조화하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여성해방의 가능성은 여성 삶을 이해하는 수준에 달려 있다.

연구대상의 대상화 피하기

페미니스트들은 연구대상을 대상화하는 것(즉 연구되는 사람들을 연구자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대상화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사람들은 조사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규정한 목적을 위해 페미니스트에 의해 선택된 연구대상이다. 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연구주제와 대상은 정직하게 취급될 수도 있고, 연구자와의 연대는 분명해질 수도 있다. 즉 연구결과를 그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그 결과들이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대상화와 산출된 지식에 대한 통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고, 왜 발생하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상화의 과정을 줄이려고 시도할 수 있다.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설득력 있는 여성억압 지식을 만드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지식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다른 모든 사회이론들도 설득력 있는 지식을 만드는 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성의 삶이 거의 배제된 해결에 안주하고 있다.

페미니즘이 호의를 사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페미니즘 사회이론은 여성의 운명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이론이 단지 지적인 훈련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한 세계를 설명하려고 끌어들인 이론은 자신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가정주부나 어머니로서 자신들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여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남성에게, 혹은 경제적 착취에, 또 종교적 운명으로 돌리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는 이론과 실천의 연결고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받아들여졌지만, 자유주의 가정들과는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 양성관계에 대한 자유주의 분석은 억압에 대한 것보다는 여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불평등, 부정의, 차별에 관한 것이다. 불평등과 싸워나가기 위한 전략은 남녀간의 권력관계의 변형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과는 실천적으로 아주 다르다. 사회분석이 행동으로 바뀌면, 페미니즘 지식생산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모순은 명확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단순히 다른 이론의 부적절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교정만이 아니다. 만약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더욱 큰 효과를 가지려면, 우리는 페미니즘 지식을 페미니즘이 성차별적인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는 정치적 신념이나, 혹은 페미니즘 지식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바람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드글레이와 휴스(Midgley & Hughes 1983 : 219)의 주장처럼, "페미니즘은 절대로 괴상한 일시적 유행만이 아니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그렇지 않다. 페미니즘은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사회이론을 잘못 적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페미니즘의 강점이자 약점은 여성억압에 대한 분석이 이 억압을 변혁하려는 실천적 전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의 약점은 다양한 여성억압에 대한 지식인 페미니즘 지식을 타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억압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해방을 향한 다양한 전략을 야기한다. 페미니즘의 강점은 양성관계에서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의문시함으로써 얻게 된 변혁의 소망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법에 달려 있다. 이러한 강점은 4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4

남성과 여성
여성억압에 대한 페미니즘의 지식

단 한 권의 책에서, 그리고 단 하나의 장에서 지난 20여 년 간 만들어져온 페미니즘 지식을 공정하게 그대로 보여주기란 불가능하다. 1960년대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것이었던 페미니즘은 1970년대에는 넘쳐흐르는 시냇물이 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는 홍수를 이루게 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각각은 그 사회마다 그 자신의 특수함과 지역적 특색을 가진다.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비슷해지는 것은 아니다. 관찰자의 위치가 그의 관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모든 지식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로 통합된 전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흑인 페미니스트와 백인 페미니스트, 노동계급 페미니스트와 중산계급 페미니스트, 이들 모두가 반드시 똑같은 이정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 페미니즘은 서구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나 여성의 삶에 대한, 남녀관계에 대한 지식은 훨씬 더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이다.

여성본성과 양성관계에 대한 남성지배 지식에 도전하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을 개괄해보는 것이 여기서의 나의 목표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 이론은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보이게 만들었다. 그 지식들은 질적인 면으로나 분석의 수준으로나 상당히 다양하다. 어떤 페미니스트의 연구는 확실히 지성적이지 않으며, 또 출판을 위한 글은 쓰지 않는 활동가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개별적인 연구자나 활동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억압의 여러 국면을 명료하게 만들어온 일련의 지식들을 개괄해보는 것이다.

4장의 주제가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몇 가지 중요한 주제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많은 우리의 주장이 이미 여성에 의해 경험된 것임을 곧 깨달았다. 페미니즘은 새로운 문화유형이지,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Rowbotham 1973). 페미니스트들은 뒤늦게서야 페미니즘이 새로운 운동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지식이나 생산, 문화,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여성의 기여 역시 대체로 무시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회복해야만 한다. 우리는 아직도 여성억압의 기원조차 알지 못하며, 최초의 모권제나 모권제의 종교 등에 대한 연구도 거의 추측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역사적 지식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복구될 수 있다(Lerner 1973; Carroll 1976; Spender 1983; Lewis 1984).

가정(houses)을 공론화하려는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은 잊혀졌거나 무시되어왔던 논의들을 다시 출판해서, 페미니즘 연구를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초기의 여성 논자들은 새롭게 주목받았고, 오래된 논쟁들이 재발견되었다. 이러한 여성

지식의 회복은, 여성들의 억압에 대한 인식이 오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똑같은 형태로 억압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현대 역사는 부르주아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여성,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자본주의 국가의 여성과 식민지의 여성, 국수주의자와 국제주의자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여성의 공통된 억압을 주장하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여성들 사이에도 깊은 분열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에 부딪히게 되었다.

여기서 검토하려는 주제는 페미니즘 지식이나 페미니즘 문제, 페미니즘 이성 등이 사회관계에 대한 개념을 변형시켜왔다는 것이다(이 주장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격렬한 반대를 감소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말했던 페미니즘의 분열을 넘어서는 최종적인 언명이 아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 의해 억압되었고 남성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개괄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된 시도이다. 때문에 몇몇 페미니즘 지식은 어쩔 수 없이 생략되어야만 했다. 양성의 관계가 국가나 법, 공공제도 등에 대한 이데올로기나 실천에 의해 구조화되는 방법을 연구한 일련의 중요한 페미니즘 연구들이 있다. 페미니즘은 교육, 예술과 문학, 대중매체에서의 묘사나 그에 대한 접근, 정신적, 육체적 질병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억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역은 페미니즘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대체로 잘 소개되며, 그 영역이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으로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는 그것들을 분리된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 많은 영역들은 여성의 공유된 억압의 일반화를 위한 본질적 증거와 필요한 자격요건들을 제공한다.

첫째로 나는 새로운 의미의 여성경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구사상의 비판에 집중한다. 둘째로 나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억압당한다는 페미니즘의 주장이 갖고 있는 근거를 검토한다. 셋째로 나는 점차로 문제시되는 것으로 부상하는 이러한 주장을 고찰한다.

서구사상의 남성적 편견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젠더의 사회적 구성

모든 페미니즘은 하나의 성으로서 여성이 본성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가정에 도전한다. 그 대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찰될 수 있는 생물학적 차이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라고 한다.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문화의 산물이다. 만약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이 여성을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만들었거나,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다면, 바로 그것이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지, 본성적 차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Sayers 1982b).

생물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페미니즘 사상은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의 생물학적 성(sex)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사회적으로 구조화하는 사회적 성(gender)의 구분은 페미니즘 사상의 기본이다. [여성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섹스(sex)를 생물학적 성으로, 젠더(gender)를 사회적 성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그렇게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가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구분과 정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많은 논쟁들은 접어두고,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으로 구분하여 번역하겠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성차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사회적 성(gender)으로 되는지, 생물학적 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물학을 구성하는지 등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즈(Mies 1986 : 23)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게 되면 생물학적 성('sex')을 생물학적으로 취급하게 되어버리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성(sexuality)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논자들은 섹스/젠더('sex /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이중론을 피하려고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어떤 측면이 생물학적인 것이고, 어떤 측면이 사회적인 범주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남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성(gender)을 사용하게 되면, 형식만을 따지는 현학자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성이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라는 가정은 페미니스트에게 남녀의 관계, 또 다른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의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사회적 구조화, 그로 인한 자연에 대한 지배적 개념 등을 설명하는 과학적 지식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 전제는 한편으로는 모순적이기도 하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성과 잠재적인 재생산 기능 때문에, 여성으로 인식될 뿐이다. 사회적 성으로서, 우리의 경험, 권력 혹은 권력의 결핍, 남성에 대한 관계, 경제활동, 신념, 가치 등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우리의 생물학적 성은 모든 여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여성들이 남성에게 억압당하는 것은 사회적 성 때문이다.

자연과 문화

여성은 단지 생물학적 성의 범주가 아닌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성(gender)의 범주라는 주장은 보다 많은 페미니스트에게 남녀관계에 대한 기존의 지식에 도전하게 한다. 여성억압에 대한 사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정되었던 여성다움의 열등성을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개념화하는 수단이다. 페미니스트들이 도전하는 것은 남성에게 여성을 지배하게 하고, 여성억압을 여성다움의 본성으로 가장해서 유지시켜온 자연과 문화에 대한 개념적 분리이다. 오트너(Ortner 1982 : 490)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피해보려는 야심찬 시도에서, 여성종속을 여전히 보편적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문화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는 자연과 문화에 대한 분리는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진다고 결론내린다. 여성은 자연과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 남성은 문화와 동일시된다. 보부아르(Beauvoir)와 초도로우(Chodorow)의 논의를 인용해서, 그는 임신과 수유로 인해 아동에게 속박되는 여성의 상황이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지역적 다양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지만(502), 이러한 종속 그 자체의 보편성은 설명될 수 없다.

후기의 논자들은 여성종속이 보편적이라고 보는 오트너(Ortner)의 가정에 도전한다. 예를 들면 캐런 삭스(Karen Sacks

1979)는 모성은 개인적인 자율성이나 정치경제적 권력관계와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남성과 권력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생산자들이다. 여성의 활동이 항상 남성보다 낮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삭스는 자본주의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어머니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할이 많이 감소되어왔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영향이 생물학적 보편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브라운과 조다노브나(Brown & Jordanovna 1982) 역시 인류 사회에서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성들이 모두 보편적으로 자신의 사회에서 자연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구사상에서 이러한 이분법이 지배하게 된 것은 18세기 중반부터라고 본다. 18세기 중반은 자연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점진적인 지배가 과학사상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다.

머천트(Carolyn Merchant 1982)는 16-17세기 동안 남성에 의해 만들어졌던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을 다시 검토했다. 그에 의하면, 현대 과학이 부상하면서, 자연은 유기적이며 우주 전체의 부분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연은 인간성과는 분리된 기계와 같은 그래서 착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자연관이 변화된다고 한다. 과학의 발전은 자연을 조각조각 분리해왔고, 또 한편 여성억압에도 기여해왔다. 머천트는 논평하기를(294), '오늘날 여성운동이 환경운동과 연합하는 것은 다시 해방의 문제를 중요하게 만든다'. '자연의 죽음'에 대항한 투쟁은 '주류의 가치와 경제우선성의 전복'을 통해서만 가능한데(295), 페미니스트들 역시 그것의 전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Karpf 1987).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며,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자연에 더 가깝다는 관점을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몇몇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위해 자연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원래 여성의 자연에 대한 특별하고도 창조적인 관계, 그리고 가부장제가 남성의 이해를 위해 제한하고 왜곡해온 관계를 강조하는 미국의 학풍이다(Griffin 1978; Rich 1980).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단순화된 이중론의 개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수전 그리핀(Susan Griffin 1982: 16-17)은 자연과 문화의 이중론에 대해 글을 쓰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한다(Griffin 1978). 그는 그 책을 미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인식하며, 그 책이 완성되고 불황기가 따라오면서, 그는 여성 혹은 자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권위의 소리까지도 자신의 안에 존재함을 알았다.

지식, 과학, 언어

자연과 문화의 대립이 보편적 진실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서구사상에서 발전된 하나의 개념일 뿐임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드러나면서, 이것은 현대 서구사상 전체를 문제시하게 만들었다. 3장에서 참고했던 페미니즘의 과학비판은 남성과 여성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남녀관계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도전한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법, 그것을 만드는 목적, 과학지식의 생산이 자연환경의 변형이나 파괴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을 문제시한다. 배럿(Barrett 1987: 35)이 지적한 것처럼, 서구의 백인 남성은 보편성의 모습 이면에서 보여진

다. 페미니스트들은 과학지식의 생산과 가치평가에서 나타나는 남성중심의 편견을 보여주었으며, 자연적인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남성의 자연스러운 지배에 도전했다(Sydie 1987).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사회지식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와 개념에도 문제를 제기한다(Spender 1980 ; Cameron 1985).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한계, 남성지배적인 언어의 제한, 여성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의 산출방법의 한계 등에 대한 일반적 지적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페미니즘 비판은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분법이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생활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개념을 시험하면서 더 많은 것을 증명하였다. 또 다른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무가 오히려 다르게 규정되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성은 사적 영역이나 가정영역에 속하는 존재로, 반면 남성은 공적 영역의 존재로 규정되는 것은 매우 흔히 있는 일이다. 수많은 사회 메커니즘들에 의해 여성들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제한되고 방해받는다(Imray & Middleton 1983). 여성의 노동의 자연적, 사회적 가치는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에 대한 일반적인 논쟁들은 재한될 필요가 있다. 어떤 여성의 노동은 다른 여성의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가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가정에서 물리적 폭력에 거의 대항하지 못하는 의존적이고 고립된 서구의 가정주부는 보편적인 모델일 수 없다. 이들은 또 다른 곳의 여성들과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며, 이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기는 하겠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Stacey & Price 1981).

현대 서구문화는 일반적으로 공적 생활에 속한 여성의 활동을 무시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지배와 사적 영역으로 여성을 추방하는 이중론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1960년대까지, 서구 사회지식은 공적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일차적 지식으로 중요시했고, 여성은 가족 혹은 일탈자, 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연구대상으로만 제한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활동을 지켜보고, 여성노동의 공적인 중요성을 드러내보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남성의 위치(흔히 폭력)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분리를 폭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성관계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개념이 보여주는 것은, 남녀가 가지는 권력의 불평등은 가장 은밀한 성관계에서부터 가장 공적인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공적이고, 무엇이 사적인가에 대한 재규정은 권력을 어디에 놓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에 의존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재결합은 권력개념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적인 영역은 사적인 만큼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는 남성과 여성의 본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서 나오며, 여성의 저항에 대항하여 유지되어야만 했다(Siltanen & Stanworth 1984). 여성이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음을 폭로함으로써, 여성노동의 본질을 문서화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 그때 남성이 여성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정도, 그리고 여성

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강요하는 많은 메커니즘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여성은 가정의 영역에 속한다는 규정은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가치절하를 합법화하게 한다. 사적 영역으로의 제한 속에서 여성억압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지에 대해 페미니즘이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제한이 전역사에 걸쳐 얼마나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거의 없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도전들이 일반 통념으로 표현되어왔다. 수많은 연구들이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노동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왔고, 여성을 공적 영역 밖에 묶어두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보여줬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영역을 자신의 '본질적' 위치로 수용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생활의 경계를 강요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해왔다.[11]

공유된 여성억압의 예

서구사상의 전통에 대한 이러한 도전 속에서,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일반적 여성이 일반적 남성에 의해 억압당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예를 찾아낼 수 있었다.

11) 영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투쟁의 한 예로 1984-5년에 광부들의 오랜 파업기간 동안 광부 아내들에 의해 취해진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들 수 있다(Stead 1987).

성의 사회적 구성

인간생활의 가장 사적인 영역, 즉 성(sexuality)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여성억압이 인간관계의 중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무엇이 정상적인 성이고 무엇이 자연스러운 성인가에 대한 문화적 가정의 신비를 벗기며, 그리고 (최소한 서구에서는) 정상적인 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성임을 보여준다. 비판은 남성이 지배하는 이성애의 성, 생식기 중심의 성에 집중한다. 남성의 필요를 보완하는 것 이외에 여성의 성에 대한 표현은 무시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된다(Millett 1977; Jackson 1984). 문학에서는 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불변의 선천적인 본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면 기존의 성 지식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도전은 여성의 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조화된다는 주장에서 나온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 사고는 성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관념에 도전하는 동성애자인 남성들과 공통된 근거를 갖는다(Gay Left Collective 1980; Weeks 1985, 1986). 또한 이것은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Michel Foucault 1979)의 연구에도 영향을 받았다. 푸코의 연구는 성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지만, 푸코가 여성의 성의 정치학을 정교화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Butler 1987; Schor 1987). 페미니스트들은 성이 단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성의 성이 전역사에 걸쳐 남성지배와의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었음을 논의한다.

페미니즘의 분석은 성을 정치적 투쟁의 영역으로 드러낸다. 성의 정치학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요구처럼, 여성의 성이나 여성의

성적 즐거움은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여성은 이성애적인 성관계에서는 권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Lees 19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서로의 관계나 혹은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페미니즘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논쟁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Stimpson & Person 1980 ; Snitow et al. 1984 ; Vance 1984).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에서 성이 비판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완벽한 동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성의 발전방식이 역사적으로 특수한 경우는 아닌지, 혹은 성관계가 보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Morgan 1984 : 13-14 ; Caplan 1987).

성을 변화하지 않는 생물학적 본질로 이해하는 관점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의 성에 대한 설명이 자연이나 혹은 개인의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들은 특정한 역사시기에 특정한 성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과정을 찾아왔다. 페미니즘은 최근에 출현한 성적 자유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남성의 성적 필요를 위해서 여성의 성의 구조를 어떻게 숨겨왔는지를 보여주었다(Coveney et al. 1984). 페미니즘의 성에 대한 연구는 최소한 서구문화에서는 인간의 성이 제한된 방법으로 사고되었으며,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oward 1983). 또한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은 특히 레즈비언의 이성애적 성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들의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레즈비언의 비판을 야기하였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여성을 사적 영역에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적(sexual), 성차별적(gender) 정치학에 중요한 관심을 갖는다면, 가정에서 남성이 물리적, 성적 폭력을 사용해 여성을 통제할 수 있고, 공적 영역에서도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남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급진적 페미니즘에 의해 잘 보고되어 있다. 이것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의 일반성에 대한 주장이 지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고, 남성에게 육체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에도 역시 폭력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다. 강간, 아내구타, 노동시장에서의 성희롱 등의 가능성은 민족, 계급, 인종, 종교 등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일반적인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인도의 신부 지참금(인도에서는 어린 부인들이 적당치 못한 신부 지참금 때문에 살해된다)과 같은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다(Omvedt 1980 : 167). 아내구타와 같은 물리적 폭력의 형태는 널리 사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음란전화, 직장 내 성희롱, 포르노그라피, 매춘과 같은 또다른 형태는 광범위한 폭력 개념과 산업화의 확산과 관계 있다. 모든 문명사회가 남성의 폭력을 제도화하고 합법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의 위협과 현실은 확실히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은 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보상의 수단을 가져야만 없어지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 남성이 가장 분명하게 일반적 여성

을 억압하는 경우는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서이다. 폭력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었고, 여전히 현재도 그렇다.

에드워즈(Anne Edwards 1987)는 남성폭력 특히 강간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남성폭력을 여성종속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 메커니즘으로 규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 예를 들면 강간이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이라는 브라운밀러(Brownmiller 1975)의 연구에서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남성폭력의 몇몇 유형을 여성의 생존전략과 연결하는 보다 경험적인 스탄코(Stanko 1985)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변화의 폭을 추적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사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 노동시장에서 여성다움의 행동양식을 가져야 할 필요, 남성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여성이 일을 가져야 할 필요, 자신과 가장 가깝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매맞고 성적으로 학대받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등은 모두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공통된 문제임이 드러났다. 남성의 폭력이 남성의 생물학, 즉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공격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논쟁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의 폭력에 대한 연구는 사회구조와 남성폭력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예로 보면서 생물학적 결정론에 반대해왔다. 에드워즈는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데일리(Mary Daly)의 연구가 강간에 집중한 1970년대 초기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후기의 보다 일반적인 연구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데일리(1978)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억압의 방식이 역사

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데일리는 인도에서의 순장, 중국에서의 전족, 아프리카에서의 생식기 절개, 유럽에서의 마녀사냥, 미국에서의 산부인과의 개업 등을 들었다. 데일리 자신이 자신의 책을 극단주의라고 칭했지만(1978 : 7), 그는 여성의 공통된 상황을 최후의 관경 중의 하나라고 보았으며, 그 속에서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폭력에 의해 침묵당하고, 희생당하며, 겁에 질리고 통제된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사물의 상호 연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20-1), 여성들에게 개별적인 경험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가부장제 사회의 폭력에 대한 공통된 경험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이러한 보편적 개념은 생물학적 환원론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에드워즈는 197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역사적으로 합법화하고 유지해왔던 중요한 사회제도와 사회적 가치들을 폭로했다고 주장한다(1987 : 20). 1980년대까지, 여러 가지 남성폭력의 형태는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를 보유하기 위해 남성에 의해 행해진 중요한 투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투쟁에서 폭력은 성과 함께 얽혀져 있고, 그래서 가족에서의 이성애의 제도화는 남성에 의한 여성통제에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Rich 1983).

남성폭력이 보편적으로는 아니라도 매우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합법화된다는 주장은 이러한 논의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왔던 서구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삶이 남성폭력의 위협에 의해 제한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보여주었다(Wilson 1983 ; Stanko 1985). 남성폭력에 대한 합법화는 강간, 폭력, 성희롱, 살인 등을 당한 폭력의 희생자가 그것에 책임이 있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성을 과시하지는

않았는지, 아닌 체 하지만 성을 즐기지는 않았는지, 멈출 수 없는 어떤 것을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밤에 혼자 밖에 나갔는지, 도발적인 옷을 입었는지,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등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남성에게 강간당했거나, 함께 살고 있는 남성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페미니즘 활동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남성폭력을 정치화해야 한다. 폭행당한 여성들을 위한 강간위기센터나 피난처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강간에 대한 기존의 이론에 도전하는 일련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널리 퍼져 있는 남성폭력,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폭로했다(Hanmer & Saunders 1984; rhodes & McNeill 1985).

서구에서, 강간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남성에 의한 폭행, 노동시장에서의 성희롱, 아동에 대한 강간과 학대, 아동매춘 등은 이제 권위 때문에 축소보고되었던 공통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페미니즘 활동의 결과로서, 비록 느리고 한결같지 않으며, 제한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태도와 사무절차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여성들은 이와 비슷한 아니 희롱이나 폭력, 죽음과 같은 더욱 열악한 형태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다. 인도의 페미니즘 저널 『매뉴쉬(*Manushi*)』의 한 논문(Kishwar & Vanita 1884)에 따르면, 여아살해, 지참금 부족으로 인한 죽음, 경찰에 의한 강간 등이 폭력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한다. 『매뉴쉬(*Manushi*)』에 나온 논문들은 서구 페미니즘의 폭력에 대한 분석과는 달리, 여성을 폭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성폭력과 토지분쟁, 여성을 재산으로 보는 여성개념, 다른 경제적 요소 등의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폭력을 행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몇몇 페미니스트들이 다루기는 했지만(e.g. Wilson 1983), 그것이 여성과 남성을 본질적으로 다른 생물학적 본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즘 지식은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를 다시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남성지배, 남성에 대한 우등가치 부여, 가부장적인 정치경제 제도의 지배 등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남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는 남성지배 메커니즘과 성별 위계질서를 가시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가부장제 개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구타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통적이지만, 다른 것들은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그것이 사회경제적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방법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남성폭력의 원인과 그것이 성이나 생산양식과 맺는 상호관계는 다른 원인들이 제기되면서 불명확하게 남는다. 남성폭력에 대한 설명이 물리적 저항방법을 제공하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폭행당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급소를 무릎으로 차올리는 것은 대부분의 술취한 남편이나 작업장의 로미오들을 저지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폭력의 일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무릎으로 차올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거나 그 결과, 즉 물리적 보복, 실업, 폭력에 대한 책임 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육체적인 힘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무기나 제도화된 권력의 사용(예를 들면 작업장에서 상급자나 연장자로서 갖는 권력), 경제적 제재(살림을 못하게 하는)를 동반할 수도 있다. 폭력은 두려움, 죄의식, 성실성, 수치심, 헌신성 등의 감성을 착취할 수 있다. 에드워즈

(Susan Edwards 1987 : 164)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견되는 증거를 인용해서, 여성이 폭력남성을 공격하거나 죽일 때, 그 여성의 공격을 미리 계획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흔히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 남성의 약점을 잡아 여성이 갖는 물리적 약점을 보상받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남성폭력이 단순히 보편적 현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것으로 남는다. 만약 남성폭력이 보편적이라면, 그때는 생물학적 요소를 찾아봐야 할지도 모른다. 보다 최근의 남성폭력 연구에서, 최소한 여성에게 터뜨려야만 하는 남성의 본질적인 공격성에 관해서는 생물학적 설명의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생물학적 환원론을 수반하지 않는 남성폭력의 물리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적절한 영양상태와 건강을 전제해놓고 볼 때,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강인하다. 그래서 폭력을 합법화하는 관념이 지배하게 된다면, 남성은 여성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건강과 영양, 그리고 상대적인 근육발달과 체중 등은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남녀의 가치와 매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이 무시되거나 사회적으로 합법화되는 곳에서는, '약한' 남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또한 자주 발생하기 쉽다. 남성이 여성을 종속시키기 위해 물리적 우월성을 사용해야만 한다거나, 항상 사용해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남성의 우월성을 합법화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상태에 동반되는 물리적 우월성은 남성에게 여성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왔다. 여성의 나약함과 비교해서, 남성의 체격적인 우월성을 믿고, 남성의 근육발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등은 또한 남성지배를 합법화하는 사회의 특징이다. 이러한 필연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물리적으로 남성과 동등하거나 더 강했더라면, 여성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폭력과 두려움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모성

페미니즘은 여성이 자신의 성과 남성폭력의 구조에 의해 남성에게 완전히 억압당한다고 본다. 페미니즘은 또한 모성이나 양육은 여성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문화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을 지적한 콜슨(Coulson 1980 : 35)에 따르면, '아이를 갖는 것은 사회적 약점이며, 여성의 노동은 아이 양육이라는 생각은 바로 생물학을 규정하는 문화를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 아이를 뱃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비스럽지만 끔찍한 육체적 출산과정을 통해 그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자연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여성은 남성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다른 사회에서 모성이 갖는 의미와 여성을 재생산 역할로 제한하는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규정의 정도에 도전해왔다. 모든 건강한 여성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여성이 다 실제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임이나 아이가 없는 것, 피임, 부성, 임신, 출산, 모성, 수유, 갓난아이 돌보기 등은 모두 역

사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 행동을 지칭하는 다양한 사회적 개념이다.

초기의 뉴웨이브 페미니즘에서, 모성은 중요한 여성억압의 형태로, 페미니즘에 별 이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수많은 여성들은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어머니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개인적인 설명을 해왔다. 수전 그리핀(Susan Griffin 1982)만이 1974년 모성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을 요구하면서, 유일하게 몇 가지 지적을 했다. 24시간 양육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가 되는 사회적 과정이나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요구 등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의 경험은 아주 직접적으로 여성의 삶에 침입해 들어왔다. 페미니스트들 역시 어머니가 있었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어머니였거나 혹은 1970-80년대에 어머니가 되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혹은 어머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지식을 찾아 극복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했다.

리치(Adrienne Rich 1980)는 모성은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회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새 장을 열어나갔다.[12] 미국에서 어머니들이 기진맥진하고 가정으로 고립되는 것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재생산에 대한 남성통제하에서, 모성을 경험하는 것은 남성의 이해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머니를 가정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다. 리치의 분석은 매우 일반적인 틀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여성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억압제도로서의 모성과 연관짓기 때문에, 인간 재생산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하는 데 기여한다.

12) 이러한 생각이 뉴웨이브 페미니즘에서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재생산이나 모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존재해왔다.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53)의 연구가 그 예이다.

리치에 뒤이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브라이언(Mary O'Brien 1981)은 재생산의 생물학적 과정이 문화적인 재생산 의식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남성과 여성은 재생산을 다르게 경험하며, 그래서 남성은 양육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부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의 부성을 막는 것으로 결혼생활을 꾸려나간다. 또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을 여성의 본능적인 요구로 보는 관점에 도전한다(Macintyre 1976). 이들은 또한 모성을 여성성의 충만함(Spender 1980 : 54)이나 가부장적 핵가족의 필연성(Comer 1974 ; Barrett & McIntosh 1982)으로 보는 것에도 도전한다. 모성은 불변하는 본성이 아니라, 관념이나 경험, 사회관계 등과 관련되어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 이론의 발전은 정치의식이 낮은 여성들이나, 아내, 가정주부, 어머니 이외의 다른 개인적 정체성을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그러므로 모성은 억압적인 것으로 규정하기에는 역설적인 제도이다. 왜냐하면 모성은 남성에게는 부정되어 있는 창조와 양육이라는 여성만의 특별한 힘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미국의 어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갖는 자연과의 밀접함을 아주 다른 뚜렷한 주제로 발전시켜(Jaggar 1983 : 95), 여성의 자연적 힘이 갖는 창조적인 잠재성을 축복했다. 그렇다면 모성은 여성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인다. 이제 페미니즘의 임무는 '그것이 인간 총체성과 합치될 때까지 여성다움을 확장하는 것'이 되었다(Maroney 1986 : 422).

양육

1970년대 이후로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을 여성의 창조성으로 혹은 억압적인 사회구조로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나 산업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순의 중요한 영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가정과 작업장의 분리는 양육을 심각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만들어왔다. 아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정, 즉 가정이라는 사적인 여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상적인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되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자궁과 연결된 곳에 정자를 쏟아놓는 단 하나의 육체적 행동으로 간주된다. 부성은 그 이후에 아이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할 뿐이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돌보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행동들로 간주된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해 고립되고, 지치고, 우울해지고, 메말라가고, 분노하며, 혹은 신경안정제로 달래가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부적절성으로 취급되어진다.

그렇다면 도시나 산업사회에서 여성은 사회경제적 변화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만약 그 여성들이 아이를 가진다면, 그들은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남성이나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가정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여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할지도 모른다. 풍요로움, 멋있는 주거공간, 적절한 교통수단, 품위 있는 레저생활 등에 만족하면서, 이 기간의 생활은 개인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13] 그러나 이 여성들은 수입의 출처인 남편이 그들을 떠나버릴 때, 혹은 아이들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상처받기 쉬우며, 그리고 버어버린 집 밖에서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른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울함과 고립 혹은 가난에 의해 고통받는다. 한겨울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혈기왕성한 한두 명의 아이들과, 난방을 하거나 외출하기에도 부족한 돈을 가지고, 제한된 공간에 고립되어 끝도 없는 가사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식료품이나 의복을 사기에도 부족한 돈을 가지고,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서도, 사적 영역에서 그들의 의존자인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보호하는 여성들의 능력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가정 밖에서 노동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요구나 선택은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들이나 제공할 수 있는 저임금으로 양육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가사노동도 여전히 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다 부유한 여성들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위해 가난한 여성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덜하다. 그러나 큐리(Currie 1986)가 보여준 것처럼, 부유한 여성들도 아이와 떨어져 노동하겠다는 결정을 여전히 갈등으로 경험한다.) 여성들은 가정과 노동시장 모두에서 양심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면서 찢겨지고 죄책감을 갖는다. 양육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고통받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가장 기본적인 양육조차

13) 제한적이고 자민족중심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미국 중산계급 주부들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프리단(Betty Friedan)은 모성은 풍부함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Friedan 1965). 몇몇의 다른 연구자들은 더욱 강도 높게 그것을 주장해왔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안간힘을 쓰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거나 굶어죽을 수도 있다.

영국의 공공 양육기관은 대체로 가난하지만, 더 좋은 양육기관이라 해도 가정과 노동시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성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한다(New & David 1985). 예를 들어 사회주의 사회는 광범위한 양육기관을 제공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여성에게 남아 있다(Bassnett 1986 : 65ff ; Wolf 1985).

산업사회에서 모순으로 규정되었던 모성 개념이 적절한 제한 없이 모든 사회에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가정에만 가두어두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형제들이나 친척이 많은 농촌에서, 어머니는 덜 제한될 수 있다. 텃밭이나 가까운 곳에 아이를 데리고나가 노동할 수 있는 농촌 여성들에게 가정과 노동시장의 분리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농촌 여성들의 생활이 편하다거나, 모성제도가 덜 억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억압이 만들어진 각각의 맥락과 메커니즘 없이 모성을 보편적인 억압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이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 발전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현재는 매우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모성과 양육은 대다수 여성에게 모순된 경험으로 남아 있다.—즉 더할 나위 없는 창조성의 경험, 신체에 대한 제한된 통제의 영역, 경제적, 정치적 종속과의 직접적 관계 등이 그 경험이다. 임신과 수유가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기능은 남성지배 관계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아주 일반적으로 어머니나 잠재적 어머니로, 혹은 모성적인 사람들로 제한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재생산 기술

파이어스턴은 여성이 기술수단으로 재생산을 통제할 수 있게 하여, 남성지배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논쟁적인 제안을 했다(Firestone 1979). 이것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이 처음으로 재생산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의 정치적 결론이 널리 비판받고 있기는 하지만(Rose & Hanmer 1976), 파이어스턴은 과학은 임신이라는 장벽에 개입하는 것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재생산의 전과정에 대한 잠재적 통제를 제공했다. 성관계를 출산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여성과 재생산의 관계에 도전하는 것이다(Rowland 1987). 어떤 점에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여성들에게 선택(최소한 보다 풍부한 것을 위한)을 제공한다. 즉 임신을 하지 않으려는 선택, 아이를 자연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모성의 희망, 건강한 자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선택이 결혼과 가족이라는 남성지배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안에서 만들어졌고, 보건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국가체계 안에서 만들어졌음을 재빨리 지적했다.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발전되어온 재생산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점차 주의를 기울였다(Arditti et al. 1984 ; Corea 1985 ; Stanworth 1987).

페미니즘의 모순은 모든 여성은 사회적으로 본성적인 어머니라고 구조화되어 있지만, 자연에 남겨진 재생산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출산은 육체적으로 위험스러울 수 있고, 모든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여성의 일반적 건강과 생활수준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어떤 태아는 육체적으로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모든 여성이 노동에서 살아남아야만 하고, 모든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고 생존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요구하는 사회는 자연에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어머니와 태아가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이 출산에 개입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에게 이익이 된다(Berer 1986). 그것은 현대 과학의 개입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 개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야기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지배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발전해온 이러한 기술에 대해 어떠한 통제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스톤월스(Stanworth 1987 : 35)는 그것은 개입이 논쟁적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자신이 정의한 대로 재생산을 경험하기 위해, 여성들이 그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나아가 그러한 정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즉 계급, 인종, 문화적 구분을 초월하여 전세계 여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알려지게 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로, 여성들이 필연적으로 어머니가 되지 않고도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들 자신이 (물론 사회적 압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으로서 최대의 성취를 모성이라고 기대한다면, 불임은 끔찍한 개인적인 비극일 수 있다. 맥닐과 스콧(McNeil & Scott 1986)은 모성은 선택을 통해서든 아니든, 아이를 갖지 않으면 그 여성의 정체성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주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재생산 기술은 모성에 대한 여성의 선택범위를 넓혀주지만, 그 가능성의 깨달음은 정치적 투쟁의 확산을 수반한다.

모성 그 자체가 여성억압의 기제이기 때문에, 재생산에 대한 통제는 양성의 권력투쟁의 기제로 남는다. 한머와 앨런(Hanmer & Allen 1980 : 227)은 재생산 기술은 '남녀의 적대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부모역할을 공유하고, 여성억압을 파괴하는 과학적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재생산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O'Brien 1981). 그러나 그러한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우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을 요구할 것이다.

생산과 재생산

어머니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이 가정의 안팎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관심을 돌려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끊임없이 노동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처음에는 웃음거리가 되었지만(Mainardi 1980 : 104),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무보수노동의 일종이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처음에는 경험적, 역사적 연구에서(Oakley 1974 ; Malos 1980), 그 다음에는 보다 추상적인 논의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가사노동 논쟁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여성의 노동은 사적인 가사노동(private housework) 그 이상의 것임이 드러났다. 즉 그 노동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체계적인 여성억압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Kaluzynska 1980).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또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즉 여성들의 익숙한 일상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따뜻한 저녁식사 준비, 세탁, 정서적인 봉사 등도 여성의 노동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의 개념을 사용한다. 개념적으로 여성노동을 생산과 재생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양쪽 영역의 여성노동을 인식하게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중론은 역시 문제를 발생시킨다(Edholm et al. 1977 ; Ferguson and Folbre 1981).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알튀세의 연구에 영향받았던)이 볼 때 1970년대 재생산 개념은 아주 추상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중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여성종속의 이데올로기가 생산, 재생산 조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모든 생산양식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몇몇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특히 서구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여성억압의 모습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것으로 인해 심각한 일반화의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확실히, 왜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보다 더 낮은 가치를 부여받는지, 그것이 모든 역사적 상황에서 항상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인 대답은 있을 수 없지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일반적인 설명의 틀을 찾았고, 때로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찾았다. 여성들은 가정 안팎에서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 안에서 어머니로서 육체적으로 미래의 노동력을 낳고 양육해왔다. 여성들은 자본주의 구조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급진적 페미니스트처럼, 여성의 억압의 위치를 가족이나 이성애, 결혼 등에 두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생산체계에도 있으며, 국가의 역할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생산, 재생산 개념은 여성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남성과는 매우 다른 의미의 노동자이다. 노동에 대한 연구들은 가정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성별분업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이나 폭력, 모성 등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중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정영역과 공공영역 둘 다에서 여성의 노동을 재개념화하게 한다. 여성에게 할당된 노동의 본질은 남성에 대한 여성종속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노동의 개념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특히 '현실 노동'은 가정 외부의 조직화된 생산활동 안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요구에 봉사하고, 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가정에서의 여성노동은 이제 가시적인 것이 되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노동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몇몇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여나갔다(Federici 1975 ; Edmond & Fleming 1975). 이것은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여성노동의 가치성과 독립성을 획득해내는 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 여성들이 가정 외부의 임금노동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생산양식의 관계, 특히 서구 가정주부의 노동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계 등을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Landes 198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Phillips 1988)의 지적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은 노동계급 여성들과 서구의 가정주부 사이에는 다른 의미, 즉 가능성의 실현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한편 가사노동임금을 위한 '국제흑인여성 네트워크'는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재정은 군사비용의 절감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1988). 그러나 경제적 자립 없이 과중한 노동의 짐을 지고 가정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80년대 영국 여성들은 어린아이 양육자이나 저임금 노동자로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노인이나 만성병 환자, 정신병자, 육체적 무능력자 등의 보호자로 제한되어오기도 했다. 이러한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가정사생활 속에서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이다. 우익의 사회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제도적 보호 대신에 소위 공동체적 보호라고 불리는 것의 발전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가사노동 논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사노동 논쟁에 이르게 된다(Benston 1970; Gardiner 1976; Hamilton & Barrett 1986). 마르크스의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며(가정주부는 잉여가치를 산출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질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가정주부는 고용자에 의해 착취되지 않는다(가정주부는 그들이 생산한 가치보다 적은 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다). 가사노동 논쟁은 한편으로,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양식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또다른 생산양식인지에 대한 통찰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가사노동의 유용성에 대한 통찰이었다. 가사노동은 마르크스의 의미에서는 생산양식이 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생산양식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가구생산 양식의 관계를 불명확하게 남겨놓았다.

가사노동에 대한 의문들은 가사노동이 자본주의의 필요에 공헌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결론에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사노동, 예를 들면 이민자의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은 설명하지 못한다(소비지출의 감소를 희생하고라도, 최저생계 수준에서 살고 있는 이민 노동자들을 이용하면, 가정주부 없이도 자본주의 체계는 움직일 수 있다).[14] 이러한 관점은 곧바로 비판되었다(Molyneux 1979). 20세기 서구 가정주부의 지위는 자본주의 유지에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이며, 대단히 모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14) 이러한 설명은 결과(예를 들면 자본주의에 이익이 되는 가사노동)를 가지고 가사노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목적론적 설명이다. 가사노동의 본질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인되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여성의 종속을 요구하는지, 혹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남성지배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는지의 문제는 논쟁점으로 남겨진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는 양성의 관계를 다양한 역사과정 속에서, 여러 생산양식 속에서 고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레벤하크(Lewenhak 1980)는 최근 들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상황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엄밀한 상호관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제 생산, 재생산, 여성억압의 뚜렷한 상호관계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 나타나고 있다(Afshar 1985 ; Mies 1986).

여성의 노동

서구 가정주부의 생산과 재생산 역할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 여성들의 노동을 설명한다. 제3세계와 몇몇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가정에서 노동하면서 생산적인 노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히 아프리카 여성들의 경우에서 확실하게 보여지지만, 또한 다른 모든 세계에서도 음식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가축보호, 수공업, 공동체의 발전 등에 대한 여성들의 공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Slocum 1975 ; Rogers 1980 ; Bujra 1986 ; Roberts 1984). 여성들이 아내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 정의된다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남성지배의 정도와 다양성은 보다 쉽게 인식될 것이다. 남성노동과 여성노동을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나 지식, 기술, 그 외의 자원, 노동통제, 생산된 것에 대한 처분권 등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을 은폐한다. 여성의 노동(특히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눈에 보이게 만듦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은 획일적이거나 조화로운 방법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노동이 남성노동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가치절하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자본주의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주장과 특정한 자본주의 사회에만 분명히 나타나는 주장의 구분이 항상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을 완전고용 가정주부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이러한 모순적인 노동의 영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제3세계의 생산과 재생산 노동은 일반화하기에 훨씬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Redclift 1985). 1980년대, 역사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은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과 국가기능의 관계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복잡한 관계들을 만들어냈다(Elson & Pearson 1981 ; Balbo 1987).

성차별화된 자본주의 노동시장 구조는 성별 노동분업을 강화했다.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남성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고, 훨씬 제한된 노동서열에만 접근해왔다. 남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얻었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한몫을 했다(Cockburn 1983). 몇몇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은 남성들이 충분하지 못할 때 가정 밖의 노동에 이용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이 갖는 문제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의 산업예비군이라기보다는 값싼 노동력 군을 형성한다는 것이다(Bruegel 1979). 마르크스는 여유노동력이 필요할 때 임금상승을 막기 위한 산업예비군은 자본주의 체계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Marx 1976 : 781ff). 이러한 노동은 노동력의 수요가 하락하면 다시 사라질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부양되어야만 하고, 주택, 건강보호, 교육, 연금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의 모순적인 형태로 남겨진다. 이러한 권리는 1980년대 영국의 대처주의(Thatcherism)에 의해 급속히 사라진 것이긴 하지만,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이나 시간제 노동은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때문에 남성들의 고임금 노동이나 완전고용 노동을 대체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노동시장 구조와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여성의 권리에 의존하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은 임금의 수준이나 노동조건에서 볼 때 억압적이다.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은 제한되어 있다. 여성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없고, 가정이나 작업장에서 남성의 활동은 여성들이 투쟁하지 않고는 가정을 떠날 수 없음을 확고하게 한다(Burman 1979; Cockburn 1983; Westwood 1984). 노동, 신분, 보상 등은 가정에서의 여성과 남성에게 상대적인 권력을 부여하였고, 여성에게 아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가사노동의 기술적인 발전은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덜어주기보다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Ravetz 1987).

노동을 통한 여성억압을 가시화하는 것은 생산과 재생산 관계를 분명한 것으로 만들었지만,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왜 발생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서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니콜슨(Nicholson 1987: 29)은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는 모든 사회의 특징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에게 가정과 국가를 구분하게 하고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생산과 재생산을 구분"하게 하는 하나의 역사적 발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르크스주의 생산 개념은 성차별(gender)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노동을 억압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여성억압의 모순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억압의 이해에서 생물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성이 아주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억압되었다는 대단히 강력한 사례를 설명해왔다.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는 여성억압이 취하고 있는 형태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정신분석학과 여성성의 모순

생물학적 환원론의 덫에 빠지지 않고 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문제는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을 연결하는 데 이르게 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아주 다른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분석학적 사고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의 문제는 간단하게 요약될 수 없다. 이 영역에서 몇몇 중요한 교본, 즉 밀렛(Kate Millett 1977), 미첼(Juliet Mitchell 1974), 초도로우(Nancy Chodorow 1978) 등이 쓴 유명한 교본들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정신분석학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은 지적으로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잘 알려진 페미니즘 사상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에서의 최근 논쟁이 여성억압에 대한 페미니즘 이

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Sayers 1986).

초도로우(1978)는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힘과 실천에 근거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전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초도로우는 양육에서 보편적인 여성행동의 특징 때문에,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은 남아와 여아에게 다른 구조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남아는 성장하면서, 자신을 양육하는 여성과의 동일시를 그만두고, 대체로 부재중인 아버지와 동일시해야 한다. 그때 남성성은 여성성의 거절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에 대한 초도로우의 연구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거나 모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의 페미니스트들과는 다르다. 로즈(Rose 1983 : 9)의 논평에 따르면, 초도로우는 규범의 내면화가 작용한다고 가정하는데, 반면 정신분석학의 기본적 전제는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의식은 정체성의 '실패'를 드러낸다. 성차별(gender) 정체성의 확고함에 대한 페미니즘 설명은 예매하지만, 초도로우는 여성의 모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성성이 고정된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아마도 초도로우의 연구는 여성성을 긍정적인 차이로 찬미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장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초도로우는 남성은 어머니와 분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의존적이고 불안전하며, 반면 여성은 심리적 안정과 자기존중 의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초도로우는 여성성이나 모성, 여성의 성 등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 도전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적 사고를 사용하는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의 선천적인 모순과 생물학적 여성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여성이 되기(적어도 현대 서구의 문화에서는) 위한

어려움에 초점을 둔다. (정신분석학적 일반화는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혹은 그것이 서구문화에만 특수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정신분석학은 1969년 처음 출판된 밀렛의 프로이트 공격을 통해 최초로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Millett 1977). 밀렛은 프로이트를 격렬하게 비판하기 위해 초기의 논자들이 촉진시킨 관념을 끌어왔다. 밀렛의 관점에서, 프로이트는 억압의 중심에 있는 관찰자나 치료사라기보다는 여성억압을 변명하는 사람이 되었다. 정신분석학 이후에 발전한 페미니즘 사상은 프로이트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도전했다. 예를 들면 모이(Moi 1985 : 27)는 밀렛의 해석이 프로이트의 연구를 단일하고 일관된 것으로 취급하고, 그의 신중함이나 수정을 무시하면서 프로이트의 의미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밀렛은 프로이트가 여성의 사회적 종속은 페니스의 결핍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를 생물학적 본질론자라고 거부한다. 프로이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부분적으로는, 특히 미국에서 정신분석학적 치료를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영향받은 것이다(Rubin 1975 : 184). 그러나 정신분석학에 대한 1960년대의 이러한 관점은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밀렛의 주장은 프로이트의 연구가 성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도전받는다. 이러한 해석은 1960-70년대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대한 프랑스 철학자 알튀세의 영향과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캉(1968)에 의한 프로이트 재해석에

기인한다. 여성성의 연구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미첼(Juliet Michell 1974)에 의해 영어권 페미니즘에 잘 알려지게 되었다. 미첼은 페미니즘 정치학을 위해 프로이트의 통찰력을 구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첼은 프로이트의 연구를 여성성 발달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 다루기 위해 알튀세와 라캉을 끌어들였다. 그는 프로이트주의 페미니즘을 성적 이데올로기라고 보았다. 미첼의 관점에서, 남근선망은 육체적 결핍에 대한 어린 소녀의 개인적 관찰이라기보다는 남근중심적인 문화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미첼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지적에 따르면(Barrett 1980 ; Wilson 1981), 이것은 성적 이데올로기와 물질적 생활의 관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변형을 목적으로 하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한다.

프랑스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라캉의 영향은 그가 사용한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제한된다. 라캉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그의 연구가 여성이 어떻게 여성성이나 성적 정체성의 모순구조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페미니즘에 일관성 있게 받아들여졌다(Coward et al. 1978 : 13). 이것은 그 가능성 때문에, 성적 이데올로기는 생산양식의 필요와는 모순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Coward et al. 1978), 또한 여성성은 여성들에게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Rose 1983)이라는 것, 두 가지 모두를 허락한다.

만약 라캉의 이론을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이론은 성적 정체성의 습득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Wilson 1981)이며, 왜 자궁이 아니라 남근이 사회적으로 특권을 부여받은 상징인지 그 이유 역시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서, 자신의 유아기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독립된 정체성을 얻기 위한 유아기의 투쟁을 통해서 무의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쟁이 항상 똑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도, 똑같은 문화적 표현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페니스를 소유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치가 부여될 때, 문화적 성차로부터 생물학적 성차의 의미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어린 소년들이 자궁의 결핍에 대한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가지는가? 얼마나 많은 어린 소녀들이 자궁과 음핵 둘 다를 소유한 것에 흥미를 가질 기회를 갖는가? 여성들은 결핍과 열등성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고할 수 있는 개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논의에서는, 남근선망의 존재와 중요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Rubin 1975 : 197).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모두가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근선망이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정신분석학적 사고와 임상학적 실험의 확장된 성차별주의는 정신분석학적 통찰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여, 페미니즘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영역으로 만들어왔다.

배럿(Barrett 1980 : 56)은 미첼이 프로이트를 너무 우호적으로 해석해서, 특히 남성성을 능동적인 것으로, 여성성을 수동적인 것으로 보는 프로이트 연구의 성차별적 의미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로즈(Rose 1983 : 9)는 미첼의 비판에 반대하여, 정신분석학은 여성의 저항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여성성의 정체성에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로즈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해도, 그것이 가부장제에 대한 보편화의 이론으로 사용된다면(10), 프로이트의 남근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예를 들어 호니와 클라인(Karen Horney & Melanie Klein)의 연구에서)이 있을 것이며, 다른 여성성 개념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정치적 전략이 정신분석학에 의해 규정된 모순의 중심성에서 도출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일반적 전략의 결핍이 페미니즘에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된다.

여성성의 정체성이 갖는 모순의 발견은 여성해방을 위한 명확한 정치적 전략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모순의 개념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페미니즘에 양날이 선 칼과 같은 어떤 것이 된다. 서구 여성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의 역할은 문화적 산물이라고 드러났지만, 그러나 정신분석학적 사고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가부장제를 일관적인 억압기제나 일반적 체계가 아닌, 보다 현실적으로 복합적이고 모순된 것으로 보이게 했다. 여성의 성이나 사랑, 억압자를 위한 헌신 등은 중요한 모습이다. 풀려난 노예는 주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해방된 대다수의 여성은 남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정치적 레즈비어니즘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이성애적 규범이나 여성성, 결혼, 가정생활의 관습에 의해 억압당하고 왜곡된다고 느끼는 여성들에게 공통된 이해를 가진 레즈비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은 동성애의 남성들과 공유하는 이해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공유하는 이해였다. 많은 저명한 뉴웨이브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을 공공연히 레즈비언이라고 규정했고, 여성억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끌어들였다. 비록 페미니즘에서도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Bunch 1981 : 68), 페미니즘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발전한 레즈비어니즘의 틀을 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었다(Ettorre 1980). 비록 레즈비어니즘이 페미니즘에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초기에 레즈비언 여성들로부터 혁명적인 추진력을 많이 부여받았다. 급진적 페미니즘이 레즈비언의 이해나 지지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성애적인 급진적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레즈비언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또한 페미니스트가 아닌 레즈비언도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으로서 레즈비언 여성을 위한 공적,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레즈비언에 대한 공적인 폭력에 도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레즈비언에 대한 성적, 정치적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Abbott & Love 1972; Clarke 1983; Rich 1983; Kitzinger 1987).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페미니즘 이론은 성을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sexuality)의 생물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약간 혼동이 발생하게 된다. 레즈비어니즘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계속 강조되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이 개념이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시들러(Seidler 1986 : 117-18)가 인간본성의 역사적 구조를 주장한 것처럼, 인간본성이 사회적으

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간본성의 역사적 구성의 본질(nature)을 고려'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레즈비어니즘과 이성애의 역사적 구조는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지만, 잊혀지기 쉬운 것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정확한 이론의 결핍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이성애의 여성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반대로, 그들은 여성들 간의 조화와 자유를 위한 공통된 기반을 찾으려고 한다. 그들은 이성애적 실천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종속된 관계형성을 강요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이성애를 공격하는 것이다(Rich 1983). 리치는 모든 이성애적 관계가 다 끔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성의 의미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1983: 167). 레즈비어니즘이 한 사회에서의 남성권력의 뿌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은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투쟁의 기반을 형성하며, 그래서 모든 여성들에게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이다(Kitzinger 1987).

몇몇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는 여성의 성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라는 관점을 갖는다(Leeds Revolutionary Feminist 1981). 그렇다면 레즈비어니즘은 개인적인 성적 성향이나 성적인 일치로서가 아니라, 성적인 행동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여성(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가부장제와 이성애에 대한 공격이 된다. 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은 남성권력에 대항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동의한다. 리치(1983: 165)는 '여성동일시는 힘의 원천, 즉 이성애라는 제도에 의해 잘려지고 소모된 여성권력의 부상'이라고 주장한다. 발레스카(Valeska 1981: 28)는 여성들에게 가정 안의 한 남성, 그리고 가정 밖의 모든 남성에게 충성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분리하는 명령으로 이성애를 설명하고, 레즈비어니즘은 '강력한 정치적 힘'(31)으로 남겨놓는다.

총체적으로 남성으로부터 정치적 분리를 주장한 것은 소수의 실천이었고, 생물학적인 결정론의 논리라고 공격받았지만, 그것은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정치적 힘이었다. 그러나 콜렛(Christine Collett 1987: 77)의 지적처럼, 페미니스트의 공간 속에 숨어 있는 남편들도 많이 있고, 남편이 아닌 남성도 분명히 많이 있다(Spender 1986). 성의 정치학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스트들의 차이는 공유된 성적 종속에 기반한 정치학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에서는 지속적인 걱정거리였다. 성의 정치학의 차이는 이성애적 여성과 레즈비언 여성의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급진적 레즈비언과 자유주의적 레즈비언 사이에서도 나타난다(Kitzinger 1987). 여성들의 운동은 가부장제 사회의 전통만큼이나 억압적인 것이 되는 신도덕주의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강렬한 도덕적 주제'(95)이다. 성적인 성향에 따른 분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공간은 거의 없다.

정치적으로 페미니스트일 필요가 없는 레즈비언의 성적 본질과, 성적일 필요가 없는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의 본질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남아 있다. 여성의 성적 차이에 의해 제기되는 페미니즘의 문제는 7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권력

뉴웨이브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억압에 대한 분석에서 제기된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이지만,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권력을 분석하는 페미니스트는 거의 없다. 권력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페미니즘의 핵심문제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은 확실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합법화해주는 근거가 의문시되기는 하지만, 이 권력이 근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은 논쟁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란데스(Landes 1978)는 페미니즘은 권력이나 의사결정자로부터 여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드러냈지만, 모든 여성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아마도 보다 더 이론적인 페미니즘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이나 소설, 페미니즘 과학의 가설 등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권력은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뉴웨이브 페미니스트들은 비위계적인 조직을 채택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의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 애쓰기보다는, 공유하고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여성에게 권력을 부여해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페미니즘의 다양한 흐름들 사이에는 상당한 혼동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성지배적인 직업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여성의 운동은 페미니즘의 진보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존재하는 기존의 조건에서도 남성과 경쟁함으로써 가부장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거부한다. 오히려 그들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무력하게 하는 방법, 페미니즘이 다른 조건에서 여성에게 권력을 부여하게 되는 방법에 주목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모두 사회 속에 권력이 놓여 있는 위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단일화된 권력이론을 갖지 않는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입장을 제한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똑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권력은 사회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고 본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남성권력을 가부장제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에 위치시킨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의 권력 개념을 생산조직 체계와 남성의 육체적인 강점을 포함한 양성관계의 구조 둘 다에 쓰이는 보다 모순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페미니즘 억압이론은 해방을 향한 공통된 정치적 전략으로는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한다.

권력의 문제에 접근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양육, 헌신, 창조, 공유, 협동 등 여성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서구의 지배에 대한 관념에서 우선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에서 지배적인 정부나 정당, 공동체 사회, 가정적 조직 등에 도전하며, 선천적으로 위계적이지도 억압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사회조직을 제안한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또한, 남성의 권력과 여성이 행사하는 권력 모두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권력을 충분하게 이론화하지 못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정치적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 남성권력에 대항한 페미니스트의 투쟁은 하트속(Hartsock 1983a : 232)이 '억압집단의 전망'이라고 명명한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것은 남성중심적인 권력 개념의 일방성은 지배집단의 역사적, 문화적 구조라는 것을 드러냈지만(243-6), 변화될 필요가 있는 성별분업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유지되어왔는지보다는 여성억압에 대해 더 많이 집중한다고 지적한다(1).

억압에 대항한 페미니스트의 투쟁에서 권력의 문제는 분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계급과 인종의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권력이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흑인 여성이나 노동계급 여성들은 미국이나 영국의 백인 여성이나 중산계층 여성이 행하는 것만큼, 여성적인 권력을 실현할 똑같은 능력이나 기회를 갖지 못한다. 권력을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되면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이념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둘 중 어떤 것 하나가 없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Landes 1978). 여성에게 권력을 부여하려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개념은 생산조직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근거할 필요가 있지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분석은 마르크스주의 분석과는 달라져야만 급진적 페미니즘의 도전을 설명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연구들은 페미니즘 이론과 정치적 실천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모순들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이것은 평화와 생태학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페미니즘 방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평화와 생태학

남성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은 여성, 혹은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주로 관계되어왔다. 평화, 전쟁,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는 천천히 페미니즘의 문제로 취해져왔으며,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평화를 위한 초기의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Liddington 1983). 이러한 문제는 페미니즘 정치학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몇몇 논의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Assiter 1983). 평화, 개인의 안전, 환경보호 등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을 정확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여성이나 아이들, 남성은 모두 산업재해, 농경피해, 환경파괴 등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이나 핵 전쟁으로부터 공통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평화운동을 하는 것은 페미니즘 정치학의 모순을 드러낸다. 만약 여성들이 모두 남성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고, 남성지배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의 정치적 이해를 공유한다면, 그렇다면 여성의 투쟁은 정치적인 우선성을 갖는 것이다.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현재의 평화운동이 페미니즘의 우선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Wallsgrove 1983; Feminism and Nonviolence Study Group 1983: 5). 그러나 여성의 건강, 주택, 경제적 독립, 삶의 질의 향상 등을 위한 투쟁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탐욕과 전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는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공통된 위험에 대항해 남성과 연대하는 투쟁도 여성을 위한 투쟁과 분리될 수는 없다. 여성들은 남성과 연대하는 투쟁과 대항하는 투쟁 모두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모순된 위치에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중심에 놓여 있는 정치적 모순인 것이다.[15]

맥닐(McNeil 1987)은 영국에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이성과 전문기술의 남성지배에 대한 도전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콘

15) 이러한 모순은 칸터(Kanter et al. 1984)의 '핵무기 반대'라는 논의에서 확인된다.

(Cohn 1987 : 716)이 논평한 것처럼, 방어에 대한 기술적 언어는 성차별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성들은 각자 그것을 배워야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제한당하거나 혹은 그것 외부에 남아야만 한다. 그린햄 커먼(Greenham Common)과 그 외의 다른 곳의 여성항의자들은 미국 미사일 기지의 경계철책을 모직물로 둘러싸는 상징적인 행동을 사용했다.[16] 실을 짜는 것(spinning)은(Daly 1978을 보라) 여성의 능력과 지식을 상징하며, 이것은 핵무기의 사용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남성적인 논리와 전문기술에 반대되는 것이다. 여성의 모성능력과 직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을 연합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지만, 맥닐이 지적한 것처럼(42),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에 내재된 모순을 명백하게 해야만 가능하다.

페미니즘 분석은 남성지배, 과학적 합리성, 자본주의 축적 등의 가부장제 메커니즘과 전쟁의 풍조가 관계 있다고 지적하지만, 페미니즘은 총체적인 사회분석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억압만큼 선두에 서서 모든 억압에 도전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억압에 대한 투쟁은 다른 형태의 억압에 대한 투쟁을 수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남성과의 동맹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초점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평화와 생태학

16) 여성들의 대중시위는 1982년(이 시기는 그 기지에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이 설치되기 전이다) 영국 그린햄 커먼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를 둘러쌌다. 그 이후로 여성들(몇명의 남성이 포함되어 있었다)은 다양한 대중시위를 벌였지만, 그린햄 커먼의 항의는 여성들의 소규모 캠프와 그 기지 밖에서 살아왔던 지지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이 여성들은 여성만의 반대를 강조하며, 육체적 폭행, 성적, 법적 희롱, 혹독한 추위, 더 큰 여성운동으로부터의 불규칙적인 지원 등에서 살아남았다(Lowry 1983 ; Finch et al. 1986 ; Soper & Assiter 1983 ; Harford & Hopkins 1984).

의 문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인류생존의 위험을 여성억압의 근원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이 문제를 페미니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Thompson 1983), 그들에 의한 실천적인 페미니즘 정치학은 상당한 대중적인 지지(일반적으로는 비우호적이기는 했지만)를 받았다.

평화와 환경을 페미니즘의 문제로 다루는 여성들은 남성권력, 지배, 위계질서와 이성, 인류와 자연세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등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야만 했다. 남성지배에 대한 저항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억압에 대항한 투쟁이 필연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페미니스트들에게 전쟁 자체의 제거는 무기의 제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부장제와 생산양식 모두에 혼합되어 있는 전쟁과 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Feminism and Nonviolence Study Group 1983 : 21). 특히 그린햄 커먼의 미사일 기지에 반대해온 영국에서, 그리고 영국의 타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들은 평화운동과 분리되어 조직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제3세계의 환경오염과 파괴의 문제, 기아의 사회적 원인, 여성의 식량생산 역할에 대한 무시 등을 설명하려 해왔지만, 이것이 페미니즘의 주요 목적은 아니다.

환경과 생태학의 문제는 실천적으로 여성을 연합하기보다는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 생태학의 주장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이나 인종, 민족적 이해의 갈등을 드러낸다. 여성권리의 이름으로,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운다. 그 이전에는, 여성들은 남성 상비군을 돕거나 혹은 저임금 노동자로 무기생산을 돕기 위해 군대에 들어갔다. 여성들은 군국

주의에도 기여하고, 남성지배 구조와 전쟁과 파괴의 합리성을 지지하는 현실의 갈등에 기여한다.

영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포클랜드 전쟁과 북아일랜드의 애국주의에서 보이는 분명한 갈등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영국 여성들에게 북아일랜드의 격렬한 갈등은 페미니즘 정치학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여성들이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여성으로서 공통된 이해를 인식하고, 남성에 의한 억압에 대항하여 운동하는 북아일랜드에서는 페미니즘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종파주의에 따라 조직되었고, 영국인과 북아일랜드인의 활동가들 사이에는 일정하게 제한된 관계만이 유지되었다. 페미니즘의 모순은 여전히 남아 있다(Fairweather et al. 1984; Jennings 1985). 로프란(Loughran 1986)은 북아일랜드에서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이 민족적 문제와 연관되어 서로 분열되어 있고, 계급과 종파주의의 분열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로프란(77)은 '북아일랜드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페미니스트들에게 분리된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페미니즘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는다.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모순은 모든 영역의 페미니즘 사상과 정치적 전략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차이와 분리

여성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억압되어 있다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주장은 압도적인 것이다. 페미니즘이 아주 일반적으로 조롱당하고, 왜곡되고, 잊혀지고, 무시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성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는 남성의 계획된 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여성억압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페미니즘 시도는 확실히 남성의 비타협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은 잃어야 할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얻고 있는 것에 대해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에게 일반적인 여성억압의 논거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 페미니즘 정치학이 성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억압에서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현실적인 이해의 분리를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세 개의 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제 2 부

여성들 사이의 분리 : 막다른 곳으로

제2부 서론

남성들이 여성억압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여성을 일반적으로 피억압자로 개념짓는 것은 문제시되었다. 페미니즘은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여성의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설명하는 것은 생략되어왔던 것을 첨가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뿐만 아니라, 남성과의 연대, 그리고 여성에 의한 여성억압까지도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여성이 억압당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아주 간과하지는 않는다. 197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여러 학자들이 여성의 경험은 인종이나 민족, 계급,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이 문제를 설명되어야 할 문제로 인정하고 있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출판된 명문집은 다양한 여성들의 기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을 국제적인 정치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함의 의미를 상세히 연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여성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권력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여성으로서의 공통된 이해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1980년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했지만, 다양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페미니즘을 공통적인 해방의 정치학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억압의 모순에 이르게 했다.

배럿(Barrett 1987)은 1980년대 페미니즘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남녀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도 인식하려 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29).

> 여성이라는 범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정치학은 전통적인 페미니즘 주장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페미니즘 정치학이 전통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의미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차적으로 계급, 인종, 종교, 성 등과 같은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에 대한 여성의 경험에서 나왔다. 배럿은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며,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33). 배럿은 이러한 차이의 개념은 부적절하게 이론화된 여성경험에 근거한 페미니즘 정치학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의 개념은 제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여성들 간의 물질적, 문화적, 권력적인 분열에 문제를 제기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야만 이러한 분열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열은 모두 충분히 이론화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의식적으로 이 분열을 경험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는 여성으로서 가지는 공통된 이해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공통된 여성억압에 근거한 일반적인 이론인 페미니즘을 대단히 문제시하는 것은 바로, 페미니즘이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과 이해의 실질적인 차이를 점차 인식해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여성들 간의 차이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 열중할 수 있다. 여성들은 남성과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의 연대를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은 확실히 남성들의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회에서도 가족, 가정, 이성애, 남편, 모성, 봉사, 복종, 종속 등으로 여성의식을 규정하고, 이러한 덕목을 문화적, 종교적으로 합법화하는 가부장적 압력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만약 페미니즘의 정치학적 기반이 생물학적 여성으로 가지는 공통된 이해로 제한된다면, 페미니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몇몇 논자들이 여성운동을 환멸하거나 침체되어가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장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페미니즘의 모순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침체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이해를 공유된 억압에 근거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편파적인 억압이론에 근거해서 완전한 세계를 변형하려는 불가능한 정치적 임무를 구축했다. 여성의 공유된 억압에 대한 이론인 페미니즘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을 고통받게 하는 다양한 억압을 복잡하게 만든다.

2부에서는, 페미니즘 지식을 공유된 억압이론으로 보는 것의 문제를 설명한다. 5장, 6장, 7장에서는, 남녀의 관계를 억압관계로 특징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여성도 서로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연령이나 무능력에 따른 여성들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억압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문화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를 가지며, 그래서 일반

화되기 어렵다. 그것은 또한 의식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형될 수 있는 형태의 차이이기도 하다. 그것을 제외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페미니스트들이 그것에 대해 해야 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계급에 따른 여성들 사이의 분열을 설명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인식해왔다. 계급차이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는 5장에서 생각해본다. 더 나아가 국가, 민족성, 인종주의의 복합성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기되는데, 이것은 6장에서 살펴보겠다. 여성의 이해가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차별화되는 방법은 7장에서 논의된다. 또한 7장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성적 차이를 인식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에 의해 제기되는 정치적 어려움도 다룬다. 5, 6, 7장에서는 여성들의 상황은 다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차이 중 어떤 것은 이해의 물질적 분열 —— 단지 의식의 변화만으로는 변혁될 수 없는 —— 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많은 여성들은 모든 여성들과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성들과 가장 중요한 이해를 공유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을 여성억압의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끝나버리는 제한된 활동이 될 뿐이다.

5

여성과 여성
계급, 노동, 권력

여성이 항상 어디서든지 여성으로서 억압받는지의 문제는, 계속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며, 또한 계속해서 페미니스트들을 분열시킨다. 여성억압의 지식을 만드는 페미니즘 연구는 여성이 억압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과 여성 서로에 대해 갖는 권력 등을 폭로하기에 이른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여성들 사이의 계급관계가 설명되어진다면, 스미스(Dorothy Smith)가 지적한 것처럼(1983 : 40) '통합에 대한 여성들의 꿈은 확실히 환상이다'. 사회계급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여성들 사이의 분열과 여성의 정치적 이해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분열 둘 다를 만들어낸다.

여러 사회계급, 노동,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권력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차이는 여성은 모든 곳에서 남성에 의해 억압받는다는 주장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이 된다. 여성들이 항상 남성에 의해 억압받는 것은 아니라거나, 혹은 어떤 시간이나 장

소에서도 다른 시간, 장소에서만큼 심하게 억압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왜 그러한 차이와 변화가 존재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되고 설명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페미니즘의 계급적 차이가 의미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계급분석

성과 계급의 관계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는 일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관계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 노동, 권력의 분열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자본주의 이전 시기를 검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적 연구는 꾸준히 일하는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도시가 발달한 곳 어디에서나, 특권층의 여성들은 노동자의 종속에서 이익을 얻으며, 사회적으로 자신의 삶을 분리시킨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여성의 삶이 인류 경험의 절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이전 사회를 일반화하는 것은 유용하다. 여성들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은 간과되었던 시간, 장소, 문화 등과의 관계에서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의 혹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들은 마야, 잉카, 일본, 중국, 다른 동남아시아, 아랍, 오토만, 몽고, 로마 등의 제국 사이에서도 상당히 다르며, 이보다 더 단순한 사회의 수많은 다양성 사이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서구사상에서, 산업사회의 인구가 사회계급에 의해 나뉜다는 주장은 여러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여러 가지 다른 구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일반적으로 계급을 분석적 범주로 상정한다. 계급은 각 사회의 생산체계가 조직되는 방식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왔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다음에 동의한다. 생산조직이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된다면, 두 가지 중요한 계급이 나타나게 된다. 즉 노동력을 팔아서, 현재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품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와 이러한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자본축적에 의해 살아가는 자본가가 그것이다.[17]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또다른 계급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과 공존하는 계급 즉 실업자, 농민, 소농, 소자영업자, 서비스업 노동자, 화이트 칼라 노동자, 군인, 전문가나 경영자 집단 등의 계급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집단이 지배자(자본가나 부르주아)와 피지배자(노동자나 프롤레타리아)와의 관계에서 갖는 지위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19세기 이래 지속되어온 생산과 계급관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계급은 고정적인 것도, 단순히 경제적인 범주도 아니다. 같은 계급 안에서의 관계나 서로 다른 계급 간의 관계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의해 조정되어지며, 끊임없이 논쟁되어진다. 그렇지만, 계급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생산체계가 작용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17)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는 2장의 주 4)를 보라.

것이며, 각 생산체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집단들과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집단들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분명해진다면, 피착취 계급이 그 체계의 변혁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계급이론들은 주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계층체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은 교육이나 수입, 가구형태, 개인적 명성 등과 같은 신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결합하려고 시도하거나, 직업의 분류를 사용해서 이것을 결합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가 의미하는 계급이해를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주 신분과 위신의 미묘한 차이를 민감하게 의식하며, 장래성이 없는 직업, 좋은 이웃,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과 하는 결혼, 더 많은 수입 등이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한다. 그렇다면 여성과 계급분화에 대한 모든 논의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급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의미로 계급 개념을 사용한다. 여성들이 다른 사회적 차이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의 문제는 6장과 7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이나 사회적, 직업적 계층화에 대한 다른 사회이론 모두 습관적으로 여성을 제외해왔다. 선진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남성과의 관계에서 갖는 여성의 위치는 계급분석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여성은 임금노동이나 기업, 무역 등에서 일생을 보내지 않더라도, 여성은 생산체계나 고용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들 자신의 명확한 위치를 가진다. 계급이나 성(gender)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나 자유주의는 둘 다 유사하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계급적 이해를 그들의 아버지나 남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제3세계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도움을 받은 소농가구의 생산은 남성의 생산으로 취급된다.

오티즈(Ortiz 1985)의 지적에 따르면, 여성의 계급적 지위가 갖는 특성은 무시되어졌고, 가구에서의 지위는 계급 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여성은 자신의 남성(아버지 혹은 남편)에 대한 수동적 의존자이며, 남성과 계급적 이해를 공유한다는 가정에 근본적으로 도전한다. 요즈음에, 성과 계급의 대단히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하려는 일련의 페미니즘 지식이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계급분석은 분명히 여성들을 무시하고 있고, 계급과 성의 관계가 설명하기 어렵다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rompton & Mann 1986; Abbott & Sapsford 1987).

여성과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

19세기 유럽에서, 교육, 선거권, 법적 평등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주장은 부르주아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이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19세기까지 부르주아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사회적으로 의존했고, 그들에 의해 자원과 신체를 통제당했다. 여성들은 생산적 역할을 갖지 못했으며, 사회생활의 재생산도 거의 통제하지 못해왔다. 이 계층의 여성들은 가정에 하인을 두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을 가정의 영역에 가둬두고, 노동이나 정치와 같은 공적 세계는 오로지 남성의 것으로 남겨두었다. 노동계급 여성들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법적 권리나 그 외 다른 권리를 갖지 못했지만, 가난 때

문에 노동시장에 나가도록 강요되었고, 그것도 흔히 아이들까지 데리고 노동하도록 강요당했다.

영국에서, 여성들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최초의 상업적인 농업 이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후 산업화로 인해, 노동하는 여성은 인간 이하의 지위, 즉 들판이나 공장, 탄광, 노동착취 공장, 거리 등에서 장시간의 수공업적 노동에 적합한 지위로 격하되었다. 가정과 노동시장의 물리적인 분리는 부르주아 여성들에게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주었다. 부르주아 여성들은 이전에는 가정에 고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생산적 기능을 갖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Pinchbeck 1981). 여성들의 사회적, 법적 자유는 여성이 남성이 가진 부의 수동적인 상징이 됨에 따라 더욱 더 박탈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여성들은, 여성들의 이해가 계급구성에 따라 너무 깊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남성 대 여성의 형태로 함께 연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궁핍한 노동자 계급 여성과 부르주아 여성이 연대하여 행동할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은 없는 것이다(물론 소자영업자와 무역업자, 선생과 여성 가정교사, 여성 숙련공, 숙련노동자, 지위가 불분명한 한 단계 위의 가내하인 등과 같은 수많은 여성 중간집단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갖는 유일한 공통된 경험은 아마도 가정에서의 남성폭력에 대한 경험일 것이다. 폭력이 아무리 널리 퍼져 있다 해도, 폭력에 대항한 운동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이다. 19세기 영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일 단축, 노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노조설립을 위한 것이었고, 악법철폐와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더러움과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좀 더 나은 가정환경을 위해 투쟁했다.

부르주아 여성들의 투쟁은 노동계급 여성의 투쟁보다 더 널리 알려져왔다. 비록 숫자가 적기는 했지만, 이 여성들은 부르주아 생활의 구속에 아주 빠르게 응수하여, 교육, 선거권, 재산권, 자신의 수입에 대한 통제권, 아동의 보호, 이혼, 낙태, 고용 등을 위해 싸워나갔다.

노동계급 여성과 부르주아 여성의 목표가 서로 다른 것은 독일의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에 의해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 체트킨(Clara Zetkin)은 부르주아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여성이 자본주의와 맺는 관계는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부르주아 여성들은 인형의 집에서 인형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보다 더 만족스러운 생활를 위해, 부르주아 남성들과 싸워 자신의 권리를 얻는다. 반면 프롤레타리아 여성은 여성만의 목표를 분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내와 어머니로 억압받았지만, 이것이 변화해도 자본주의에 의해 여전히 억압받게 된다. 만일 여성들이 정치적 평등을 가진다 해도, 여성은 여전히 계급에 의해 분열되어진다(Draper & Lipow 1976 : 197). 그렇다면 체트킨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즉 '우리의 임무는 현대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에게 계급투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을 선동하기 위해 분리된 임무를 갖지 않는다'(198). 카우츠키(Louise Kautsky)는 노동계급 여성은 부르주아 페미니즘 운동에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급 여성은 상류층의 성 전쟁에 대한 냉정한 방관자일 수 있다'(219). 엘리노 마르크스(Eleanor Marx)는 노동계급 여성의 삶은 노동계급 남성의 삶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사실을 아버지인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는 프롤레타리아로, 가정에서는 가내하인으로 묘사했지만, 여성의 문제는 여전히 계급문제였다. '우리는 여성을 남성과 대항하는 투쟁 속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자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 놓여 있는 노동자로 본다'(226).

이러한 관점은 부르주아 여성과 노동계급 여성에 대한 관찰과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즉 부르주아 여성들의 삶은 육체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편협하고 이상적인 여성다움의 역할로 제한되어 좌절되고 있고, 노동계급 여성들은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고, 평등권 투쟁과 같은 사치를 누릴 여유도 갖지 못한 채(지금처럼 당시에도 가사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정치적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웠다)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이래, 서구 여성들의 삶은 자본주의의 대규모 확장, 중요한 기술의 변혁, 불평등한 세계 자원분배 등으로 인해 변화되어왔다. 자본주의의 중요한 양 계급은 확인하기 더욱 어려워졌고, 서비스직, 기술직, 전문직, 경영직과 같은 중간계급 노동자들은 더욱 확장되고 다양해졌다. 부르주아 여성의 법적 동등권 싸움은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 승리했으며, 노동계급 여성들은 선거, 교육, 건강보호, 재산소유 등의 권리로 그 업적을 공유했다. 서구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장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직종이나 서비스 직종에 고용되었고, 부르주아 여성들은 최소한 일정 기간 정도는 임금노동을 한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여성의 계급분열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19세기 논의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자유주의 여성운동과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또한 오늘날 페미니즘이 갖는 문제도 분명하게 설명한다. 많은 제3세계의 흑인, 노동자계급 비평가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목표가 자신들에게는 부르주아 투쟁의 목표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급진적 페미니즘의 목표는 많은 다른 여성들에게는 없는 정치, 법, 교육, 건강, 고용 등을 이미 얻고 있는 서구의 상대적으로 특권을 갖고 있는 중산계급 여성들에 의해 요구된 '자유'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층의 여성들에게 남겨진 투쟁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지배, 남성폭력,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노동계급 여성이나 농민 여성들이 갖는 정치적 우선권은 가난과 착취의 상태를 공유하지 않는 여성들의 정치적 우선권과는 매우 다르다. 이 여성들은 다른 모든 여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계급 남성이나 남성 농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투쟁을 한다(Latin American and Caribbean Woman's Collective 1980 ; Afshar 1985 ; Mies 1986).

성계급으로서 여성

계급분석에 여성을 포함하려는 마르크스주의에 대응하는 최초의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계급적 지위나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하나의 계급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을 하나의 성계급으로 보는 사상(Millett 1977 : Firestone 1979)은 억압당하는 여성은 곧 남성에 대항한 공통된 이해를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면서 공통된 이해를 지니기 때문이다. 성계급 체계에서, 남성들은 여성은 남성의 필요에 봉사하고, 남성의 아이를 양육하고, 정치경제적 권력에서 배제된다는 가부장제 신념과 현실에서 이득을 얻는다. 델피(Christine

Delphy 1974)는 성계급이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계급과 나란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면에서, 다른 많은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구별된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자신의 이해를 인식해야만 하고, 남성과 가부장제 조직에 대항해 투쟁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을 한 계급으로, 즉 남성과 대립되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는 하나의 계급으로 보는 사상은 페미니즘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계급이해나 계급투쟁과 같은 마르크스의 개념을 도입하지만, 오히려 다른 의미를 부여해 사용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투쟁의 목표는 피지배 혹은 피착취 계급이 지배계급을 말살하고, 자신의 착취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어떠한 착취에도 의존하지 않는 생산체계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성계급 투쟁의 목표는 남성을 말살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자본가들 개인은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생존하게 되며, 의식을 바꾸고 사유재산을 버리게 되는데, 이에 반해 남성 개인들은 성계급 혁명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여성들이 하나의 성계급으로 이해되는 한, 여성들은 함께 연대하여 남성과 대항할 수 있는 공통된 계급이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여성억압의 인식에서, 성(gender)은 계급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몇몇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을 전복하는 것으로 계급투쟁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물리적으로 남성을 향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지만(예를 들면 SCUM, the Socity for Cutting Up Men), 이것은 소수의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상대적으로 수명도 짧았다. 보다 규모도 크고 영구적인 급진주의는

남성의 삶으로부터, 극단적으로는 아들의 삶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분리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발전시켰다. 페미니즘의 정치적 전략으로 받아들여진 분리의 의미는 잠재적으로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여성의 계급이해를 인식하는 것이 페미니즘에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든다.

남성을 궁극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든지,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든지 간에, 일단 여성들을 성계급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성의 주요 적은 생산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되는 것이다(Delphy 1974). 여성들의 대립하는 계급이해는 여성으로서 공통된 이해보다는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은 우리를 연합하고 투쟁하게 하는 공통된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모두 여성들 사이의 중요한 계급적 차이를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 정치학이 가장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성차별(gender)에 대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장의 주장, 즉 성 억압에 대항한 투쟁에서 갖는 여성의 공통된 이해는 계급이해에 의해 분열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의존하는 것이며, 여성을 성계급으로 일반화하는 논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악의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분리와 마찬가지로 여성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매우 복합적인 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페미니즘의 이론적인 내분은 효과적인 페미니즘 정치학에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여성, 계급, 노동

성과 계급 둘 다를 여성억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과 성계급으로서 여성 개념 둘 다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개념화할 수 있는 방법은 페미니즘이 여성이 수행한 노동을 연구함으로써 분명하게 되었다. 다양한 여성노동이 과거부터 관찰되어지고 복구된다면, 여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적 분리는 보다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같은 계급 안에서도, 다른 계급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생산체계가 특정한 실례로 검토된다면, 여성노동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보다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여성들을 단순히 사회계급의 구성원으로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나 다른 형태의 사회에서 다른 범주의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위치는 우선적으로 개념화되어야만 한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은 계급관계 내외부 모두에서 여성들의 노동관계나 여성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의해 조정되어야만 한다. 여성의 노동이 분명해지면, 여성노동이 남성노동과의 관계에서 가치절하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 다른 노동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여성들이 항상 독립적인 계급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성들의 노동지위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로자 룩셈부르크조차도 그의 하인을 비난했다(Nettl 1969 : 9).

여성의 노동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양식을 창안해내는 것은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 계급적 지위와 노동의 관계는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여성이 계급에 따라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는, 어떤 여성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수단이 없는 여성들은 그것을 소유한 여성을 위해 노동하고 있는 경우이다. 전역사에 걸쳐서, 부인이라는 지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여성은 거의 없다. 가족적 규모의 사업이나 무역에서 여성들이 자원을 통제했고, 여성들의 땅을 사용할 권리는 식량을 경작하고 아이를 부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자본주의 시대 유럽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활발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타인의 생산적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은 거의 갖지 못했다. 자본주의 부상과 함께 개인사업이 시작되고, 토지가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여성들은 고용주가 될 수 있는, 혹은 경영자의 지위에서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많아졌다. 임시적인 기반에 근거하거나 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본을 소유하고 직접 다른 사람의 노동을 고용하는 여성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극히 소수였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계급분석을 여성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혼란에 빠져버리게 된다. 우리는 확실히 남성노동자처럼 노동력을 팔고, 자신이 생산해낸 가치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여성노동자가 있다는 증거들을 모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여성들만이 생산적인 산업노동(농경, 서비스, 무역 등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에 종사해왔다. 서구에서, 임금이나 봉급을 위해 노동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제 요리, 청소, 사무직 등과 같은 서비스 직종에서, 특히 위생, 교육, 복지 서비스에서 보다 하위 전문직이나 경영직에서 일한다. 스미스(Dorothy Smith 1983)는 여성에 대한 계급분석을 문제시하면서, 자본주의는 모든 여성의 노동을 개인적인 서비스로 바꾸어버렸

다고 주장했다. 서구의 특권층의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건강상의 이점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보다 스스로 부르주아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계급 체계와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갖지 않지만, 자본주의에서 성과 계급의 상호관계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여성적 방법이 아니라, 생산체계가 조직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계급에 의해 분리된다는 주장은, 세계 자본주의의 지배하에서 여성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어떤 여성은 죽도록 노동하고, 어떤 여성은 직접적으로 착취되지만, 어떤 여성은 확실히 덜 착취되고, 또 어떤 여성은 다른 여성의 희생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역사적으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과 분리되어왔고, 가정영역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적 생활과 분리되어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의 한계를 지적해왔다(Sassoon 1987).

또 하나의 혼란의 원인은 마르크스의 모순 개념을 포기하려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경향이다. 이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학파를 단순히 추종해왔다. 그람시나 마오쩌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의 응용에 근본이 되는 이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의 계급적 지위가 자본주의와 함께 전개되는 모순적이고 특수한 방법들을 평가하는 것(Lown 1983)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여성억압이 일반적인 자본주의와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사회계급 분석은 여성들의 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 분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모순적인 위치, 즉 가정과 노동시장으로 분리된 두 세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여성들의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모성, 성)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계급분석에 대한 비판은 가정에서의 여성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의 관계,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과 여성노동, 국가개입의 관계를 확인하기에 이른다(Delphy & Leonad 1986 : Balbo 1987). 비치(Beechey 1978)는 지적하기를, 마르크스는 여성의 임금노동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이 노동력에 대한 분석이나 가족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여성 임금노동의 특징을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다(Redclift 1985). 만일 성과 계급의 관계를 다시 고찰한다면,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가정이나 친족 관계에 대한 공통된 경험을 갖는다. 비록 경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계급을 초월해서 갖는 경험이다. 동시에, 계급은 가사노동이나 가정 밖의 여성노동을 초월하는 것으로, 여성들을 서로 분리시킨다.

이러한 연관과 단절은 아직도 적절하게 이론화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일반적인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수없이 많은 여

러 가지 다른 접근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연관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고 있다(Herzog 1980; Hunt 1980; Phizacklea 1983). 오늘날 서구에서, 여성의 가장 큰 이해의 차이는 아마도 일하는 여성이나 일하는 남성과 결혼한 여성, 그리고 임금고용관계에서 일하지 못하는 여성이나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는 여성, 그로 인해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성, 즉 실업자, 편모가정, 고령의 연금대상자와 같은 여성들 사이에 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빈민 중에 여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Glendinning & Millar 1987).

자신과 아이를 위해 소비할 돈을 가지고 있는 의존적인 중산계급 주부의 지위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살아가는 편모가정 여성의 지위는 비교될 수 없다. 영국에서, 1980년대 '구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수당의 가혹한 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살아가는 독신여성에게 남성 없이 완전한 독신을 선택하든가, 혹은 사회보장제도 기금을 성관계의 답례로 자신을 부양하는 남성에게 지불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조정이 안고 있는 폐해는 중산계급 여성이나 독립적으로 노동하는 여성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다(Cambell 1984). 남성들은 여성을 대가로 이러한 체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여성 납세자들도 사회보장제도의 지불과 국가의 지출로 만들어진 구조로부터 이득을 얻으며, 그것은 점차 감세의 혜택으로 돌아온다.

계급분석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이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없게 한다. 우리는 또한 여성의 노동관계를 보다 일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몇몇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게 갖는 권력도 연구해야 한다. 몇몇 여성이 다른 여성을 직접 착취할 수 있는 (값싼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일반적인 이익제공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노동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지만,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착취의 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적 삶의 영역은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단지 생산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재생산과 상호연관된 영역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내 서비스

오랜 역사 동안, 소수의 특권층 여성들은 종속되어 노예화된 여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왔다. 노예화된 여성들은 머리를 빗질해주고, 음식을 장만해주고, 아이에게 젖을 주고, 옷을 지어주고, 집을 청소해주고, 그들의 변덕에 춤을 추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항상 이러한 상류층과는 거리가 멀지만, 가내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널리 퍼져 있었다. 마르크스는 가내하인들이 빅토리아 시대 부르주아의 안락함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하인들은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위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 사고팔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때문에 그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계급투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계가 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노동력을 가진 생산적 노동자들의 이해와 동일시되어야만 한다. 부르주아 여성들에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체계는 한 명의 가내하인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윤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생산해주는 노동자의 노동력 없

이는 움직일 수 없다.

197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가사노동 논쟁(4장을 보라)이나 최근의 성과 계급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은 가사노동(음식, 청소, 양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 내 노동)을 억압된 가정주부에 의해 행해지는 노동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전에는 간과되어왔던 여성의 가정 내 노동을 이제 자본주의 분석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가내 서비스는 과거에나 있던 것이라는 가정이 널리 퍼져 있다.

영국에서, 이제 전쟁 이전의 제복 입은 가내하인들은 점차로 사라지고 있으며, 중산계급 여성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요리와 아이양육, 그 외 살림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거의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다른 동거인 혹은 아이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여성은 가사노동 기구에 의존하기도 하고, 세탁소나 유리창 청소부, 드라이 클리너 등의 상업적 서비스를 사기도 한다. 여성들은 또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잘 마르는 옷이나 냉동식품과 같은 상품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건강한 노동력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며(예를 들면 다림질), 남성과 비교해서도 장시간 노동한다(Oakley 1974; Burman 1979; Malos 1980). 가정주부가 이 노동을 대신 해주는 사람에게 지불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러한 노동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월급을 버는 노동을 한다면, 가내 서비스에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받고, 동등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성공은 소수의 성공한 여성들이 그보다 못한 여성들의 값싼 가내 서비스를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아직도 존재하는 가내 서비스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거의 통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 몇몇 유럽국가들에서, 주당 몇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여자 청소부, 집으로 오는 보모, 혹은 실업률이 높은 제3세계나 아니면 이민노동력으로 직접 모집한 가내하인의 형태를 띨 수 있다. 아이를 가진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거나 다시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여성들의 사적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존관계가 가사노동이나 국영 탁아소 안에 존재한다면, 혹은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모에게 다시 저임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여성들 사이의 노동관계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직업을 가졌거나, 사업을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많거나, 부유한 남편을 가진 여성들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가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성들 서로는 모순관계에 있음이 분명한 것이며, 이들은 사회변혁을 위한 동일한 이해를 갖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산계급 가정에 의존하는 유럽의 여러 사회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즉 모성이나 양육, 가사노동 등과 관계된 문화적 가치들, 학교 시간, 값싼 노동력의 이용가능성, 대안적 고용형태의 이용가능성 등에서의 다양함이 그것이다. 가난 때문에 이민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혹은 중간계급과 가내노동자의 수입차이가 감소되면서, 재벌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가내하인을 둘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또한 예를 들어 이민노동력의 하인을 고용하거나 제3세계로부터 직접 가내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의 새로운 자원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제3세계의 자본주의적 농경의 부상은 급격히 증가한 농촌인구가 농업에 흡수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의 가난과 빈곤은 여러 영역에 값싼 노동력을 넘쳐나게 하고, 가내 서비스는 널리 퍼져 있다. 많은 것들이 전자본주의 문화나 경제, 식민지 전통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하인이 반드시 여성은 아니지만, 가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들이 먼저 서비스에 쓰여질 것이고, 곧바로 다른 여성을 위해 노동해야 할 것이다. 제3세계에서 중산계층 여성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돈으로 소유한 것이 없는 가난한 소작농들을 고용할 수 있다. 현찰로 임금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친척들이나 혹은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 생존을 대가로 가내노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이트헤드(Whitehead 1984 : 10)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연장자인 여성들이 십대의 여성이나 의존적인 어린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제3세계 여성들의 생활수준은 유럽이나 미국 여성들보다 훨씬 열악하지만, 여전히 하인을 두면서 살 수 있다. 정말로 제3세계의 중산계급 여성들이 가사노동기구도 없이, 물과 전기의 공급도 중단된 채, 간편하게 조리된 음식도 없이, 법률가나 의사, 교사, 간호원, 비서 등으로 일하는 경우에, 가내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압박은 매우 큰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인 중국에서조차도, 도시의 몇몇 할머니들은 마을의 소녀들을 고용해서 가정에서 행해져야 하는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책임을 덜고, 며느리가 밖에 나가 노동할 수 있게 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가사노동이나 양육, 노인보호와 같은 임무가 감소되지 않고서는, 여성들이 생산노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대도시의 가내하인 고용은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Croll 1986).

가내하인들의 지위와 계약으로 맺은 권력은 매우 다양해서, 자신 소유의 차와 자기의 몫을 갖고 있는 뉴욕이나 런던의 재복차림의 보모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 도시의 부엌바닥에서 잠자는 영양부족의 10대 농촌소녀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점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가내 서비스는 다른 여성의 노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여성의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인을 고용한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지불하기 위한 자원 때문에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 여성들은 여전히 고용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 자신의 삶에서 하인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그 여주인이 매우 다른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Cock 1980 ; Gaitskell et al. 1983 : Collins 1985). 카비(Carby 1982 : 218)가 주장한 것처럼, 흑인 여성들이 백인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경우, 재생산 개념에 이의가 제기된다.

가정영역에서 여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노동관계는 계급분석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며, 계급분석의 범주에 이러한 관계를 억지로 끼워넣으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 오히려 이러한 노동관계의 특정한 역사적 형태에 대한 자본주의의 복합적인 작용이나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 등을 고찰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근거한 계급관계와는 대조적으로, 가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가내 서비스 안팎을 이동하는 여러 다른 집단으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범주일 수 있다. 하인들은 생산노동으로 이동할 수 있고, 분명히 노동계급이 될 수 있다. 하인 없이 남겨진 중산계급 여성은 가정으로 되돌아와야만 하고, 계급분석의 범주에서 사라진다. 부르주아 계급은 필요하다면 임금을 지급

하지 않고 가정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하인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간디와 차우드리(Ghandy & Chaudhry 1984)는, 인도의 나그푸르(Nagpur)족에서, 가정주부들이 여자 하인들을 직접 착취하고 있으며, 가내 서비스 제도로 인해 아직도 기존의 성별노동 분업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개별적인 가내생산 양식이나 혹은 자본주의 계급과 가내 서비스의 일반적 관계를 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성 고용주와 그의 여자 하인들의 다양한 관계가 생산과 재생산의 분명한 상호관계의 역사적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노동관계는 성과 계급의 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여성 고용주와 여자 하인이 모두 아주 다르게 종속당하는 여성들의 모순적인 관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생산의 세계화와 여성노동

가내 서비스는 자본주의에서 여성들의 복잡한 노동관계의 일면을 나타낸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이 항상 노동자의 성이나 나이에 무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가부장적 제도나 이데올로기와 동시에 발전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여성들은 물질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살면서,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항해 투쟁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여성들은 똑같은 체계 안에서 착취되고 불구가 되어 굶주린 채 버려진다. 그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이 착취되고, 동시에 또 남성들에게 착취당한다. 국가의 법이 결여되어 있고, 노동자의 조직이 미약한 경우에, 고용주들은 자본축적을 위해 여전히 노동자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 수 있고, 죽도록 일만 시킬 수도 있다. 서양에서, 산업재해나 직업병, 비정기적인 가내노동, 노동착취 환경 등은 사실 그대로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제3세계에서도 최악의 임시고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고, 값싼 노동력이 넘쳐나며, 국가의 통제력은 미약하고, 특히 많은 고용주는 노동자의 복지를 배려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선 첫째로, 서구 여성들의 분열된 삶과 제3세계 여성들의 다양한 삶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관계의 존재는 자본주의를 세계체제로 인식해야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생산의 세계화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제3세계에서 농업은 서양의 힘과 국제기관이 개입하면서 빠르게 변화되어갔다. 이전에는 약간의 납세나 교환을 위한 여유분과 생존하기에 알맞은 소규모 생산에 거의 의존했던 나라도 이제는 서양에 수출하기 위한 현금작물이 주종을 이룬다. 자신의 식량을 위해 농사짓던 여성들이 이제는 외국에 팔기 위한 커피, 면화, 설탕, 과일, 곡물, 그 외 다른 작물들을 기르게 된 경우,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국제 가격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 여성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 현금작물을 팔아야만 하고, 식량, 의복, 교육, 새로운 씨앗, 비료, 살충제 등을 사기 위하여 감소하고 있는 수입에 의존해야만 한다. 현금작물이 남성의 노동으로 규정되거나 대규모 생산을 위해 토지가 불하되는 경우, 여성 농민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고, 강제로 토지에서 쫓겨나거나, 아이들을 먹여살릴 수 없게 된다. 반면 서구 여성들은 수입된 현금작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생산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게 살아간다.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생산영역은 자본을 축적하여 이윤을 얻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한 기업은 더 이상 국가적 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러한 거대기업에 의해 생산이 지배되면, 쉽게 이동가능한 종류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은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서구의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은 값싼 의복, 식량, 원자재로부터 이득을 얻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노동자들은 고도로 착취되는 제3세계 노동자들보다 더 짧은 기간에 모든 산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서구의 여성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제3세계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초래해, 이미 존재하는 서구의 높은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다른 영역에서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의 생산성과 이윤율로부터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익(혹은 이익의 결핍)을 얻는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더욱 더 저임금으로 일하게 되고, 경영자와 투자자의 이윤에 따라 세계 여러 다른 나라로 고용과 생산을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몇몇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익을 얻는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체계로 움직이게 되면, 계급은 생산의 수준으로 부상하게 되고, 이것은 여성의 노동은 이용가능한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예를 들면 일본의 노동계급은 영국의 노동계급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서구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견고한 노동력을 지닌 일본의 대규모 회사체계는, 수요가 낮으면 잠정적으로 해고기간을 갖는 임시노동의 보완적인 체계에 의해 지탱되며, 대부분의 생산과정이 소규모 영세회사로 하청을 주는 체계로 유지된다. 이러한 회사체계에서, 임금은 낮고, 노동조건은

열악하며, 고용은 불안정하다. 이것은 일본의 생산성에는 무한한 힘과 탄력성을 주었고, 노동자에게는 나약함과 분열을 남겨주었다. 일본의 가장 큰 규모의 회사에 고용된 남성의 부인들은 생산체계와 관계에서 소규모 영세회사에 시간제 노동으로 고용된 여성들과는 다른 관계에 놓여 있다. 일본의 부르주아 가정주부들이 원래 회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아내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는 19세기 부르주아 여성과 노동계급 여성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계급과 노동에 근거를 두고 여성의 구분을 설명하는 논의는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의 여러 다른 지위에서, 여성들 사이의 분명하고 다양한 권력관계를 설명해야만 한다. 서구와 제3세계 여성의 관계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는 하나의 억압관계로, 또는 서구와 제3세계 여성들의 하나의 관계로만 이해되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 영국의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이민온 청소부, 아프리카의 농부, 미국 월 스트리트의 감독관, 애팔래치아의 광부, 터키의 은행경영자, 과테말라의 농장노동자, 아프리카 서부의 백인 주부, 필리핀의 하인처럼, 여성의 삶은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억압을 가져오는 계급과 노동, 성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여성의 삶은 계급과 노동관계에 영향받으며, 그 관계에서 몇몇 여성은 다른 여성에 대한 권력을 얻으며, 어떤 여성은 다른 여성들의 착취에서 이익을 얻고, 이제 여성들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계급과 노동의 모순

여성의 공통된 자매애는 계급차이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계급차이는 몇몇 여성들에게는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위치의 특이성과, 노동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이다. 계급과 노동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은 여성들이 생산과 재생산에서 모순적인 이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다른 노동조건에서, 여성들은 서로 다른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어떤 여성은 다른 여성에 대해 권력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단지 여성억압이 자본주의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억압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계급 개념이 여성의 경험에 꼭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의 계급적 차이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만일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분열에서 계급이라는 요소가 여기서 주장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면, 계급과 노동의 물질적 차이가 성의 차이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모건(Robin Morgan 1984 : 19)은 '계급분석은 잘 해도 불완전한 것이고, 아무리 나빠도 여성을 분리하는 것이며 …… 가부장제로 분리와 정복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에서 지지받는 그의 해결은, 계급이나 인종, 민족, 또다른 형태의 억압 등에 의해 분열되는 여성 집단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여성들의 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애거슨(Marjorie Agosin 1984 : 142)이 변화된 칠레를 상상한 것처럼, 정말로 여주인과 하인이 손을 잡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손을 잡기에는 너무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둘 다 남성에 의해 착취되기는 하지만, 이 착취는 계급과 노동의 이해에 의해 조정된다. 마틀라트(Mattelart 1980 : 282)는 '흔히 하인을 동반해서' 차를 타고, 알랑드(Allende)에 대항한 우익의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칠레의 부르주아 여성들을 묘사한다. 1960년대 후반에 쓰여진, 브라질 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 사피오티(Saffioti 1978)는 여성의 모든 변화된 상황은 성뿐만 아니라 계급과의 싸움에도 달려 있으며, 여성운동에 계급구분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첸(Chen 1986)은 방글라데시의 서로 다른 계급의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통제를 다르게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는 '방글라데시 시골의 생산체계와 친족체계는 푸다(purdah, 여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가리개)나 가부장제뿐만 아니라, 변화가능한 계급도 분석해야만 하고, 고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221).

여성들의 공통된 이해가 다양한 계급관계나 노동관계와 얼마나 상충되는지는 문제로 남아 있다. 만일 여성들이 계급이나 노동에 의해 분리되는지 아닌지, 그로 인해 여성으로서 갖는 공통된 이해가 파괴되는지에 대해 결론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성의 역사에서 모순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만일 가부장제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또는 남성과 여성이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다르다면, 여성들 사이의 계급과 노동의 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리가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그 분리는 변혁을 향한 공통의 전략을 갖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변혁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 사이의 이러한 분

리도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을 저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된다.

페미니즘 이론을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과 연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입장(standpoi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트속(Nancy Hartsock)은 페미니스트 입장(여성의 견해나 전망과는 다른 것)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하트속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의 본질과 현상의 구분에 근거하고 있다(1983b : 285). 그는 페미니스트 입장은 여성의 물질적이고 본질적인 삶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삶을 형성하는 억압은 여성에게 남성과는 다른 정치적 이론의 근거를 제공한다. 페미니스트 입장을 취함으로써, 여성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신비화된 사람들의 실제적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여성스러운 것은 아니며, 이것은 남성지배적인 문화가 그렇게 규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다. 억압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입장은 해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 입장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계급차이는 문제로 남겨둔다. 카인(Maureen Cain 1986 : 260-1)은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하나의 입장을, 그리고 사회계급으로서 또다른 입장을 가진다고 제안함으로써, 그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립가능한 것이 아니다.

계급구조는 성(sex gender)구조보다 더 근본적이지도 않고 그 반대도 아니다. 자동적[18]인 관계와 동일한 이러한 양상은 개별적인 실체와 결과를 갖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를 분절함으로써 항상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또 주어진 사회질서 안에서 그것의 특정한 형태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관계 속에서 구성되지만, 그것은 결코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 어떤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한 구조에서의 입장이란 다른 구조에서의 입장과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18) 자동적(intransitive)이란 개념은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대상,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건 안 하건 존재하는 사회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바스카(Bhaskar 1979)가 설명한 개념으로, 자동적 대상은 인간의 지식에 의해 구성되는 타동적인 대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일 수 없는 이러한 두 개의 입장에 대한 개념은 여성들의 계급과 노동관계로 인해 발생한 페미니즘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 듯하다. 페미니즘은 일반적인 여성들이 계급에 의해 더 먼저 억압되는지 아니면 성에 의해 더 먼저 억압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의 문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대신 여성들의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 즉 여성들의 다양한 계급과 노동이해, 그리고 성별 이해 등에 따른 다양한 입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않다.

여성들 사이의 계급과 노동관계에 근거한 권력의 차이는 페미니즘에 의해 분명히 설명되어왔다. 만일 여성들이 서로 대립되는 계급과 노동이해를 갖는다면, 여성들은 변화된 사회 속에서도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은 남성이 소유한 권력이나 특권과 양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이 간단하게 계급억압으로 환원된다(즉 여성억압은 계급억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거부하지만, 여성의 계급차이가 가부장제로 환원될 수 있다(즉

여성의 계급차이가 남성의 권력만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 또한 거부한다. 만일 여성 노동자가 남성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투쟁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주아 여성이나 정규 고용직의 여성들은 계급적 특권, 즉 사회적 지위, 생활수준, 상속재산, 하인 등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러나 분리라는 문제, 즉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권력이라는 정치적 문제는 계급과 노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 사이의 분리는 또한 국가, 민족, 인종 등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며, 이것은 6장에서 다시 고찰될 것이다.

6

여성과 여성
국가, 민족, 인종

계급과 노동은 분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성들을 분리시켜왔지만, 여러 계급들 사이에는 물론이고 같은 계급 안에도 인종이나 민족, 국가에 의한 분리가 존재하며, 그것들이 여성의 삶을 구성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르크스는 1870년대 잉글랜드 노동자들이 아일랜드 동료 노동자들을 임금을 낮추는 경쟁자로,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어떻게 잘못 인식하게 되는지를 지적했다. 반대로 아일랜드계 이주자들은 잉글랜드 노동자들을 잉글랜드의 아일랜드 통치를 위한 어리석은 도구로 보았다(Marx & Engels 1955 : 237). 이러한 관점은 1870년 이후로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잉글랜드 노동자들이 대영제국의 다른 노동자들과 갖는 공통된 이해에 대한 인식은 외모나 언어, 관습에 의해 '이민자'로 규정되는 사람들과 '잉글랜드'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지배계급과는 아주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들 사이의 분리에도 불구

하고, 노동자로서 공통된 이해를 갖는다. 노동계급에 존재하는 그 분리는 노동자로서의 공통된 억압을 신비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모든 여성은 여성으로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며, 국가나 민족, 인종 등에 의한 분리는 단순히 이 공통된 이해를 신비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훨씬 더 불분명하다. 여성의 공통된 이해를 주장하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흑인, 유색인종, 제3세계, 인도, 힌두교, 라틴 아메리카 등의 여성으로부터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비판은 명백히 또 암시적으로, 국가나 민족, 인종 등에 의한 구분이 여성의 허위의식으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한다. 여성은 남성억압에서 기인하는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힘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지배국가나 지배인종, 지배민족 집단의 여성은 종속집단 여성의 억압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속이 지속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과는 반대된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중요시하는 문제에 따라 다소 변화되기는 하지만, 억압으로 인해 갖는 여성의 공통된 자매애를 여성투쟁을 위한 기반으로 보는 사상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도전한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보편적 자매애에 대한 초기 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중요한 문제로 만들었다. 여성들 사이의 분리에 대한 이러한 격렬하고도 개인적인 설명들은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등에 의해 아주 일반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별한 소수로 보이게 되면서(Carmen et al. 1984), 인종차별주의를 개인적인 부담으로 인식하거나(Pence 1982), 혹은 어떤 사람의 지위를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분리와 관련시켜 연구하는 것(Cameron 1983) 등은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페미니즘의 여성억압 개념에 대한 비판은 페미니스트들의 편견이나 무관심을 직접 경험한 여성으로부터, 그리고 몇몇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이 자신을 배제한다고 느끼게 만든 고통, 분열, 환멸 등으로부터 나왔다. 여성들의 고통이나 드러나는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이러한 많은 논의들을 읽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Davenport 1983; Bryan et al. 1985). 여성의 이러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여성으로서 억압된다는 주장과 억압의 형태는 다른 어떤 형태의 억압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견해, 모두를 문제로 규정했다.

이러한 정서적 혼란 속에서,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들의 모순적인 정체성과 경험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며, 이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는 국가, 민족, 인종 등에 의한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연구함으로써 고찰될 수 있다.

국가

'국가' 라는 개념 자체가 논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여성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경험과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정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는 출생과 시민권에 근거해서 여성을 분리할 수 있다. 국가는 우리에게 시민권을 줄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국제적 갈등상황에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맹자와 적을 결정해준다. 이라크와 이란 여성,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성, 혹은 북아일랜드와 그 외의 영국 여

성 등이 모두 남성지배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는 페미니즘의 개념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의 운명, 예를 들면 호메이니 정권하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란 여성들의 억압과 같은 여성의 운명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지지받을 수 있다(Tabari & Yeganeh 1982 ; Afkhami 1984).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 여성들의 경험에서,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은 자신과 가족이 함께 관여되어 있는 경제전쟁이나 군사전쟁보다 더 직접적이지 않다. 아무리 독단적인 국가경계와 개념이라 할지라도, 국가는 여러 다른 나라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된 이해의 근원이다.

계급과 마찬가지로, 국가주의나 국제적 갈등은 사람들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공통된 이해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갈등의] 경우에, 이란과 이라크 여성들은 공통된 자매애를 주장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한 갈등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성적 억압에 대항한 투쟁에 정치적 우선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핵무기 철회를 요구하는 서구 여성들의 주장은 그러한 주장이 국가방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여성들의 주장과 대립된다. 국가는 이데올로기로도,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의 부분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페미니즘 억압이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국가는 여성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여성들의 경험과 인식을 구성하지만, 공통된 이해가 정의되고 인식될 수 있다면 여성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공통된 이해를 인식하는 수단이지만, 인간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동일시되어 공통된 이해에 대한 인식을 금지하게 된다. 페미니즘의 범국가적 단결성에 대한 개념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국가를 위한 해방투쟁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Jaywardena 1986).

민족

민족은 국가보다 더 정의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정의와 중복되기도 한다. 그것은 소수집단이 다수의 지배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적으로 규정하는지, 혹은 어떻게 다르게 규정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다. 나는 사회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민족과 국가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그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여성들 사이에 분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근원을 가리키는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예를 들어 바스크족이나 쿠르드족이 국가를 구성하는지 혹은 민족집단을 구성하는지와 같은 문제는 그대로 열어두는 것이다. 전세계 국가나 민족의 구조와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적 다양성은 아주 일반적으로 개괄되거나 혹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분류된다. 자신만의 역사,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세계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지배하는 국가에 의해 억압당하고 제한당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규정한다. 민족은 언어, 문화, 종교, 영토 등의 기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여기에서 소수집단은 다수집단에 의해 종속당한다)에 기반한 매우 느슨한 개념이다. 점차로 소수

민족이 없는 현대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수국가들의 관계는 조화롭지 못하다.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없는 사회에서, 민족의 차이는 단지 차이로만 남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민족집단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열등성의 정도를 표시한다.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속적인 민족집단은 정복민이나 유목민,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더 큰 정치적 단위로 흡수되는 곳에서 발생된다(예를 들어,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바스크족, 쿠르드족, 스리랑카 타밀족, 라플란드 사람, 집시 등이 그들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부상 이래, 큰 국가 안의 소수민족은 자본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의 산물이다. 이것은 수백만의 농부들을 가내생산 밖으로 끌어내어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에 몰아넣었다(때때로 강제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자급자족경작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종교를 박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성들 간의 민족적 차이를 개념화하려는 노력은 민족성이 단지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기나 집단 간의 경계를 규정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한 집단 간의 권력관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열등한 집단으로 규정(종교적인 잣대를 넘어 진화론적으로 열등하고, 혹은 성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이와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민족정체성의 의미를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민족적 차이의 의미와 경험은 역사적으로 다양하지만, 흔히 이러한 차이는 투쟁과 저항의 현실적인 기제가 된다.

여성들이 민족에 의해 분리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여성으로서의 공통된 억압은 계급과 국가에 의한 차이뿐만 아니라 특권과 권력에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민족적 차이에 의해서도 대립된다(Phizacklea 1983). 더 나아가 안티아스와 유발 데이비스(Anthias & Yuval-Davis 1983 : 62)는 모든 페미니즘의 투쟁은 특히 민족(계급뿐만 아니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족의 구분은 각기 집단이 갖는 문화적 정체성, 예를 들면 언어, 종교, 친족구조, 의복, 음식물 등으로 구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수반한다. 우리의 이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결정하면서 여성들이 국가, 민족, 인종의 모순적인 정체성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시된다. 어떤 한 여성이 모든 여성과 공유한다기보다는, 그 집단의 남성과 공유하는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문제이다.

인종

사람들이 어떻게 인종에 의해 분리되는가의 문제는 아마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분리는 틀림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장 신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비화된다는 것은 인종에 따른 육체적 차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관념과 현실이 지배인종에게는 이익이 되게, 종속된 인종에게는 불이익이 되게 작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종의 차이가 '정말로' 무엇에 대한 것인지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지배인종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것

은 아프리카 원주민은 본래 열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인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아프리카 원주민은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이러한 규정은 노예소유 사회에 의해 유지되고 재생산된다는 주장의 차이이다.

인종은 본래 생물학적 범주지만, 그 자체로 널리 오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종은 유전자의 차이에 대한 과학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인종차이에 대한 사회현실은 육체적 차이만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같은 인종에 속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인종은 육체적으로 차별화되어, 사회집단을 구분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인종이나 종(種)이 존재하는지, 혹은 이것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분류체계가 사용된다 해도, 모든 개인들이 다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학파들은 독특한 육체의 유형에 따른 정확한 경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종은 절대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Lieberman 1970). 그렇다면 인종의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지식은 서구사상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식민지와 제국주의 확장의 시기에 나온 서구사상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인종이라는 범주를 사회적인 차별의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과학적 범주에 대한 대중적 이해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차별을 나타내는 표시는 그것이 마치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범주인 것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인이라는 용어의 대중적 의미가 특별한 육체적 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백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육체적 외형을 가진, 지배자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는 본래 유럽 사람인 어떤 사람들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우 특수한 역사적 범주인 것이다. 백인이 다른 인종의 집단, 예를 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메리칸 인디언을 지배했던 특별한 역사과정을 거친 곳에서, 백인 집단은 엄밀한 생물학적 범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 범주이다.

육체적 외모라는 기준으로 규정되는 인종은 그 인종집단들이 서로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 된다. 모든 인종범주가 서로 융합되고 모든 종(種)이 이종교배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되는 개인들의 복잡한 육체적 다양성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단순화된 고정관념을 분류하는 것이 더 쉽다(남아프리카 국가에서 발견된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 혹은 자매와 형제들이 서로 다른 인종으로 태어나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을 서로 분리시키는 인종적 범주는 자매애로 극복될 수 있는 육체적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합법화하는 적극적인 범주인 것이다.

여성들은 생물학적 인종범주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배, 차별, 착취의 체계였던 인종차별주의의 결과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는 우월성과 열등성이라는 위계질서를 가지고 특정집단을 인종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위계질서 안에서, 지배인종의 집단은 종속집단을 차별화하기 위해(그리고 더 지배적인 집단은 덜 지배적인 집단을 차별화하기 위해) 권력을 활용한다. 그렇다면 차별은 고용, 주택, 교육, 건강, 복지, 법, 육체적 안정 등과 같은 영역에서 실행된다.

길로이(Gilroy 1987 : 3)는 인종구성의 개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투쟁이 어느 시대에나 널리 퍼져 있는 인종에 대한 정의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의하는 단서로

정의가 중요한가

인종과 민족에 대한 정의는 여러 집단의 실제 차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집단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각각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 권력이나 자기존중, 개인의 정체성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회이론에 의해 제공된 정확한 정의란 있을 수 없다. 전쟁 후에, 식민지 국가의 독립이 확산되고, 자본주의가 국가와 제국적 생산체계가 아니라 세계적 생산체계로 재구성되면서, 공적인 자원의 공공연한 인종차별주의는 감소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공식용어의 변화는 일상화되어 있는 인종차별주의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 대중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신념과 실천 속에서 그대로 고수되고 있었다.

여성을 인종집단이나 민족집단의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인종차별주의 사회에서 '수용가능한' 공적 논의의 차원은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욕설과 함께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아시아인', 혹은 '유색인종', 혹은 '아프리카계 카리브인'이 아니라 '흑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또한 '흑인' 혹은 '절반 카스트(half-caste)'가 아니라 '혼합인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흑인 잡종', '파키스탄 놈', '검둥이', '유태인 놈', '아일랜드 놈', '이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여성들은 특히 성적인 욕설에 주목한다. 이 장의 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이라는 범주에 맞는 '정확한' 정치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를 숨기고 있는 명칭 이면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서로 다른 이해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인간을 육체적인 외모로 규정하는 문제는 여성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외모에 따라 인종차별이나 지배, 물리적 위험 등의 경험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백인 여성들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고정관념이나 교육, 보건, 복지 등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는다.

혼합인종의 여성, 혹은 인도 대륙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문화, 언어, 민족, 계급에 의해 구분되지만, 그들은 아프리카인과 똑같은 측면에서 열등하다고 인식되지는 않는다. 영국에서, 이러한 차이는 보다 더 아프리카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과 보다 더 유럽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왔으며(그래서 아시아인과 인도-카리브인은 아프리카계-카리브인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또한 백인에 가까운 유럽인과 흑인에 가까운 유럽인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그래서 북부 유럽인들은 지중해의 유럽인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창백한 피부와 높은 코를 가진 여성들은 특히나 중산계급일 경우는 아프리카인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과 같은 방법으로 인종차별주의를 경험하지는 않는다(Cameron 1983). 이러한 차이는 예를 들어 '오로지 흑인만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누가 흑인인지를 규정하는 정치적 문제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흑인 활동가들은 육체적 외모에 근거한 인종차별에 정치적으로 침묵하기로 결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왔다. 두 경우 다, 육체적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인종차별주의의 범주나 규정이 지배집단의 이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배받는 사람들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배집단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문화는 피지배 집단을 위계적으로 등급화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종속된 인종이나 민족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공통된 이해를 '찾아', 인종차별적인 분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범주화된 인종차이의 체계를 인종차별주의 체계로 폭로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남성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이해도 존재한다. 서구사회에서, 흑인이나 소수민족 구성원에 대한 개념은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해서 공통된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의로 만들어져야만 했다.

억압에서 자매애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서로 다른 국가나 민족, 인종에 따른 여성들의 상반되는 경험과 부딪힐 때, 여성의 공통된 억압에 대한 이론인 페미니즘은 흑인 여성, 소수민족 여성, 제3세계 여성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듯하다.

백인 페미니즘에 대한 흑인 비판주의[19]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대한 흑인과 제3세계의 비판은 백인 페미니즘의 공통된 자매애에 대한 가정을 서구의 경험에 대한 협의의 해석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비판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억압 개념에 도전하여,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 매우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억압의 형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구의 백인 특권층 여성들이 성차별주의를 중요한 억압의 형태로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유럽의 지배가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인식된 것이다. 그러므로 흑인 여성, 백인 여성, 또다른 여성들은 노예, 강요된 노동, 강요된 이민, 식민지 농장, 계약노동, 식민주의, 제국주의 정복, 민족말살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 개인은 자신의 역사를 모를 수도 있지만(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모르게 하는 것은 식민지 문화지배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현재 우리의 사회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역사는 백인의 문화 개념을 우월한 것으로, 흑인의 문화 개념을 열등한 것으로 만들며, 인종차별주의의 이념과 실천을 합법화해왔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대한 흑인의 비판은 이러한 페미니즘 물결이 서구의 백인문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백인의 경험과 가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인종과 민족에 따른 위계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것이 인종차별주의를 안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전세계를 휩쓸었던 급진적 페미니즘의 출현은 주로 서구의 교육받은 백인 여성들로부터 야기된 개인의 자율성 요구에 주목하면서도, 여성억압의 개념을 공통된 상황으로 보는 모순된 주장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간과되었다고 느끼는 여성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Davis

19) 여기서 흑인이라는 용어는 그들 자신을 흑인이라고 규정하는 서구 여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또한 자신들을 유색인종, 아시아인, 라틴 아메리카인 등으로 규정하는 여성들, 그리고 서구에서 소수민족의 구성원이거나 제3세계 여성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그 경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안티아스와 유발 데이비스(1983), 그리고 피자클리(Phizacklea)에 대한 공헌자(1983)들이 지적한 것처럼, 서구에서 소수민족 여성들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억압당한다. 유대 여성과 이스라엘 여성들 또한 차별로 고통받지만, 흑인 여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차별받는 것은 아니다. 열등함과 우월함의 범주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논쟁적인 것이다.

1982 ; hooks 1982, 1984 ; Hull et al. 1982 ; Moraga & Anzaldua 1983 ; Hussein 1984). 이러한 비판들은, 자신들의 삶과 노동, 투쟁, 고통 등이 남성지배 사회의 사상범주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언어와 개념에 의해서도 가려져 보이지 않아왔던 여성들의 고통과 폭력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판은 백인 여성이나 제국주의 국가의 여성,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흑인 여성, 소수민족 여성, 제3세계 여성, 농촌 여성들과 자매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종속과 착취로부터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이 하인을 고용할 수 있고, 노동자의 땀으로 생산된 값싼 옷을 입을 수 있고, 농촌가족의 자급자족을 위해 재배된 식량을 희생한 환금작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착취와 이익은 자매애를 넘어선 것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여성은 상속받은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원주민 여성은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 (Sykes 1984 : 68). 국가가 문화나 법,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정책에 인종차별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그때 백인 여성들은 흑인 여성과 소수민족 여성들을 희생하여 이득을 얻게 된다. 몇몇 흑인 학자들은 만약 당신이 흑인이라면 당신의 생활은 덜 건전하고 덜 안전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Cameron 1983 ; Lorde 1983).

제3세계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공통된 상황보다는 분리가 훨씬 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계급, 인종, 민족, 국가에 따른 분리에 더하여, 세 가지 중요한 차이의 근원이 있다. 첫째로,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확장과정에서 제3세계를 지배하고 분리해온 사회에 사는 여성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관계는 서구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제3세계 여성의 경험을 형성해왔다.

둘째로, 제3세계 국가는 흔히 식민지 시대의 권력투쟁으로부터, 혹은 정복된 왕조와 쇠퇴하는 제국으로부터 만들어진 국가이다. 그러한 국가는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에서 거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국가에서, 민족과 인종의 차이는 식민 지배국의 권력에 의해 강조되고 착취될 수 있다. 이것은 20세기에 사는 여성들을 여성으로 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경험하게 한다.

세번째 문제는 많은 제3세계 사회에서도 빈곤과 부유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이나 영양실조, 수인성 전염병 등으로 죽어가지만, 반면 가장 부자인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산다. 제3세계의 세계 자본주의 체계로의 통합은 쫓겨난 농촌인구가 생산적 고용에 흡수될 새도 없이 짧은 기간에 농경생산을 변형시켰다. 풍족하고 교육받은 도시 여성들과 영세농이나 소작농, 빈민가나 거리의 여성들의 상황은 현저히 대조적이다. 이 여성들이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분명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계급의 차이지만, 또한 위계나 인종, 종교, 지역, 민족에 따른 분리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에서 특히 식민지 혹은 제국주의의 권력은 교육, 정치적 권력, 경제적 발전에 대한 접근에서 어떤 집단을 더 선호하게 된다.

모든 여성들이 아직도 여성으로서 종속되고 성적 억압과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나 민족집단, 인종의 여성들은 아직도 억압에 대항한 공통된 투쟁을 공유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억압이 여성들의 삶이나 노동, 삶의 기대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아이들의 미

래도 인종차별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에 의해 구조화된다. 사이크(Sykes 1984 : 69)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 성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신념을 정확히 믿고 있다. 억압은 인종의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인종에 따라 백인 여성들은 백인 남성과 함께 억압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하며, 성 구분에 따른 흑인 공동체의 분리는 이미 부러워할 것 없는 우리의 지위를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사실상 우리 모두를 흑인의 운명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국가 안에서든 국가들 사이에서든, 여성들의 권력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한 남성과의 투쟁에서조차도 실제로 매우 다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흑인 여성인 이브 페슬(Eve Fesl 1984 : 110) 또한 인종차별적인 억압에서 드러난 백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만약 억압을 측정하려 한다면, ... 우리는 백인 여성은 흑인 남성보다 더 흑인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다른 여성이 경험하는 중요한 억압의 형태는 다루지 않는 아주 제한된 형태의 해방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억압의 형태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어느 정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슬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는 여성의 피난처가 똑같이 매맞는 흑인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백인의 '매맞는 아내'에게 점거되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예를 인용했다(Fesl 1984 : 115). 만약 우리가 서로 다른 권력관계에 있다면, 여성들은 남성의 억압에 대항해 함께 투쟁할 수 없다. 카비(Carby 1982)가 주장한 것처럼, 영국과 같은 사회는 인종차별주의를 구조화하면서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사이에서 식민지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관계를 창출한다. 계급과 성차별에 근거한 억압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주의와 싸워야만 하는 페미니스트의 투쟁은 남성지배에 대항한 투쟁만이 필요한 백인(중산계급) 페미니스트들의 경우와 똑같지는 않다. 억압이론이 사회변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일 필요가 있지만, 어떤 일반 이론이라도 여성의 다양한 억압경험과 여성들도 타인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페미니즘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일 남성에 의한 보편적인 여성억압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계급이나 인종, 민족집단의 여성이 경험하는 특정한 형태의 억압에 대한 관점으로 대체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페미니즘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흑인 비판가들은 이 점을 지적하고, 페미니즘은 흑인 남성과 공유하는 투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남성지배가 항상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해도, 남성지배는 그들의 억압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본다. 이 비판가들은 페미니즘이 흑인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는 백인 여성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을 백인 여성에게 촉구하는 것이다(Davenport 1983 ; Moschkovich 1983 ; Welch 1984). 이러한 관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해방의 개념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모든 지배로부터 모든 여성이 해방될 수 있는 미래를 예견하게 된다(Smith 1983 ; Brixton Black Women's Group 1984). 이런 점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변화를 향한 자신의 우선성을 정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Carby 1982).

그렇다면 여성들의 분리를 주장하는 흑인과 제3세계 여성은 계급과 인종, 민족, 성별 등이 혼합된 억압을 개념화하는 이론과 실천으로 페미니즘을 재규정하는 데 기여하며, 여성해방을 모든 형태의 억압에 대항한 투쟁의 일부분으로 재규정하는데 기여한다. 흑인과 제3세계 비판가들이 모두 이러한 논지를 충분히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북미와 유럽에 사는 흑인 여성과 소수민족 여성으로부터, 그리고 제3세계에 사는 여성들로부터 나온 일련의 비판은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을 재개념화하도록 만들었고, 여기에서 여성억압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러한 점은 다른 여성의 후원에 의존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특성을 눈에 띄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으로부터의 차별과 인종차별주의에 부딪히게 되는 흑인이나 소수민족, 제3세계의 레즈비언들의 경우에서 보다 분명하게 발전해왔다(Carmen et al. 1984 ; Zehra 1987). 마오리족 레즈비언인 아위코투크(Ngahuia Te Awekotuku)는 인종차별주의를 설명해야 할 페미니즘의 병으로 규정했지만, 그러나 "성차별주의는 인본주의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1984 : 120). 그렇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입장을 모순적인 것으로 보며, "흔히 내 생활의 모순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고 덧붙였다(121). 흑인 여성과 제3세계 여성, 소수민족 여성 등은 백인 여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종차별주의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경험은 여성으로서 공통된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인종과 민족의 특이성 : 여성들의 경험

국가나 민족, 인종이 여성을 얼마나 분리시키는지의 문제는 페미니즘에서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남성폭력, 성과 재생산에 대한 남성의 통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등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흑인 여성들의 삶의 모순은 분명히 백인 여성들의 모순과는 다른 조건에 있다. '콤바히 강 공동체(Combahee River Collective)'[흑인 페미니스트 단체](1983 : 215)는 페미니즘의 흑인 여성들이 흑인 남성과 연대해 인종차별주의에 투쟁하는 것을 비난함으로써, 흑인 여성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전의 어떤 누구도 흑인 여성들의 다층적인 삶의 구조를 고찰하지는 못했다'고 논평한다(214).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보편성은 흑인 여성들로부터 반응을 야기하여, 이러한 고찰을 하도록 만들었다. 여성들의 감추어져 있는 여러 다른 경험의 특징 때문에, 국가나 민족, 인종 등이 계급과 성차를 넘어서는 방법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이 가진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은, 1960-70년대의 급진적 페미니즘이 백인 여성에 의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계급(항상 평균적인 생활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 속에서) 여성들에 의해 먼저 전파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그 비판에 대한 분노는 인종차별의 이익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급의 특권을 향하게 된다. 또다른 비판은 한 사회에 살면서 다른 경험을 하는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의 삶의 영역에 주목한다. 특히 가난한 흑인 여성과 직업을 갖고 있는 백인 여성의 대조가 두드

러진다. 사업가이거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흑인이나 1980년대의 집도 없이 가난한 백인들도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인종차별주의는 이러한 집단 안에서도 차이의 영역을 분명히 보여준다. 여성의 경험이 갖는 특성의 문제는 1980년대 영국을 고찰해보면 알 수 있다.

인종차별주의와 영국 여성

영국에서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들은 최하위의 직종,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계급의 수준 아래로 불규칙하게 고용된다. 흑인 여성과 소수민족 여성은 노동착취 작업장이나 가내노동, 세탁소, 반복노동 등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백인 여성들도 많다. 최근의 페미니즘 분석은 계급, 인종 / 민족, 성별이라는 '삼중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의 삶을 가시적으로 만들었다(Phizaklea 1983 ; Westwood 1984). 인종과 민족의 범주는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을 백인 노동자의 경험과 구분한다.

식민지 역사는 영국의 학파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래서 전후시기에 급성장해온 이민법의 인종차별주의 특징은 상당히 신비화된다. '이민자'는 터무니없게 흘러넘쳐서,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공할 자원도 부족한 나라와 문화를 궁지에 빠뜨릴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직업과 주택을 구하는 경쟁자였고, 국가교육의 질을 낮추고, 불결함과 질병, 마약, 거리폭력 등을 들여오는 사람들로 보였다. 국외추방과 본국송환이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이었다. 그렇지만 만약 식민지 역사가 적절하게 평가된다면, '이민의 문제'는 식민지 국민들을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의 원천으로 사용해온 오랜 역사의 결과로 보일 수 있다. 전후의 경기호황시기에 노동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입된 이민 노동자들에게 1970년대 경기 후퇴기에는, 그들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거주권이 제공되었다. 여기서 제한적인 이민법과 식민지 경제정책은 이민 노동자들을 영국의 확고한 노동력으로 만드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친족의 유대와 경제적 종속이 지속되었다. 이 노동자들과 함께 식민지의 인종차별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열등한 집단으로 규정되었고, 그곳에서 태어난 2세대들도 인종차별주의로 인해 자신의 동료와 평등하지 못하다. 백인으로 통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문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때, 같은 범주의 여성과 남성은 다른 범주의 같은 성과는 공유할 수 없는 공통된 이해를 서로 갖는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 핵가족을 여성억압의 중요한 근원으로 보는데(Barrett & McIntosh 1982), 흑인 여성들은 이것이 백인의 경험에만 한정된 가족 이해라고 주장한다(Carby 1982 ; hooks 1984). 가족과 가구구조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대단히 복잡해졌다(Bhabha et al. 1985). 흑인 여성들은 반드시 자신들 모두가 영국에서 가족과 함께 잘 지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억압은 분명히 존재한다(Wilson 1984). 여러 비판들은 가족이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족은 근친상간과 아동학대, 그리고 여성의 우울증과 물리적 고립을 발생시키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가족 안에서의 억압만을 보는 가부장제 이론은 다른 형태의 친족에 대한 경험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흑인 여성과 소수민족 여성의 뿌리는 거의 대부분 노예, 식민

정책, 이민노동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이상화된 일부일처제의 핵가족을 바람직한 형태로 보급하자고 주장하는 영국의 문화는 또한 값싼 노동력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의 가족파괴를 정당화한다. 미국의 노예가족은 고의적으로 파괴되었으며, 노예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떼어져 팔려나갔다(Lerner 1973). 이민노동력을 육성해온 영국의 식민정책은 가족구성원의 별거를 제도화하며, 돈은 있지만 성적 파트너가 없는 남성과 아무런 수입도 없이 방치된 여성들에게 매춘을 조장했다. 흑인과 소수민족의 투쟁은 벌거했던 가족을 결합시키려 했고, 이상화된 핵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가족을 유지하려 했다. 가정생활의 권리를 주장하는 흑인의 투쟁은 뉴웨이브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다(Ladner 1976 ; Bhabha et al. 1985). 친족은 여성의 힘과 지지의 근원으로 다시 구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주의의 제도화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를 가져왔다. 영국에서, 국가의료 서비스는 이제 최저임금을 받으며 가장 낮은 비숙련의 지위를 가진 흑인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노동이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이 훌륭한 의료수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인종을 계급과 민족으로부터 분리해내기는 어렵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흑인의 비판은 흑인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Bryan et al. 1985 ; Sheffield Black Women's Group 1984 ; Torkington 1984). 이것은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이 투쟁의 우선성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또다른 영역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피임과 낙태를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는 백인 여성의 투쟁은, 흑인의 재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낙태나 단산, 피임 등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흑인 여성들의 투쟁과 대조를 이룬다. 1970년대 낙태법안에 대한 백인 여성들의 주장은 이 요구가 자신들의 필요나 경험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었던 흑인 비판가들의 커다란 반대를 야기했다. 나는 7장에서 이러한 분리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영국의 사회생활 중에는 여기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또다른 영역 즉, 주택이나 교육, 법, 정책과의 관계, 정신병, 국가복지사업, 성 통제 등과 같은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다른 사회계급 여성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 국가의 여성들은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집단의 여성들과 공통된 이해를 갖기보다는, 같은 집단의 남성들과 더 많은 공통된 이해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 대한 여성경험의 특이성에 대한 증거이며, 여성의 공통된 억압 이론인 페미니즘은 문제로 남게 된다.

위에서 개괄한 것은 영국의 흑인 여성과 소수민족 여성들이 자신의 역사와 현재의 삶은 억압, 종속, 저항, 투쟁에서 흑인 남성(또는 그들의 민족이나 제3세계 집단들의 남성)과 이해를 공유하는 경험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든 여성들이 성차별의 억압에 의해서도 고통받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영국에서의 계급, 성별, 인종, 민족, 국가의 상호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비판은 여성억압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인 페미니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래서 페미니즘의

전략과 투쟁에도 역시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여성들이 공통된 이해로만 제한된다면, 여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사회변혁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세울 수 없다.

인종과 민족의 특이성 : 이론적인 문제들

만약 인종차별주의가 무엇인지, 사회 속에서 무엇이 인종차별주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다면, 페미니즘은 인종차별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의 공통된 이해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부상과 확장은 자본주의의 형태 속에서 제도화되는 인종차별주의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 만약 여성을 서로 구분하는 인종차별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주의는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비인간적인 차별의 형태로, 인종차별주의를 활용하는 사람이나 합법화하는 개인, 사회, 문화 모두를 위축시킨다는 증거는 많다. 어떤 인간의 변종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선천적인 우월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유전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는 권력과 지배를 위한 특수한 역사적 투쟁과 관계된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와 착취에서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는 이러한 역사를 모두 더하는 것으로 하나씩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이론은 구체적인 사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이론은 또한 인종, 민족, 국가의 차이에 대항한 투쟁을 여성해방과 연결시켜야 한다.

인종차별주의를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접근이 있다. 환원론과, 인종을 사회적 분리의 근원으로 설명하는 즉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환원론은 인종차별 억압에 대한 설명을 기존의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환원주의다. 다시 말하면, 인종차별주의가 생물학이나 생산체계의 산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성의 이론은 인종차별주의를 독립된 억압의 형태로 보는 것으로, 인종차별주의가 단순히 자연적 차이의 결과나 혹은 예를 들어 자본주의 부상의 결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것만의 분리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둘 다 난해한 추상수준과 철학적 문제들 때문에 설득력 있는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단결성을 위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 변형을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방향을 잘못 잡게 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인종차별주의가 계급이나 이외 다른 억압형태의 산물이라면, 직접 맞서 싸워야 할 것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 계급이나 다른 형태의 억압이 된다. 또 만일 인종차별주의가 독립적인 억압체계라면,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른 형태의 지배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에도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가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은 2장에서 설명한 여성억압이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5장에서 설명한 궁극적으로 계급억압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환원론자들은 생산체계를 어떤 사회에서나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억압 형태의 근본적인 결정인자로 본다. 인종차별주

의에 대한 설명은 환원론의 일반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모순을 설명해야 한다. 흑인 여성들은 똑같이 억압받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인종, 계급, 민족, 국가 등이 서로 상호교차되는 모순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청소하는 여성을 고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미국의 중산계급 흑인 여성은 인종차별주의의 사회적 영향을 경험할지도 모르지만, 남편이 영국인이기를 거부할 때조차도 국가에 의해 그 남편의 의존자로 취급당하는, 영국에서 실업자로 사는 방글라데시 여성과는 구조적으로 지위가 같지 않다. 서구에서,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인종차별주의로 불이익을 당하지만, 흑인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른 모든 사회적 차별을 초월하는 고정적이거나 보편적인 차별의 범주는 아니다.

인종차별주의를 계급억압으로 환원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왜 인종차별주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논점을 교묘히 회피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주의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를 구조적인 본질로 만드는 것은 자본에도 국가에도 모순적이다. 인종차별주의는 흑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규정하며, 노동계급을 분리시키지만, 또한 착취를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분명하게 드러내며, 이것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만들게 된다.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요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주의는 흑인과 이민 노동자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만,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 계급분석은 남아프리카 여성이라는 다른 범주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의 모순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인종차별주의가 여성의 삶에서 갖는 다른 의미도 설명할 수 없다.

인종차별주의가 계급억압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주장의 또 다른 이유는 폭력이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느냐의 문제에서 계급억압과 인종억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시간의 노동에 의해서만 생산력이 증가될 수 있었고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던 초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으로 죽어가거나 불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자본에도 한계가 있는 방법이며, 노동자들은 소모되어갈 것이고, 생산력도 하락할 것이다. 자본은 생산력의 향상을 위한 다른 방법을 개발해야만 한다. 그것은 기술의 변혁을 통한 것이다. 한편으로 인종차별주의는 멸종과 대량학살에 이를 수 있으며, 흔히 그렇게 되어왔고, 정복당한 인종이나 민족집단의 사람들은 값싼 노동력의 기능을 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며, 혹은 직접적인 노동수요보다도 넘치는 노동력으로 남게 된다. 폭력이 가해진다는 사실은 미국의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을 분리시키며, 이것은 계급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를 독립된 형태의 억압으로 보는 입장은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는 인종차별주의의 기원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의 기원이 모호하게 남아 있다 해도, 오늘날 전세계의 인종차별주의 현실은 압도적이며,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을 분리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종차별주의는 계급억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요소들과 분리될 수 없고, 인종차별주의의 기원은 모호하게 남을 수 있다. 그것은 전 역사과정에서 여러 다른 상황의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형태의 지배와 긴밀히 상호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의 자율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Brittan & Maynard 1984 ; Gilroy 1987). 이것은

내가 인종차별주의를 독립된 형태의 지배와 억압으로 보는 입장에 찬성한다는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주장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다른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러한 투쟁을 자본주의에 대항한 더 큰 투쟁의 부분으로 여기는 실수를 각오하고서라도 인종차별주의와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종차별주의가 다른 사회적 과정, 구조, 이념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다룰 수는 없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연합시키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는, 그리고 남성을 연합시키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이 갖는 상호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매우 실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계급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입장(standpoint)을 가지고 있다는 케인(Cain 1986, 5장을 보라)의 주장은 아마도 인종이나 민족의 입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입장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장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근거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여성들은 인종차별주의의 이익과 결과를 다르게 경험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페미니즘은 계급, 인종, 성별의 일반적인 하나의 관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인종차이를 포함한 여성들의 여러 다른 입장들을 결합할 정확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바라 스미스(Barbara Smit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mith & Smith 1983 : 126).

> 내가 정말로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인종, 성, 계급, 성적 정체성 모두를 단 한 번에 다루려는 것이 더 급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급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인 페미니즘에 대한 흑인과 제3세계의 비판은 인종차별주의 사회에서 백인 여성의 역할을 그들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서 이해하게 되면서, 백인 여성들의 인종차별주의 이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줘왔다. 이 문제는 여성의 억압경험에 근거한 페미니즘 입장을 이론화하는 방법론적 문제를 드러낸다. 만약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갖지 않고 인종차별적으로 행동한다면, 페미니즘 입장에서 만들어진 지식은 모든 서구 여성의 삶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 개념을 차단하기 시작할 것이다. 플랙스(Flax 1983 : 321)는 페미니즘 입장은 인종에 따른 분리를 민감하게 인식해야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입장은 현재로서는 여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계급이나 인종에 따른 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최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주의 문제 때문에 백인 페미니스트들과 부딪힌다. 인종, 민족, 국가에 따른 분리에서 나타나는 권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은 단 하나의 장에서 적절히 개괄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페미니즘이 인종에 따른 분리를 넘어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면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 미래는, 성별의 입장에서 나온 여성억압이 계급이나 인종, 민족, 국가 등에 따른 분리를 넘어서 여성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이해

를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리와 같은 상징이 필요하다

보편적 이론이 갖고 있는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가장 심하게 비판받았던 뉴웨이브 페미니스트들이 비판의 관점에서 오늘날 똑같은 형태의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에 대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심각한 분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모라가는 오히려 『이 다리는 나의 등이라고 불린다(*This Bridge Called My Back*)』(Moraga & Anzaldua 1983)의 두번째 편집서문에서, 국제적인 여성운동에 아직도 존재하는 많은 장애물을 설명한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살아남기 위해 여성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다리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린다.

여러 다른 계급, 인종, 민족집단, 국가 등에 속해 있는 여성들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인종, 민족, 국가 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의 발견을 의미한다. 흑인 비판가들은, 성별억압이 남성이 그 존재를 인식할 때까지 변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종억압도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에 자신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종차별적인 이념과 실천에 대항한 행동을 할 때까지 변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백인지배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넘어서서, 여성들은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계급, 인종, 민족, 국가해방투쟁, 성별 등의 명백한 억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백인 여성들이 차별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사소한 것에서부터 육체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인종차별주의를 그들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대항해야 함을 의미한다(Pence 1982).

여성들의 인종차별주의 인식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이 실현될 수 없다. 쇼핑이나 양육에서 약간의 예외적인 도움을 주고서 자신을 '새로운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부딪히고 있는 인종차별주의가 실천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극히 제한된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백인 여성들은 아주 많다. 이제 백인 여성들이 해야 할 정치적 작업은 아주 많다. 그렇지 않으면 백인의 인종차별주의를 다루어야 하는 모든 부담은 다시 흑인 여성과 소수민족 여성에게 되돌려질 것이다.

또한 페미니즘은 흑인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환원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단순히 학문적인 지적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억압자들에게 그들의 억압을 이론화하는 방법에서 어떤 종류의 말이든지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다'(Brittan & Maynard 1984 : 210). 여성이 성별, 계급, 인종의 분리를 경험하는 여러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를 모든 서구인의 경험에 본질적인 것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성들 사이에 어떻게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7

여성과 여성
문화, 이데올로기, 성

여성들이 계급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거나, 인종주의를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구조화하고 인종차별화하는 수많은 분리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인식하고 있다. 문화, 이데올로기, 성 등은 여성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판적인 영역들이다. 그것은 모두 사회이론에서 광범위한 문제가 되는 영역이며, 여성들의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이론적 담론에 따라 여러 다른 의미를 갖는 논쟁적인 용어인 그것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나는 페미니즘의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다. 나는 그 개념의 유용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적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문화와 성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조화되는 방법은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때 특히 중요하다. 여성들이 신념이나 관습, 종교, 성 등에 의해 어떻게 분리되는지, 또한 이

분리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그 권력을 부여받는지 등에 대한 설명 없이,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여성분리의 근원은 논의될 수 없다. 페미니즘은 여러 측면으로 분리되어 있는 여성들이 억압에 대항한 투쟁에서 어떻게 공통된 정치적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차이가 뚜렷해 보이지만, 여성들이 그 뚜렷한 차이 이면에 존재하는 공통된 이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대립적인 물질적 이해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분리되는 또다른 경우——이 경우 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갈등적인 이해를 가진다——에는 정교한 선이 존재한다. 여성들은 분리되는 이해뿐만 아니라 공통된 이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인식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떤 차이는 다른 차이보다 더욱 심하게 분리되어 있고, 여성들이 그 분리를 의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다는 가능성 이외에도,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 사이의 분리가 더욱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엇이 바람직한 형태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서구의 관점, 페미니즘을 소개해왔던 이 관점은 다른 문화권의 여성들에게는 인식되지 않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것은 페미니즘이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여성억압의 관점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더 나아가 혼란의 근원은 더 좋은 것에 대한 관념을 야기하기 위한 여성들의 능력에 있다. 최근의 역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사회의 여성들이 남성에게 종속되어왔기 때문에, 이념이나 교육, 독립

적 사고 등에 대한 여성의 접근은 남성에 의해 거의 제한되고, 조정되고, 통제되어왔다. 여성들의 공통성과 분리에 대한 여성의 관념을 보면서, 우리는 남성 이데올로기의 지배가 다른 여성과의 공통된 이해에 대한 여성의 개념을 얼마나 제한하는지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 나는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여성들이 자기자신과 서로를 위해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해온 수많은 증거들이 전세계에 걸쳐 존재하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을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보수주의의 힘과 종교적 복종에 종속당하고 있다. 나는 문화, 이데올로기, 성은 여성들을 분리하는 근원이며, 그것이 페미니즘 정치학에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문화

문화라는 용어에는 대중적으로도 사용되고 학문적으로도 사용되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단 한 가지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이론에서, 문화라는 용어는 특정 사회에 고유한 지식이나 신념, 관습 등의 경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왔다. 보다 최근에 특히 197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다시 발전하면서, 보다 비판적인 문화 개념이 발전되었고,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지적되었다. 나는 문화를 어떠한 주어진 사회에서 사람들이 알고 믿는 것에 관한 것으로 느슨하게 정의한다. 이것은 문화라는 용어는 어떤 제한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전통적 개념인 '상식'이라고 그람시(Gramsci 1971)가 일컬었던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 개념의 복합성과 계속된 이론적 논쟁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다른 여성들이, 예를 들어 자유나 성적 표현, 친족의 의무, 개인의 자율성 등에 관한 여러 다른 문화적 가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운동인 페미니즘으로서는 하나의 문제이다.

페미니즘은 자본주의가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문화까지도 지배하고 변형시키는 기간 동안 서구문화 속에서 인식되어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차적인 교육을 받아온 여성들은 이제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교육받는다. 그들은 흔히 언어(즉 번역이 문제되지 않는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과 같은 식민주의 언어)를 공유한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문학을 읽을 수 있고 서로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많은 문화적 가정이 공유되고, 의사소통이 이러한 공통된 가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페미니즘은 쉽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 대다수 여성들에게 공통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면서 제기된다. 복합적인 사회에서, 동질성에 대한 이념이 국가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선전된다 하더라도, 신념의 획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념과 관습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획일성의 결핍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지식만이 그들 문화의 상식인 사람들에게,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확산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문화적 위치를 많은 여성들의 문제로 만들었다. 그람시(Gramsci 1971 : 323)는 언어, 세계에 대한 상식, 신념, 미신, 의견,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철학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왜 믿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페미니즘은 비판적인 의식형태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사회질서를 가부장제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은 과학과 종교적 지식을 포함한 기존의 신념, 관습, 실천에 대한 비판이다. 페미니즘은 억압당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여성들, 자신의 신념이나 그 신념을 지지하고 있는 권위를 문제시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교황이 페미니즘에 반대하여 터놓고 말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도인 페미니스트들의 모순을 드러냈다. 페미니즘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친족의무나 성적 문제의 현실, 과학지식, 여성성의 본질, 남성의 요구에 봉사하는 여성의 복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재평가를 요구한다. 이런 비판적 접근은, 아마도 단지 그 지역의 신념과 관습에만 익숙한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보다는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존재하는 일련의 신념에 더 익숙한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정상적인 교육의 결핍을 지성의 결핍이나 여성이 원하는 것을 아는 능력의 결핍과 혼동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념과 현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립된 농촌 여성들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20]

또한 자신의 익숙한 신념을 금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서구 여성들, 그리고 결혼, 가족, 종교, 이성애가 위협당하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느끼는 서구 여성들도 페미니즘에 상당히 저항한다. 페미니즘은 다른 문화의 여성들을 통합해내기보다는 여성들을 분리시키는 근원이 되었다. 그것은 '적합한' 여성다운 여성에 대한 문화적 규정의 근거에 도전한다. 이것은 다시 허위의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여성들 사이의 문화적 분리가 공통된 이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얼마나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여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분리하는 본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만약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전세계의 모든 여성들과 유사한 정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그들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20) 멘추(Rigoberta Menchu 1984)는 자신의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퀸치 인디언이 효소한 언어의 고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주 감동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과테말라 외부의 동조자들에게 퀸치에 대한 지지를 구하기 위하여, 스페인어(적의 언어로 보이는)를 배우고 퀸치 문화의 비밀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형오를 극복해냈다.

문화적 상대주의

서구 페미니즘에 대한 제3세계의 비판은 여성억압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설명방법을 다시 생각하도록 요구했다. 제3세계 여성의 다양한 상황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보다 일반화된 가정에 도전한다. 첫째로, 여성억압은 어디서든지 실제로 똑같은 현상인지, 혹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억압의 형태를 각각 정의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둘째로, 모든 제3세계 여성들이(그리고 함축적으로는 모든 곳의 여성들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억압에 대항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가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여성들은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고도 인간으로서 완벽한 존엄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역설적이게도, 할아버지들이 마오리족 전체를 식민지화한 것과 똑같이,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땅이나 문화, 언어를 위해 투쟁하고 넘나간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봄으로써 유일한 공헌을 말하지 않으면서, 마오리족 여성들을 계도하려고 시도한다(Te Awekotuku & Waring 1984: 487).

이러한 문제는 변혁을 위한 페미니즘 전략을 만들기 이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여성해방의 정치학을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열어둔다. 만약 여성억압이 그 형태나 투쟁, 해결양상에서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이라면, 여성들이 어떻게 보편적인 정치적 실천을 전개해나갈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덫과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억압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페미니즘 관점만이 존재한다는 주장, 이 둘 사이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해석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제3세계 여성들이 서구의 개인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인도의 푸다(purdah)[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휘장]나 여성할례, 일부다처, 조기혼인 등과 같은 현실은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제3세계 여성들 자신은 억압당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서구 여성들은 푸다나 여성할례, 일부다처, 조기혼인 등과 같은 관습을 억압적인 것으로 규정할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 여성들은 실제로 억압당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세계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을 조정하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실제로, 여러 종류의 상대주의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분석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과학적 지식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실제로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도덕적으로 더 좋고, 최상의 지식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문화적 상대주의에 호소하려는 것은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단순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여성들의 삶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은 국제적인 정치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이 가져야 할 토대를 파괴한다. 만약 여성억압에 대한 공통된 본성이 문화를 초월한 공통된 비판적 의식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의 정치적 전략의 공통된 근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는 특히 여성할례의 경우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성할례

여성할례의 문제는 현실적인 대립 속에서 여성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서구 페미니즘에 의한 여성할례의 금지는 오히려 분리를 조장해왔다. 서구 페미니즘은 여성을 억압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음핵절제(clitoridectomy)와 음부봉쇄(infibulation)를 지적한다. 음핵을 제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의 성적 즐거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음부봉쇄는 여성의 행복에 관계없이 남편만이 아내에게 성적접근을 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훨씬 지독한 방법이다.[21] 나는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여성할례(female circumci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은 더 표현적인 용어인 생식기 절단(genital mutila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할례를 변화시킬 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21) 음핵절제는 음핵의 부분을 약간 제거하기도 하고, 생식기 전체와 주변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한편 음부봉쇄는 제거된 후 월경의 출혈과 소변이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만을 남기고 꿰매는 것을 말한다. 음부봉쇄된 여성은 남편과의 성관계와 출산을 위해서는 다시 잘라서 열어야만 한다(Morgan 1984 : 764-6 ; Thiam 1986).

현실 속에서 상식으로 생각되게 하는 문화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할례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여성에 의해서도 주장되고 실행된다. 이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음핵절제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거나, 할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저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할례가 여성에게 성적 즐거움을 상실시키고, 정신적 고통과 질병을 야기하며,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el Saadawi 1980). 그러나 이슬람과 아프리카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무차별적인 금지에 대해, 특히 데일리(Mary Daly 1978)의 분석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는 여성의 할례를 다른 측면, 예를 들어 식민지주의와 세계적 자본주의의 발전에 위협받는 아랍과 아프리카의 문화적인 특성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 외부인이 여성할례를 금지한다면, 그들은 한 문화, 그리고 그 문화의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이슬람 여성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으로 여성할례를 지적한다면, 그들 또한 자신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종교를 포함한 문화 전체를 공격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22]

여성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근거처럼 보이는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가장 잔인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지적에서조차도, 여성들은 문화적 정체성에 의해, 그리고 지배문화와의 관계에서 갖는 다른 상황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문화를 자신의 용어로 받아들이도록 남겨놓고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공통된 기반도 제공하지 않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봐줄 필요도 없이, 이해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우리를 남겨놓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든 페미니즘이 할례와 음부봉쇄를 여성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 여성들은 모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몸에 행해지는 성적 훼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남아 있는 것은 실행자와 음부봉쇄를 당한 여성들이 이러한 현실에 반대하고 그것이 가져올 해로운 결과를 인식하면서, 이 조상 대대로의 관습이 끝나기를 원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그들의 언어를 일상생활의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Thiam 1986 : 85).

디암(Thiam)의 관점은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문제를 제기한다. 할례에 반대하는 행동은 할례를 당했던 여성들, 딸이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할례에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반대해야만 하는 가부장제의 메커니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페미니즘 이론이다.

수단에서 최초의 여성 외과의사 자격을 받은 토비아(Nahid Toubia)는 여성할례를 종속의 형태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의 재생산 기능은 유지시키면서도 여성의 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Toubia 1985). 그러나 토비아는 그것은 여성할례만의 고유한 총체성 속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는 형태의 종속이라고 주장한다. 할례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각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성적 억압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대화된 사회는 현실의 사회적 변혁 없이 단순히 할례를 보다 위생적인 상태로

22) 여성할례는 이슬람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실행되어왔다.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쳐, 여성의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이슬람의 현실은 이슬람인에 의해 합법화되어왔다.

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을 뿐이다. 토비아는 모든 형태의 여성 종속과 맞서지 않고는 할례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집트처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화된다거나, 혹은 에리트레아처럼 정치적 의식이 급부상된다거나 한다면, 할례의 변화는 뒤따라올 수 있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이슬람의 투쟁을 인식한다거나 경제나 국가, 계급, 여성투쟁이 종교로 합법화되는 복잡함을 인식하기보다는, 이슬람 사회를 여성억압적인 사회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Eisenstein 1984 : 142). 바드리는 수단 여성들의 변혁투쟁을 설명하면서, 여성할례에 대항한 수단 여성들의 연구를 설명하지만(Badri 1984 : 656), 수단 여성에 대한 '외국 페미니즘의 보조'를 위한 제안서에서는, 재정적 지원과 발전임무를 수행할 훈련된 도시 여성의 도움을 일차적으로 요구한다.

아랍과 다른 이슬람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것이 다른 곳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과 반드시 똑같은 형태의 억압은 아니다(그리고 이슬람 사회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흑인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아랍인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 속에서 공유된 억압의 근거로 구조화되어야만 한다(Hussein 1984; Mernissi 1985). 엘 사다위(El Saadawi 1980)는 여성할례는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통제 체계의 일부분이지만, 또한 부성의 필요성 속에서, 경제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성억압에 대한 투쟁은 여성의 계급적 지위에 의해서도 복잡해지며, 그리고 식민지 권력이 서구의 문화적 지배를 용인하면서 여성해방을 규정하는 모순된 상황에 의해서도 복잡해진다.

여성할례는 여성억압에 대한 범문화적인 일반화에 도전하는 예이다. 이러한 일반화는 남녀(그리고 여성들 사이) 관계가 여러 사회에서 얼마나 다르게 전개되어왔는지 그 방법의 복합성과 모순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는 또한 투쟁 속에서 여성의 공통된 이해를 분열시키는 다른 사회적 분리와 상호관계된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은 또한 서로를 대립하게 만드는 계급, 민족, 국가주의, 종파주의 등에 의해 분리된다. 우리 모두 양성관계가 언제, 어떻게, 왜 여성에게 억압적이게 되었으며, 그 억압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물을 수 있다 해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지 않다. 그것은 틀림없이 각자의 경우에 근거해서 규정되고 경험적으로 만들어지며, 그것은 분명 대단히 힘든 임무일 것이다. 문화적 차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성적 억압의 정치학이 상당한 정도로 공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해방의 정치학은 다른 문화의 억압적 측면을 인식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개인주의와 성적 자유를 비판하는 제3세계 여성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성경험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만으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이데올로기 개념은 이념의 힘이 놓여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여성으로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한다면, 남성에 의한 어떤 형태의 종속이나 혹은 남성의 이해가 지배적인 사회구조와 과정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공유해야만 한다.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이데올로기적 지배

이데올로기는 문화보다 훨씬 더 문제시되는 개념이다. '이데올로기란 아마도 사회과학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다의적이고 알 수 없는 개념 중의 하나일 것이다'(Larrain 1979 : 13).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개념이 다른 여성과 이해를 공유하는지 아닌지를 여성들이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왜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그 개념은 여성이 계급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정도로만 제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와 같이 일련의 특별한 이념에 관한 것으로 느슨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회의 중요한 모순을 감추도록 작용하는 이념, 그리고 지배계급의 이해를 위해 작용하는 이념을 의미하는 마르크스의 규정이 특히 유용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지식과 구분된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신비화시키지만, 지식은 사회, 정치, 경제구조의 본질과 실제로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들을 드러낸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 해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어 왔고,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왔다. 상당히 과장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중요하게 기여한 것은 (어쨌든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사용하는 유일한 이데올로기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지배계급의 이해가 작용하는 물질적 실재에 대한 특정한 표현을 지배계급이 어떻게 전파하는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데올로기와 인간의 물적 존재상태의 관계를 강조했던 알튀세에 의해 발전되었다(1969, 1971). 이런 관점에서 공유된 이해에 대한 인식의 결핍을 허위의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유된 이해는 또한 본질적이고 물질적인 이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허위의식이나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사회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생산체계에 나타나는 모순된 이해를 감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종속된 계급의 구성원이 그들의 실질적인 이해가 놓여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침투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람들이 생산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의 형태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신비를 벗겨내는 마르크스주의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신비를 벗겨내는 페미니즘 사이에는 분명한 평행선이 존재하는 것 같다. 페미니즘 지식은 사람들에게 가부장제 이념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며, 가부장제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며, 합법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또한 그것은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해를 갖는다면(5장과 6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여성들이 다른 여성과 분리되는 이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허위의식만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데올로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 한다면, 마르크스주의 지식이나 페미니즘 지식이 모두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개념은, 문화는 단순히 사람들이 우연히 믿

을 수 있는 일련의 자율적인 이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무엇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배이념은 (이것이 흔히 비일관적이고, 경쟁적이며, 모순적인 방법이라 해도) 권력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는 생산체계가 조직되는 방식과 남성지배적인 성차별의 작용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개념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왔지만, 권력의 이념과 실천의 관계가 상세히 설명될 수 있다면, 그 개념은 아직도 실천적인 페미니즘 정치학에는 유용한 것이다. 사회에서의 지배이념은 지배계급이나 지배적 성차별의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이 왜, 어떻게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고 여성의 투쟁에 단순히 적용할 수는 없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개념은 자명한 용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토되고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이념의 차원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처음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역사에 일관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개념화했지만, 이데올로기는 고정된 현상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변화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다른 상황에서 발견된다면, 그 차이뿐만 아니라 유사성도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 이데올로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른 여성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신비화시키는 이데올로기는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한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가부장제가 보편적이라는 가정이 설명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적절한 제한과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 이데올로기

위에서 사용한 의미로 이데올로기는 일련의 관념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를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윤리'는 노동자가 생산가치 이하의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처럼 만든다. '가족 이데올로기'에 관계된 다른 이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분리를 의식할 수 있게 한다.[23] 첫째, 가족과 친족구조는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서 경험될 수 있다 (Beechey 1985).

이러한 관점은 특정한 가족과 가구형태를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으로 합법화하며, 여성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대부분의 삶을 가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선교와 식민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해, 일부일처제 핵가족을 자연스럽고, 알려진 바람직한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가족 이데올로기는 식민지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가정생활에 대한 이러한 이념들이 확장되면, 그것은 하나의 형태를 권장하고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가족구조의 복잡한 역사를 볼 수 없게 하여, 현재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나 가구의 범위를 볼 수 없게 만든다. 그 결과는 전형적으로 '좋은' 가족에 순응

23) 알튀세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아버지-어머니-부부-아동,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 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1971 : 190).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영국에서 국가의 복지법과 이민법에 의해 영향받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둘째로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가정의 영역으로 합법화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공적 조직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족집단에 성실하도록 요구하며, 다른 여성들과 갖는 공통된 이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Whitehead 1984 : 9). 여성으로서 공유된 의식을 위한 전망은 가정의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감소된다(Bujra 1978).

페미니즘은 가정생활에 대한 서구의 많은 지식과 가족에 대한 확신을 이데올로기라고 폭로함으로써, 여성의 공통된 이해를 드러내는 데 영향을 주었다. 가정에 한정된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여성들이다. 가정이라는 영역을 깨고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단호한 노력과, 노동계급 여성이나 농촌의 여성들의 경우 가정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여러 증거들은, 무엇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념들에 도전해왔다. 가족 이데올로기는 또한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정의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서로 분리시킨다. 영국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가족이나 '이민자' 가족, 편부가족 등은 일탈적인 가족으로 규정되며, 그리하여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이념의 분리는 가속화된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분리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페미니즘에서 이데올로기는 특별한 문제이다. 서구 페미니즘 이념은 세계를 지배한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발전되었다. 페미니즘은 비판적인 의식의 형태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이면에 있는 본질적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도 인간일 뿐이며, 우리는 우리 문화 안에서 이용가능한 사고의 범주로 우리의 문제와 그 해결을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페미니

즘이 남성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족구조의 변혁이 서양에 이익이 되는 변화로 보여지고, 서구 여성과 제3세계 여성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모호할 때, 또는 다른 여성의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지 않을 때, 이럴 때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 문화적 차이가 종교에 의해 규정되게 되면, 페미니즘의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종교

페미니즘에서나 사회과학에서나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동의된 규정은 없으며, 나도 여기에서 종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화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서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유태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의 이미지로 종교를 협소하게 규정한다. 동양에서, 그리고 자연을 영적으로 존중하는 보다 작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념에 의해 삶을 질서지우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종교를 규정하면서, 페미니즘은 영적인 경험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여성의 경험을 분리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특정한 종교, 종파에 의해서, 또는 실제적으로 다른 것을 신봉하지 못하게 하는 제사에 의해 사회화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종교적 동맹을 위해 죽어갔다. 그렇지만 종교적 분리의 본질은 여러 다른 사회의 종교적 발전으로 동일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교도 여성과 구교도 여성의 분리는 북아일랜드, 우간다, 브라질 여성의 분리와 똑같지 않은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 분리는 계급구분과 투쟁의 역사발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외부로부터 정복, 국가권

력의 발전 등으로 다르게 상호융합되어 있다. 브라질에는 국가의 이해에 동조한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들과 동조한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존재한다. 북아일랜드의 신교와 구교의 격렬한 갈등은 영국의 아일랜드 정복, 두 종교 집단의 계급적 기원, 국가교육에 깔려 있는 종파적 근거 등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우간다에서 종교와 정책의 상호 혼합은 프랑스에서 전파된 구교와 영국에서 전파된 신교 사이의 전투에 이르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 교육, 정당정책을 통한 정치적 종교동맹의 발전을 가져왔다.

중요한 세계종교들은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복종과 봉사를 요구한다. 근본주의자인 이슬람인들은 그들만의 페미니즘,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자유를 '여성이 신자라면, 그녀는 코란에 따르기를 원할 것이며,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다'라고 해석한 살리베고빅(Melika Salihbegovic)과 같은 페미니스트를 만들어냈다(Toynbee 1988)[24]. 이러한 억압과 자유의 관점은 서구문화의 관점과 양립가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보다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에 따른 분리는 페미니즘의 국제적 운동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특정 종교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실천으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종교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중동의 종교,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남성에게는 우호적이며, 여성을 일차적으로 어머니와 아내로 가치지운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1970년대 서구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외관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교를 일차적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보려는 경향을 가졌다. '종교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가부장제를 합법화하며, 가부장제는 종교라는 거대한 우산 / 덮개 아래 존재하는 작은 분파이다. 그것들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것이다'(Daly 1978 : 39).

가부장적 종교는 남성의 요구와 소망에 복종하라는 압력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모건(Robin Morgan 1984 : 28)은 '자매애는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의 공헌은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가장 격렬한 고발'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초기의 신념체계가 여성에게 보다 더 우호적이었고, 여성다움의 상징이 점차로 억압되어졌을 가능성을 연구했지만(Pagels 1983), 그러나 그 억압은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기독교와 유태교를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따른다. 그들은 다른 종교는 거의 무시한다. 이러한 입장은 퀘벡과 프랑스의 가족을 비교연구한 파미 에이드와 로린 프레네트에 의해 날카롭게 비판되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는 다른 사회에서 교회가 작용하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로마 가톨릭 사회에서, 교회는 학교나 병원, 사회복지 등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었던 것이다. 교회는 또한 여성을 매개로 해서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Fahmy-Eid & Laurin-Frenette 1986). 그러므로 여성의 삶에 대한 종교의 영향은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것이다.

종교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만 간단히 처리하는 것은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이념이나 신념, 실천, 제도 등을 간과하는

24) 살리베고빅과 한 인터뷰에서 토인비는 이러한 주장을 분명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서구문화의 관점에서 그것을 경멸하였다.

위험에 빠지게 된다. 모든 종교가 여성과 대립한 남성의 이해를 위해 작용한다고 해도, 각각의 종교가 갖는 신념과 조직은 매우 다양한 것이다. 종교는 사생활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근본주의 종파에서부터, 막연한 제휴나 특별의식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떤 근본주의 종파는 혁명 후의 이란에서처럼 국가권력을 독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파는 미국의 신교도나 유태교처럼 사회생활의 주변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는 세계의 수백만 여성들의 정체성과 문화에서 지배적인 요소일 수 있다. 만일 종교가 여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생활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운동인 페미니즘이 종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여성들을 집단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여성들이 신교도나 구교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치적으로 강요당하는 북아일랜드에서, 페미니즘의 활동이 이러한 분리를 초월할 수는 없다. 로프란(Loughran 1986 : 77)은 '페미니스트들은 분리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서로 배타적인 전략으로 나누어진 종파의 반대편을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종교가 허위의식의 형태라는 것은 계급이나 인종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주장될 수 있다. 종교는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감춘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경제, 정치조직의 상호작용을 숨긴다. 그렇다면 종교적 권위에 복종하는 여성들은 외관상 다르게 보이는 신념과 실천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자매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여성들의 영적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적 차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종교가 허위의식이라는 주장이 가진 문제는 그것이 서구의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인 페미니스트들을 우월한 지식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Smith 1979 : 158을 보라). 만약 종교가 허위의식이라면,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과의 영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만 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서구 페미니스트들(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문화적 정체성이 종교적 정체성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여성들에게는 불분명한 것이다(Chester 1984 : 287).

최근의 몇몇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오늘날 이슬람교가 여성에게 억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구 페미니스트에 의한 이슬람교 금지는 거부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슬람 사회의 여성억압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임무에 이르게 되었다(Hussein & Radwan 1984 ; Stowasser 1984). 이러한 논자들은 오늘날의 이슬람교가 갖는 억압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회문제에서도 이슬람교도의 태도에 순응하는 여성들의 태도는 아랍 지배계급의 총체적 지배를 영구화하는 수단이 된다'(Salman 1978 : 29). 그러나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이슬람교와 남성지배를 구분한다. 그들은 정화된 이슬람교 안에서 여성해방을 찾으며, 이슬람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비판된다. 타바리(Tabari 1982 : 18-19)는 이슬람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이슬람교에 대한 가장 혁신적인 해석조차도 실제적인 여성해방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슬람교가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종교 안에서 투쟁을 시도하는 비슷한 과정이 인도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Dietrich 1986). 또한 유태교와 기독교에도 투쟁이 존재하며, 이들은 종교에 대한 남성의 가부장적 전유와 가부장제를 정화할 수 있다는 더 순수한 종교해석(이러한 노력들이 흔히 연합보다는 분열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을 구분하려고 시도한다.

조직화된 종교는 또한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최고위층의 사람들과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일반 대중들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이론의 발전과,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농부들 곁에 사는 수녀와 사제의 적극적인 역할은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디트리히(Dietrich 1986)는 그 해방이론은 아직도 페미니즘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에서 종교는 문제 있는 요소가 된다.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여성들에게 더 억압적이지만, 모든 종교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간단히 처리하는 것은 여성의 복잡한 상황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다.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교회제도를 여성의 분리된 영적 이념과 실천으로 처리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비추어서 조심스럽게 재한될 필요가 있다. 종교는 여성을 낮게 평가하고 남성에 대한 종속을 합법화시키지만, 또한 자기존중이나 영성(靈性), 정체성, 목적 등과 같은 다른 필요와 접목될 수 있으며, 페미니즘은 이것에 조심스럽게 도전해야만 한다.

여성의 선천적 열등성을 설교하거나 여성과 대립해서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종교가 페미니즘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종교적 신념이 허공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제도는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되고 적용되어왔으며, 다른 사회제도,

특히 친족, 교육, 국가 등과 항상 밀접하게 상호융합되어왔다. 다른 사회제도와 함께 종교는 모성, 양육, 범죄 등의 의미를 만들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하도록 해왔다. 그렇다면 종교를 단순히 자본주의나 남성의 권력을 반영하는 수동적인 이데올로기로만 볼 수는 없다. 종교적 이념과 실천, 제도는 모순적인 방법일지라도 여성의 삶, 정체성, 가치의 의미를 형성하며, 그래서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정당화하고 두드러지게 한다.

페미니즘이 가진 문제는 여성을 분리시키는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1) 다양한 종교가 정치, 사회, 경제생활과 통합되는 방법에서 나타나는 억압적 특징을 명확히 설명한다.
2) 다른 종교가 남성의 지배를 어떻게 합법화하는지 상세히 분류한다.
3)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의 융합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모든 종교적 신념과 실천을 금지하기 위해 다른 여성들을 가르치려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결방법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최소한 어떤 공유된 실천을 가지고 출생과 죽음을 축복하기를 원할 것이며, 삶의 의미를 믿고 싶어할 것은 분명하다. 극심한 빈곤이나 서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만이 이런 경우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며,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첫번째 단계로, 페미니스트들은 무엇이 종교를 억압하는지 의견을 일치시켜야 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투쟁전략을

충분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종교의 신념과 제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것의 변화가능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종교의 외부에도, 인간의 신념이나 그 신념과 여성 삶의 질의 관계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카더(Kader 1984 : 160)는 '여성들이 종교의 어떤 측면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의 어떤 측면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정보가 없다면 페미니즘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억압당하는 곳 어디든지, 종교는 페미니즘이 묵과하지 않는 억압적인 사회적 실천과 통합되어 있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종교의 문화적, 영적 가치는 종교의 분리성에 의해 반박된다.

성

성은 뉴웨이브 페미니즘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여성의 삶에 대한 남성중심적 지식의 신비를 벗겨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성이 여성들의 분리의 근원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은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을 마지막에 설명한다.

1)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반적 권력을 개념화한 성은, 많은 서구 페미니즘 이론가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2) 성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남성에 의한 공통된 억압을 공유한다는 뉴웨이브 페미니즘 주장의 기반이 된다.

3) 성은 여성들 간의 물질적 분리를 고찰한 후에, 공통된 억압의 기반으로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성적 행동과 신념은 계급과 인종에 의해 조정되고, 문화로 구성되며,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인 사회적 활동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유전인자를 공유하고, 그래서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공통된 육체적 특징을 갖지만, 우리는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지며, 이것으로 서로를 구별하게 된다. 우리의 성적 행동은 여러 다른 사회 속에서, 또한 분리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학습된다.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성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남녀간의 관계에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범죄)의 관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성의 정치학의 존재와,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통제 정도, 남성 성폭력의 출현 등을 드러내는 것은 페미니즘 이론을 강하게 만든다.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의 양상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페미니즘은 대단히 많다. 여성의 투쟁을 통해, (비록 더디고 부분적일지라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공적인 생각은 변화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의 성에 대한 사고가 남성폭력이나 성의 사회적 구성을 넘어서서 여성의 성적 구분이나 여성의 성권력과 성적 즐거움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고찰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클라크(Clark 1981 : 31)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성('sex'와 'sexuality')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제는 없지만, 또한 이것 만큼 우리를 대립되고 왜곡된 고집센 관점에 묶어둘 주제 또한 없다'고 논평한다(1981 : 31).

여성의 성의 본질, 성관계에서의 권력, 성적 자유에 대한 여성

의 권리 등에 대한 불일치는 페미니즘 활동가들을 더 깊고 심각한 분리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특히 최근에 영국과 미국의 페미니즘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성적 권력과 즐거움이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중요한 영역이 되면서, 성적 즐거움은 억압에 대한 투쟁의 순서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여성들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앞장에서 논의했지만, 그들은 성을 단지 인간경험의 한 부분으로 보기 위한 본질적 틀을 제공한다.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과 다른 여성을 위한 성적 즐거움을 정의하고, 추구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선택의 정도는 아마도 세계 역사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그것은 소수만을 위한 선택일 뿐이다.

모두가 일치하기를 기대했던 미국의 백인 페미니즘 운동에서조차, 성(sex)에서 경험하는 것은 공유된 자매애가 아니라 깊은 분리 —— 여성들이 성을 경험하는 방법, 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즐겁게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에서 나타나는 —— 이다(Vance 1984). 여성의 성적인 억제에서 행한 남성역할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였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취할 수 있거나 취해야만 하는 성적 해방의 형태 때문에 당황했다. 밴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1984 : 21).

> 정치적으로 적합한 성적 행동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니콜스(Alice Nichols)가 규범주의라고 불렀던 것, 즉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서 평등성, 자율성, 자기결정성 등과 같은 광범한 일반적 원칙들을 변형하려는 경향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에서 최근의 성(또한 침묵, 눈물, 고통, 배제)에 대한 논쟁

들은 페미니스트에게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던 삶의 형태나 복장, 개인적인 장식, 성의 실천, 삶의 질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규범주의의 편견을 많이 버렸다. 페미니스트들도 다른 여성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왔다.

여성의 성에 대한 지식과 남녀 성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여성에 대해 가부장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남성 과학자들에 의해 주로 구성되어왔기 때문에, 유아기의 경험이나 사회적 구조가 성인의 성적 기호나 환상, 실행과 맺는 정확한 관계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우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문화를 초월해 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성을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서, 성을 생물학과 밀접한 것으로 본다 해도, 개별적인 반항과 변화를 함께 가지고 있는 유아의 문화적 상태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페미니즘에는 아직도 성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없다. 성이 얼마나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성의 사회적 구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성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그러한 형태를 갖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존재한다면) 본질적인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움직이는지 등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다. 성적 소망은 생물학적 본질이 아니라 역사적 담론에서 구조화된 것이라는 푸코(Foucault 1979)의 주장은 페미니즘에 영향을 주었다. 권력과 지식은 성에서 함께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가 가진 문제는 여성이 성관계에서 왜 그렇게 일반적으로 권력을 상실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은 분리시키고,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는 성과 권력,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에 관심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성들의 분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 레즈비언과 이성애의 구분, 그리고 포르노그라피와 사도-마조히즘 레즈비언에서 나타나는 성적 소망과 자유가 그것이다. 후자에 대한 논의는 문화를 초월하는 일반화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러한 제한은 그들의 주장이 다른 곳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마다 조심스럽게 제한하고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

임신한 여성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낙태할 것인지 아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초기의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슬로건 중의 하나였다. 낙태는 감정적이고 분열이 심한 이슈라는 것이 빠르게 증명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은 낙태와 재생산에 대한 여성들의 통제권의 결핍을 보다 일반적으로 정치화시켰다. 그 성공의 정도는 달랐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낙태법의 자유화를 위한 투쟁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또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여성들로부터의 항의뿐만 아니라 남녀의 대립을 자극하기도 했다(Sykes 1984 ; Bryan et al. 1985).

> 낙태는 여성의 삶 속에서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여성으로서 우리 모두는 특히 우리가 아이를 원할 때,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공유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경우에서도 통제권의 결핍을 경험하며, 우리의 재생산에 대한 통제는 낙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NAC 1984 : 238).[25]

낙태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며, 그 권력이 어떻게 합법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라는 도덕적 문제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확한 시기(서구에서 그 시기는 1970년대 이래로 감소되어왔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우익의 공식견해는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우익의 캠페인은 낙태와 출산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를 무시한다. 낙태권리에 반대하는 우익여성들은 결과적으로 가족의 권력관계를 인식하지 않고 가족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다시 주장하게 된다(Campbell 1987).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모든 임신한 여성의 임무를 강조한다. 동시에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은 아이를 원하지 않은 어머니도 수유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불임여성에게 그 아기를 건네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아이를 원하지 않은 어머니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존재하지만, 생명에 대한 태아의 권리가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는 해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폐지를 향한 첫단계로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제한하려고 했던 영국의 국회의원 앨턴(David Alton)의 의회법안은 아이를 원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공식적으로 '사랑'을 재의했지만, 실제로 그 사랑이 무엇에 유용한지에 대해

25) 이러한 인용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국의 국가적 낙태운동(National Abortion Campaign)의 분열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 당시에 NAC는 낙태권리를 위한 단일한 이슈로 운동이 지속돼야 하지만, 분리된 재생산 권리운동 또한 더 광범위한 문제를 주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NAC 1984 : 236).

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낙태는 또한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와 책임,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인도적인 규정과 종교적 규정, 여성을 임신하게 한 성관계의 권력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기로 선택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낙태만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죄악일 수 있다(Rich 1980: 265ff).

로마 가톨릭의 낙태반대를 거부하려는 뉴웨이브 페미니즘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맥밀런(McMillan 1982)은 페미니스트들의 낙태요구는 동물적 본성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죽음을 바라는' 낙태는 성과 임신을 분리하려는 페미니즘의 시도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맥밀런의 관점에서 보면, 낙태에 대한 페미니즘의 대안은 피임(특히 빌링스 박사의 점액관찰 피임법)이라는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는 성관계를 제한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주의한 임신을 수용하는 것이다. 맥밀런은 남성은 성의 억제에 책임을 공유해야만 하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가 많은 여성들에게 긴급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의 절제는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조건이 열악한 여성과 유전적 기형을 가진 사람을 위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접근과 권력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금욕과 함께 남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진 여성을 위한 현실적, 정서적, 재정적인 지원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이다.

성과 재생산을 본성적인 불변의 것으로 취급한 맥밀런의 해결은 오늘날 많은 여성들의 삶의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문화 안에서 구성되기도 한다. 피임에 대한 지식과 자원이 존재하는 곳에서, 성과 재생산은 분리되어왔고, 여성들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재생산의 선택가능성을 알게 되었다.[26] 여성들은 잠재적인 선택을 인식하는 데 매우 불평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이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성과 재생산의 분리는 여성들에게 기회와 불이익 모두를 창출한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낙태, 유아살해, 양자, 국가양육 등과 반대되는 지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임과 낙태가 보다 직접적인 해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모성(motherhood)은 많은 여성들이 해야 하고 또 해왔던 것과는 양립불가능한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문제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어머니로 한정된 여성들을 위해 어떤 형태의 지지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여성들의 다양화된 요구와 이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요구가 아이들의 요구와 얼마나 갈등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결심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

서구의 무성했던 낙태찬성 캠페인은 또한 모성의 경험과 아이

26) 현대적인 피임방법 이전에, 여성들은 수세기에 걸쳐 그들의 출산력을 제한하는 다양한 문화적 수단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적인 피임방법보다는 개인적인 선택의 폭이 좁았다.

의 건강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의해서도 제한되어왔다. 어머니를 지지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은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낙태권리의 요구는 주로 강간이 성행하고, 양육비가 대단히 비싸고, 장애아동이 생존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생산력으로 여겨지지 않고, 양육을 공유할 수 있는 대가족 구조가 없는 사회에서 주로 나온다. 이런 사회에서, 모성은 가정으로의 물리적 고립, 독립심 상실, 남성의 필요에 대한 종속, 임금노동의 어려움, 생활수준의 하락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런 사회는 의료수준이 높고 유아 사망율이 낮은 사회이기도 하다.

많은 제3세계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요구는 또한 특히 강간을 당한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사회에서도 다른 여성들에게는 낮을 수도 있다. 낙태에 대한 요구로만 너무 단순화된 이러한 점은 또한 교육에 대한 태도의 변화, 아들과 딸의 결혼비용의 차이, 아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낙태찬성 캠페인은 주로 서구의 백인의 경험의 특수성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과 태아 생명권의 모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 캠페인은 또한 인종주의, 여아살해, 대량학살 등에 대한 여성의 경험에서의 차이도 드러냈다. 흑인 여성들은 낙태, 불임수술, 디포 프로베라(Depo-Provera)와 같은 안전하지 못한 피임수단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OWAAD 1981).

만약 '정확한' 페미니즘 관점이 단순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낙태요구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낙태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페미니즘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경우는 자신의 딸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인정하도록 강요받는 인도 여성들보다, 혹은 대량학살에 대한 집단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여성이나 토착민 여성들보다, 그들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투쟁하는 서구 여성들에게 더 강할 수 있다. 여성의 상황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변화할 수 있다. 농촌 여성이 땅에 대한 접근을 상실하거나 교육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가족이 농촌을 떠나 이주해야만 하는 곳에서, 자산으로 여겨졌던 아이는 갑자기 의존자로 바뀌었다. 또다시 임신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른 사회생활에서처럼 여기에서도, 행동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단적 이해간의 긴장이 남아 있다(Petchesky 1986).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태가 모든 여성에게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낙태에 대한 통제가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루이스(Lewis 1987)는 페체스키(Petchesky 1986)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영국이나 미국의 낙태법에 대한 공격과 미성년자의 피임, 학교의 성교육, 인공출산의 통제 등에 대한 투쟁에서 나타나는 연관관계를 지적한다. 루이스는 페체스키의 입장을 '낙태는 가족의 의미와 모성, 어린 여성의 성 등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이라고 요약한다(1987 : 10).

여성의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선 피임과 낙태에 관한 법이 위계질서적이고 남성지배적인 의학제도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낙태는 번거로운 진찰과정 때문에 임신초기의 진공흡입을 통한 제거가 아니라, 임신후기의 낙태에 이르게 된다.) 한 계급이나 인종이 이 제도를 지배하거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권력이 은닉되는 곳에서, 여러 집단의 여성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이나 의지에 반한 낙태강요에 대해 오히려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효과적인 피임은 분명 여성의 건강이나 자

원의 배치, 태아의 복지를 위해서 낙태보다는 더 바람직한 것이다. 피임방법이 부족하고, 값도 비싸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남성이나 종교에 의해 금지된다면, 낙태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낙태나 유아살해의 수단이 나타날 것이다.

낙태에 대한 통제가 남성의 손에 남아 있는 한, 단일한 페미니즘 전략은 어떤 예기치 못한 일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낙태에 대한 결정을 여성에게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확실히 여성들에게 보다 큰 자기결정권을 주는 것이지만, 여러 다른 계급이나 인종, 민족의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다른 생활영역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변혁 없이는, 낙태에 대한 요구가 통일된 페미니즘 전략이 될 수 없다.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일반적인 정치적 전략은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며, 다른 여성들에게 낙태를 거부할 힘을 주는 것이다.

레즈비어니즘과 이성애

공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레즈비언의 권리를 지지하는 페미니즘은 레즈비언들에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세계의 여러 곳에서, 레즈비언이 되는 것은 아직도 너무 위험하며, 혹은 그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레즈비어니즘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서구에서 노동계급의 레즈비언들은 자신의 성적 기호를 표현하는 데 중산계급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Dixon 1983 : 145).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성 개념은 17세기 이래 서구에서 전개되어왔던 레즈비어니즘과 이성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레즈비어니즘은 그 단위가 다소 모순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점에서는 문화나 인종, 계급의 경계를 넘어 여성을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Combahee River Collective 1983 ; Carmen et al. 1984 ; Te Awekotuku 1984 ; Zehra 1987). 동시에 이성애과 레즈비어니즘의 차이와 유사성의 본질도 분명하지 않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는 레즈비언으로서의 억압을 공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여성들의 성적 차이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성애자로 자기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제도화된 이성애에 반대하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효과가 비록 의도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리를 만들어왔다. 이것은 여전히 또다른 허위의식 중의 하나이거나, 혹은 여성의 성적 성향에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또다른 예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그 문제는 또한 변화된 사회에서 실현될 보다 적합한 이성애 관계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Tsoulis 1987).

정치적 레즈비언의 가능성(성적 성향에 대한 협소한 정의와 반대로,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과 함께 갖게 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을 통합하기 위한 잠재적 기반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이성애를 포기하고 남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라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는 자신을 이성애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그 결과 페미니즘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은 반드시 여성들의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남성과의 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관계 없이도 자신을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여성들을 방치하는 것이다. 만약 이성애를 여성의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규정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요구를 강요하는 가부장제 사회제도로 규정하면, 이성애의 여성은 사회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하고, 정치적 레즈비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레즈비어니즘은 보다 균형을 이룬 이성애 —— 일반적으로 정치적 레즈비언이 제안하지 않는 관점이다 —— 를 찬성하면서 점차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로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성애를 가부장제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비난한다면, 모든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용서하자고 호소하지 않는 이상, 남성과의 성관계의 즐거움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성적 실현이 갖는 분리주의는 다른 여성들의 독신주의가 갖는 분리일 수 있고, 약간의 호소력을 가진 정치적 기반일 수 있다.

성적 성향이나 정체성에 대한 설명에서 생물학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페미니즘에 이론적으로는 모순을, 정치적으로는 예민한 문제를 남겨놓는다.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레즈비언의 이해와 페미니즘 정치학의 관련이 연구되어왔지만, 왜 어떤 여성은 레즈비언이 되고 어떤 여성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페미니즘 정치학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페미니즘 사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나아가 어떤 여성들에게는 성적 정체성으로서의 레즈비어니즘 개념을, 혹은 모든 여성들에게 정치적 정체성으로서의 레즈비어니즘을 연결하게 되면 이 점이 더욱 모호하게 된다. 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관계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는 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 페미니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서구문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성의 범주를 더 많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몇몇 원인의 다양한 상호관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또한 여러 종류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실제를, 그리고 이것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성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그 복합성과 모순을 설명했다면, 서구의 동성애나 이성애, 양성애 범주보다 덜 엄격한 범주를 사용하는 성의 정체성과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페미니즘의 정치학은 성적 정체성이 어떻든지, 혹은 그 정체성이 어디에 도달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에게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본질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성적 구조를 획일적인 억압으로 규정하면서 혼란스럽게 된다.

현재 서구의 이성애 구조는 여성들에게 억압적이지만, 정치적 레즈비언이라는 대안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고 있다. 짐머만(Bonnie Zimmerman 1984 : 675-6)은 페미니즘 정치학으로서의 레즈비언 정치학이 가진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한다.

> 적절한 정치학은 공동체의 한 부분의 경험에서만 나올 수 없다……특히 유색인종 여성들은, 레즈비언 국가나 레즈비언 종족의 개념은 백인 여성의 꿈이며, 레즈비언 정치학은 다양성과 다층성에 근거해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의 선택이나 즐거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실천적인 페미니즘 정치학을 통한 비공식적인 논의는 많이 있었다(Abbott & Love 1972 ; LLOG 1984). 페미니스트들이 성의 정치적 차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정치전략 내부에 존재하는 결점에 비판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차이가 분리로 결과되면, 여성들은 성의 사회적 구조를 적절히 연구하지 못해 야기된 정치적 전략의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서로를 공격하게 된다.

정치적 레즈비언의 분리주의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해석에서, 소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성적 파트너인 남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점차로 고통스럽게 어머니를 억압하는 자신의 아들로부터도 자신을 분리해야만 한다고 제안한다(Goodenough & Dogsbody 1984). 이러한 운명론적인 주장은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을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해석한 논리적 결과이다. 그것은 남성억압으로부터의 분리를 모든 여성을 위한 정치적 해결로 인식하는 페미니즘 정치학의 혁명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은 성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의 결핍을 드러낸다(Ardill & O'Sullivan 1986 : 37).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아들과 대항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투쟁할 필요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어느 정도는 기꺼이 남성과의 억압적인 관계에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남성과의 분리를 거부하게 되면, 페미니즘은 어떻게 가부장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처치곤란한 문제를 안게 된다(Hamblin 1982). 개인적인 이성애 행동을 가부장적인 이성애 관계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Fiedman & Sarah 1982 : 214).

이성애적 성관계가 여성에 대한 남성권력의 행사나 남성폭력, 여성의 고통 등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성애는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억압의 사회적 근거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리고 성이 사회적

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이성애적 관계가 여성에 대한 남성권력의 표현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가정, 즉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남성이 지배해야만 한다는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분리주의는 가부장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는 정치적인 중요성을 갖지만, 그러나 페미니즘 전략은 모든 여성을 위한 완전한 해결로 분리주의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성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 발레스카(Valeska 1981 : 30)는 레즈비언 분리주의 이면에 있는 사고는 완벽한 변혁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분적인 억압이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분리주의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원인을 끝내버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한 것처럼, 페미니즘의 정치적 문제는 성관계가 다른 인간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성의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경제나 정치, 가족 등에 존재하는 남성의 권력이다. 가부장제 이념은 남성중심적인 성관계를 남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확장으로 정당화해준다. 이성애는 여성의 선택에 대한 남성의 강제와 여성의 소망에 대한 남성의 묵살 등을 모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지 남성의 침투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울타리와 성적 활동의 범위에 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상적'인 성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스콧(Sara Scott 1987)은 에이즈 공포로 인해 제공된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남녀의 성의 사회적 구조, 성에 대한 책임, 성의 현실 등에 대한 공적인 논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페미니스트들의 실패를 논평한다. 페미니스트들이 변화시킨

성의 권력관계는 여성들에게 성적 행위 없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성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인 분리에 접근하면서 나타나는 페미니즘 문제는 다소 신비화되어 있다. 레즈비언과 소위 성적인 일탈자로 불리는 사람에 대한 억압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뉴웨이브 페미니즘 연구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성적 차이에 대한 여성들의 논의는 심각한 페미니즘의 갈등에 이르게 된다. 이성애에 대한 레즈비언의 비판은 권력과 페미니즘의 인간본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열어놓았지만, 여성들은 성적 차이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채로 남는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파트너뿐만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 삼촌, 남자형제들, 아들, 조카, 사촌, 남자 이웃, 직장동료, 친구 등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는다. 나는 이것이 이상적인 관계라거나 평등한 관계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러한 관계는 모두 억압적일 수 있지만, 그 애정은 잠재적인 인간적 가치를 가진다.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의 근원과 남용은 관계의 단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레즈비어니즘은 페미니즘에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성애자이며, 그래서 남성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이것은 페미니즘 정치학에 지속적인 모순을 제기한다.

성적 자유 : 포르노그라피와 사도-마조히즘

포르노그라피는 페미니즘의 또다른 곤란한 영역이다. 페미니즘은 포르노그라피를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한다. 드워킨(Andrea Dworkin 1981 : 226)의

연구에서 예시된 입장은, 포르노그라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포르노 문학이나 영화, 비디오 등에 대한 남성의 소비와 관계되며,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과,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생생한 모습과 관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윌슨(Wilson 1983 : 166)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포르노그라피를 '상품화되고 물신화된 문화의 압력하에서 나타나는 남성 성의 분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여성의 공통된 억압의 가장 확실한 사례를 제공하는 남성폭력의 문제가 최근의 페미니즘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분리 중의 하나를 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서구사회에서 포르노그라피의 중요성은 페미니즘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통합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로, 여성들은 포르노그라피 산업에 모델, 배우, 스트리퍼, 호스테스, 매춘부 등으로 광범위하게 고용(혹은 강요)되고 있다. 이것은 그 산업에 대항한 페미니즘의 정치적 행동이 또한 노동하는 여성들과 대립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은 대체로 고도로 착취되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쉽다.

둘째로, 포르노그라피 산업과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여성들을 남성폭력의 수동적인 희생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다. 다른 하나는 행동의 원인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인데, 이것은 텔레비전의 폭력장면 시청 결과에 대한 논쟁과 비교할 만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을 허용하는 페미니스트는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뉴웨이브 페미니스트들은 남성폭력과 다른 사회적 요소의 인

과관계와,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를 구분한다. 이러한 주장은 포르노그라피로 정의될 수 있는 범위 때문에 복잡해진다.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완전히 에로틱한 이미지나 문학과, 그리고 성적으로 잔인하고, 남용되고 왜곡된 것으로 여성에 대해 완전히 폭력적인 이미지를 구별하려고 한다. 그 중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포르노그라피가 아니다.

셋째로, 포르노그라피에 대항한 실천적인 행동이 남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유도 효과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성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정치전략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것은 검열에 대한 주장이며, 어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이 행하고, 읽고, 보고, 들어야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1983년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에서, 포르노그라피 구역을 설정하는 법에 반대하려는 드워킨과 매키넌(Catherine MacKinnon)의 시도 결과, 현실로 나타났다(Kelly 1985). 드워킨이나 매키넌 그리고 그 지지자와 페미니즘 검열반대 대책위원회(FACT)와 같은 다른 집단들 사이에 불일치는 커져만 갔다. 드워킨과 매키넌은 포르노그라피가 실제로 여성에게 해를 입힌다고 믿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반면 FACT는 포르노그라피가 직접적으로 남성폭력을 유발시킨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반포르노그라피법에 반대한다(MacKinnon & Hunter 1985). 그들은 법이 여성의 성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Rubin 1984).

이러한 불일치는 바너드 대학 여성센터에서 1982년 조직된 회의에서 처음에 표출되었다(이 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성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책으로 출판되었다(Vance 1984)). 이 실례에서, '성의 정치학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회의는 급진적이고 포르노그라피에 반대하는 여성집단에 의해 실제로 반대되는데, 이들은 '반페미니즘 성'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근거를 반대한다(Vance 1984 : 451). 이 집단의 관점은 FACT의 구성원이자 참가자 중의 한 사람인 러빈(Gayle Rubin)에 의해 호되게 비난받았다. '반포르노그라피 운동과 그것의 구체화는 모든 페미니즘을 위해 말한다고 주장해왔다. 다행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해방은 페미니즘의 목표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목표가 될 것이다.' 이 회의의 절차와 갈등을 논평하면서 윌슨(Elizabeth Wilson 1986 : 205)은, 러빈은 사도-마조히스트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도-마조히스트는 반포르노그라피 운동가들과는 아주 다르게 포르노그라피를 찬성하는 입장을 갖는다. 반포르노그라피의 입장은 여성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성적 차이를 탐구하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하려 한다고 지적된다.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공식적인 차이는 페미니즘을 약화시킬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대중매체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성의 성적 자유권에 대한 인식과 성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차이를 지적한다. 또한 그들은 남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성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한다. 이러한 모순은 반포르노그라피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와 신우익 사이의 동맹에 이르게 된다. 프리드먼과 손(Freedman & Thorne 1984)은 『사인(*Sign*)』지에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면서, 성의 자유에 대한 논쟁

이면에 놓여 있는 성의 권력, 폭력, 즐거움, 환상 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한다.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 대부분은 남성 성의 폭력적인 특징에 대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여성 성의 폭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Bower 1986). 사도-마조히즘적인 표현의 자유가 소수의 여성에 의해 표현된 요구이며,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에 의해 충격받는다 해도, 이러한 성적 '왜곡'에 대한 몇몇 페미니스트의 방어는 페미니즘에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포르노그라피처럼 사도-마조히즘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성과 통합될 때 얼마나 많은 성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야기하며, 여성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킬 성의 자유의 정도에 대해 동의된 페미니즘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야기한다. 단지 페미니스트인 여성이 사도-마조히즘의 환상이나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사도-마조히즘의 폭력이 반드시 페미니즘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7]

레즈비언 사도-마조히즘은 페미니즘의 복잡한 문제이다. 성은 남녀관계의 근원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성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은 또한 여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도 문제이지만, 여성해방이 정확히 사도-마조히즘 실제의 변혁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분리되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페미니스트의 삶이 우리의 사고나 필요, 경험을 억누르고 있는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서구문화는 권력의 차이와 성폭력의

27) 사도-마조히즘에 찬성하는 주장은 칼리피아(Califia 1981)의 논의를 참고하자. 그 논쟁에 대한 논평은 프랑스에서 나온다(1984). 그러한 실천이 동의에 의해 합법화된다는 주장은 문제시된다. 이러한 근거에서 결혼 또한 대다수의 여성이 기꺼이 결혼하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로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합법화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여성들의 관계에서도 존속된다 하더라도 별로 놀랍지는 않다. 서구에서, 성은 성적 대상의 물신화와 비인간화를 포함하면서, 친밀성이나 즐거움보다는 적대감이나 지배와 통합되어가는데, 즉 모든 것이 에로틱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Hartsock 1983a : 156-7). 레즈비언 사도-마조히즘은 그것이 주인/노예, 나치/유태인 등과 같은 가부장적 모델로부터 나온 여성들의 권력관계를 에로틱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비판을 받아왔다(Bellos 1984 ; Egerton 1984).

다른 방향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사도-마조히즘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성들 안에 존재하는 폭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페미니즘은 마지못해 그렇게 해왔다.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남성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특히 자신을 향해, 아이들을 향해, 최수나 종속된 인종이나 하인과 같이 열등하다고 규정된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성들은 전쟁이나 게릴라 운동, 고문, 저항운동에 일조하며,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보워(Bower 1986 : 52)는 우리 안에 있는 폭력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클라인(Melanie Klein)의 연구를 인용한다.

> 성적 대상인 여성이 가지는 사디즘은 —— 그 자신의 권리에 존재하는 —— 매력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비매력적인 면을 확인하고 공격하는 것은 편찮다. 남성에 대한 우리의 공격성을 제안하면서, 우리는 순결의 환상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모순에 대

해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성을 모든 여성에게 강요하려는 편협된 시각은, 여성을 남성지배자에 대항한 연합된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해준다. 그러나 규범주의가 많은 다른 여성들의 해방투쟁을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성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논쟁이나 포용력, 자기 인식 등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허용가능한 성적 즐거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어디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만장일치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페미니즘은 성관계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직과 존경을 강화시켜야만 하고, 어떤 자유가 제한되어야만 하는지의 견해를 발전시켜야만 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타인에 대한 고려 없이 타인에게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페미니즘은 통합된 도덕적 코드를 만들어오지는 않았다. 여성들은 여성의 성 통제에 대한 가부장제 국가의 개입에 저항할 필요가 있지만, 성에 대해 동의된 페미니즘 정치학의 이념은 여성들의 차이와 직접적으로 부딪힌다.

사도-마조히즘이 한 요소가 되는 여성들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페미니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것으로 보인다. 레이몬드(Janice Raymond 1987 : 40)는 레즈비언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만약 레즈비어니즘에서 성이 제거되면, 레즈비어니즘의 의미는 내용이 없게 된다. 사도-마조히즘은 단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비판적인 페미니즘 의식을 가지고 또한 사도-마조히즘 실천을 찬성하면, 그들은 모순적인 관계에서 만나게 된다.

사도-마조히즘은 가부장적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모순관계의 가장 바깥의 주변에 놓여 있다. 권력이 존재하는 여성들

간의 성관계는 모순적이지만, 이성애적인 여성과 남성 간의 혹은 종교나 계급의 차이를 가진 여성들 사이의 관계는 보다 더 '정상적'이다. 여성의 성적 선호 때문에 여성을 공격하거나, 모든 성적 활동을 비슷한 여성들 간의 해방관계로 제한하는 것보다, 페미니즘은 권력관계와 성 권력투쟁을 구성하고 합법화하는 권력의 남용에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억압과 해방

이 장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장인 것 같다. 이 장에서 여성들의 차이가 분리되는 정확한 경계와 시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문화나 이데올로기, 성의 모순이 앞에서 살펴본 여성들 사이의 분리의 근원이라면, 여성의 억압경험이나 권력, 선택 등은 아주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모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소망, 개인의 자유, 성적 활동의 중요성 등은 남성의 이데올로기 지배와, 그리고 남성과 공유하고 있는 억압의 형태와 구분하기 어렵다. 페미니즘의 변혁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적 의식과 개념의 혁명을 요구한다. 우리가 소유물을 정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가에도 달려 있다.

여성억압에 대한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이론으로부터 집단적인 정치적 실천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여성들 간의 너무도 많은 분리에 부딪히므로, 변혁을 위한 정확한 정치적 전략이 나오기는 어렵다. 페미니즘은 초기 뉴웨이브 페미니즘의 보편적 일반화로

인해 이러한 곤경에 빠졌다. 만약 우리가 여성억압이 단지 보편적 현상의 한 부분이고 모순이기 때문에 보편적 일반화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핵심을 상실하는 것이며, 페미니즘 정치적 전략을 분명하게 구체화시킬 수 없다. 여성억압에 대한 이론인 뉴웨이브 페미니즘은 막다른 곳에 도달했다.

제 3 부

여성들 사이의 분리 : 막다른 곳을 넘어서